

정책연구(위탁) 2025-01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 정주학교를 중심으로

책임 연구원

김 연(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공동 연구원

김미진(대구대학교)

지혜영(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연구원)

안대현(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연구 보조원

이의연(고려대학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 정주학교를 중심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 요약

○ 연구 개요

-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40년 44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는 기존 정책은 지역 소멸 가속, 교육 질 저하, 업무 과중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2009~)으로 전환했으나 지속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학교 생태계 조성’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보다 거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모델을 제안함.
- 문헌연구,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워크숍 등의 과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학교 모델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초기 ‘정주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모델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중간보고 이후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과업이 변경되었음. 이에 2025년 경상북도에서 시범 운영중인 ‘정주학교’ 관련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음.

○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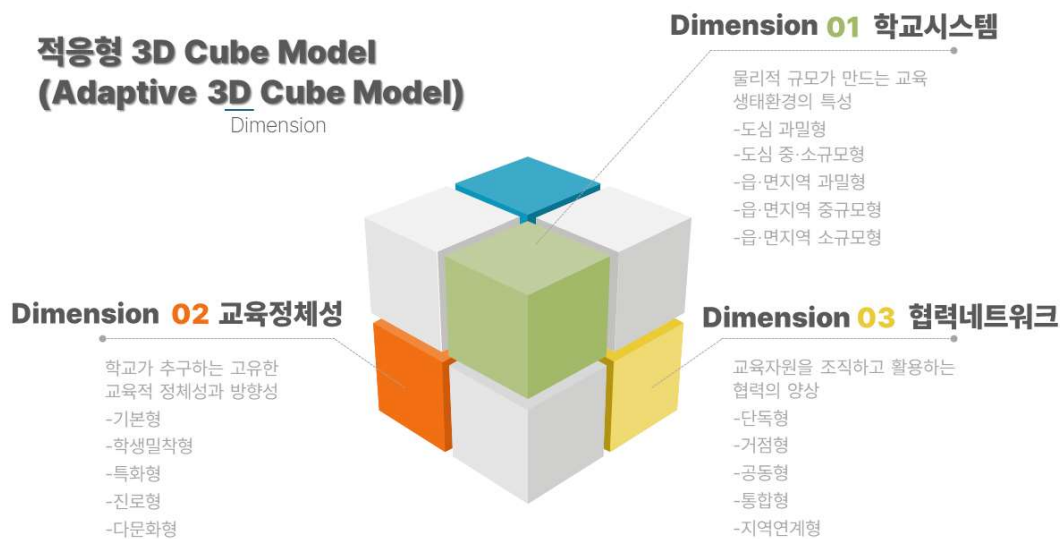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적 환경 분석(PESTEL), 경북의 지역 특성, 국내·외 정책 및 실천 사례, 미래 학교 모델을 분석하였음.
-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적 재편 요구, 경북처럼 인구소멸위험 높은 지역은 교육 불평등 심화 위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전략 필요, 지방정부 권한 조정, 안정적 재정 확보
- 경상북도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교육 인프라 재배치, 학교 운영 유연화, 다문화·소규모학교 맞춤 정책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 학교 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대응의 초점이 효율성 중심이 교육 질·개별화·지역 연계 중심으로 이동함, 학교 운영모델 및 행정·재정 시스템 등 구조적 개혁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해외 학교 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학교의 존폐가 아닌, 역할 확장과 협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초점, 학교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 허브 기능으로 확대
- 미래 학교 모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교과 통합, 핵심 프로젝트 중심 설계 등 교육과정 혁신이 동반됨. 개별 성장 계획 피드백 체제 구축, 교사 조직 유연화, 학제 유연화

○ 조사 결과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상북도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 320명, 유·초·중등학교 교사 294명,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1,204명이 참여함.
-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체계적 설계·운영 필요,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 구조 강화, 지역 내 진로·진학 지원 체계 확충, 학생이 지역에 정착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학령인구 감소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의 변화 인식 및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 학교 모델에 관하여 전문가 14인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 실시함.
-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기존 제도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 단기 과제 14개, 기술·운영 기반 강화가 전제가 되는 중기 과제 9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장기 과제 8개를 제안함.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안)

-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의 핵심 가치로 개별화,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용성으로 설정하고, 모듈 기반 ‘적응형 3D 큐브 모델’을 제안함.



- 적응형 3D 큐브 모델은 학교 시스템, 교육 정체성, 협력 네트워크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됨.
- 학교 시스템은 도심과밀형, 도심 중·소규모형, 읍·면지역 과밀형, 읍·면지역 중규모형, 읍·면지역 소규모형으로 구분함.
- 교육 정체성은 기본형, 학생 밀착형, 특화형, 진로형, 다문화형으로 구분함.
- 협력 네트워크는 단독형, 거점형, 공동형, 통합형, 지역연계형으로 구분함.

- 세 차원에서 학교에 적절한 유형을 각각 취하여 모듈을 설정하여 6가지 예시안을 제시함.

○ 지원 체제 및 단기·중기·장기 실행 방안

- 학교 모델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다음을 제안함: 재정 지원 및 집행 간소화, 교사 등 인력 지원 및 교원 자격 유연화, 지자체 및 지역의 기관들과 MOU를 통한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색 반영,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주 및 정착 지원 확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의 개별맞춤형 학습 지원.
- 학교 모델 실행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안함.
- 학교 모델 단기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최적의 학교모델 결정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및 배포, 초·중등 연계 지역탐구 교과(학교자율시간) 개발 및 운영 지원, 학교모델 정착 및 중·장기 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단 구축, 온라인학교 고도화 연구, 각종 조례 및 규정의 정비
- 학교 모델 중기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AI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교육과정 개발, 방학 중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활동의 인정
- 학교 모델 장기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교원 자격 유연화, 현 1년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추어 2~3년 단위로 변경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적 환경 분석	3
나.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외 교육정책 및 실천 사례	3
다.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 개발	4
라. 새로운 학교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지원	4
3. 연구의 방법	4
가. 문헌 연구	4
나. 설문조사	4
다. 델파이 조사	5
라. 연구진 회의 및 워크숍	5
4. 연구의 절차	6
II. 이론적 배경	7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적 환경 분석	7
가. 정치적(Political) 요인	9
나. 경제적(Economical) 요인	11
다. 사회적(Social) 요인	16
라.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	22
마.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	25
바. 법적(Legal) 요인	27
사. 소결	29
2. 초·중·고 학령인구 관련 경상북도 지역 특성	32
가. 인구변화 양상	32
나. 초·중등학교 현황	36
다. 이주배경학생 현황	41
라. 소결	42
3.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 학교 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43
가. 선행연구	43
나. 국내 학교 교육 정책	52
다. 국내 실천 사례	73

라. 소결	82
4. 학령인구감소 대응 국외 학교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83
가. 선행연구	83
나. 국외 학교 교육 정책	85
다. 국외 학교교육 실천 사례	93
라. 소결	96
5. 미래 학교 모델 탐색	97
가. 미래 사회변화와 미래 학교의 특징	97
나. 미래 학교 모델 운영 사례	100
다. 소결	107
Ⅲ. 조사 결과	110
1. 설문 조사	110
가. 설문 조사 개요	110
나. 설문 조사 결과	113
다. 소결	136
2. 델파이 조사 결과	138
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및 절차	138
나. 1차 델파이 결과	140
다. 2차 델파이 결과	146
라. 3차 델파이 결과	158
마. 소결	160
Ⅳ.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안)	166
1.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안)	166
2. 새로운 학교 모델의 적용 예시	173
가. 2-2-5 모듈	173
나. 5-5-1 모듈	178
다. 5-4-2 모듈	183
라. 5-3-2 모듈	188
마. 1-4-5 모듈	193
바. 5-3-4 모듈	199
Ⅴ. 정책 제언	202
1. 학교 모델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202

가. 재정 지원 및 집행 간소화	202
나. 교사 등 인력 지원 및 교원 자격 유연화	203
다. 지자체 및 지역의 기관들과 MOU를 통한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색 반영 ...	204
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주 및 정착 지원 확대	204
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의 개별맞춤형 학습 지원	205
2. 학교 모델 실행 방안	206
가. 단기 실행 방안	206
나. 중기 실행 방안	210
다. 장기 실행 방안	211
참고문헌	216
[부록 1] 설문지	224
[부록 2] 델파이조사 설문지	239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258

〈표 차례〉

〈표 II-1〉 거시 환경 분석(PESTEL)의 세부 영역	8
〈표 II-2〉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부 권고기준	9
〈표 II-3〉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10
〈표 II-4〉 경상북도 출생아 수 변화	34
〈표 II-5〉 초·중등 통계(2000~2024)	37
〈표 II-6〉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45
〈표 II-7〉 적정학교 규모 연구 및 정책	51
〈표 II-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기별 교육 관련 정책 주요 내용	52
〈표 II-9〉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변천과정	56
〈표 II-10〉 2023~2027 공립 교원 신규 채용 규모(안)	58
〈표 II-11〉 소규모학교 관련 지역별 주요 정책 정리	70
〈표 II-12〉 국내 학교 실천 사례	80
〈표 II-13〉 해외 학교교육 정책	91
〈표 II-14〉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 학교 교육의 가치	98
〈표 II-15〉 사례 학교별 특징 정리	107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110
〈표 III-2〉 참여자 정보(학생)	111
〈표 III-3〉 참여자 정보(학부모)	112
〈표 III-4〉 참여자 정보(교사)	113
〈표 III-5〉 집단별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 영역	118
〈표 III-6〉 델파이 참여자 정보	138
〈표 III-7〉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139
〈표 III-8〉 정책/거버넌스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140
〈표 III-9〉 학교 유형 및 학제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141
〈표 III-10〉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143
〈표 III-11〉 기타 사항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144
〈표 III-12〉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중요한 사회변화	146
〈표 III-13〉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교육과정의 적절성	147
〈표 III-14〉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	147
〈표 III-15〉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148
〈표 III-16〉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148
〈표 III-17〉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149
〈표 III-18〉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해 중요한 조건	150
〈표 III-19〉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평가 방법의 적절성	150

〈표 Ⅲ-20〉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	151
〈표 Ⅲ-21〉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 혁신의 선행과제	152
〈표 Ⅲ-22〉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153
〈표 Ⅲ-23〉 교육방법 및 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154
〈표 Ⅲ-24〉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155
〈표 Ⅲ-25〉 교육 재정 및 지원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157
〈표 Ⅲ-26〉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158
〈표 Ⅲ-27〉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	161
〈표 Ⅳ-1〉 영역 1: 학교 시스템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169
〈표 Ⅳ-2〉 영역 2: 교육 정체성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169
〈표 Ⅳ-3〉 영역 3: 협력 네트워크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171
〈표 Ⅳ-4〉 2-2-5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177
〈표 Ⅳ-5〉 5-5-1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182
〈표 Ⅳ-6〉 영덕군 지역기반 탐구학습 예시(영덕문화관광재단 참고)	186
〈표 Ⅳ-7〉 5-4-2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187
〈표 Ⅳ-8〉 5-3-2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192
〈표 Ⅳ-9〉 1-4-5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198
〈표 Ⅳ-10〉 5-3-4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201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방법	6
[그림 II-1] PESTEL 분석	7
[그림 II-2] 국내 및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규모	13
[그림 II-3] (좌) 경상북도 경제 구조, (우) 15세 이상 취업자의 경제활동 분야	15
[그림 II-4] 경상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단위: 만원)	15
[그림 II-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16
[그림 II-6] 학령인구 연령구조, 2022~2072년	17
[그림 II-7]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2	17
[그림 II-8]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18
[그림 II-9]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19
[그림 II-10]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22년 기준)	19
[그림 II-11] 경상북도 연도별 세대 수	21
[그림 II-12] 경상북도 외국인 현황(2023년)	21
[그림 II-13]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24
[그림 II-14]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추이(2020~2023)	26
[그림 II-15] 전국 장래 인구 추계(중위 추계)(단위: 명)	32
[그림 II-16] 경상북도 유소년(0~14세) 추계 인구(1970-2050)	33
[그림 II-17] 전국 유소년(0~14세) 추계 인구 증감률(2020-2050)	33
[그림 II-18] 경상북도 시군 합계출산율	35
[그림 II-19]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35
[그림 II-20] 전국 대비 경상북도 초·중등 통계 변동	38
[그림 II-21] 경상북도 학급당 학생 수 변화	38
[그림 II-22] 경상북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39
[그림 II-23] 경상북도 시군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	40
[그림 II-24] 경상북도 시군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41
[그림 II-25] 경상북도 이주배경학생 현황	42
[그림 II-26] 경상북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비율	42
[그림 II-27] 경상북도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정 현황	64
[그림 II-28] 미래 학교 가치의 틀	98
[그림 II-29] 마이크로소프트 미래 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102
[그림 II-30] Quest to Learn 학교의 통합 교과 영역	105
[그림 III-1]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학생)	117
[그림 III-2]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학부모)	117
[그림 III-3]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교사)	118

[그림 Ⅲ-4]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의 주요한 역할	121
[그림 Ⅲ-5]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122
[그림 Ⅲ-6]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사항	123
[그림 Ⅲ-7] 정주학교 근무 시 인센티브	124
[그림 Ⅲ-8]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의사 여부: 학생 응답	124
[그림 Ⅲ-9]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이유: 학생 응답	125
[그림 Ⅲ-10]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생 응답	126
[그림 Ⅲ-11]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의사 여부: 학생 응답	127
[그림 Ⅲ-12]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이유: 학생 응답	128
[그림 Ⅲ-13]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생 응답	128
[그림 Ⅲ-14]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의사 여부: 학부모 응답	129
[그림 Ⅲ-15]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이유: 학부모 응답	130
[그림 Ⅲ-16]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부모 응답	131
[그림 Ⅲ-17]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의사 여부: 학부모 응답	131
[그림 Ⅲ-18]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이유: 학부모 응답	132
[그림 Ⅲ-19]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부모 응답	133
[그림 Ⅲ-20] 델파이 조사 단계	139
[그림 IV-1]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모델(안)	168
[그림 IV-2] 적응형 3D 큐브 모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172
[그림 IV-3] 경산시 구도심 지도	174
[그림 IV-4] 상주시 학교 위치	179
[그림 IV-5] 영덕군 학교 분포	185
[그림 IV-6] 의성군 학교 분포	190
[그림 IV-7] 경주정보고 인근 지도	194
[그림 IV-8] 경주정보고 인근 대학의 연계가능 학과	195
[그림 IV-9] 경주시 문화재 관련 기관	197
[그림 IV-10] 경주시 관광 관련 사업체	197
[그림 IV-11] 영천시 신녕면 학교	20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통계청(2024)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4년 기준 81억 6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 인구는 2024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2년 3천 6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2040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2.5.26., p.7). 학령인구 또한 2020년 789만 명에서 2040년에는 447만 명 수준으로 342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6-11세) 인구는 2020년 273만 명에서 2040년 181만 명으로, 중학교(12-14세) 인구는 동기간 136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고등학교(15-17세) 인구는 139만 명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21.12.9., pp.3-4, 14).

인구의 양적 감소도 문제지만 지역별 불균형 및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하혜영, 김예성, 2021),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허문구 외, 2022). 경북지역의 경우 2023년 이후 초등학생의 감소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에서 학생 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대략 40%를 차지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김현미 외, 2022). 2022년 우리나라 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은 11.5%,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7.5%이나(통계청, 2022.9.5.), 2040년에는 유소년인구 비율이 8.8%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34.4%로 증가함으로써 고령인구 구성비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1.12.9.). 늘어나는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비율 또한 인구변화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및 인구구조의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비단 일부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제도개선 과제 중 ‘인구감소 대응(23.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했지만,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급감하는 인구감소 현상을 사회 구조적

으로 대응하지 않고, 출산율을 신장시키는 단기목표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혜진, 2024).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정책은 교원수급 및 교원양성제도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및 법적 기반의 마련에 집중되어 왔다(김현미 외, 2022). 특히 1990년대 이후 농산어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논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었고, 2009년부터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으로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소멸의 가속화, 순회교사 및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 시설 유지에 따른 경상비용의 과다 및 교사 1인당 업무의 과중 등의 문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양희준 외(2018)는 지역에 따라 학생 수 감소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촌형 교육과정 운영, 체험학습 기회의 확대 등 7가지 세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권순형 외(2021)는 소규모 학교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뒤 공동교육과정, 원격합동수업지원센터 및 학교지원센터 설립, 지역 단위 트랙 임용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혜진(2024)은 인구감소, 지역 불균형 및 인구구성비 변화에 따른 총체적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제도의 제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의제와 구체적 방향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정책 혹은 연구의 방향은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문제의 단기적, 분절적, 직접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혜진(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편적 제도의 제안이 아닌 종합적 의제가 필요하다. 돌봄과 교육,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취업과 재교육,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등 교육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층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 통폐합 정책, 적정 규모, 작은 학교과 같은 학교 재구조화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소극적 정책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정책은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경북의 경우, 학령 연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9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경상북도교육통계서비스, 2025).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경북에서는 학령인구감소대응단, 통합운영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실시 등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 2025). 이러한 교육적 노력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안할 필요가 있으며,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 전략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모색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학교모형을 구안하고, 실천적 운영 방안 탐색을 목적¹⁾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교육이 처한 거시적 환경은 어떠한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교육정책 및 교육 실천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가? 또한 미래교육에 있어 요구되는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교육과 관련된 교사·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어떠하며, 요구는 무엇인가?

넷째, 학령기 감소 시대에 적합한 학교 모델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섯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체제의 모습은 어떠하며, 도입 시기별 구체적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내용

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적 환경 분석

- PESTEL 분석을 통한 거시환경분석
- 초·중·고 학령인구 관련 경상북도 지역 특성 탐색

※ PESTEL 분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법적 차원의 거시 환경분석

나.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외 교육정책 및 실천 사례

- 학령인구감소 대응 국내·외 학교교육 정책 분석
- 학령인구감소 대응 국내·외 학교교육 실천사례 조사
- 미래학교의 역할 관련 국내외 연구 분석

1) 본 연구는 최초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정주학교를 중심으로”로 시작되었다. ‘정주학교’는 경북교육청에서 2025년 시범운영하고 있는 모델로서, 이 모델(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를 추진하면서(문헌조사와 설문조사, 1차 델파이 조사 이후) 연구진과 기관이 협의를 거쳐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로 변경하게 되었다. 보고서의 제목은 최초 과제명인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정주학교를 중심으로”이나 보고서의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에 맞춰져 있음을 밝힌다.

다.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 개발

- 학교교육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만족도와 요구
- 새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 구안
-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의 구체적 사례

라. 새로운 학교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지원

- 새로운 학교 모델 정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 새로운 학교 모델 정착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운영 방안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연구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교육과 관련된 거시환경을 분석하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외 학교교육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등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문건 및 보도자료를 살펴보았고, 시·도교육청 및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통계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에서 관련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RISS 등의 학술 사이트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 학교의 역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구체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고자 교육부 및 지자체의 보도자료, 학술자료,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고, 구체적 내용은 해당 기관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나.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었다. 조사 참여자는 총 1,818명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학생(320명), 교사(294명), 학부모(935명)를 주

요 대상자로 하였으며, 정주 여건 등의 문항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인 대구광역시 지역의 학부모(269명)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학교의 역할 및 학교 혁신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지역 정주에 있어 교육의 중요도 및 고려사항, 찾아가 정주하는 학교를 위한 요구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다. 델파이 조사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적합한 학교 모델을 구안하기 위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3회 실시하였다. 1차는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 2차는 7월 19일부터 25일, 3차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 관련 정책 연구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력이 있는 14명(교육전문가 5명, 학교 관리자 5명, 교육전문직 4명)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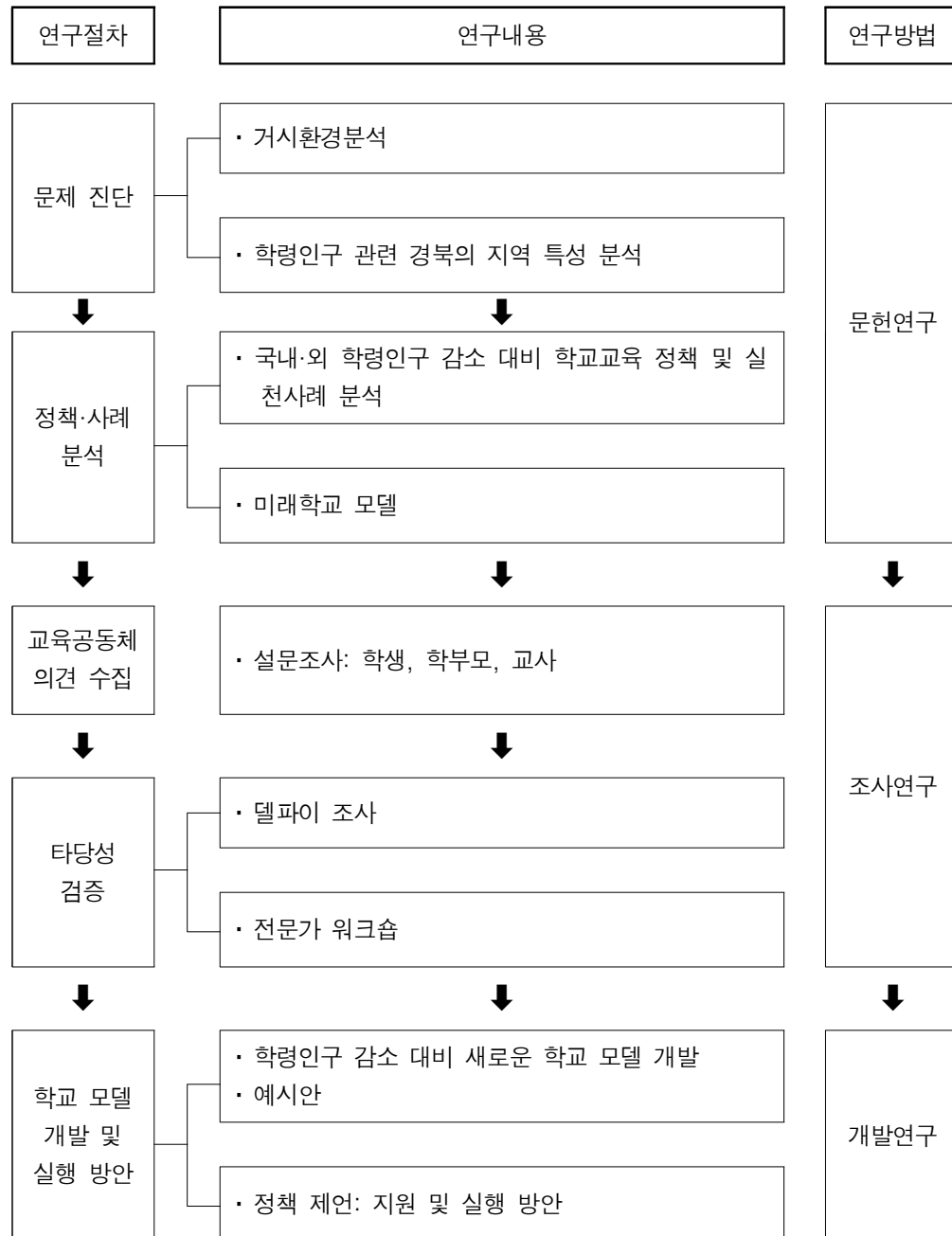
조사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 및 학교 유형, 학교 교육활동, 교육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조사와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모델 및 단계별 적용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라. 연구진 회의 및 워크숍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진 회의를 실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대 적합한 학교 모델 구안 및 실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총 2회 상·하반기 워크숍(5월, 8월)을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모델 구안에 필요한 이론적 틀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주요 변수와 분석 틀을 확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실시된 워크숍에서는 예비적으로 구안된 학교 모델과 모듈을 구성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모델의 구성요소인 경상북도 지역의 특성, 학교 규모 및 특성, 운영 체제, 지역 연계 방안 등과 모듈의 적용 가능성, 구현 조건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현장 적용 시 예상되는 제약 요인과 기대 효과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구의 절차



[그림 I -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거시적 환경 분석

일반적으로 거시환경분석은 산업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환경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STEEP 분석과 PEST 분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 둘을 포괄하는 PESTEL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STEEP 분석은 1960년대 Johnson Research Associate(JRA)가 개발한 개념으로 환경 스캐닝 요인을 파악하는 메가 트렌드 분석방법(Denis, 2002)이자 일반 환경을 동질적이고 관리 가능한 하위 범주로 구분함으로써 특히 특정 대상 또는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에서 거시환경을 분석(Fleshier & Bensoussan, 2002)하는 방법이다. STEEP는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 Economic(경제), Ecological(환경), Political(정치)로 조합된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STEEP 분석은 정보 수집, 요인 분석, 영향 평가,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전략 수립 및 조정의 단계를 따른다. STEEP에 따른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정책 혹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분석할 수 있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실천 전략 수립 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래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STEEP 분석과 유사한 분석으로 PEST 분석이 있다. 이는 Political(정치), Economic(경제),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의 앞글자를 딴 조합어이며, 분석 영역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분석 절차 등은 STEEP와 유사하다.



[그림 Ⅱ-1] PESTEL 분석

최근 수행되고 있는 PESTEL은 외부 환경을 평가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Political(정치), Economic(경제), Social(사회), Technological(기술), Environmental(환경) 이외에 Legal(법)의 영역이 추가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수립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대적·지역적·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PEST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요인(Political)은 정부 정책, 정치적 안정성, 규제 환경 등을 포함하며, 정부정책과 규제, 정부의 산업 지원, 국제 관계 등을 살펴본다. 경제적 요인(Economic)은 성장률, 실업률,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활동으로, 주로 GDP 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금융 환경, 환율, 실업률, 소득 수준, 경기 순환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사회적 요인(Social)은 인투통계학적 변화, 문화적 트렌드, 소비자 행동 및 선호도 등 사회적 측면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 밖에도 교육 수준, 건강과 웰빙, 사회적 이동성 등이 해당된다.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은 신기술 개발, 혁신, 자동화 등 기술적 측면의 변화를 포함하며, 기술 발전 속도, R&D 투자, 자동화, 디지털 전환, 기술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은 기후 변화, 환경 규제, 자원 가용성 등 환경과 관련된 측면을 의미하며, 지속가능성, 운영 비용, 사회적 책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법적 요인(Legal)은 노동법, 경쟁법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아닌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맞게 학령인구 감소, 교육, 학교 교육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PESTEL 분석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II-1> 거시 환경 분석(PESTEL)의 세부 영역

PESTEL 분석 영역	분석 내용
정치적 요인(Political)	학교 재배치, 교원수급계획, 지방교육자치 강화
경제적 요인(Economic)	교육비용 구조 변화, 신산업 인재 수요 등
사회적 요인(Social)	인구구조 변화,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가치 변화 등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AI 디지털 교육 혁신, 원격교육 인프라, 디지털 격차 등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기후변화 대응 교육, 친환경 교육환경, 지속가능발전교육
법적 요인(Legal)	교육법령 변화, 디지털 교육 법적 기반 등

가. 정치적(Political) 요인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대체 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 운영, 분교장 개편 등 다양한 학교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982년 시작된 학교 간 통폐합 정책은 최근 소규모 학교 육성·지원 정책(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5년 교육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범위와 권고기준(표 참조)을 발표하였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참고하여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4년) 전국 72개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되었으며, 2024년 4월 기준 서울지역에만 169개교가 소규모학교로 분류되었다.

<표 II-2>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부 권고기준

구분	종전	개선('16년 이후)	
면, 도서, 벽지 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 출처: 교육부(2015)

적정규모에 대한 교육부 기준을 참조하여 시·도교육청에 따라 소규모학교 기준을 수립하므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소규모학교 기준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로 2024년 기준 초등학교는 69개교(11.4%), 중학교 74개교(19.1%), 고등학교 26개교(8.2%) 수준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이며, 2024년 기준 416개교(전체 856개교 중 48.5%)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59.3%가 소규모학교에 해당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학교 기준도 60명이며, 2025년 기준 전체의 49.8%에 해당하는 254개교에 이른다.

2) 교원 수급 계획의 변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2023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동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한 반면 발표된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이외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환경의 고려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예, 정보교사 등)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3>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학교급	학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초등	학생 수(천 명)	2,539	2,423	2,268	2,131	1,976
	신규채용 교원 수	3,561	3,200~2,900명 내외		2,900~2,6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4.4명)	15.4	14.8	13.9	13.2	12.4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20.3명)	21.1	20.0	18.6	17.3	15.9
중등	학생 수(천 명)	1,857	1,880	1,908	1,868	1,841
	신규채용 교원 수	4,898	4,500~4,000명 내외		4,000~3,5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3.6명)	11.8	12.1	12.4	12.3	12.3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중학교) 평균 22.6명)	25.0	25.2	25.5	24.8	24.4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4.23.)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3)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책

정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9월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의 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다(교육부, 2024). 구체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이외 ‘지원’기능을 추가하였고,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와 센터 수를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하였다. 이는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한 조치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대학 정책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4) 경상북도 지역의 정치적 요인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멸위험지역 비율을 보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예산 배분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방자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용에서 독립성이 제한적이어서 경상북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거 주기에 따라 교육감이나 지방정부 수장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하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이나 이주배경학생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같이 장기적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발적 성과 위주로 변질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소멸위험지역이 대다수인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특례 제도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교육특구 지정, 농산어촌 유학제 등이 제도화되어야만 인구감소 속에서도 교육 기회의 질적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2025년 8월 경상북도 1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구 운영 지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없이는 어렵다. 이에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 등에 있어 정치적 리더십과 거버넌스 등이 향후 교육환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나. 경제적(Economical) 요인

1) 교육비용 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

2025년 기준 한국의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6%로 OECD 평균 4.7%를 상회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24.9% 증가한 19,805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초·중등단계 지출이 각각 30% 이상 증가²⁾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는 14,695 달러로 OECD 평균(21,444달

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연세수로 2022년 교육교부금³⁾이 일시 증가하였으며, 고등교육의 경우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법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고등교육에 대한 추가 지원은 2025년 기준 약 16조 규모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한경 뉴스, 2025.09.09.). 일시적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되는 현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 재정은 악화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은 개선되는 상반된 현상⁴⁾이 지속되고 있고, 초중등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고등교육 지출은 하위권으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 과대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2) 에듀테크 시장 성장

학령인구 감소와 개인맞춤형 교육 수요 증가로 인해 에듀테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도입⁵⁾을 들 수 있다. 교육부가 추산하고 있는 2024년 AIDT 개발 비용은 약 1조 2,797억 원이며, 2029년까지 약 6조 9,13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SBS 뉴스, 2024.07.22). 또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에 따라 총 구독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추계에 따라 4년간 총 구독료는 최소 1조 9,252억 원에서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2) 초등 단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9,749달러, 중등 단계는 25,267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8%, 30.9% 증가하였다.
- 3) 교육교부금은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에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육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제외)로 재원을 마련한다.
- 4) 보고서는 코로나 19 대응 및 인구고령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 재정여력은 약화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자체 부채는 2016년 20.0조 원에서 2020년 6.6조 원으로 개선된 반면 국가채무는 2016년 626.9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965.3조 원, 2022년 1,068.3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하였다.
- 5) 2023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전면도입에서 한 발 물러나 '교육자료'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그림 Ⅱ-2] 국내 및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규모

※ 출처: 국내-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무역 연구원, ‘에듀테크 시장 현황 및 시사점’, 글로벌-Holon IQ, 이코노믹 리뷰(2020.05.20.) ‘한국형 에듀테크, 어디까지 왔나’ 에서 인용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Technavi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15.9%의 성장률을 보이며, 1,70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대학신문 뉴스, 2025). 이러한 성장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자책의 활용,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 등이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재미와 배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에듀테인먼트, 마이크로러닝 등이 에듀테크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킹스리서치(Kings Research)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규모를 2023년 1, 521억 달러에서 2024년 1,727억 1천만 달러로 추정하였고, 2031년까지 연평균 13.65%로 성장하여 2031년에는 4,229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킹스리서치, 2023).

3)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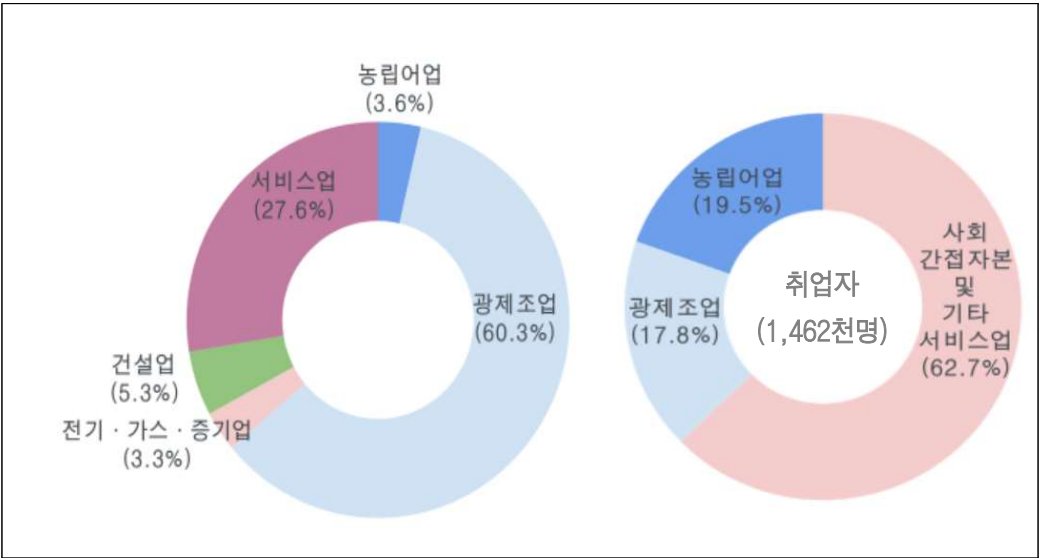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신산업 분야의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AI, 빅데이터, IoT,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디지털 전환 등 산업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전문대학의 신산업 분야(항공·우주, 미래 이동수단, 생명건강,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인재양성을 지원하였다. 2024년부터 2주기 사업(2026년까지)이 시작되었고,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17개 전문대학에 1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

다(교육부 보도자료, 2024). 또한 2022년 교육부는 타 부처와 협력해 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헤럴드경제 뉴스, 2022). 7개 부처의 14개 분야(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자원개발, 수소 연료전지, 온실가스 감축,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AI 반도체 분야, 의료인공지능, 그린 리모델링, 정보보안 등) 4,300여 명의 인재 양성을 위해 약 420억 원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지난 2022년 정부는 2026년까지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AI·디지털 인재 양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 인재 양성은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은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사업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기능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도내 대학 및 지역 기업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 경상북도 지역의 경제적 요인

경상북도의 경제 기반은 여전히 제조업과 농업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첨단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은 작다. 2024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19~39세 청년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2.2%로, 전국 평균(26.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2,303천명) 중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1,462천명)는 63.5%이다. 취업자의 62.7%는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19.5%는 농업·임업·어업에, 17.8%는 광업·제조업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부족과 직결되며,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II-3] (좌) 경상북도 경제 구조, (우) 15세 이상 취업자의 경제활동 분야

※ 출처: 경상북도 공동데이터&교육통계(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

또한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633만원으로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구미, 성주, 고령, 울릉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5,000만 원 이하이다(경상북도, 2025).



[그림 II-4] 경상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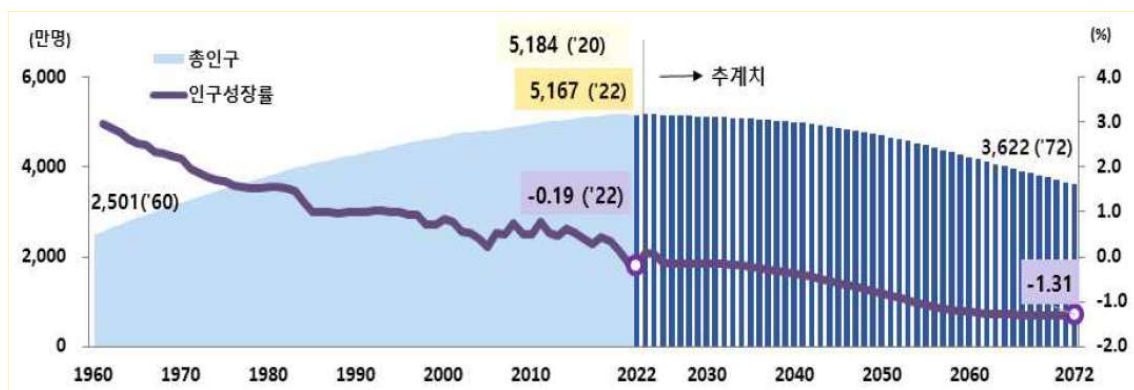
제조업(구미, 포항, 경주 등)과 서비스업(울릉, 안동 등) 비중이 높은 시군이 공존하며, 지역별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교육재정 확보의 제약으로 작용하며, 교육투자 여력이 부족하므로, 신기술 기반 학습환경 구축이나 학생 지원 확대가 어렵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한다. 이에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화학교, 산학협력 교육모델 개발, 직업계고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재정적·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사회적(Social) 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화되었다.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그림 Ⅱ-5]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72년)

※ 출처: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p.47.

또한, 2020년 789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447만 명 수준으로 약 342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 이는 현재 대비 43.3%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시스템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림 Ⅱ-7]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2

[그림 Ⅱ-6] 학령인구 연령구조, 2022~2072년

※ 출처: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pp.47~48.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1.1%→45.8%)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7.4%→47.7%)하여,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족구조의 변화와 교육 수요

가족구조의 변화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는 개별화된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1,268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 5천 가구로 48.2%에 해당한다. 2015년 44.2%에서 2020년 45.0로 잠시 줄었다가 2021년 45.9%, 2022년 46.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뉴스1 뉴스, 2023.0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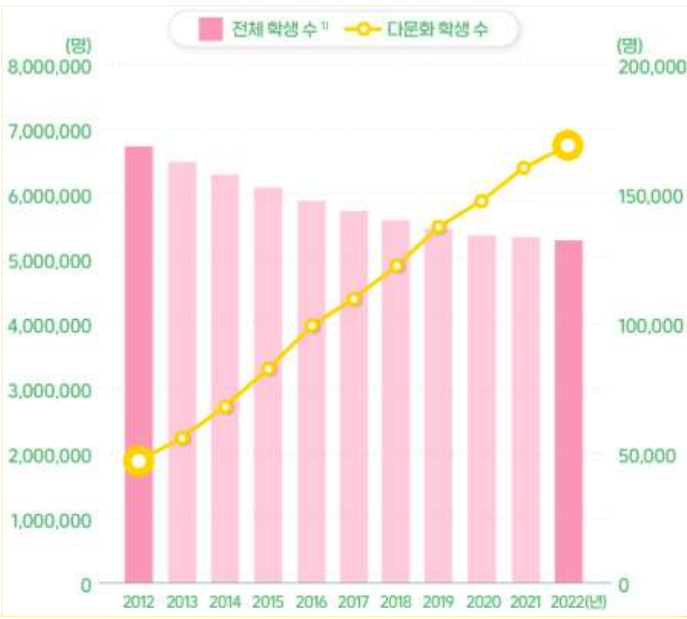


[그림 Ⅱ-8] 맞벌이 가구 비율 추이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뉴스 1(2023.09.06.)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24년부터 초등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현재 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해소를 위해 공간·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2023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이상의 학교로 확대 운영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05.16.)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19만 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만 2,636명(7.0%)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20만 2,208명으로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용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Ⅱ-9]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공식블로그 (2024.02.01.) ‘다문화학생 현황’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그림 7 참조)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8 참조) 학생 수로 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 수가 44,152명으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중은 전남 지역(5.68%)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Ⅱ-10] 시도별 다문화학생 현황(2022년 기준)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공식블로그 (2024.02.01.) ‘다문화학생 현황’

3) 사회적 가치 전환

개인화와 다양성 중시 경향이 강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획일적인 교육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장애학생 등에 대한 포용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습자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사회성 결핍과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중용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4) 경상북도 지역의 사회적 요인

경상북도 전체 세대수는 2019년 1,228천 세대에서 2023년 1,282천 세대로 소폭 증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시 지역은 같은 기간 955천 세대에서 1,015천 세대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세대수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군 지역은 2019년 272천 세대에서 2022년 280천 세대로 소폭 늘었으나, 2023년에는 267천 세대로 감소하며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상북도 내 세대 증가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 지역은 인구와 세대가 빠져나가며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특히 2023년 군 지역 세대수의 급감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도시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상북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후 경상북도의 인구·정주 정책은 군 단위 농산어촌 지역,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지역의 세대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 여건 개선, 지역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도시 이동과 농촌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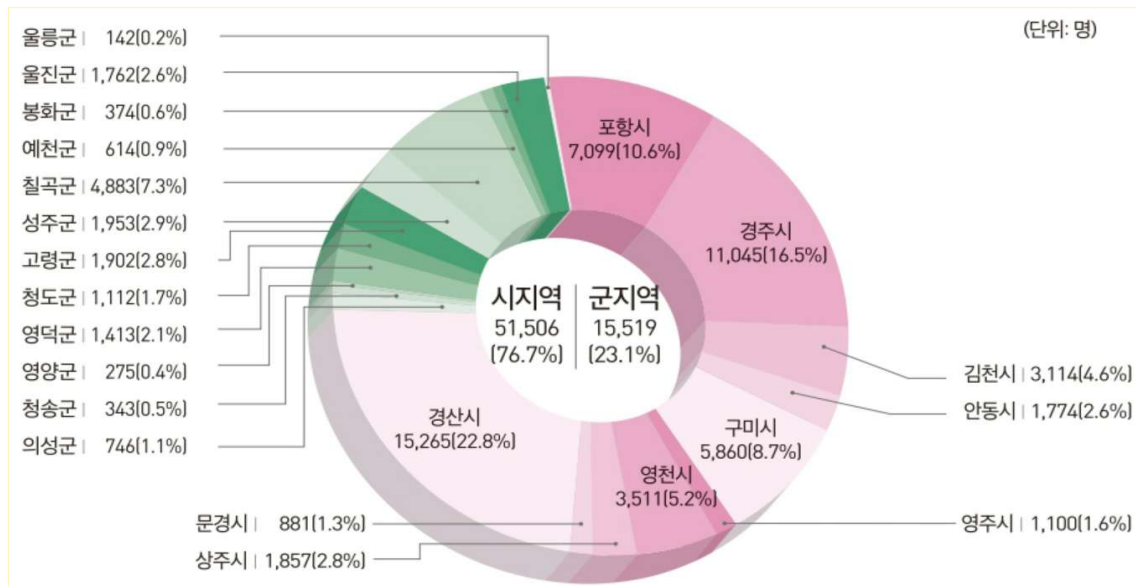


[그림 Ⅱ-11] 경상북도 연도별 세대 수

※ 출처: 경상북도 공동데이터&교육통계(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

경상북도의 학령인구 감소도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0~14세 인구 감소율이 53%로 하락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는 초등학교 수 급감을 초래하여 농산어촌 지역에서 복식학급 증가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불가피하게 한다. 또한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진다. 읍·면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질적 불평등 문제로 확대된다. 사회적 계층·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수록,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

한편, 경상북도의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산, 포항, 경주 등 3개 도시가 지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산시는 전체 인구의 22.8%가 외국인이다.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12년 1.3%에서 2024년 5.8%로 확대되면서, 교육현장은 언어·문화 다양성 관리와 다문화 친화형 교육과정 마련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 다문화사회 전환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림 Ⅱ-12] 경상북도 외국인 현황(2023년)

※ 출처: 경상북도 공동데이터&교육통계(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

라. 기술적(Technological) 요인

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교육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4). AIDT는 개인맞춤형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학습자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적응형 학습 시스템을 통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며,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습 성과 예측과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검정 심사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하였으나, 예산의 문제, 교과서 활용 연수의 부족 등 학교 현장의 반대와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등으로 2025년 2학기부터 교과서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 또한 전면 중단되었으며, 교과서를 개발·발행해 온 업체들의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2) 원격교육 인프라 발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교육 인프라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클라우드 기반 교육플랫폼 구축과 5G 네트워크 확산으로 실시간 쌍방향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

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7개 시·도에서 300개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갖춘 선도교사단을 선발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ChatGPT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교육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텍스트 생성 AI, 이미지 생성 AI, 음성·오디오 생성 AI, 영상 생성 AI 등이 있다. 일례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2025년 생성형 AI 등 디지털 도구의 교육적 활용 방안과 생성형 AI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활용 등을 다룬 실무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2023년 「초·중등 교육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콘텐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학,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체험형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학습 효과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실 구축도 진행되어 학습환경 자동화와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디지털 격차 해소 과제

디지털 교육 확산과 함께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반국민 대비 4대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그림 9 참조)은 65.6%(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로 나타났으며, 고령층의 역량 수준이 55.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71.8%), 장애인(76.1%), 저소득층(93.3%) 순으로 조사되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그림 표-13]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p.6

지역별, 계층별 디지털 접근성 차이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모든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사업은 전국 초·중·고등 학생에게 양질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과 여건에 따른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27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05.21.).

4) 경상북도 지역의 기술적 요인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AI 기반 학습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 메타버스 수업 등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와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학습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원격·혼합형 교육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도 대도시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육환경에서 기술 도입 자체는 기회 요인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북도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에듀테크 기업·대학·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 환경적(Environmental) 요인

1)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강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 형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해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다루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는 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3년 서울시와 ‘학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학교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학교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흡수 시설 보급 협력, 대기오염 저감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협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기관과 연계된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홍보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한경 뉴스, 2023.05.07.).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21년부터 5년간 1,586억 원을 투입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변화에 맞는 공간혁신, 건물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 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삼다일보 뉴스, 2021.06.1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실재화하는 친환경 학교 조성이 아닌 ICT 기반 스마트 교실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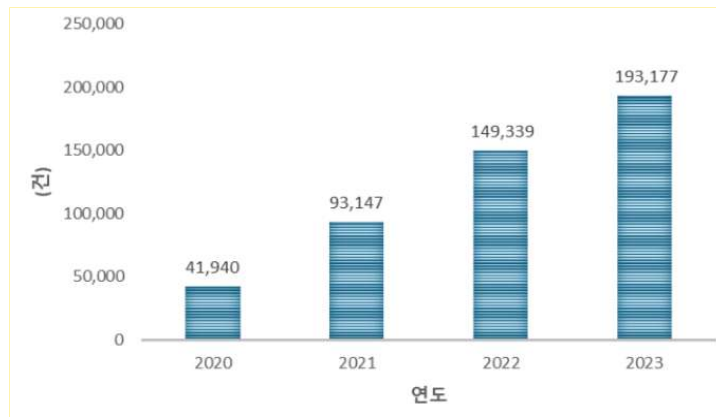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2024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를 통해 '도봉구 ESD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 등 12개 프로젝트를 인증하며,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체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의 녹색화(Greening Schools)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과 운영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2)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팬데믹 이후 건강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급식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교 시설

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학습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 로컬푸드를 활용한 친환경 급식 확대, 학교숲과 생태연못 등 자연친화적 교육공간 조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시설 여유 공간을 활용한 교육환경 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로 인해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2025년부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가이드라인 부재와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의 취소나 연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Ⅱ-14]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추이(2020~2023)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공식블로그 (2025.08.01.) ‘학교안전사고 통계로 살펴본 학교안전사고 현황’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2025)에 따르면, 2020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41,940건에서 2023년 193,17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모든 학교급에서 강당, 체육관, 교무실 등의 부속시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장, 교실, 통로, 교외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장보다 교실에서의 사고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점차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 추세에 대응하여 발생장소나 시간에 따른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3) 경상북도 지역의 환경적 요인

경상북도는 산림, 농업, 세계문화유산 등 풍부한 환경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형·현장형 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 이러한 자원은 환경·생태 체험학습, ESG 교육,

지역문화 연계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732개 학교를 폐지, 237개(매각 처분 학교 제외)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상위 수준이다. 폐교는 교육 인프라 축소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붕괴와도 연결되며, 마을 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폐교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간 자원이기도 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를 평생학습관, 마을 도서관,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해 교육·문화 복지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은 단순한 제약 요인이 아니라, 지역 특화 교육모델 개발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경상북도도 폐지를 활용하여 의성안전체험관, 경주안전체험관,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학습과 체험 기회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바. 법적(Legal) 요인

1) 온라인학교 설립 법제화

지난 2024년 9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학교’설립 법제화가 2025년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 운영, 학생생활기록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원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로, 제정령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 경남, 광주, 대구,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24년 2학기엔 대전, 강원,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충북, 제주 등 8개 지역에 신설되어 올해부터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이도연, 2024)). 기존 공동 교육과정은 자신이 속한 학교의 정규 교과를 듣고 추가로 공동 교육과정 과목을 이수했다면, 온라인학교 수업은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온라인학교의 법제화로 인해 공동 교육과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화가 기대되며,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학령인구 감소 대응 관련 법령 개정의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소규모학교 운영 기준의 유연화가 검토되고 있으며, 학교설립 기준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은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지역의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 중등학교는 180명 이하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은 240명 이하, 중등은 30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과밀학급과 대규모학교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주도)을 발의되었고, 2023년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소멸과 과대·과밀학교가 상존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발의(김영호 의원 주도)하였으며, 2024년에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제시한 개정안(황희 의원 주도)이 발의⁶⁾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방안의 구체화 및 교원 배치 및 예산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와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성인학습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대학 및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자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디지털 교육 법적 기반 필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에듀테크 활용 확산에 따른 법적 기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2024년 법률(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교육자료 정의))로 직접 규정됨으로써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가 변경되었다(여성신문 뉴스, 2025.07.10.).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며, 저작권상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교육목적 공정이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법률신문 뉴스, 2025.05.15.).

6) 발의 내용은 각 의원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블로그)를 참고하였으며, 황희 의원의 경우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일명 ‘도시형 학교 4법’을 발의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교육서비스 규제와 AI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 활용 가이드라인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AI 윤리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교사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경상북도 지역의 법적 요인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자율학교 제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등을 허용한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이주배경학생 지원, 교육복지, 돌봄 정책 등 법·제도적 기반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인사제도나 교육특구 지정과 같은 영역에서는 아직 충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미비하다. 핵심 교육정책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차원의 독자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재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조정, 안정적 예산 확보,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실질적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사. 소결

본 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PESTEL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이 직면한 복합적 도전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경상북도 지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이해를 도출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과 교원 수급 계획의 변화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 대응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차별화된 소규모학교 기준이 수립되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원 수급 계획은 기존의 단일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간 교육환경

차이와 국정과제를 반영한 종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었으며, 2027년까지 초등 신규채용 교원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정책은 교육지원청의 권한 이양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적 구조와 정치적 리더십의 변동성이 장기적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육비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는 GDP 대비 5.6%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급증하였으나 이러한 증가가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듀테크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 소요를 동반하며, 글로벌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1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산업 인재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별 경제 격차가 교육투자 역량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현재 대비 4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상승이 교육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와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한 포용교육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의 3.8%에 이르며 연평균 13.6%씩 증가하는 추세는 교육과정과 지원체계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시 지역과 군 지역 간 세대 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원격교육 인프라 발전이 개인맞춤형 교육 실현의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적응형 학습 시스템을 통한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하지만, 예산 문제와 현장의 비판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참고자료로 위상이 격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한 원격교육 인프라는 소규모학교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받으며, 생성형 AI와 VR·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일 반국민 대비 65.6%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별·계층별 접근성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강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 학습 주제로 반영되었고 시도 교육청별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급식 확대, 자연친화적 교육공간 조성 등 건강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학교안전사고가 2020년 41,940건에서 2023년 193,177건으로 급증하면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경상북도는 732개 폐교를 보유한 전국 상위 수준이지만, 이를 평생학습관이나 체험시설로 재활용하여 지역 특화 교육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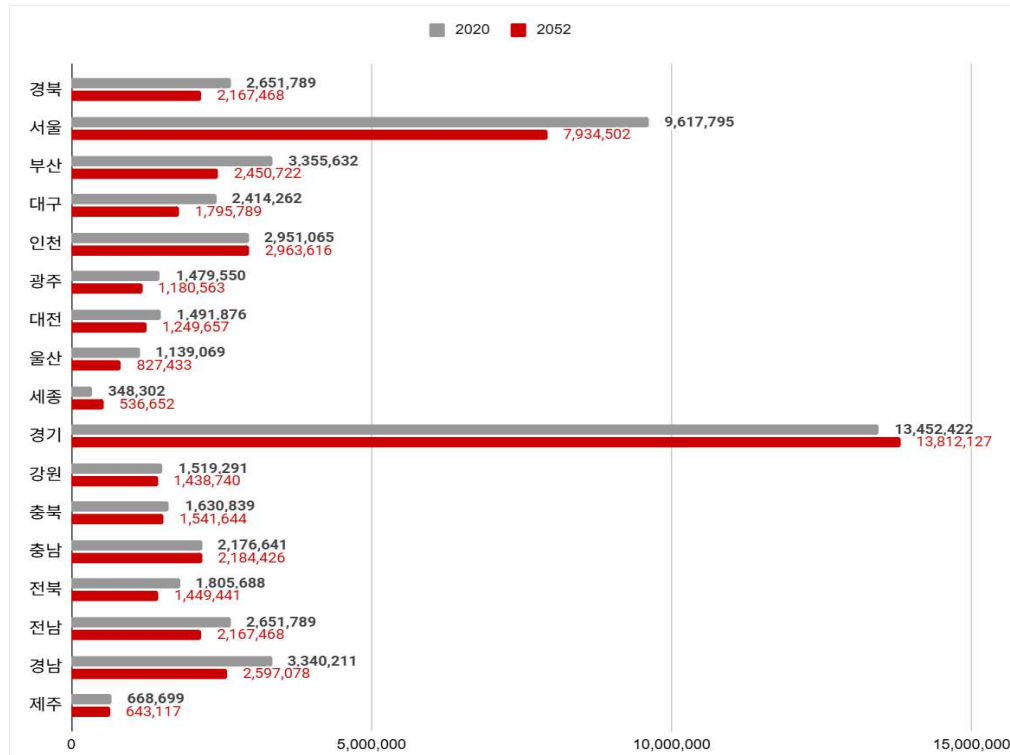
법적 측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학교 설립 법제화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며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원격수업을 정규 시간에 제공함으로써 공동교육과정의 양적·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의 소규모학교 운영 기준 유연화와 학교설립 기준 완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등 다양한 학교 유형 제시 법안이 발의되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관련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자율학교 제도와 교육복지 조례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나, 핵심 교육정책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차원의 독자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양적 변화를 넘어 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복합적 도전이다. PESTEL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각 요인들은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인구소멸위험이 높고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치적 측면의 지방교육자치 강화는 경제적 측면의 재정 확보 및 사회적 측면의 인구 유출 방지와 연계되어야 하며, 기술적 측면의 디지털 혁신은 법적 측면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교육공간 조성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개별 요인에 대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거시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북도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조정, 안정적 재정 확보,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을 통한 지역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2. 초·중·고 학령인구 관련 경상북도 지역 특성

가. 인구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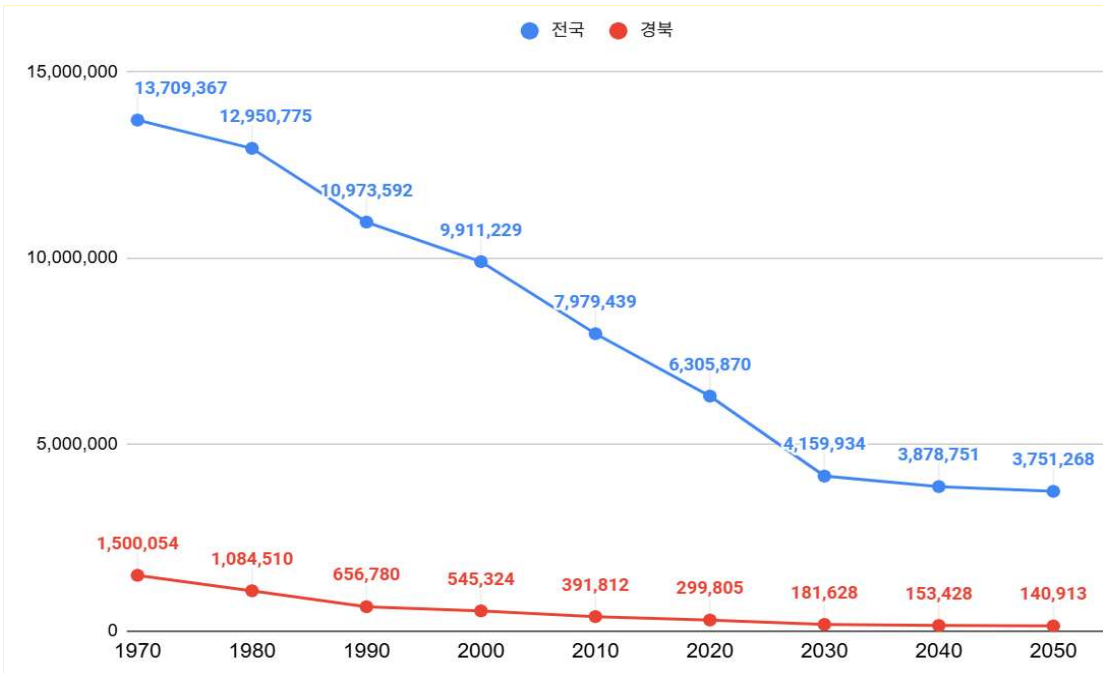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추계 인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52년 전국 추계 인구는 약 4,627만 명으로 2020년 대비(약 5,200만 명) 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인구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0년 265만 명에서 2052년에는 216만 명으로 감소한다. 2052년에는 2020년 대비 감소율은 약 18.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경북 인구는 전국 대비 약 5.1%이며, 2052년은 전국 대비 약 4.7%로 시간이 갈수록 전국 대비 인구 비중도 작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II-15] 전국 장래 인구 추계(중위 추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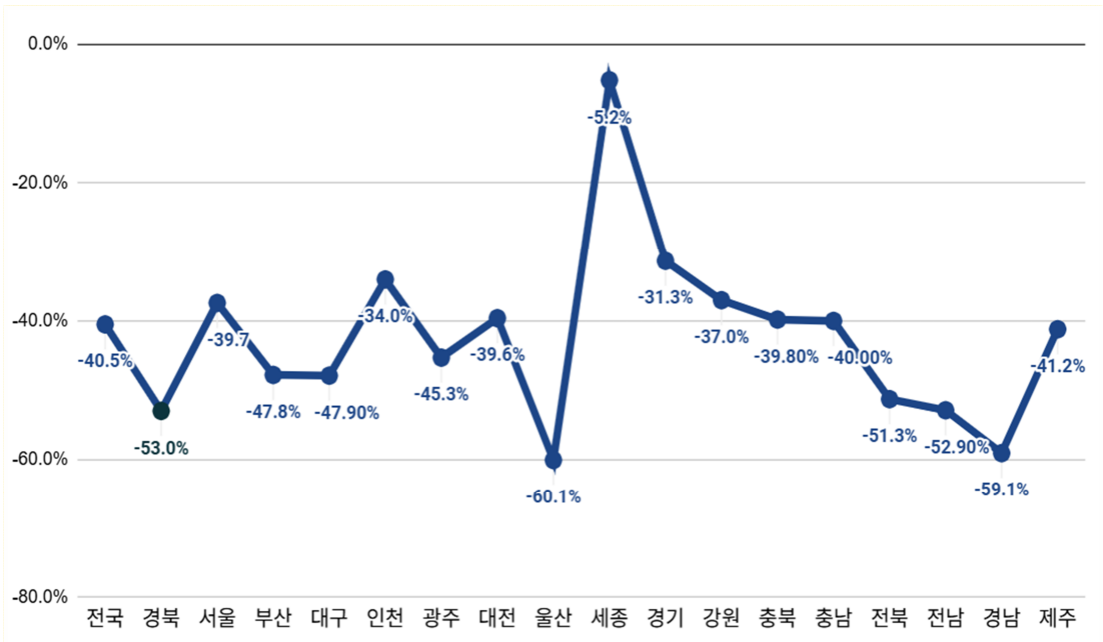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5.6.30. 인출)

특히 14세 이하 유소년 추계 인구 자료를 보면 2050년 전국 인구는 약 37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약 53% 감소하며, 전국 평균보다 13%p 이상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각 시·도별 인구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경상북도 감소세가 다소 큰 편이다.



[그림 II-16] 경상북도 유소년(0~14세) 추계 인구(1970-2050)(단위: 명)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5.6.30. 인출)



[그림 II-17] 전국 유소년(0~14세) 추계 인구 증감률(2020-2050)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5.6.30. 인출)

경상북도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시·군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경상북도 출생아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경상북도 내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군, 울릉군은 경상북도 내 전체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출생아 수가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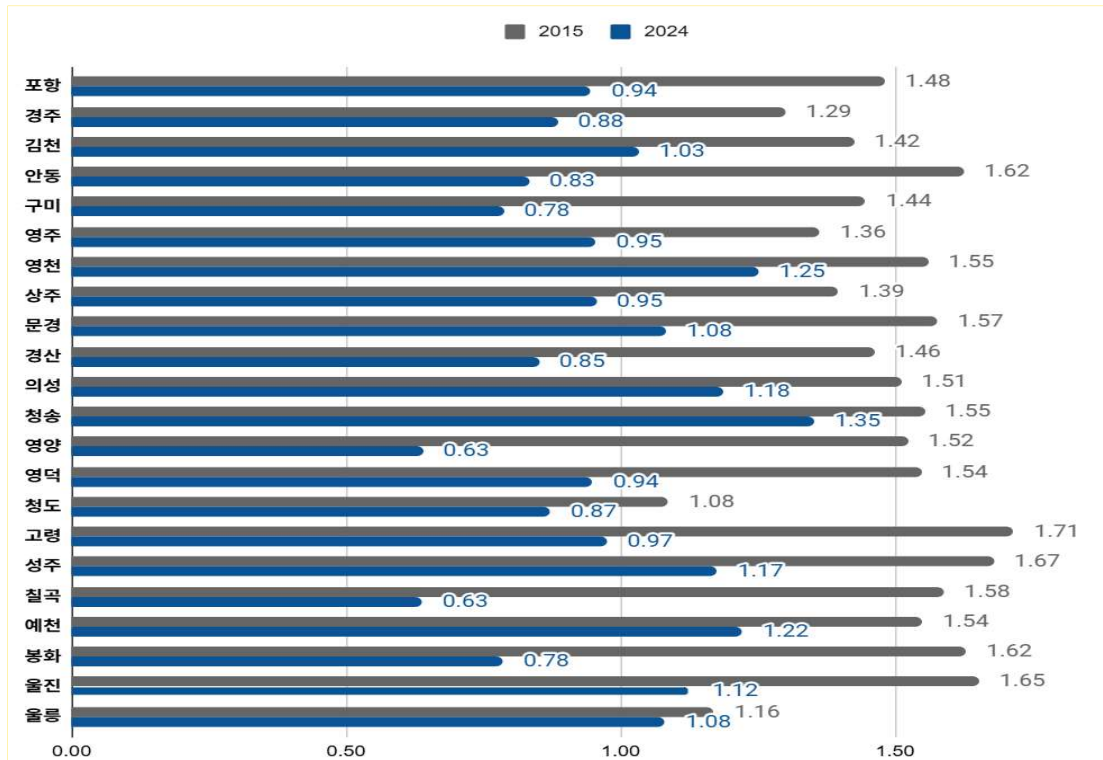
경상북도 합계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4년 모든 시·군의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고, 하락 폭은 0.1명~1.0명 수준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 지역에서 일관된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칠곡(1.0), 영양(0.9), 안동, 봉화(-0.8), 구미, 고령(-0.7) 등은 감소 폭이 크다.

<표 II-4> 경상북도 출생아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2015		2024		증감 (2015-2024)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전국	438,420	1.239	238,317	0.748	-0.5
경북	22,310	1.464	10,333	0.897	-0.6
포항	4,604	1.475	2,231	0.940	-0.5
경주	1,743	1.294	920	0.879	-0.4
김천	1,012	1.419	630	1.027	-0.4
안동	1,475	1.619	551	0.827	-0.8
구미	4,760	1.440	1,993	0.781	-0.7
영주	654	1.357	326	0.949	-0.4
영천	723	1.554	466	1.246	-0.3
상주	564	1.391	273	0.950	-0.4
문경	526	1.571	240	1.077	-0.5
경산	2,477	1.457	1,211	0.845	-0.6
의성	249	1.505	142	1.182	-0.3
청송	137	1.548	76	1.347	-0.2
영양	90	1.517	25	0.634	-0.9
영덕	215	1.542	80	0.943	-0.6
청도	175	1.081	86	0.866	-0.2
고령	255	1.710	82	0.969	-0.7
성주	319	1.674	138	1.170	-0.5
칠곡	1,361	1.583	310	0.632	-1.0
예천	252	1.544	278	1.216	-0.3
봉화	193	1.623	51	0.780	-0.8
울진	374	1.647	190	1.124	-0.5
울릉	55	1.164	34	1.075	-0.1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25.6.30. 인출)



[그림 Ⅱ-18] 경상북도 시군 합계출산율(단위: %)

이러한 현상은 경상북도 시·군의 인구소멸지수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16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경주와 김천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림 Ⅱ-19]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출처 : 경북일보(<https://www.kyongbuk.co.kr>, 2025.6.30. 인출)

경상북도 전역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 위험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내륙(영양, 봉화, 청송, 영주)과 동해안 북부(울진, 울릉, 영덕) 지역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다. 반면, 포항·구미·경산 등 일부 도심 지역은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대적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산업 구조의 편중,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며, 단순한 출생률 저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중심의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의료·복지 인프라의 약화로 ‘인구감소 → 생활환경 악화 → 추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한 인구 수 변화가 아니라 거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결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 수립 시 ‘단기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성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즉, 인구감소 현상을 거시적 수준의 시스템 변화로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나. 초·중등학교 현황

〈표 II-5〉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초·중등학교 통계로, 전국과 경북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이며, 전국 대비 경북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학교 수는 2000년 18,619개교에서 2024년 20,414개교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북의 학교 수는 1,718개교에서 1,568개교로 감소하였다. 전국 학교 수는 약 9.6% 증가했지만, 경상북도는 약 7.6% 감소하였다. 전국 대비 경상북도 학교 비중은 2000년 9.2%에서 2024년 7.6%로 줄어들었다.

전국 학생 수는 2000년 8,536,557명에서 2024년 5,671,098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경북의 학생 수는 479,561명에서 274,015명으로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전국 학생 수는 약 33.6% 감소했으며, 경상북도는 약 42.9% 감소하였다. 전국 대비 경상북도 학생 비중은 2000년 5.6%에서 2024년 4.8%로 0.8%p 하락하였다.

전국 교원 수는 2000년 370,245명에서 2024년 509,242명으로 약 37.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경북의 교원 수는 24,539명에서 28,138명으로 약 14.7% 증가하였다. 경북 교원 수의 전국 대비 비중은 2000년 6.6%에서 2024년 5.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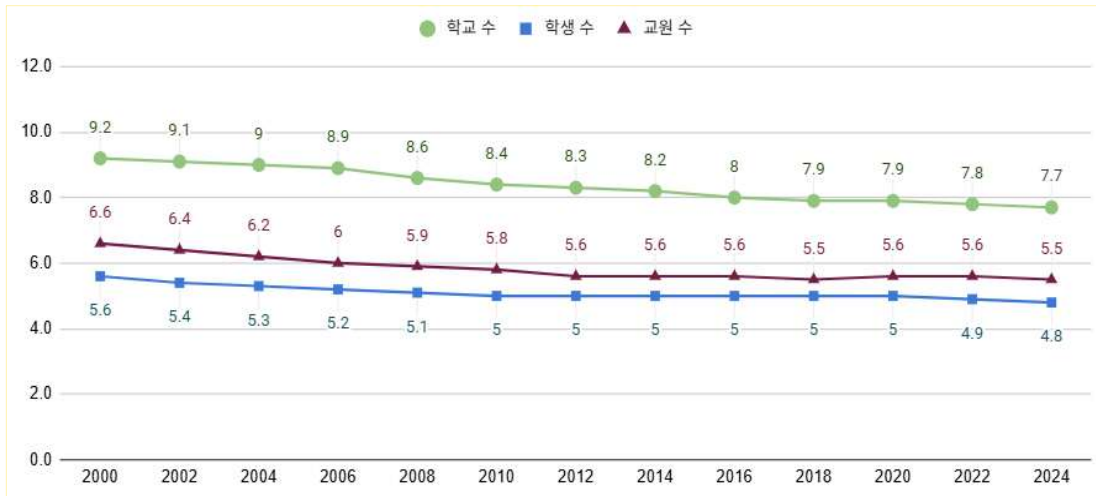
전국 대비 경상북도의 비중(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은 모두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및 교육 정책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5> 초·중등 통계(2000~2024)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전국	경북	비중	전국	경북	비중	전국	경북	비중
2000	18,619	1,718	9.2	8,536,557	479,561	5.6	370,245	24,539	6.6
2001	18,644	1,713	9.2	8,415,191	463,991	5.5	374,876	24,409	6.5
2002	18,709	1,696	9.1	8,362,763	454,543	5.4	392,501	24,984	6.4
2003	18,814	1,700	9.0	8,379,775	448,942	5.4	405,904	25,669	6.3
2004	18,931	1,707	9.0	8,371,630	443,333	5.3	411,550	25,517	6.2
2005	19,128	1,717	9.0	8,371,421	438,414	5.2	417,710	25,575	6.1
2006	19,342	1,725	8.9	8,354,891	434,527	5.2	427,137	25,626	6.0
2007	19,418	1,702	8.8	8,309,932	427,502	5.1	435,718	25,858	5.9
2008	19,606	1,687	8.6	8,187,782	417,934	5.1	445,594	26,214	5.9
2009	19,716	1,673	8.5	8,016,924	406,144	5.1	452,019	26,413	5.8
2010	19,810	1,667	8.4	7,807,663	392,625	5.0	455,907	26,457	5.8
2011	19,934	1,668	8.4	7,586,266	380,577	5.0	469,136	27,055	5.8
2012	20,097	1,665	8.3	7,370,308	370,067	5.0	476,065	26,755	5.6
2013	20,294	1,660	8.2	7,173,904	359,239	5.0	482,686	26,939	5.6
2014	20,492	1,673	8.2	6,973,154	348,727	5.0	488,363	27,237	5.6
2015	20,675	1,668	8.1	6,806,411	338,975	5.0	489,515	27,366	5.6
2016	20,773	1,652	8.0	6,621,547	329,626	5.0	491,152	27,286	5.6
2017	20,876	1,641	7.9	6,454,281	320,875	5.0	492,187	27,288	5.5
2018	20,902	1,643	7.9	6,295,366	312,630	5.0	496,263	27,497	5.5
2019	20,743	1,639	7.9	6,122,198	303,701	5.0	496,504	27,599	5.6
2020	20,674	1,633	7.9	5,995,239	296,917	5.0	498,281	27,798	5.6
2021	20,706	1,630	7.9	5,942,186	292,929	4.9	500,859	28,098	5.6
2022	20,630	1,616	7.8	5,865,460	288,453	4.9	507,793	28,491	5.6
2023	20,539	1,605	7.8	5,769,597	282,020	4.9	508,850	28,361	5.6
2024	20,414	1,568	7.7	5,671,098	274,015	4.8	509,242	28,138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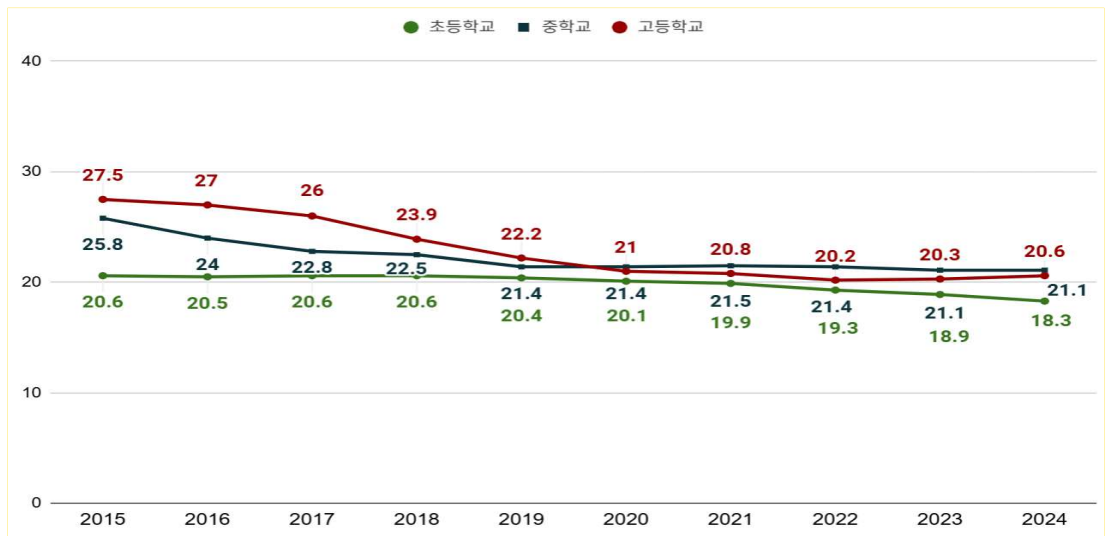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그림 Ⅱ-20] 전국 대비 경상북도 초·중등 통계 변동(단위: %)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상북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20.6명에서 18.3명으로 감소하며, 가장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한다. 중학교는 2015년 25.8명에서 2024년 21.1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하강 곡선을 그렸으며, 2020년 이후에는 약 21명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27.5명에서 2024년 20.6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급격한 내림세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하락을 거쳐 2020년대 초반부터는 2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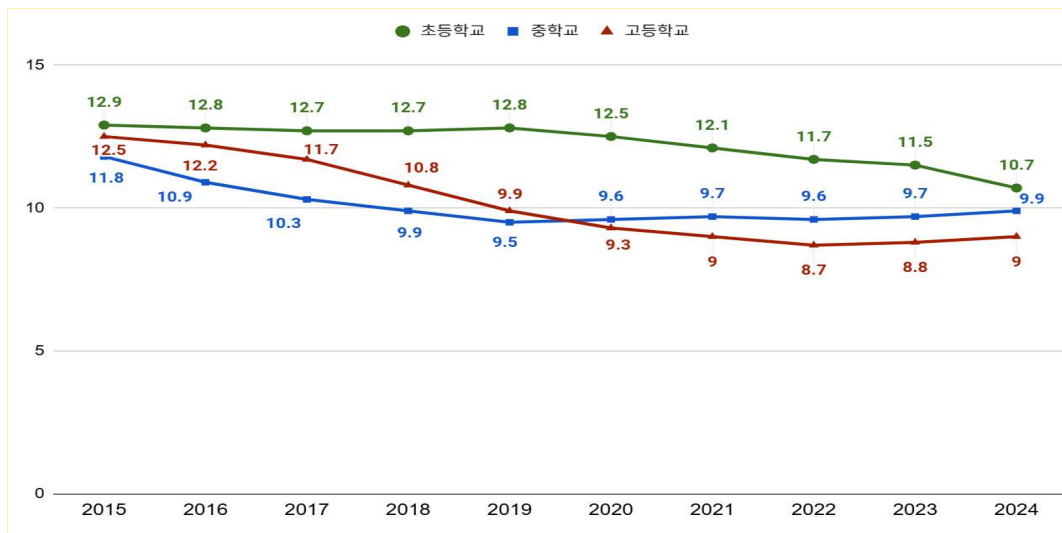
경상북도 시군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4년 수치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구미는 25.4명에서 21.5명, 경산은 22.7명에서 21.2명으로 크게 줄었다. 구미, 포항, 경산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나, 과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의성, 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은 2015년에도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다.



[그림 Ⅱ-21] 경상북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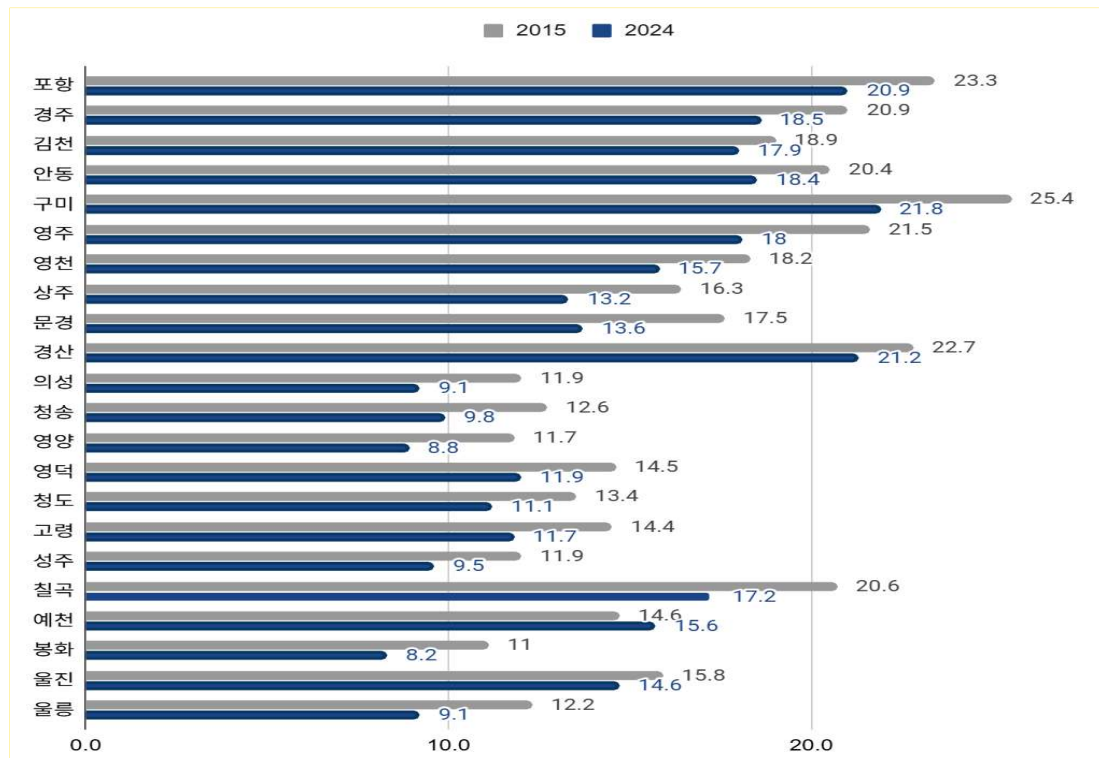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북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초등학교는 2015년 12.9명에서 2024년 10.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학교는 같은 기간 11.8명에서 9.9명으로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역시 2015년 12.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Ⅱ-22] 경상북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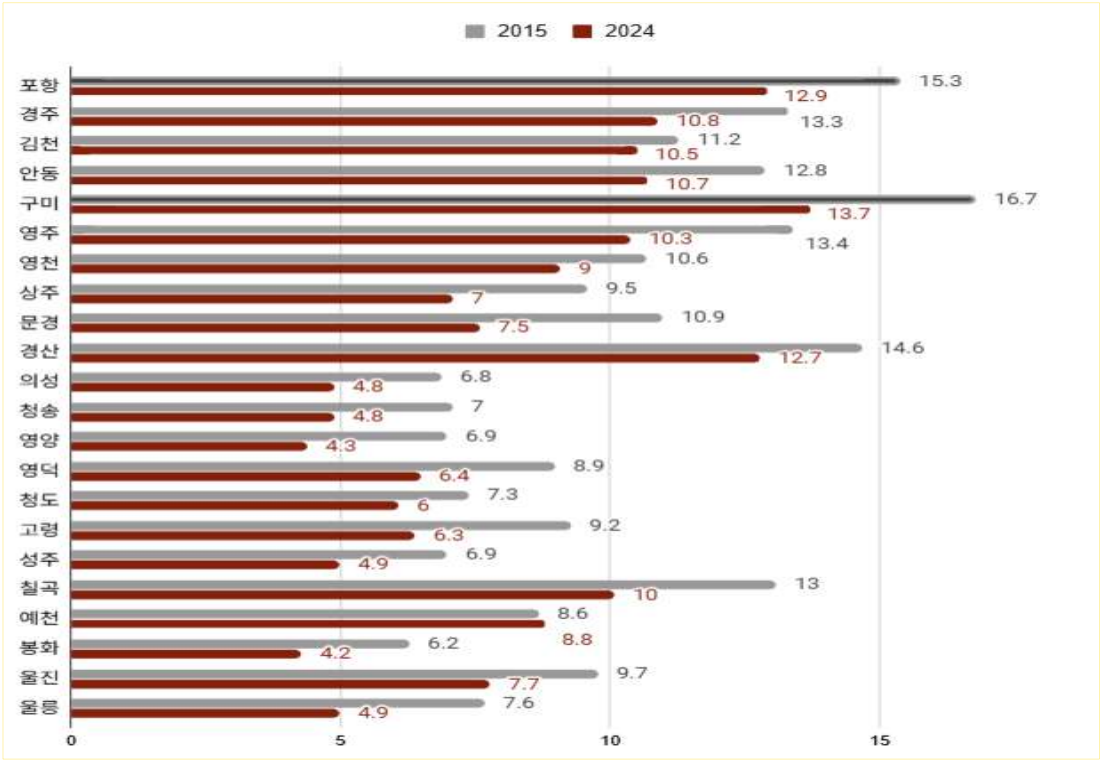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그림 Ⅱ-23] 경상북도 시군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경상북도 시군별 교원 1인당 학급당 학생 수 변화를 보면, 2015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었으나, 2024년에는 다수 지역이 5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구미는 16.7명에서 13.7명으로, 경산은 14.6명에서 12.7명으로 감소하였다. 의성, 청송, 영양, 성주, 봉화, 울릉은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5명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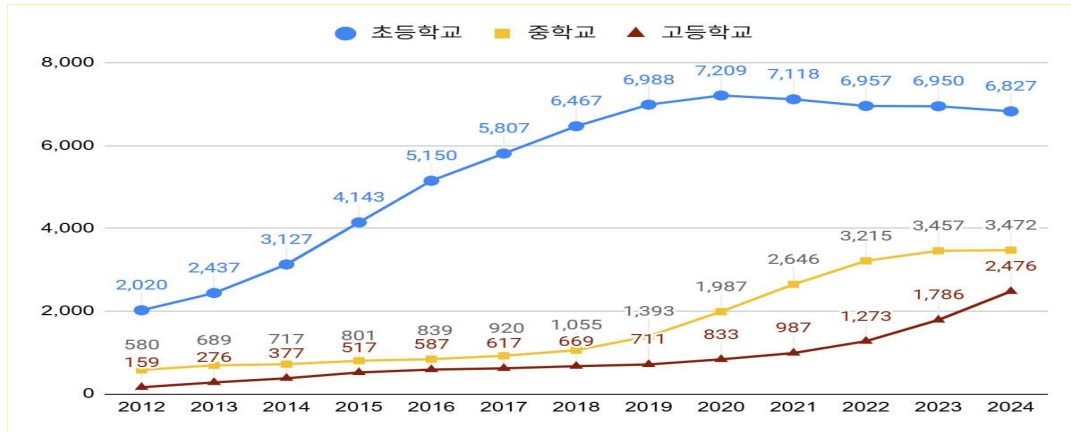
[그림 Ⅱ-24] 경상북도 시군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단위: 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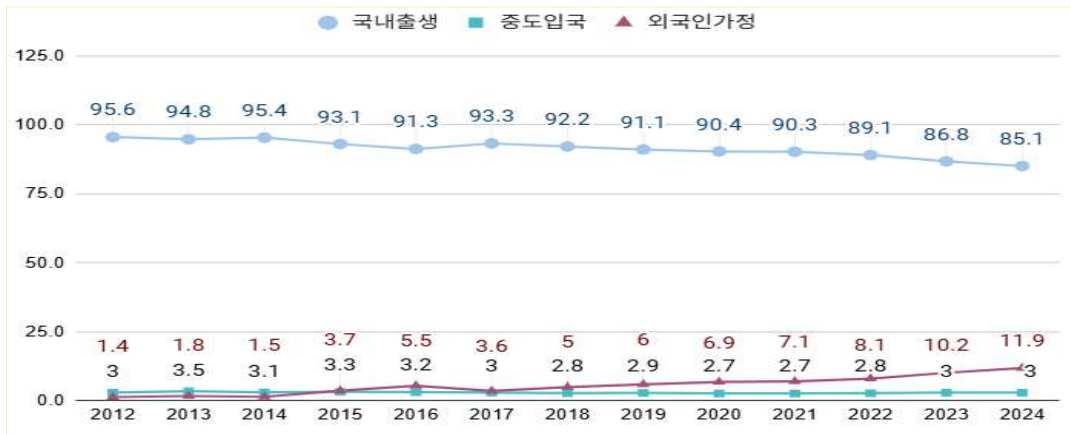
다. 이주배경학생 현황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2년 2,759명에서 2024년 12,775명으로 12년간 4.6배 이상 증가했다. 감소하는 전체 학생 수와 달리 이주배경학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경상북도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의 비중도 10여 년 사이 0.8%에서 5%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상북도 이주배경학생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가정으로 나눠 살펴보면, 국내 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가정 학생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25] 경상북도 이주배경학생 현황(단위: 명)



[그림 II-26] 경상북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 비율(단위: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025.6.30. 인출)

라. 소결

경상북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상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로,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특히 뚜렷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경상북도 유소년(0~14세) 인구는 약 5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3%p 이상 높은 감소율이다. 출생아 수 또한 전 시군에서 급감하여, 포항·구미·경산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 일부 지역은 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규모와 교원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6명(2015년)에서 18.3명(2024

년), 중학교 25.8명에서 21.1명, 고등학교 27.5명에서 20.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곳이 다수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대부분 5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소규모학교의 증가, 학교 통폐합의 가속화, 교사 배치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2년 2,759명에서 2024년 12,775명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8%에서 5%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경산·포항·경주 등 도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는 경상북도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경상북도의 학령인구 변화는 ① 저출산 및 인구 유출에 따른 급격한 감소, ②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및 교육격차 심화, ③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다양성 확대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복합적 변화는 향후 교육 인프라 재배치, 학교 운영체제의 유연화, 다문화·소규모학교 맞춤형 교육정책 등 다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3.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내 학교 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가. 선행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미래의 교육 방향에 연구, 학교 규모 및 학교 모델에 관한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의 교육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은비 외(2019)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 미래 교육을 연구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46개의 이슈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이슈는 차별화 교육과정이라 보았다. 그 외 주요 이슈로는 미래형 교사의 역할 세분화, 다양한 학교 유형(소규모 학교 이슈 해결을 위한 초·중 연계 학교), 지역사회 연계 등과 이를 위한 행정지원체제 변화(행정인력의 정원 및 행정시스템의 변화) 등이 선정되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교육의 기초적 구조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원수급과 개별화 교육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육과 복지의 연계,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중앙정부, 지역사회, 기업, 개인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

년스 구축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현미 외(2024)는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미래 학교의 방향을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였다.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은 다음과 같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탄력적 학제 및 학교 운영, 둘째, 지역 기반 교육 인프라(교통·환경·문화·편의시설 등) 구축, 셋째, 과밀학급 해소, 넷째, 소규모학교 육성 중심에서 과밀 해소 및 적정규모 유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다섯째, 학교 배치 재구조화 시 경제적 효율보다 학생의 웰빙과 행복 중심으로 정책 초점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규모학교를 거점형, 캠퍼스형, 기숙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순회교사를 최소화하며, 교사 복수 자격 취득제 및 다교과 자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교육 공간의 확장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의 행정·재정 지원과 학습설계자·데이터관리자·평가자로 교사의 역할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광현(2025)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였다. 먼저, 교육부·교육청 교육재정(+지자체 지역 예산) 효율 운용 방안에 관하여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구조를 점검하여 지자체 전반의 비효율 지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립 중·고의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 통합이나 이전, 폐교 절차를 지원하는 등 중등 사립학교 및 직업계고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시설을 공유·복합화할 필요가 있으며, 초·중 일관학교(통합운영)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생 배정의 유연화에 관하여, 기존 생활권 기반 학생 배정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과밀·과소를 해소하기 위한 학군/공동학구 유연화, 통학버스·셔틀 체계를 정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원양성체제에 관하여, 초등 단일 교대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거점국립대와 통합 또는 종합대 내에서 교육대학화(유·초·중등·특수 통합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중등은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직 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류광모(2021)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3가지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학교자치형,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중앙집권형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학교자치형 시나리오는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및 돌봄, 수업 등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시나리오는 학교 교육과정, 돌봄, 방과후, 정책사업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단위학교와 지자체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식이며, 중앙집권형 시나리오는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에서 학교 교육의 결정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연구를 통해 미래교육 핵심역량(창의성, 문제해결력, 공감·의사소통,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교육과정 역량, 교육전문직·행정직의 정책역량 강화가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이미숙 외(2021)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육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들은 학교 교육 개선 방향으로 초·중등 상호 교차 지도가 가능한 교원 육성과 새로운 학교 모형 구안 및 도입,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지역화를 들었다. 첫째, 교원 육성에 관하여 경직된 학교급 자격으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 겸임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겸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새로운 학교 모형으로 유치원~초등 4학년, 유치원~중학교 캠퍼스형 모델 등을 제안하였고, 경북의 산지·분지 지형으로 인해 통학거리 최소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하여, 지역의 자연·역사·문화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현직 교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보람(2024)은 2000년~2022년의 기간 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주제별, 지역별, 시기별로 연구가 단편화되어 통합적 정책 제안이 부족한 연구의 분절화 문제, 학술연구와 실제 교육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한 정책 연계성 문제, 미래학교 연구의 심도 부족 문제, 교원정책 연구의 공백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구를 통해, 향후 연구 과제로 교육정책, 행정, 재정, 지역 사회 연계를 포괄한 종합적 연구, 초·중등을 넘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단계까지 확대하는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6>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주요 내용	시사점
김은비 (2019)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46개의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 - 최우선 우선순위는 차별화 교육과정(학생 수준과 요구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 제공) • 교원 및 교육정책	• 앞으로의 학교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 수급 등의 제도

저자	주요 내용	시사점
	- 교원수급과 개별화 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핵심 요소 • 통합적 접근 필요성 - 교육과 복지의 연계,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필요 - 중앙정부, 지역사회, 기업, 개인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포용적 정책 개발 필요	정비가 필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학교시설을 지역 복합공간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김현미 외 (2024)	•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학교교육의 재설계 - 탄력적 학제 및 학교 운영 -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반 교육 인프라(교통·환경·문화·편의시설 등) 구축 - 과밀학급 해소, 전국 단위로 학급당 20명 이하 - 정책 방향 전환: 단순 소규모학교 육성 중심 → 과밀 해소 및 적정규모 유지 중심. • 학교 운영의 다변화 추진 - 소규모학교 운영 다양화: 거점형, 캠퍼스형, 기숙사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허용. - 교사 복수 자격 취득제 및 다교과 자격제도 도입. •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 공간의 확장 - 디지털·AI 교육환경 구축 - 지자체·교육청의 행정·재정 지원 필요 - 교사는 학습설계자·데이터관리자·평가자로 역할 확장 -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결된 평생학습 공간으로 전환	• 학제와 학교 운영 방식의 탄력화,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복수자격제도 및 다교과제도가 필요함 • 소규모학교는 거점형·캠퍼스형·기숙사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어야 함 •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구축과 더불어 교사는 학습설계자·데이터관리자·평가자로 역할이 확장되어야 함
이광현 (2025)	• 교육부·교육청 교육재정 효율 운용 방안 -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79%) 구조를 점검하여 지자체 전반의 비효율 지출 개선 • 중등 사립학교 및 직업계고 정책 마련 - 학교 통합 지원, 이전·폐교 절차·보상체계 정비, 질적 전환을 위한 재정·인사 패키지 필요 - 직업계고의 경우, 4차 산업혁명·AI 전환 반영한 현실적 운영모델 재설계 필요(종합고 체제 전환 등). • 학교복합시설, 초중등통합학교 확대 - 학생 수 감소로 시설 공유·복합화 필요 - 초·중 일관학교(통합운영) 확대: 행·재정 일원화, 교장·교감 배치 기준 정비, 운영 매뉴얼 표준화 필요. • 통학·학생배정의 유연화와 혁신 - 생활권 기반 학생배정 재설계 필요 - 과밀·과소 해소를 위한 학군/공동학구 유연화, 통학버스·셔틀 체계 정비. • 교원양성체제 변화 - 초등 단일 교대 체제의 구조적 한계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와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이 필요함 • 농산어촌 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 일관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행·재정적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학생배정체계의 유연화와 통학지원 확대가 필요함

저자	주요 내용	시사점
	- 거점국립대와 통합 또는 종합대 내 교육대학화(유·초·중등·특수 통합 양성) 필요 - 중등은 고교학점제 대응 위해 교직이수 확대	
류광모 (2021)	•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3가지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 학교자치형 시나리오: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및 돌봄, 수업 등을 자유롭게 운영함. - 교육자치-일반자치 기능 강화형 시나리오: 학교 교육과정, 돌봄, 방과후, 정책사업 등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단위학교와 지자체와의 연계가 강화됨. - 중앙집권형 시나리오: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에서 학교 교육의 결정권을 가짐.	• 지속가능한 미래의 학교운영은 학교자치 또는 교육자치-일반자치 간 협력 구조 강화를 통해 가능함
이미숙 외 (2021)	• 초·중등 상호 교차 지도가 가능한 교원 육성 -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학교 유지에 기여하지만, 초·중 교직원 간 인적 교류 및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 겸임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현행 제도상에서 현직 교원이 타 학교급 자격 취득 가능, 교육감은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중등·초등 교원 자격 교차 취득 지원 가능, 중등교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가능 -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2019) 이후 통합운영학교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맞춘 교원 양성체계 구축 필요. • 새로운 학교 모형 구안 및 도입 - 대안적 학교모형: 유치원~초등 4학년, 유치원~중학교 캠퍼스형 모델 등 - 경북의 산지·분지 지형으로 인해 통학 거리 최소화 •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지역화 -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자원 반영한 교육과정 지역화 추진 필요 - 지역의 자연·역사·문화를 교육자원으로 활용 - 현직 교원이 개발 참여하도록 제도적 지원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급 간 겸임 가능한 교원제도 도입이 필요함 •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캠퍼스형·통합형 학교 운영모델이 효과적임 •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보람 (2024)	•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시사점 - 연구의 분절화 문제 보완 - 정책연계성 강화 필요 - 미래학교 연구의 심화 필요 - 교원정책 연구의 공백 보완 • 향후 과제 - 교육정책, 행정, 재정, 지역사회 연계를 포괄한 종합적 연구 필요	• 학령인구 감소 관련 연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 지역사회, 행정 이 통합된 연구체계 구축이 필요함

저자	주요 내용	시사점
	- 초·중등을 넘어 유아·고등·평생교육 단계까지 확대	

다음으로, 학교 규모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대권(2018)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수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학교 수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 또는 감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학령인구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학교 신설과 관련되어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립기준에 학령인구수를 추가하고, 학교 설립 절차 준비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학급 수 정책은 단순한 평균화보다는 지역별 특성(도시, 도서·벽지 등)을 반영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까닭은 학교당 학급수의 지역 차이를 일률적으로 해소하려 할 경우, 도서·벽지지역의 학교 통폐합 과도화 및 교육 접근성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와 도서·벽지지역 간의 현행 규모 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대체적 수단을 통해 교육 격차 완화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된 대응책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는 현재는 OECD 평균 및 권고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곧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았다. 특히, 최저 학급 규모 기준을 설정하여,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줄어든 경우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지윤, 김오석(2019)은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통폐합 논의는 농산어촌 중심 소규모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도 폐교 가능성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았으며, 초·중·고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연계 운영하는 통합 운영학교는 학교급 간 자원 공유를 통해 불균형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통합 운영학교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각 광역시·도 교육청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통폐합을 지양해야 하고 소규모학교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권순형(2024)는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규모 정책을 연구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학교 규모 운영계획 수립·실행해야 한다. 현재 학교·학급 규모는 교육감 고유 결정 사안(초·중·고·고급 중·고급) 시

행령 제51조)이더라도, 중·장기 기준·방향은 국가 사무로 설정하여, 국가(대강) - 광역·기초(세부) 다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범위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부·지자체·시도교육감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인구 정책 연계 학교규모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교육장의 고유사무 신설(예: 학교규모·소규모학교 지원·과밀학교 대응 등)을 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주거·산업·일자리 정책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 규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및 통·폐합 결정 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계획, 광역 - 기초 - 지역교육지원청 - 지역사회의 실행계획, 지역사회 존속성 및 교육의 질을 함께 평가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CDM), 폐교 전·후 활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적정 학교 규모에 관해 학생 수·학급 수 등 수치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초기 우리나라 학교 적정화 규모에 관한 연구는 학교운영 및 경영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규모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학교·학급의 적정규모’(공은배 외, 1984) 연구에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의 학교 규모가 적정 규모보다 지나치게 크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정규모의 학교를 학교 생활 측면과 학교 경영 측면으로 나누어 초등학교는 학교생활 측면에서 500명 이하, 학교경영 측면에서 16~20학급 규모(752~940명)로 제시하였다. 중학교는 학교생활 측면에서는 1,000명 이하, 학교경영 측면에서는 16~20학급(1,008~1,260명)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및 학급규모의 적정화와 재정대책에 관한 연구’(백성준, 1997)에서는 교육효과의 극대화, 교육과정 운영의 충족성, 학교 운영의 합리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최소 18학급, 중학교 최소 15학급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규모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허숙, 2003)에서는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대도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학교 규모로 35명을 기준으로 한 학년당 초등학교는 3~4학급, 중학교는 7~9학급, 고등학교는 8~10학급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가 주로 교육비용함수를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적정한 수준의 학교규모를 우리나라 학교 현실을 감안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권순형 외, 2021).

2010년대 들어서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학교에서는 교과·비교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학교급·학교 규모·학급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진

행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당 학생수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민부자·홍후조, 2011). 이 연구에서는 교과(국어, 사회, 도덕, 수학, 예체능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 인원수로 강의식 수업에서는 15~25명이 적절하며, 토의 및 토론 학습, 역할극, 팀 경기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해 최소 인원수로 학급당 8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년·학교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전체의 규모인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교의 학생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농산어촌의 교육적 상황을 종합적(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교수 학습, 학업 성취도, 사회성-인성, 교육 시설 환경)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이재림·양형모, 2015).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당 2~3학급(적정 2학급)을 기준으로 학급 당 평균 15명(12~18명)을 유지하는 규모 즉, 120~270명(적정 180명)의 규모, 중학교의 경우 통학 거리내 지역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년 당 3~6학급 학급당 20명 기준으로 180~360명(적정 240명)이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한 연구가 있다(이상민·조창희, 2016). 이 연구에서는 전담교과 소요 교사 및 특별 교실 소요를 고려하여 초등학교는 12~18학급, 중학교는 상치 및 순회교사 등을 고려하여 최소 12학급 이상을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2009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2010~12)’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안이 제시되었으나 지역 여론 등을 의식한 교육감 및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적은 미미하였다(김훈호 외, 2023: 140). 이에 2015년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만 신도심에서의 학교 신설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학교충량제’를 본격 시행하고(엄기형, 2017), 같은 해 12월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소규모학교를 면·도·시·벽지 지역은 초등과 중등 구분 없이 60명,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으로 제시되었다. 이 기준은 종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기준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운영의 한계점으로 제시한 ‘사회성 함양의 어려움’, ‘학업성취도의 저하’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교육부의 기준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다(김훈호 외, 2023). 또한, 교육부에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학교의 1/3정도가 소규모학교로 분류될 수 있고 우선 지원 학교 선정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복식 학급이나 교원 편성 등의 문제로 적정규모학교의 기준에는 ‘학급 수’도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권순형 외, 2021).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7> 적정학교 규모 연구 및 정책

영역	연구자 (발행연도)	적정학교 규모
효율적 학교운영 및 학교경영	공은배 외 (1984)	· 초등학교: 학교생활 - 500명 이하 학교경영 - 16~20학급(752~940명) · 중학교: 학교생활 - 1,000명 이하 학교경영 - 16~20학급(1,008~1,260명)
	백성준 (1997)	· 초등학교 : 최소 18학급 · 중학교 : 최소 15학급 이상
	허숙 (2003)	· 학급당 35명을 기준 · 초등학교 : 한 학년당 3~4학급 · 중학교 : 한 학년당 7~9학급 · 고등학교 : 한 학년당 8~10학급
교육과정 운영	민부자·홍후조, (2011)	· 강의식 수업 : 학급당 15~25명이 적절 · 학생 참여형 수업 : 학급당 최소 8명 · 비교과 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이재림·양형모 (2015)	· 초등학교 : 학교 당 2-3학급(적정 2학급), 학급 당 평균 15명(12-18명), 총 120-270명(적정 180명) · 중학교 : 학년 당 3-6학급, 학급당 20명, 총 학생수 180-360명(적정 240명)
	이상민·조창희, (2016)	· 초등학교 : 12~18학급 · 중학교 : 최소 12학급 이상
정책	교육부 (2016)	· 면·도서·벽지 : 60명(초·중등) · 읍 : 초등 120명, 중등 180명 · 도시 :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정책에 대한 제안	권순형 외 (2021)	·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생 수 외에 학급 수도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
	김훈호 외 (2023)	· 교육부가 통·폐합의 이유로 제시한 기준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과도하게 낮은 인원수가 제시되어 적정 규모학교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연구는 초기 학교 운영 및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큰 규모를 제시했으나, 이후 ‘교육 효과의 극대화’, ‘교육과정 운영의 충족성’, ‘학업 성취도’, ‘학생 참여형 수업 가능성’ 등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농산어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급별(초·중·고)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교육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지역보다 훨씬 낮은 규모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획일적 기준 대신 지역별 상황에 맞는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나, 이 기준이 소규모 학교 운영의 문제점(사회성, 학업성취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가 제시되는 등 기준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학생 수 외에 학급 수 등 복합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연구는 초기 경영 효율성 중심에서 점차 교육 효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충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향후 연구는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 지역 여건 및 교육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이고 합리적인 적정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 정책 기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학교 교육 정책

1) 정부 정책

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교육 정책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위원장은 주로 대통령이 맡으며, 법에 따라 5년마다 인구 관련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1차 계획은 2006~2010년으로 수립되었고 이후 5년 단위로 지속되었다. 2025년 현재 4차 계획(2021~2025년)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시기별 교육 관련 정책 주요 내용

시기(연도)	교육 관련 정책 주요 내용
1차 (2006~2010년)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이버 가정 학습 내실화

2차 (2011~2015년)	·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 운영 학교 확대 등 2012년까지 500개 학교의 통폐합과 통폐합에 따르는 인센티브 지원 ·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보육료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3차 (2016~2020년)	·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 문제 개혁 추진 · 적성과 능력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교육-고용 체계 개편 · 공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4차 (2021~2025년)	·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교사) 플랫폼 구축 · 진로·적성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공간,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학교시설 복합화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 류방란 외(2018: 54), 박선권(2022: 54)을 재구성

위 정책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함께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정성호, 2015), 교육비 부담을 결과적으로 크게 완화해 주지 못해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늘리지 못했다는 점(하준경, 2012),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가족 지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미흡 등을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박선권, 2022)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교육정책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비롯하여 15개 중앙행정기관이 범부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어촌 거주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하고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여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차 기본 계획에서는 4대 중점 과제로 ▲ 복지기반 확충 ▲ 교육여건개선 ▲ 지역개발 촉진 ▲ 복합산업활성화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기회의 보장, 교육비 부담 완화, 교원의 근무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 법에 의한 정책들은 대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선 정부가 수립한 기본 계획과 농산어촌의 사이에 괴리감이 크고,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에 대한 배려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박진도, 2014). 이 외에도 중앙 정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모방하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시 또는 군 수준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대부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송미령 외, 2014: 10). 교육 관련 부문에서도 교육비 부담 경감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의 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정책과의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임연기, 2006), 시 또는 군 수준에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류방란 외, 2018).

종합적으로, 이 법을 근거로 수립된 1,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각기 특색을 살려 생태학적 접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이후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의 소기의 성과는 있었으나, 농어촌 소멸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2025년에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은 그간 4차례의 기본 계획과 달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전략으로 재편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생활인구 유입 + 주거 여건 개선 +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등 선순환 구조 창출을 목표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5. 3. 27.).

다) 소규모 학교 정책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고, 총 6기로 나눌 수 있다⁷⁾.

1기는 1982~1998년으로 1981년 설정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때 기준에는 같은 면내에 있는 학교가 6학급 이내, 학생 수 180명 미만, 통학거리 4km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다. 1997년에는 ‘영세사학 해산 특례 조항’이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농어촌지역의 사립학교들이 다수 통·폐합 되었다.

2기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던 1999년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모든

7)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부 정책은 권순형 외(2021)의 2장 1절 자료를 요약 및 재구성함.

초·중등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분교장은 2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1면 1분교 원칙은 유지하였다.

3기는 2005~2005년 시기이다. 2기 정책을 추진하며 교원단체, 지방 의회, 지역 주민과 동창회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정책의 성과는 과거에 비해 미미했다는 특징이 있다.

4기는 2006~2009년에 추진되었다. 2005년 4월에 ‘국정 현안 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결정하였다. 당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기준은 2,3기와 동일하였지만, 2006년에 60명 이하라는 기준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도서벽지 지역이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한 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은 ‘제외학교’로 설정되어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5기는 2010~2015년까지의 시기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책명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서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시도별로 자율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통폐합 지원금이 변경되었고, 통폐합의 기준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었다.

6기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규모학교들은 복식학급 운영, 순회 교사 배치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방과후 활동 제공의 한계,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가능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교육부, 2016). 이에 교육부는 2015년 12월, 기존의 획일적인 권고 기준(읍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을 개선하여,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한 새로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 시·도에서 교육부의 기존 권고 기준이 너무 낮아 실제 통폐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남녀공학 전환, 일반고·특성화고 통합 운영, 공·사립학교 통합, 거점 중·고 육성 등)를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 학교육성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3년) 전담 조치를 승인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별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는 공청회 개최나 홍보비 등 관련 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 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거점별 우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필수 프로그램 및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기숙사 신축 및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 학교 시설 기반을 대폭 개선한다.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통학버스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며, 해당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6).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9>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변천과정

구분	시기 구분	통폐합 기준	추진 주체 및 지원
1기	1982 ~1998년	• 81년 9월 180명 기준 • 93년 9월 100명 권장 • 97년 8월 영세사학 해산 특례	•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 영세 사학의 해산 특례 조항('97.8.)
2기	1999년	• 초·중등학교 모두('98.8.) •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 • 분교장 학생수 20명 이하 • 1면 1본교 원칙 유지	• 정부재정 지원(2,577억원) • 본교 폐지·통합 운영(5억원) • 분교장 폐지(2억원) • 분교장 개편(2천만원)
3기	2000 ~2005년	• 2기와 동일	• 교육부 기준 제시 • 시도교육청 자율 추진 • 통폐합 성과 과거에 비해 줄어들
4기	2006 ~2009년	• 2005년 국정현안조정회의 통폐합 추진 결정 • 통폐합 기준: 3기와 동일 • 2006년 60명 이하 기준 제시 • 제외 학교: 도서 벽지 지역, 반대심한 지역,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2005년 국정현안조정회의 통폐합 추진 결정 • 통폐합 기준: 3기와 동일 • 2006년 60명 이하 기준 제시 • 제외 학교: 도서 벽지 지역, 반대심한 지역,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5기	2010 ~2015년	• 2005년 국정현안조정회의 통폐합 추진 결정 • 통폐합 기준: 3기와 동일 • 2006년 60명 이하 기준 제시 • 제외 학교: 도서 벽지 지역, 반대심한 지역,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2010년 통폐합지원금 변경 • 본교 폐지·통합 운영(20억원) • 분교장 폐지(10억원) • 분교장 개편(1억원)

구분	시기 구분	통폐합 기준	추진 주체 및 지원
		• 통폐합 기준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 • 면·도서·벽지지역, 읍지역 60명 이하 • 도시지역 200명 이하	• 2012년 통폐합지원금 변경 • 본교 폐지·통합 운영 • 초 30억원, 중등 100억원 • 분교장 폐지(10억원) • 분교장 개편(1억원)
6기	2016 ~현재	• 면·도서·벽지지역 초·중등 60명 이하 •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신설: 복식학급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	• 통폐합 지원금 확대 및 세분화 • 지역 중심에서 학교규모(학생수) 기준으로 변화 • 본교 폐지: 초등-60명 이하(40억원), 61~120명(50억원), 120명 초과(60억원), 중고-60명 이하(90억원), 61~120명(100억원), 120명 초과(110억원) • 분교장 개편(5억원), 폐지: 20명 이하(20억원), 21~40명(30억원), 40명 초과(40억원) • 신설, 대체이전: 초등-60명 이하(30억원), 61~120명(40억원), 120명 초과(50억원), 중고-60명 이하(60억원), 61~120명(70억원), 120명 초과(80억원) • 통학운영: 시설폐쇄(30억원), 미폐쇄(10억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 관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폐합에 따른 부수적인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한 정책 접근이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최근 급격하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교 통·폐합 정책을 사실상의 폐지하고 학교 내외의 공간과 시설을 지역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에서 육성·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원 수급 정책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4.23.). 이 계획에는 단순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및 신도시 등 인구과밀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의 교원을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변동 추이를 분산하여 반영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지원할 계획이며, 신도시 등 인구 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2023~2027년까지의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0> 2023~2027 공립 교원 신규 채용 규모(안)

학교급	학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초등	학생수(천 명)	2,539	2,423	2,268	2,131	1,976
	신규채용 교원 수	3,561	3,200~2,900명 내외		2,900~2,6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평균 144명)	15.4	14.8	13.9	13.2	12.4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평균 203명)	21.1	20.0	18.6	17.3	15.9
중등	학생수(천 명)	1,857	1,880	1,908	1,868	1,841
	신규채용 교원 수	4,898	4,500~4,000명 내외		4,000~3,5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평균 144명)	11.8	12.1	12.4	12.3	12.3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평균 203명)	25.0	25.2	25.5	24.8	24.4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23.4.23.)

교육부에서는 위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맞추어 교

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수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중학교의 1/3, 고등학교의 1/4이 과밀학급에 해당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의 비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6.8%로 집계되었다.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학생의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국회의원 등이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SBS Biz, 2025.09.11).

또한, 교육부의 이와 같은 교원 수급 계획을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 이길재 외(2023)는 교원 수급 정책의 문제점으로 ①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교원 배치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② 과소·과대 학교의 교원 배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③ 국가 정책에 따른 별도정원을 전체정원에 포함하여 배정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 배정 규모의 적정성 분석 및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지표 관련 데이터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최소교원정원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③ 과밀학급지역 혹은 신설학교 지역의 교원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④ 시·도교육청별 교원배정 기준 및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 발표 전, 이재덕 외(2021)는 고교학점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4.7~50.0%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2040년까지 공립 고등학교에서 평균 기준 보수모델 5,959명, 합리모델 6,257명, 최적 모델 7,203명의 교원을 신규채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2026년 이후 중등 교원을 4,000명 미만으로 채용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과 매우 상이한 결론이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수를 감소시키는 수급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교급, 지역별 상황이 매우 상이하고, 현재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등 다른 정책의 기조를 교원 수급과도 연관지어 고려해야 함을 볼 때, 교원 수급 문제는 장기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도 교육청 정책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는 물론 특별시·광역시 등의 대도시

도 피해갈 수 없는 전국적인 문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더욱 심각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전북(10개) 등의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교육청들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대응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비교적 다수 분포해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하였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5.4.5.)에서 발표한 ‘2025 더 나은 강원교육 2.0 중기 계획’에는 인구의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수의 증가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밀착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이 정책은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 대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강원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교육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생밀착교육과정’이란 ‘학생 개개인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착하여 지원하는’ 강원형 작은학교 교육과정 지원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밀착교육과정의 목표를 ▲ 소수 인원을 강점으로 바꾸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소수 인원 교육활동에 적합한 작은 학교형 공간 구축 ▲ 작은 학교에 적합한 교원 양성 및 근무 여건 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중기 계획으로 ▲ 교육과정 운영 ▲ 공간조성 ▲ 교원 정주 여건 개선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①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공부 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③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④ 작은 학교 특화 심리·정서 지원 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차원을 중점 영역 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밀착교육과정 운영은 ‘복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기존의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관점을 ‘학력 제고’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 수가 적은 교육환경을 오히려 강원교육만의 강점으로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아울러 작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학생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

2014년 경기도에서는 제정한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작은 학교의 기준을 학생 수 60명 이하의 공립학교로 제시하고, 이 학교들에 대해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2016년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통합 운영학교의 지정, 공동학구제 운영 등을 명시하였다(민용성 외, 2020).

경기도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일방)학구제의 운영이다. 이것은 다른 학구에 속한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소규모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유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구한다.

둘째, 학교 간 연합·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간의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순회 교사 배치와 원격수업 시스템 등의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를 연계한 통합 운영학교 모델을 통해 학교급 간의 교사 교류와 교과별 연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은 물론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통학 환경의 개선과 정주 여건의 확보이다.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위해 통학버스 지원, 교통비 보조, 통학 안전 대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지역 맞춤형 교육 및 평생학습과의 연계다. 경기도는 작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학습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다. 「경기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 제7조에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교육자원의 통합적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섯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남부와 북부 및 도시와 농촌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실행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단위로 정

책 추진단 구성하고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강화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간의 연계 협력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실현되고 있다(민용성 외, 2020).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도농복합 구조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다채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감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적정규모학교’란 ‘학생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 이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육공동체, 즉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요구와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을 강제하지 않고, 학교별 특성과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통해 학교의 유휴 공간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혁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정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합 학교의 교육활동 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교육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의 거점 역할로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 규모를 재구조화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결손을 최소화하며, 교육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미래 교육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유형으로는 ▲ 학교 통폐합 ▲ 신설대체이전 ▲ 통합운영학교 ▲ 분교장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학교 통폐합이나 통합운영학교는 재학생 전체 학부모의 60% 이상 찬성, 신설대체이전은 재학생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60% 이상 찬성 기준은 투표 참여 학부모가 아닌 재학생 전체 학부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신중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공동체 중심의 자율적 결정을 최우선시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동체의 동의 기준이 다소 높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

회의 여러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을 목표로 ‘작은 학교 가꾸기’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은 경북교육청의 특색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란 인근의 비교적 큰 학교의 학생들이 읍·면 지역의 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에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2019년 시범 운영되어 2023년 현재 작은 학교 164교(초등학교 144교, 중학교 20교), 큰 학교 135교(초등학교 98교, 중학교 37교)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성추심 외, 2023).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학생들을 작은학교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과 함께 ‘지역거점형 기숙형 중학교’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학생 수 200명 이상 또는 적정한 규모(읍·면 지역 내 3개교 이상 통합)의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전환하고 기숙사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정책이다(민용성 외, 2020). 경북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 해결, 복식학급 해소, 교사 수업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통합 이후 인성 교육,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회성 발달 등 학습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순회교사 배치, 원격 기반 화상 수업 시스템 도입, 마을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경북미래교육지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형 혁신교육지구인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김형규, 이기용, 2024: 1). 경상북도의 경우 2020년 6월 4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개 지구(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문경시, 청송군, 칠곡군, 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의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과 학교의 협력아래 지역기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Ⅱ-27] 경상북도 경북미래교육 지구 지정 현황

경북교육청의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육성되고 있다. 혁신학교 운동으로부터 파생된 혁신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공동체 형성으로 심화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발전단계에서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소멸 위기, 학생 수 급감, 마을연계 돌봄 및 방과후 활동, 미래 사회, 책임 교육, 배움과 성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경북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서 배운 삶이 지역사회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공동체 역할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형규, 2023). 2020년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의 5개지역이 지정되었고, 2023년 3개 지역(문경시, 청송군, 철곡군), 그리고 2024년 4개 지역(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도 교육청에서 운영사업비로 교당 2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자체가 동일 수준으로 대응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로는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교육과정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경우 마을 교육자원 지도 작성과 마을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연수는 필수 과제이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연구회 운영은 선택과제로 운영된다. 두

번째 활동은 학교 중심 마을학교 운영으로 학교-마을 연계 모델학교 운영,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마을교사 발굴 및 도 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이 중 필수 과제는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후 활동 지원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학생 대상 돌봄을 운영하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 밖에 학교-마을 연계 모델학교는 학습생태계(놀이학교) 확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와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주도형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세 번째 지역 특색프로그램 운영은 지구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개방 및 공유, 학생 자치활동 지원으로 구성되고, 지구별 특색프로그램 운영은 선택과제이다.

경북교육청은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 협의회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교사 및 마을활동가 워크숍, 학습연구년 특별연구(정책연구)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지구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마을교사 인력풀, 마을학교 현황, 마을 교육자원 지도, 각종 운영 내용 등 과정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2020년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 수 60명 이하의 공립학교를 ‘작은학교’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특성화,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상남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 중 초등학교의 32.0%, 중학교의 18.9%, 고등학교의 5.3%가 작은 학교에 해당한다. 이는 도 전체 학교의 23.1%를 차지하는 수준이며(위미나 외, 2022),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조례에 따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도청, 도교육청, 각 지자체 등 다양한 행정주체가 협력하여 학교 유지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과 정주 가능한 인구의 유입, 교육 경쟁력의 강화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의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 빈집 정비 및 임대주택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 지역 일자리 창출 ▲ 학교 공간 재구성 ▲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만한 점으로 가족 단위 이주를 유도하는 전략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작은학교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려 한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추진되며, 지역자원 연계 수업, 마을교사제, 공동 커리큘럼 운영 등의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위미나 외, 2022).

경남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작은학교.com’이라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가고 싶은 작은학교’라는 슬로건 아래 작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과 위치, 작은학교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정책은 농어촌 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과정 및 공간의 혁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중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지역적인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위미나 외, 2022). 경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정책은 정주 여건과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관계망 개선이라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교육의 생태계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 기준 도내 작은 학교(학생 수 60명 이하) 비율이 39.9%, 아주 작은 학교(10명 미만) 비율이 3.1%에 달하는 상황에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 향상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수 1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을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간 협력 강화, 지역과 학교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 미래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감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적정규모 학교 조성, 농촌유학사업, 수업과 평가 설계 혁신, 지역사회와의 인적·물적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 브랜드로 ‘어울림학교’, ‘원도심학교’, ‘농촌유학’, ‘공동교육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민주적 자치 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지원하며,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 협력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원도심학교’는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모델학교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 속 작은학교(원도심학교) 공동통학구’를 지정하여 과밀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을 지원한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전북 외 지역 초·중·고등학교

생이 일정 기간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가족체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유학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마지막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개별 맞춤형 학습플랫폼 및 공공학습관리시스템(전북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혼합수업 지원, 수업 콘텐츠 개발, 교사지원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바)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작은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약 43%(377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3월,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학교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학교에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통폐합 기준을 기존 전교생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관리 대상 학교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로 도모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19; 2021). 이러한 기조 하에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작은학교 발전 모델 개발 연구회 발족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추진한다.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주요 시책으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있다. 이는 ‘읍 소재 9학급 이상 중학교에서 주소변경 없이 면지역 중학교로의 진학 및 전학은 허용하되,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또는 면 지역 간의 진학 및 전학은 불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면 지역 학교로의 학생 유입과 학급 수 유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화순 지역 등에서 과대학교 문제 완화 및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21).

더불어, 전라남도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도 힘쓰고 있는데, 2025년 개교 예정인 ‘전남온라인학교’를 통해 소규모학교에도 다양한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제공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꿈키움캠퍼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심화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 2025.4.11.).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 에듀버스·텍스’ 운영 등 학생 통학 편의 제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농산어촌에 소재한 작은 학교의 존속과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농산어촌에 초·중학교 중 ‘작은학교’의 학습권 보장, 교육여건 개선, 적정규모 학교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민용성 외, 2020; 위미나 외, 2022). 충북교육청은 이 조례를 토대로 ‘작은학교 살리기 거점학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거점학교’란 특정 권역 내의 소규모학교 간 연계 및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교사 부족, 복식학급 운영의 어려움, 교육과정 협소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 간 교류 및 공동 수업과 연합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 운영하기도 하며, 교육청에서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설계를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①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는 사업 ② 학교 간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공동 수업, 교사 교류, 인터넷 기반 수업 등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③ 기숙형 중학교 전환 지원 사업 등이 있다(민용성 외, 2020).

이처럼 충청북도교육청은 작은학교를 지역의 교육 및 복지의 거점으로 전환하고 단순한 유지가 아닌 학교가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 거점의 핵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한 행정 지원,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통학 지원 및 기숙형 전환,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충청남도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복식학급 전담 교사 배치, 교원 인사 기준 개선,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통학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통학 차량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통학 차량의 통합관리 체계를 토대로 학교 간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명시되었다(위미나 외, 2022). 아울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변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학교 간 교류 수업,

교원 협력 수업 등을 통해 교과 편성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민용성 외, 2020).

이와 같은 운영은 도 주도의 탑-다운 식의 정책이 아닌,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획 및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마을교사제, 지역 체험 중심 수업, 예체능 중심 프로그램 등 작은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작은 학교 문화 예술체험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운영되는 ‘농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는 미술, 음악, 연극, 예술 등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교과 수업 외에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보완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위미나 외, 2022).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시·군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제1기 행복교육지구(2017~2021년)는 ‘학교 속 마을, 마을 속 학교’를 목표로 운영되었고 2기(2022~2027년)는 ‘모두의 배움과 성장’을 지향하는 행복교육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2기 관련 정책으로는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 ▲마을 학교와 마을 교사 발굴 및 양성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 ▲청소년 진로 탐색 상상마을교실 운영 ▲지역 기반 마을교육 사업 운영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공론장) 등이 있다.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청-지자체-학교-마을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충청뉴스, 2024.08.02.).

요컨대, 충청남도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교육활동 공간의 개선, 학교 간 교육자원의 공유, 마을 교육과정과의 연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통학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접근성과 교육 경험의 다양성을 함께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 소규모학교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소규모 학교 관련 지역별 정책과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11> 소규모학교 관련 지역별 주요 정책 정리

교육청	주요 정책	정책 내용
강원도	• 학생밀착교육과정	•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부습관 형성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 작은학교 특화 심리·정서 지원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경기도	•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 통합 운영학교의 지정 • 공동학구제 운영	• 통학 환경의 개선과 정주 여건의 확보 •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전담조직 운영 • 지역 맞춤형 교육 및 평생학습과의 연계 • 학교 간 연합·공동교육과정의 운영 • 공동(일방)학구제의 운영
	• 적정규모학교 육성	• 학교 통폐합 • 신설대체이전 • 통합운영학교 • 분교장 개편
경상북도	• 작은학교 가꾸기 •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 지역거점형 기숙형 중학교 • 경북미래교육지구	• 소규모학교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 • 큰 학교의 학생들이 읍·면 지역의 초·중학교에 전입 허용 •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전환하고 기숙사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 • 지역사회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 분담
경상남도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빈집 정비 및 임대주택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 • 지역 일자리 창출 • 학교 공간 재구성 •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경남작은학교.com' 누리집 운영
전라북도	• 어울림학교 • 원도심학교 • 농촌유학 • 공동교육과정	• 민주적 자치 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 지역 자원과 연계된 특색 있는 모델학교 조성 • 전북 외 지역 초·중·고등학생이 일정 기간 농어촌 학교 재학 • 온·오프라인 연계 혼합수업 지원, 수업 콘텐츠 개발, 교사지원단 운영 •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방학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캠프 운영
전라남도	• 작은 학교 살리기 • 제한적 공동학구제 • 공동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학교 통폐합 기준을 10명 이하로 완화 • 읍 소재 작은 중학교에서 면지역 중학교로의 진학 및 전학은 허용,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또는 면 지역 간의 진학 및 전학은 불가 • '전남온라인학교', '꿈키움캠퍼스',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운영
충청북도	• 작은학교 살리기 거점학교	•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교육청	주요 정책	정책 내용
		• 공동교육과정을 운영(공동 수업, 교사 교류, 인터넷 기반 수업 등) • 기숙형 중학교 전환 지원 사업
충청남도	• 행복교육지구 사업 • 농어촌 예술문화체험학교	•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지자체 간 업무협약 • 마을 학교와 마을 교사 발굴 및 양성 •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운영 • 청소년 진로 탐색 상상마을교실 운영 • 지역 기반 마을교육 사업 운영 •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공론장) 운영 •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 체험 기회 제공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역별 소규모학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교육청들은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고 학교 존속 및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통폐합 기준을 전교생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대폭 완화했고, 강원, 경북, 경남, 전북 등 다수의 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나 '학생밀착교육과정' 등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학생 유출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학생 수 증대 및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일방)학구제',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등 학구 제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북, 전남 등은 주소 이전 없이도 도심 학생이 농어촌 소규모학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학생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도심 과밀학급 해소 효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및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학생 밀착 교육과정'을 통해 소수 인원을 개별 맞춤형 교육의 강점으로 전환하고, 경남, 전북, 충남 등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체험 등을 개발하여 소규모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넷째, 교육청 단독 추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강력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특징으로 한다. 경북의 '경북미래교육지구'와 충남의 '행복교육지구', 경남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은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소멸 대응의 주체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별 소규모학교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기조를 넘어,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수성(도농 복합, 인구감소지역 심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도일수록 학교 통폐합보다는 학교 유지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 소규모학교 지원에 대한 관점이 기존의 단

순 복지 차원을 넘어 '학력 제고 및 교육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강원 교육청의 '학력 제고' 중심 정책 전환이나 경북교육청의 '작지만 강한 학교' 육성 목표처럼 소규모학교를 교육적 강점으로 활용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유출을 방지하려는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소규모학교가 가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순회 교사, 원격수업 시스템, 온라인학교 등 다각적인 기술 및 인적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 통합이 어려운 학교 간에도 교육자원을 수평적으로 공유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기도교육청의 재학생 전체 학부모 60% 찬성과 같은 엄격한 동의율 기준 설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은, 획일적인 재정 효율성이나 인원 등 양적인 접근보다 학교 구조 개편 정책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동체 합의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설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 정책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유입 정책(자유학구제, 농촌유학 등)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의 불균형 문제이다. 주소 이전 없이 학생을 유입시키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인근 '큰 학교'의 과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학생을 유치한 소규모학교들은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 노력을 도외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정책(미래교육지구 등)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 의지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이 상이하고 단체장 교체에 따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없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재정과 행정 등의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셋째, 교원 정주 여건 개선 및 작은 학교에 적합한 교원 양성 정책이 교육청의 의지만큼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사 수급 및 배치 문제, 교원 인사 시스템과의 연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여러 시·도에서 추진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순회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의 실제적 어려움, 학생들의 이동 및 시간표 운영의 복잡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어 정책 목표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다. 국내 실천 사례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 전인고등학교는 인성 중심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소스쿨(So-School)’이라는 진로 중심 무학년 학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문영진 외, 2024). 이는 꿈과 진로가 같은 학생들로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학급을 편성하여, 담임교사 한 명이 3년간 생활, 학습, 진로 등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다. 소스쿨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명 이내의 소수 전담 책임제로 운영되며, 교과목 개설부터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진로 관련 교육활동을 3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문영진 외, 2024).

(주)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가 추진한 ‘하이원 해피스쿨’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민간 주도 소규모학교 지원 사례다(권순형 외, 2021).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 내 4개 폐광지역(영월, 평창, 정선, 태백)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개선에 관한 자율 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학교에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폐광으로 인해 쇠락한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강화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졌으나, 2015년 이후 사업이 종료되어 민간 주도 지원 사업이 지닌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권순형 외, 2021).

나) 경기도교육청

경기 동탄중앙초등학교에 연계된 ‘동탄중앙이음터’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급증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이다(문영진 외, 2024). 이는 화성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LH공사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다. 이음터 내부에는 시립어린이집, 마을카페, 도서관, ICT 특화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등 여러 주체가 시설을 나누어 운영하고 주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존재한다. 이 시설은 인근 학교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건립되어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었고 학생과 주민의 동선이 섞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문영진 외, 2024).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2011년 지역 내 20여 개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관, 기업, 학교가 협력하여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로, 대덕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권순형 외, 2021). 대덕초등학교는 지역 기업인 (주)코미코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 직원들이 컴퓨터, 중국어, 영어 등 방과후 수업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기부를 받았으며, 차량 지원, 기자재 제공, 교육 경비 보조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덕초등학교는 2007년 97명이던 학생 수가 2011년 145명으로 증가하며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했다(권순형 외, 2021).

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 상주 화북초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농어촌 학교의 발전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손상희 외, 2024). 이 학교는 학생 맞춤형 교육,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인문 소양 교육,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을 전개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을 ‘공동 학습의 날’로 지정하여 학년 협력형 프로젝트 수업을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4학년의 ‘지역 역사 보드게임 만들기’, 6학년의 ‘영양 만점 한 그릇 음식 만들기’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손상희 외, 2024).

경북 의성 비안초등학교는 인근 소규모 학교들과의 연합을 통해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운영한다(손상희 외, 2024). 이 학교는 연 4회 교과 통합수업인 ‘공동수업의 날’을 운영하고, 체험학습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밖 ‘지역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교 클래스팅(Classting) 플랫폼을 활용한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학교의 강점을 알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손상희 외, 2024).

경북 청송 파천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원이 모두 기획 과정에 참여하여 독창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한 사례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교과교육과정’과, 융합·전환기·지역화 활동으로 이루어진 ‘미래교육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핵심적인 실천 모델은 ‘꿈소슬 육남매’ 프로젝트로, 이는 선후배와 사제 간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

젝트는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교육 인프라 조성,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등 6가지 전략을 통해 교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손상희 외, 2024).

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대홍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학교들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한다(문영진 외, 2024). 학교는 자체적으로 ‘대홍 교육과정 아카데미’를 열어 교육과정 강의와 수업 사례를 지역 교사들과 공유하며 교육 전문성을 나누고 있다. 또한, 인근의 철성초, 율천초 등 다른 소규모 학교들과 연합하여 ‘아기새를 부탁해’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한다.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자랑스러운 우리 경상남도’와 같은 주제로 사회, 미술 교과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직접 구상하고 운영함으로써, 소인수 학급의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문영진 외, 2024).

2023년에는 밀양 송진초, 함안 범수초 등 4개 학교에 교실 재구조화 모델을 시범 적용하여 공간 혁신을 이루었다(경상남도교육청, 2023.2.17.). 발굴된 모델은 학년군 공동 교육과정 모델, 무학년제 프로젝트형 모델, 복합형 모델 등 세 가지로, 작은 학교만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심과 놀이가 가능한 교실 조성, 학습 공간의 야외 확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의령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권역별 3~4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공동학교’로 묶어 교과 수업, 방과후활동, 체험학습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유교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5).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한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모델이다. 의령 서부·동부권은 ‘온종일 중심학교 연합형’, 중부권은 ‘온·오프라인 혼합형’, 중학권은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형’으로 운영되며, 주 1회 중심학교에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 모여 오전에는 정규 교과 수업과 공동급식을 하고, 오후에는 방송댄스, 코딩, 합창, 뉴스포츠, 축구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다. 이외에도 권역별 체육대회, 야영수련활동, 해외 수학여행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비교과 경험을 확대한다. 의령군의 참여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3개교 등 총 14개교에 달하며, 권역별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생 맞춤형 수업 구성 및 자료 개발이 이루어진다.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유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 ‘오후형 중심학교 연합형’에서 오전

수업과 급식까지 포함된 ‘온종일 중심학교 연합형’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 교육청은 이러한 공유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시설 개선, 교사 연수, 통학 지원 체계 개선, 교사 배치 인원수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태봉고등학교는 폐교된 태봉초등학교를 개조하여 설립된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다. 이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학교 밖 전문가를 멘토로 찾아가 배우는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프로젝트이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고 학교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공동체회의’를 운영하며 민주적 학교문화를 지향하고, 지리산 종주나 캄보디아 이동학습 등 주제별 이동 학습을 통해 교실 밖 배움을 실천한다. 이러한 혁신적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체험 중심 활동에 비해 교과 수업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문영진 외, 2024).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서는 귀농·귀촌한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2017년 설립한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이 지역의 상주초등학교 및 상주중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권순형 외, 2021).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초·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 공동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조합의 지원으로 상주중학교 내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 매점 형태의 ‘무지개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교사들은 지역 어른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여는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두 학교 모두 신규 전입생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택 및 일자리 부족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권순형 외, 2021).

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 익산의 용산초등학교는 인근의 모현동 가온초등학교와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형 어울림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에는 통학 차량을 2대 운영하고 생태교육 중점의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SW/AI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융합교육 및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고 학력 향상은 물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숨리골 마을학교, 혁신 학년제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미니올림픽, 1박 2일 캠프, 마을 할아버지와 붓글씨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하요상 외, 2023; 손상희 외, 2024).

전북 부안의 위도중학교는 섬에 소재한 전교생이 12명인 작은 어촌 마을의 학교이다. 이 학교는 농어촌 유학 협력학교이며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에 지원한 도시의 학생들과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 생태전환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아침 독서, 찾아가는 문학기행, 올바른 독서법 등 ‘책 읽는 즐거움’ 교육을 강조하고, 소규모학교의 강점인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하여 예체능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1:1 집중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전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손상희 외, 2024).

바) 전라남도교육청

전남 장흥의 유치초·중등학교 2002년 초·중학교가 통합되어 개교하였다. 농산촌 지역의 통합운영학교로 2024년 기준 초등학교 5학급 16명, 중학교 3학급 23명이 다니고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이다. 유치초등학교는 1922년에 개교한 오래된 학교였지만 장흥댐 건설로 수몰되어 유치중학교와 통합되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역량을 제시하여 10년의 교육과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또한, 소규모학교인 점을 고려하여 체험학습을 학교급간 통합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중학교 세 학년의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학년과 무관하게 베트남을 방문하는 국외 역사 생태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거나 퀴즈를 푸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마을 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과 방과후 희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문영진 외, 2024)

전남 목포 서산초등학교는 ‘목포 서산초 르네상스 2025’를 내걸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는 ‘도심 속 정원학교’를 목표로 내세우고, 에듀택시를 활용해 학교 근방 10Km 이내에 있는 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오도록 홍보하고 있다. 에듀택시는 전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2024년 7대의 에듀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정원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달산 끝자락, 다도해를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학교 품안愛’와 ‘마을 품안愛’, ‘자연 품안愛’ 등 3개의 주제로 교정에 텃밭을 가꾸고 동물도 기르고 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려 1:1 맞춤형 기초학력 지도를 하고 있으며, 유달 행정 복지센터와 함께 목포 앞바다 인근 모래사장과 평화광장 청소,

남도 마을로협동조합과는 해양 보호 활동, 목포해양대·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양 안전 체험 등 지역과 관련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손상희 외, 2024).

전남 신안에 있는 도초고등학교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이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교육 활동인 ‘드림코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지도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유네스코 학교, 전남 혁신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생태-생명-생활로 이어지는 삼생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SD)으로 민주적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 의식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텃밭 정원, 생태공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과 융합 수업을 운영하고 생태 시민으로서 지구 평균 기온 지키기에 동참하였으며, 지역사회 인적자원 ‘섬마을 인생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이슈를 이해·분석·해결·공유하는 섬 커뮤니티 맵핑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 활동으로 신안 뽕뛰기 강강술래를 계승하여 지역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였다(손상희 외, 2024).

사) 충청북도교육청

충북 충주대소원초·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100여 년 역사의 초등학교를 충주 첨단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전하고, 중학교를 신설하여 통합한 충북 최초의 도시형 통합운영학교다(문영진 외, 2024). 하나의 건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배치되어 도서관, 급식실, 체육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두 학교 급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운영되지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100권 읽기 프로젝트’나 공동 오케스트라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전체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에서는 통합운영이 주로 초등학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학교 교직원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규모에 맞는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문영진 외, 2024).

아) 충청남도교육청

‘청미목장’은 충남 청양군의 청남초, 미당초, 목면초, 장평초 4개 소규모 학교가 연합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의 한계와 학습장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이다. 4개 학교는 월 1회 이상 원격 또는 등교 형태로 ‘1수업 2교사제’ 방식의 협력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4개 학교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거나,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한 권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보장한다(문영진 외, 2024).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아산시 탕정면의 고교 과밀 현상과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출연으로 설립된 충남 유일의 자율형 사립 고다. 이 학교의 핵심은 학생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희망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에 따른 수업을 듣는 ‘학생 선택 진로별 교육과정’이다(문영진 외, 2024). 교육과정은 자연공학, 인문사회, 예술체육 3계열 16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디플로마(과정인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66일간 기초 습관을 형성하는 ‘MSMP 프로그램’과 학습 부진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는 ‘최저 학력보장제도(NSLB)’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영진 외, 2024).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마을교육공동체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폐교 대상이 된 작은 학교를 지켜내는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례의 특징은 학교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문영진 외, 2024). 지역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마을학교 강좌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학부모 중심으로 확장되어 2016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농촌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했으며, 현재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 복지 기반 확충,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실제적인 지역 발전 효과를 거두었다(문영진 외, 2024).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풀무학교는 ‘더불어 사는 학교와 지역’을 교육 목표로 삼고 지역사회와 매우 깊이 연계된 교육을 실천하는 농업고등기술학교다. 이 학교는 역사적으로 지역에 유기농업을 도입하고 신용협동조합 등 주요 지역 단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과정에서 지역주민은 현장 교사가 되고 지역 농장은 교육 현장이 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적·물적 자원을 활발히 공유한다. 학생들은 채소, 논농사, 축산 등 전문적인 농업 실습과 현장 실습에 참여하며, 학교의 2년제 전공 과정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장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문영진 외, 2024).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사례는 학교를 지역의 중심에 두고 마을 전체가 활력을 되찾은 대표적인 모델이다. 2000년대 초반 인구감소로 거산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지역의 초등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학교 강좌가 학부모와 지역민의 참여로 확대되어 2016년 ‘송악동네마을사람들’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으로 이어

졌다. 이 조합은 ‘사람, 삶, 공유’의 가치 아래, 학교와 연계하여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협동조합 경영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경제 체제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러한 자생적인 노력의 결과, 거산분교는 본교로 승격하고 인근 송남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며 ‘찾아오는 농촌 학교’를 실현했다고 평가받는다(권순형 외, 2021).

살펴본 국내 학교의 실천 사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국내 학교 실천 사례

지역	학교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 전인고등학교	- 진로 중심 무학년 학급제 ‘소스쿨(So-School)’ 운영 - 학년 구분 없는 진로별 학급 구성 - 교사 1인당 12명 이하, 3년간 전담지도 - 교과, 프로젝트, 동아리 등 학교활동의 기본 단위로 기능
	‘하이원 해피스쿨’ 사업	(주)강원랜드 사회공헌위원회 주도 민간지원 사업 - 폐광지역 초·중등학교 대상 연간 2,000~3,000만 원 지원 - 지역교육공동체 강화 및 우수학교 모델 창출 목표 -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한계 노출
경기도교육청	동탄중앙이음터	- 학교시설복합화 모델 - 화성시·경기도교육청·LH공사 협력 추진 - 시립어린이집,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복합시설 운영 - 주민·학생 공동 이용, 안전 동선 문제 제기
	안성 대덕초등학교	- 지역 중소기업 20여 곳과 학교 결연 지원사업 (주)코미코 등 기업의 교육기부(방과후 강사 참여, 기자재·차량 지원) - 관·기업·학교 협력 기반 특성화학교 운영 - 학생 수 증가 및 지역 명소화
경상북도교육청	상주 화북초등학교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체험 중심 수업 운영 - 매주 수요일 ‘공동 학습의 날’ 운영 - 학년 협력형 프로젝트 학습 전개
	의성 비안초등학교	- 인근 소규모 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 연 4회 ‘공동수업의 날’, 체험학습 공동 실시 - 지역돌봄센터 설립 추진, 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송 파천초등학교	- 교사·학부모·학생 참여형 교육과정 기획 ‘꿈소슬 육남매’ 프로젝트 운영·교과·창의적 체험 활동 이원화 운영 - 협력적 학교문화와 전인적 성장 추구
경상남도교육청	대흥초등학교	-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역할 ‘대흥 교육과정 아카데미’ 운영 - 인근 학교들과 공동 프로젝트 수업 실시

지역	학교	내용
	의령 공유교육 시범사업	• 권역별 3~4개 학교를 묶은 '공동학교' 운영 • 온종일 중심학교 연합형, 혼합형 등 유형별 모델 운영 • 공동 수업·급식·방과후 활동·체육대회 등 공동 운영 • 교사 협의회와 '공유아카데미' 통한 전문성 강화
	태봉고등학교	• 폐교 활용 전국 최초 공립 대안기숙고 설립 • 학생 자율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Interest) 프로젝트 운영 • 교사·학생 공동 의사결정 '공동체회의' 운영 • 이동학습 및 체험 중심 교육 실천
	남해 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 귀농·귀촌민 중심 협동조합 설립(2017) • 지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연구모임 결성 • 학교 매점 '무지개협동조합' 설립 • 마을-학교 간 상호 교육활동 순환 구조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용산초등학교	• 공동통학구 설정 및 도시형 어울림학교 운영 • 통학 차량 운영 • 생태 중심, SW/AI 디지털 선도학교, 지역사회 연계 등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위도중·고등학교	• 어촌에 소재한 중·고통합학교로 농어촌 유학 협력 학교 운영 • 독서, 예체능, 생태 전환 교육 등의 교육과정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초·중학교	• 초·중 통합학교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10년 교육과정 설계 • 학교, 학년간의 다양한 통합 활동
	서산초등학교	• '도심 속 정원학교'를 목표로 에듀택시를 활용해 인근(10km)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 • 3생 교육을 위한 텃밭 농장 운영 및 동물 사육 • 지역과 연계한 해양 관련 특색 활동 운영
	도초고등학교	•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드림코워크'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전통 문화 계승 활동
충청북도교육청	충주대소원 초·중학교	• 충북 최초 도시형 통합운영학교 • 초·중 통합 이전, 시설 공동사용(도서관·급식실 등) • '100권 읽기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등 공동체 활동 운영 • 초·중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충청남도교육청	청미목장 (청남·미당·목면·장평초)	• 4개 소규모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 월 1회 이상 원격·등교 병행 협력수업 실시 • '1수업 2교사제' 적용 • 전교생·교직원 참여 공동행사(체육대회·책축제 등)
	삼성고등학교	• 기업 출연 자율형 사립고 설립 • 학생 선택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3계열 16과정) • 이수자에게 디플로마(과정 인증서) 수여 • 'MSMP 프로그램', 'NSLB 제도' 운영

지역	학교	내용
	아산 송악면 마을교육공동체	• 폐교 위기 학교 살리기 기반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2016) • 학부모·교사·주민이 함께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촌 특화 교육 통해 외부 인구 유입 촉진 • 복지·경제 기반 확충으로 지역 활성화 달성
	홍성 풀무학교	• 지역사회 중심 농업기술학교 • 유기농업·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 역할 • 지역주민이 현장교사로 참여, 농장 교육현장화 • 평생교육 기능 수행,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운영

라. 소결

본 절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 그리고 국내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적 대응은 단순한 학교의 규모 조정이 아닌, 교육 시스템 전반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질적 전환이란, 학생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는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소규모학교를 거점형, 캠퍼스형, 기숙사형 등의 형태로 다변화하고 학교 규모나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직된 교원 양성 및 수급 체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학교급·과목 간의 복수 자격 취득제 등 보다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논의가 효율성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때,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뿐 아니라 각 분야, 국가와 지역사회, 정부와 민간, 국회와 지방 의회 등을 포괄하는 협력적 범(凡)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내 학교 교육 정책은 초기 중앙 정부 주도 하에 단순 통폐합을 통해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의회나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조례 등 법령 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지원을 제도화하고 경남의 ‘작은학교 살리기’와 전남의 ‘제한적 공동 학구제’와 같은 지역소멸과 교육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정책 모델을 추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실천 사례들은 학교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남 유치초·중학교와 같이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거나, 태봉고등학교처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사례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남해 상주동고등학교 협동조합 사례처럼 지역사회 구성원(귀농·귀촌민) 중심의 협동조합이 마을-학교 간 교육활동 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학교 연계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지역 사회와 학교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앞으로 소규모학교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학교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국내 대응은 경영 효율성 중심에서 교육의 질, 개별화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수급, 학교 운영 모델, 행정·재정 시스템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주도적 정책과 학교 현장의 자발적 실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관련 정책과 학교 정책을 결합하는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학령인구감소 대응 국외 학교교육 정책 및 실천 사례

가. 선행연구

학령인구 감소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OECD 회원국 전반이 직면한 보편적 현상이다.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0-4세 인구가 감소했으며, 5-14세 인구 역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OECD, 2024).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농촌 지역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및 폐교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OECD, 2024).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흔히 거론되는 학교 통폐합 정책은 공공 지출을 줄이고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 학교의 폐교는 지역사회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폐교가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쟁점이 되어왔다(Di Cataldo & Romani, 2023).

최근의 주요 실증 연구들은 효율성 위주로 단행된 학교 폐교가 지역사회에 상당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학교 통폐합 정책을 분석한 Di Cataldo & Romani(2023)는 마지막 초등학교가 폐교된 지자체에서 인구와 소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경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체할 학교가 부족한 주변부 지역(peripheral municipalities)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덴마크의 사례를 연구한 Sørensen et al. (2021) 역시 8개 농촌 학교의 동시 폐교가 지역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0년의 추적 기간 동안 7.6%p의 인구 감소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구 감소 효과가 폐교 직후가 아닌, 6년이 지난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질적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을 지역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과 주택시장의 ‘고착 효과(lock-in effects)’에서 찾으며, 학교 폐교의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장기적 과정임을 설명했다.

핀란드의 사례를 분석한 Lehtonen(2021) 또한 GIS 분석과 DiD 회귀분석을 결합하여 학교 폐교가 주변 지역의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구는 만약 학교 폐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인구 변화율이 실제보다 2.8% 더 양호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매력도를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특히 학교 통폐합이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과 장기적인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의 복잡한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의 논의는 기존 학교의 개념을 확장하고 운영 방식을 혁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 가지 흐름은 학교를 학생 교육만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의 복지, 문화, 평생학습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거점(Community Hub)’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OECD(2018)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학교가 더 이상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ryfoos, 2002).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학교의 고립을 막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학교가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학교 네트워크(School Network)’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된다(OECD, 2018). 학령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개별 학교의 규모를 축소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Chapman(2008)은 학교 간 네트워크가 교사들의 전문적 고립을 막고, 공동의 교육과정 개발과 리더십 공유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역량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실제로 OECD(2018)는 포르투갈의 ‘학교 클러스터’ 사례처럼, 여러 학교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중복 투자를 막고 학생들에게 단절 없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구조적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날 기회로 보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실현하려는 시도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Pane et al., 2015). 나아가 ICT와 원격 학습은 농촌 학교가 부족한 교과목을 보충하고, 교육 접근성을 넓히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OECD, 2018). 이러한 대안적 접근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나. 국외 학교 교육 정책

1) 일본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한국보다 먼저 직면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문부과학성은 2015년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적정 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규모의 표준을 초·중학교 모두 12학급 이상 18학급 이하로 설정했으나, 통폐합의 최종 결정 및 실행은 각 지자체(시정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문부과학성, 2015). 해당 지침은 통폐합 추진 시 단순한 효율성 외에도 교육의 질,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 통학 거리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민 및 학부모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강조한다. 농산어촌의 경우,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방재, 보육, 주민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08년부터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2015년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검토위원회’ 설치, 2016년 ‘제언서’ 제출, 이후 시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등 단계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김지영, 2024).

이와 함께 다양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도 추진 중이다. 문부과학성은 2015년 ‘저출산,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한 활력 있는 학교교육 추진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장점(개인별 세밀한 지도 강화, 기초학력보장 관련 사항 실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극대화하고, 단점(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ICT 활용 합동 수업, 사회성 함양 및 다양성 축적을 위한 단기 교환 홈스테이, 1개월 정도의 장기 합숙, 어촌 유학 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협력한다(文部科学省, 2016). 구체적으로 통합에 따른 학교 시설 신증축에 대한 시설설비 보조, 교원 추가배치, 지자체 간 연계 또는 학교운영 모델 지원, 학생의 환경 적응 지원, 스쿨버스 구입비 보조 등 통학수단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2015년부터 소규모학교에 ICT 활용 협동학습 및 원격강좌를 도입하는 ‘인구감소사회의 ICT 활용에 의한 교육의 질 유지향상에 관한 실증사업’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文部科学省, 2018). 또한, 벽지 고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CORE 하이스쿨 네트워크 구상’도 추진되었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학교에 대해 통학구역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 어디서든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특별 인정학교’ 제도도 주목할만하다. 또한, 초·중학생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농산어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지역 학교에 다니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산촌유학(山村留学)’ 제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 이주 촉진,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자체는 유학생의 주거 환경 정비(홈스테이, 기숙사, 가족 동반 일시거주 등) 및 호스트 가정과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문부과학성, 2023).

2025년 2월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실무단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원격교육 활용, 학교 특성화 및 학교 간 연계 강화, 지역 연계형 교육,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文部科学省, 2025).

2) 호주

호주는 광활한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소규모 학교 문제가 일찍부터 중요한

교육 정책 의제였으며, 학교 통폐합과 소규모학교 존속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교육법(Education Act 1990)은 교장,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휴교·통폐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학생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NSW Government, 2020).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교육법(Education Act 2015) 역시 학생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학교 통합 및 폐쇄 지침을 제시한다(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소규모학교 존속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재정 지원 측면에서, 호주 정부는 소규모 학교가 제공하는 소수 정예 수업, 개별화된 교육, 긴밀한 교사-학생 관계 등 질 높은 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거점 역할을 인정하며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다(Eacott, 2022). 특히 지리적 위치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행될 공립학교 재정 지원 정책은 ‘형평성과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학습과 참여를 위한 웰빙(wellbeing for learning and engagement)’,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a strong and sustainable workforce)’에 초점을 맞추며, 장애 학생, 원주민 학생,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다수의 소규모 학교 포함)에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운영을 지원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2025). NSW주는 단순 폐교 대신 ‘휴교(recess)’를 권고하며, 학교 규모, 학생 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필요 기반 자금 지원(Resource Allocation Model, RAM)’과 학생들의 문해력 및 수리력 향상을 위한 ‘소그룹 튜터링 프로그램(Small Group Tuition Program)’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서 교직원 지원 강화 차원에서 NSW 교육청은 시골 및 외딴 지역 공립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주택 제공, 복리후생 증진, 재정적 인센티브(특별 보너스, 지역 이주 지원금, 농촌교사 인센티브, 임대료 보조금,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지원금 등)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휴가 추가 지급, 휴가 경비 지원, 추가 연수기간 부여, 전근 및 승진 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4).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행정업무를 교육행정청으로 집중화하고, ‘통합학교 일정(Consolidated School Schedule)’ 절차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며, ‘학교 행정 업무 소요 시간 20% 경감’ 목표(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2)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장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Directors, Educational Leadership(DELS)’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청과 학교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NSW Government, 2017), 2024년부터는 교장, 교감 등 간부직 교사들이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부교장 주당 최소 1~2.5일, 수석교사/교감 주당 최소 3~4

일) 권장하고 있다(NSW Government, 2023).

또한 지리적으로 고립된 농촌 지역 학생과 도시 학생 간 교육 성취도 격차 해소를 위해, 연방 및 주 정부는 ‘스마터 스쿨 국가 파트너십(Smarter Schools National Partnerships)’ 등을 통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원격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인근 학교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장려한다. 퀸즐랜드주는 학교 클러스터 위원회(School Cluster Committee, SCC)를 중심으로 여러 소규모 학교가 협력하여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원 공유, 교직원 전문성 개발을 추진하며, RREAP(Rural and Remote Education Access Program) 기금을 통해 외곽 지역 학교의 특정 학습 영역, ICT 장비, 교직원 전문성 개발 등을 지원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도 강조된다. NSW 교육청의 연구(NSW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2010)는 성공적인 농촌 학교의 주요 전략으로 전교생 참여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긍정적 행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부모와의 정기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지역사회 교육 자원 공유, 지역사회 활동에 학생 참여 독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통합하는 노력 등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3) 캐나다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는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Saskatchewan Bureau of Statistics, 2025),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 속에서 교육 시스템의 질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바스코샤 주의 교육개혁은 2014년 「Disrupting the Status Quo」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개별 요구 미충족, 교육청-학교 간 신뢰 부족, 행정 체계의 복잡성 등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본격화되었다(Province of Nova Scotia, 2014). 이후 2015년 발표된 교육 실행계획 「The 3Rs: Renew, Refocus, Rebuild」에서는 (1) 문해력·수리력 강화, (2) 고등학교 교과목의 실용화와 유연화, (3) 포용교육과 특수교육체계 개편, (4) 교사 및 교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4대 핵심 영역을 설정했다(Nova Scotia, 2015). 이러한 개혁은 시험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역량, 공동체 참여, 학생의 행복과 소속감을 포함한 전인적 성장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하고, 지역 교육청(RCE) 중심의 분권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노바스코샤 주는 학생의 삶과 미래를 대비하는 실천적 교육을 위해 6대 핵심 졸업

역량(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성, 시민성, 기술 역량, 자기·진로 개발)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Burke, Greeno, & Bunin, 2015). 이 역량들은 각 교과 수업에 통합되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발표 등 다양한 수행 과제를 통해 길러지며, 루브릭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한 「NS Provincial Literacy Strategy(Nova Scotia, 2017)」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모든 교과의 기본 역량으로 강조하며, 학년군별(초등 P-3, 중학년 4-6, 중등 7-9) 차별화된 교수 전략(SRSD 쓰기 전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도입하고 있다. 수리력 교육은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며, 10학년 수학 과정부터는 학생의 진로와 역량에 따라 세 가지 경로(Mathematics Essentials, Math at Work, Academic/Advanced Mathematics)를 선택하도록 하고, 운동감각적 수학(kinesthetic math), 문제 기반 학습 등을 장려한다(Annapolis Valley, 2021; Nova Scotia, 2024a).

또한 노바스코샤 주의 포용교육 정책(Inclusive Education Policy, 2020)은 모든 학생이 문화적 배경, 언어, 성 정체성, 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층적 지원 시스템(MTSS: 보편적 수업-소그룹 중재-개별 집중 지원), 전문 인력(심리사, 언어치료사, 행동지원전문가, 원주민 및 아프리카계 문화지원자 등 약 1,000명 이상) 확대, 관리자 대상 반차별 리더십 연수(Three Braids), 개별화 교육 계획(IPP)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Nova Scotia Nouvelle-Écosse, 2024; Lee & Marshall, 2009).

노바스코샤 주의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과 성장을 중시하며, 평가를 ‘학습을 위한 피드백 과정’으로 인식한다. 모든 교과에서 프로젝트, 발표, 협동 과제 등 다양한 수행 중심 평가를 활용하고, 루브릭 기반 성취 수준 척도를 사용하며, 형성 평가를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Nova Scotia Teaching Standards는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도구의 편향성 제거를 명시하고 있다(Nova Scotia, 2016; Province of Nova Scotia, 2018). 또한 모든 학교는 SSP(Student Success Planning)라는 운영 프레임을 통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한다. 학교 단위로 문해력, 수리력, 웰빙 등 3대 영역 중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90일 단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교직원 협업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학교자문위원회(SAC: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인사 참여)가 SSP 검토, 예산 편성, 프로그램 도입,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에 참여하여 학교 주도의 교육 품질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Nova Scotia, 2024c, 2024b).

4) 영국

영국은 학령인구 감소,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자

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구조적 개혁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폐합 기준 제시보다는, 개별 학교 및 학교 그룹이 시장 원리에 가깝게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증명하며 생존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정책 모델은 ‘다학교 신탁(Multi-Academy Trusts, MATs)’과 ‘연합(Federations)’이다.

다학교 신탁(MATs)은 여러 아카데미가 하나의 법인(charitable company)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이다. 2010년 아카데미 법(Academies Act 2010) 이후, 기존의 공립학교들은 지방교육청(Local Authority, LA)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직접 예산 계약을 맺는 자율학교인 아카데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소규모학교들은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 여러 학교가 하나의 법인으로 묶이는 MAT에 가입하는 방식을 택한다(National Governance Association [NGA], 2023). MAT는 소속 학교들의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행정·인사·재정 업무를 중앙에서 지원하며, 교원 공동 활용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 합동 연수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NGA, 2023). 이를 통해 개별 소규모학교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교사들은 전문적 고립에서 벗어나 협력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NGA, 2020).

MAT의 거버넌스는 소유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소수의 구성원(Members)과 이사회(Trust Board)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소속된 모든 학교의 재정, 성과, 법규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NGA, 2020). MAT의 운영원리는 ‘위임 계획(Scheme of Delegation)’에 있다. 이는 예산, 인사,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주요 권한 중 무엇을 중앙 이사회가 갖고, 무엇을 개별 학교의 지역운영위원회(Local Governing Bodies)에 위임할지를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이다. 이 구조를 통해 MAT는 중앙에서 재정 및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학교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의 범위를 조절한다(NGA, 2020; 2023).

MAT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력 모델인 ‘연합(Federations)’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는 여러 학교가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운영위원회(Governing Body)와 교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모델이다(NGA, 2023). 연합을 통해 학교들은 예산, 교직원, 시설 등 자원을 공유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들이 연합을 구성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장려하고 있다(DfE, 2022).

5) 핀란드

핀란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교육적 형평성(equity)과 근접성(proximity)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교육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은 모든 아동이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고르게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Eurydice, n.d.).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학교를 통해 공동체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회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 교육(basic education) 제공 책임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kunta)에 있다. 중앙정부는 인구 규모, 연령 구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의 설립, 유지,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OKM, n.d.). 지방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 유지,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며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의 ‘Right to Learn’ 프로그램 역시 모든 아동이 거주지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가까운 학교(the closest school)’가 양질의 학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OECD, 2022).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더라도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조정과 맞춤형 지원의 근거가 된다(OECD, 2020).

핀란드 정책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간 인구 이동이 교육망 유지와 학교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Valtioneuvosto, 2021).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초등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농촌 학교에서 병합이나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거나 지방정부에 강제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학교망을 조정하되, 교육 형평성과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OECD, 2022).

살펴본 5개국의 정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국외 학교교육 정책

정책 유형	일본	호주	캐나다 (노바스코샤)	영국	핀란드
통폐합 기준·절차	「공립 초·중 학교 적정 규모·배치 지침」(2015)에서 12~18학급 표준 제시	- 주(州) 교육법에 근거한 지역 협의 절차 - 교장·학부모·교직원·지역	「Disrupting the Status Quo」(2014)로 구조개혁 진단 - 행정 복잡성	- 학교 자율 운영 체제 (M A T s, Federations) - 효율성과 책무성 기반 구	- 통폐합 여부는 지방정부 결정 - 중앙정부는 교부금·재정 조정만 수행

정책 유형	일본	호주	캐나다 (노바스코샤)	영국	핀란드
	• 통폐합은 지자체(시정촌) 결정	• 사회 참여	• 완화 및 분권형 구조 개편 • 지역 교육청(RCE) 중심 운영	• 조 개혁	• 지역 수요 반영 원칙
소규모 학교 지원	•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 교원 추가배치·시설보조·통학수단 지원 • '특별인정학교'·'산촌유학' 제도 운영	• RAM(필요기반 자금지원), 소그룹 튜터링 • 농촌교사 인센티브(주거·보너스 등) • 휴교(recess) 제도 운영	• 포용교육정책(MTSS) 운영 • 전문인력 확대(심리사·언어치료사 등) • 개별화 교육 계획(IPP) 개선	• 소규모학교가 MAT/Federation 참여 • 재정·행정 통합 지원으로 존속 보장	• 'Right to Learn' 정책으로 근접성 유지 • 모든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학교 보장
원격·디지털 학습	• ICT 활용 협동학습 실증사업(2015~) • 원격강좌·교 간 공동교육과정(COREHS) 운영	• RREAP 기금 통한 원격수업 지원 • 클러스터 협력·ICT 장비 지원	• 프로젝트·포트폴리오 기반 학습 • 루브릭 평가 중심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MAT 내 자원 공유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행정 효율화 병행	• 지역 여건에 맞춘 디지털 교육지원 • 교육 접근성 확보 위한 ICT 활용
거버넌스·책무성	• 통폐합은 시정촌 주도, 주민 합의 필수 • 단계적·투명한 절차(검토위원회, 시민설명회 등)	• 주정부·교육청 분권형 체계 • 교장·교육청·교 역할 (DELs 제도)	• RCE 중심 분권·학교자문위원회(SAC) 운영 • SSP(Student Success Planning) 기반 자율·책무	• MAT 이사회(Trust Board) 중심 • 위임계획(Scheme of Delegation) 명시 • 재정·성과·법규 관리 통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책임 • 중앙정부는 형평성 확보 위한 재정 지원
재정·인력 지원	• 시설·설비 보조금 • 교원 증원 및 통학버스 지원	• 농촌근무 교사에게 재정·주거 인센티브 • 복리후생, 휴가·연수 우대	• 전문 인력(약 1,000명) 확충 • 관리자 반차별 리더십 연수 실시	• 예산·인사 통합 관리 • 교원 공동 활용 및 합동 연수	• 교부금 재분배로 지역 간 형평성 보장 • 지방정부 자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인식 • 방재·보육·주민교류 기능 중시	• 지역사회 파트너십·학생 참여 강화 • 부모·지역과의 개방적 소통	• 문화적 다양성·포용성 강조 • 지역사회·학부모 참여형 학교 운영(SAC)	• 지역운영위원회(Local Governing Body) 구성 • 지역 맞춤형 교육활동 병행	• 지역공동체 유지 위한 학교망 조정 • 교육을 통한 공동체 지속성 확보

다. 국외 학교교육 실천 사례

1) 일본의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및 ‘지역유학’ 중심 학교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소규모 고등학교들이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와 ‘지역유학(섬유학, 산촌유학 포함)’ 제도를 통해 학교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시마네현 아마초 오키 도우젠 고등학교(隠岐島前高校)는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진학코스 설치, 공영 학원 ‘오키국 학습센터’ 운영,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춘 ‘섬유학’ 제도 도입 등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유치하여 학교를 부활시켰다(유학열, 2019).

나가노현 이이다시 OIDE 나가히메 고등학교(飯田OIDE長姫高校)는 ‘지역인 교육’이라는 독자적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 자원,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며, 고교-대학-지자체 간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정연, 2020; 牧野光朗, 2017).

히로시마현 오사키카이세이 고등학교(広島県立大崎海星高等学校)는 지역에 관한 ‘오사키카이세이학’ 도입, 지역 기업·행정 연계 프로젝트, 섬 주민 생활 멘토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広島県, 2022).

이와테현 쿠즈마키 고등학교, 도쿠시마현 조세이 고등학교 카미야마 분교, 홋카이도 오키시리 고등학교 등도 유사하게 저비용 기숙사 제공, 지역 자원 기반 진로교육, 산학 협력 교육과정, 지역 NPO 협업 프로젝트, 섬 전체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배움의 섬 프로젝트’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적극적인 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2) 호주의 소규모 학교

호주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하에 특색 있는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빅토리아주 뉴린 초등학교(Newlyn Primary School)는 학생 수가 한때 6명까지 줄었으나, 교장의 노력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18명까지 증가했다. 이 학교는 영어, 수학 등 기본 교과 외에 예술, 음악, 과학, 체육, 일본어 등 전문 과목을 운영하며, 특히 수학과 영어는 학생별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ICT를 적극 활용한다. 운동장, 채소밭 등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활동(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을 중시하

며, 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정원 관리, 학교 주방 운영, 수업 지원 등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호주주 라우칸 원주민 학교(Raukkan Aboriginal School)는 옹가린제리(Ngarrindjeri) 부족의 땅에 세워진 공립 초등학교로, 학생 수는 16명이다.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학습 계획(One Plan)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학부모와 긴밀히 공유한다. 원주민 문화 교육을 강조하며, 지역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전통 식물을 재배하는 ‘부시 터커 정원(Bush Tucker Garden)’,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예술 워크숍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상급 학교(메닝기 지역 학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Transi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서클 지원 및 공동수업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 호주 사례는 매우 적은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학습 지원, 지역의 자연 및 문화 자원 활용,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3)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커뮤니티 연계 학교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브리짓타운 지역 커뮤니티 학교(BRCS: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BRCS는 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문해력, 수리력, 웰빙을 중심으로 한 단기 순환 구조의 ‘학생 성공 계획(SSP)’을 학교 단위에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실행 전략을 운영한다.

초등 과정의 선택형 심화 프로그램 ‘Hawks University(명상, 요리, 로봇 코딩 등)’, 중학교 기술 교육과정의 야외용 가구 제작 및 판매 프로젝트, 고등 과정의 실생활 연계 과목(Life 11, Contemporary Canadian Studies 11, Netukulimk 12 등) 운영을 통해 실용·융합형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강조한다. Mi'kmaq 영토에서의 배움을 상기하는 ‘땅의 인사(Land Acknowledgment)’ 일상화, 인권 및 역사 인식 강화 행사 공동 참여 등 문화적 정체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한다.

다양한 체육 및 예술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과 통합하고, 지역 예술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주도적인 시민성 프로젝트, 또래 튜터링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된 졸업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학생의 자율성과 공동체 협력 문화를 강화한다. BRCS 사례는 K-12 통합 운영, 체계적인 학생 성공 계획,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

정, 문화적 감수성, 학생 주도성,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가족-지역사회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소규모 농촌 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4) 영국의 학교 연합(School Federation) 및 MAT

영국 농촌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들이 연합(Federation) 또는 MAT 가입을 통해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 사례가 보편적이다. 데번(Devon)주의 ‘다트무어 연합(The Dartmoor Federation)’이 대표적이다(Dartmoor Multi Academy Trust, n.d.). 이 연합은 15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등학교가 하나의 운영위원회와 연합 교장(Executive Headteacher) 아래 통합 운영되는 모델이다. 각 학교는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연합 소속 교사와 전문가들이 초·중학교를 넘나들며 특정 교과(프랑스어, 음악, 체육 등)를 가르친다(Devon County Council, n.d.).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수준의 심화 교육을 미리 경험하고, 중학교 진학 시의 교육과정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 재정, 시설 관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절감된 예산을 교육 활동에 재투자한다.

컴브리아(Cumbria)주의 ‘굿 셰퍼드 트러스트(The Good Shepherd Trust)’는 소규모 시골 교회 학교들이 모여 구성한 MAT의 사례이다(Good Shepherd Multi Academy Trust, n.d.). 이 트러스트는 소속 학교들에게 중앙 집중화된 재정 관리, 학교 시설 유지보수, 교직원 채용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신입 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공동 연구 및 수업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교사들이 겪기 쉬운 전문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교사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개별 학교의 약점을 구조적 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규모의 경제와 교육적 시너지를 동시에 창출하는 영국의 실용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5) 핀란드의 마을학교(Kyläkoulu)

핀란드의 마을학교(kyläkoulu)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지방분권적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적 사례다. 라플란드 등 북부 농촌 지역에는 학생 수 10~30명 내외의 초등학교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복식학급(multi-grade classroom)으로 편성된다. 한 교사가 여러 학년을 동시에 지도하는 이 방식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개별화 수업과 협력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법으로 평가된다(Peltonen & Kilpeläinen, 2025).

이들 학교는 지역 공동체 전체를 학습의 장으로 확장한다. 숲, 호수, 농장 등 자연환

경이 교실이 되고, 장인·예술가·은퇴 주민들이 방문 교사로 참여해 전통 기술과 지역사를 가르친다. 도서관과 체육관 같은 학교 시설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문화·스포츠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한다(Karlberg-Granlund, 2023). 핀란드교육평가센터(FINEEC, 2020)는 농촌·도서 지역 학교망이 아동의 교육권과 지역 문화적 권리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학교 폐교나 통폐합을 논의할 때 통학 거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지역사회 참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마을학교 운영은 중앙정부가 일률적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변화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학교망을 관리하는 핀란드 교육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라. 소결

학령인구 감소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여 각국은 통일된 해법이 아닌, 자국의 교육철학과 사회·지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국외 정책 및 실천 사례들은 크게 몇 가지 흐름으로 구분하여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영국처럼 학교 간 네트워크(MATs, Federations)를 구축하여 행정 및 재정을 통합하고 공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다. 이는 개별 학교의 고립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시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핀란드와 호주는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마을학교를 유지하거나(핀란드), 광활한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교육과 교원 지원을 강화하는(호주)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

한편,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의 사례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본질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는 접근을 보여준다. 이들은 학교 구조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 포용 교육 등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른 통폐합과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같은 학교 활성화 시도를 병행하는 절충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 속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공유한다. 첫째, ‘규모’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하나의 큰 학교 건물을 의미했던 물리적 규모에서 벗어나,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적·교육적 규모의 이점을 누린다. 둘째, 학교의

역할을 확장한다. 성공적인 학교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커뮤니티 허브’로서 기능한다. 셋째, 자율성과 파트너십에 기반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가 아닌, 지자체, 개별 학교,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아 나갈 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국외 사례들은 학령인구 감소의 대응이 학교의 통폐합이나 유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역할을 확장하고,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협력하며, 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임을 보여준다.

5. 미래 학교 모델 탐색

가. 미래 사회변화와 미래 학교의 특징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인공지능의 발전,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의 일상화,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 중시, 평생학습 사회로의 이행 등 미래 사회는 현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표준화되고 집단적인 학교 교육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김경애 외, 2015; 박정우, 박수정, 2023; 구자익 외, 2012; 미래준비위원회 등, 2017; UNESCO, 2021)은 미래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인간성과 시민성, 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 학습자 중심성(개별성, 다원성, 자율성, 책임감), 포용성, 웰빙,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협력과 소통, 창의성, 디지털 문해력, 공동체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UNESCO(2021)는 교육을 ‘공공의 노력과 공동선(common good)’으로 재정 의하며, 전 생애에 걸친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를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미래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을 넘어, 학습자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14>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 학교 교육의 가치

선행연구	미래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			
김경애 외(2015)	·인간성과 시민성 실현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학습복지 학교 교육 ·사회 다양한 분야와 세계를 아우르는 민주적 교육행정 학교 교육			
박정우, 박수정(2023)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학습체제(개별성, 다원성)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포용성, 웰빙) ·학습자 주도성이 발휘되는 교육(자율성, 책임감) ·지역과 함께 하는 학습, 평생에 걸친 학습(연계성, 학습성) ·기술 활용과 관계 형성이 모두 중요한 교육(창의성, 사회성) ·공동체와 인류의 상생을 위한 교육(협력성, 공동체성)			
구자역 외(2012)	·다양성	·사회성	·경쟁력	·자율성
	·형평성	·효율성	·수월성	·창의성
[그림 II-28] 미래 학교 가치의 틀 ※출처: 구자역 외(2012: 28)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	·생각하는 힘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육 강화 ·협업, 소통형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정서적 교육강화 ·기술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강화			
UNESCO(2021)	·전 생애를 통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확대 ·공공의 노력과 공동재(common good)로서의 교육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OECD, 2020; 김현진 외, 2017; 류광모, 2021)는 학교 교육의 확대, 교육의 아웃소싱,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미래 학교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질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미래 학교 교육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현재의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사회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정책, 환경, 기술, 교육과정, 조직 등 교육 제반 여건과 내용을 점진적 또는 파괴적으로 변화시키는 학교 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미래 학교의 핵심 특징과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 미래 학교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학생 개인의 흥미, 적성, 학습 속도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교과목 간의 경계를 허무는 주제 중심 융합 수업,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탐구 기반 학습(IBL)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핀란드의 현상 기반 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이나 싱가포르의 응용학습 프로그램(ALP)은 이러한 교육과정 유연화의 좋은 사례이다(김선미, 2018).

둘째, 디지털 기술의 통합적 활용과 학습 환경 확장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 학교의 학습 환경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다.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 도구를 통해 동료 및 전문가와 소통하며,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시민성 및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법 설계이다(Wyatt, 2021).

셋째,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및 학습 생태계 구축이다. 미래 학교는 더 이상 고립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전문가를 교육 활동에 초빙하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김현진 외, 2017; 박정우, 박수정, 2023). 이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삶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넷째, 미래 학교의 교사 조직은 현재와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계보경, 유지현, 2016; Wyatt, 2021). 계보경, 유지현(2016)은 교육의 공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으며, Wyatt(2021)는 1명의 리더 교사, 2명의 자격증 소지 교사, 3명의 예비교사로 구성된 협력 교사팀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사 자격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학제 또한 현재의 연령에 따른 단일 학제(6-3-3)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택할 것으로 예측된다(김경애, 2016; 김현미 외, 2024; 김현진 외, 2017; Wyatt, 2021). 특히, 김현진 외(2017)는 학제 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무학년제와

교육내용별 학년제를 제시하였으며, 현 교육체제 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학년군 제도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스티브 잡스 스쿨을 유연한 학제 운영의 구체적 사례로 들었으며, 이러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역량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 미래 학교 모델 운영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 미래학교 프로젝트(SOF: School of Future)

미국의 미래 학교 논의는 정부 중심의 개혁보다는 IT 관련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필라델피아 학교구와 협력하여 미래 학교에 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Microsoft, 2008). 그 결과로 2006년에 고등학교인 SOF(School of Future)를 필라델피아에 개교하였다.

SOF는 ‘지속가능성’을 학교의 핵심 주제로 삼아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과 최신 교수·학습법을 적용한다. 이는 교실 외부의 문제인 ‘환경’ 문제를 학교생활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환경친화적인 건물과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강조점을 둔다. 학교는 3개관으로 이루어진 공연 시설, 과학 실험실, 유·무선 인터넷 및 첨단 교육 기자재가 구비된 교실,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 채광 시설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로 설계되었다. SOF는 지속적이고(continuous), 삶과 연계되며(relevant), 적응적인(adaptive)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정종원 외, 2009: 23).

SOF 프로젝트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검증된 경영 및 인재 채용 모델 등 소프트 테크놀로지를 학교 구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 예로, 전략적 계획 과정인 “6I”의 여섯 단계는 총 3년간 미래 학교 프로젝트 실행 과정의 주요 틀로 활용되었다(계보경, 2011). 각 단계는 내부성찰(Introspection), 조사(Investigation), 통합(Inclusion), 혁신(Innovation), 실행(Implementation), 그리고 다시 내부성찰(Introspection)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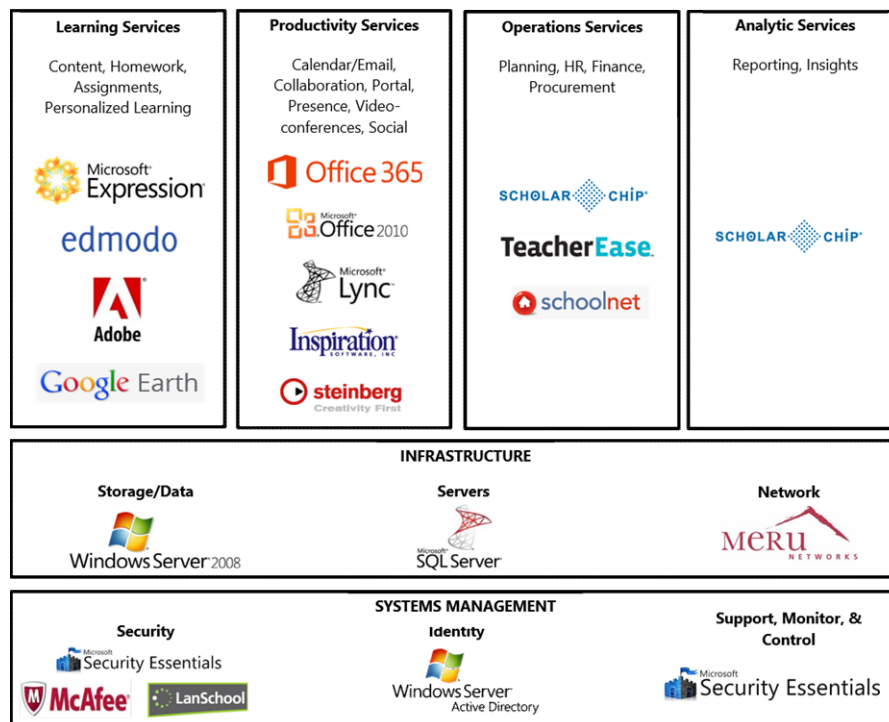
SOF의 사례 연구 보고서(Microsoft, 2013)에 따르면, 학교의 혁신 주제는 물리적 학습 환경 구축, 1:1 학습 환경 구축, 모두를 위한 학습 환경 구축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물리적 학습 환경은 협력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공간과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며, 1:1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

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학습 환경은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아나 학습부진아도 소외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학습 환경은 두 개 이상의 교실을 합쳐 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학습 형태에 따라 교사가 가구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 지붕과 태양광 장치, 목재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 각 교실에는 프로젝터, 360도 문서 카메라, 음향 장비 등이 갖추어져 있다.

1:1 학습 환경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는 입학 시 노트북이 제공되며 졸업 시 반납한다. 노트북은 정보 탐색, 조직, 개별화 학습의 도구이자 교수자가 설계하는 모든 학습 환경에 참여하는 핵심 도구가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OneNote)를 통해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한다. 많은 가정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노트에 저장된 학습 내용을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를 위한 학습 환경은 기술을 통해 장애가 있거나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특수 교사와 기술 교사가 협력하여 무비 메이커(Movie Maker) 등으로 특수 교육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나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동영상 제작하고, 이를 원노트를 통해 공유한다. 자폐 학생들은 스카이드라이브(Sky Drive)를 통해 특정 주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교사에게 전송하고, 키넥트(Kinect)나 엑스박스360(Xbox360)을 통해 공유, 차례 지키기, 격려 등 사회적 기술을 익힌다. 교사들은 공유 프로그램인 셰어포인트(SharePoint)를 이용하여 장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입하여 지원한다.



[그림 Ⅱ-29] 마이크로소프트 미래 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2) 네덜란드 스티브 잡스 학교(Steve Jobs School)

스티브 잡스 학교는 네덜란드의 교육 혁신가 마우리츠 드 혼드(Maurice de Hond)가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 혁신과 창의성 중심 철학에 영감을 받아 2013년에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7개의 초등학교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O4NT(Education for a New Time) 재단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독일, 남아공 등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 학교의 특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으로 요약된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은 자신의 속도와 흥미에 따라 학습한다. 6주 단위의 개인 맞춤 학습 계획을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수립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6주간의 성취 목표를 돌아보고 다음 6주의 목표를 함께 결정한다. 또한 정해진 학년이 없는 무학년제를 운영하며, 25명 내외의 여러 학년이 섞인 학생들이 하나의 핵심 집단(core group)을 구성한다. 한 교사에게만 수업을 듣는 대신, 학생들을 지도해 줄 학습 코치와 각 교과별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은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과서 대신 디지털 앱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활용하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 1인당 1개의 아이패드를 제공하고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다. ‘스튜디오’라 불리는 학습 공간에는 애플 TV와 비디오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언어, 수학, 기술, 역사, 음악 등 주제별 스튜디오를 이동하며 학습한다(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또한 sCoolProjects와 sCoolSpace라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프로젝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학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개방되며, 학생들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등하교하는 등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였다.

3) Apple ACOT2(Apple Classrooms of Tomorrow-Today) 프로젝트

ACOT(Apple Classrooms of Tomorrow) 연구 프로젝트는 1986년부터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년간 연구하였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Dwyer, et al., 1990), 교사들은 기존의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도입, 수용, 적응, 내면화, 창조의 다섯 단계로 변화하며 발전해 나갔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지부터 농촌,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미국 공교육의 다양한 현실을 대표하는 5개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각 교실에는 Apple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대화형 기술이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었다.

ACOT의 운영 원칙은 “학습 목표에 가장 잘 맞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팀 티칭,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기반 수업, 개별 속도에 맞춘 학습 방식이 자연스럽게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시간표가 해체되고 팀 기반의 거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키우고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의 학습 패턴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 역시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조력자(facilitator)’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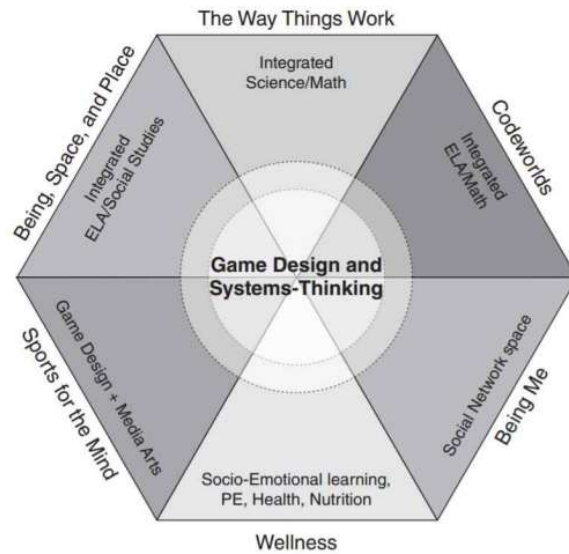
ACOT2(Apple Classrooms of Tomorrow-Today)는 ACOT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미국 고등학생의 높은 중도 탈락률을 기존 교육의 실패로 진단하고, 현 세대 학생들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ACOT2는 복잡한 모델 대신 즉시 실행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Apple, 2008).

ACOT2는 미래 고등학교 설계 원칙으로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 핵심 역량과 성취에 대한 이해, 둘째, 관련성 있고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셋째,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넷째, 혁신과 창의성의 문화, 다섯째, 학생과의 사회적·정서적 연결, 여섯째, 보편적 기술 접근이다. 이 원칙들은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의 평가, 창의성을 지지하는 문화, 학생과 성인 간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 언제 어디서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COT2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200일 교육과정(200 Days for a Lifetime of Success)’이라는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특별 교육과정은 약 200일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몰입하고 핵심 역량을 습득하여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문제 해결 과제,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의 미래 설계서, 창업 아이디어 기획 등 현실과 연결된 주제를 다룬다.

4) 미국 퀘스트 투 런 학교(Q2L: Quest to Learn)

미국의 퀘스트 투 런 학교(Q2L: Quest to Learn)는 뉴욕시의 공립학교로, 게임과 놀이를 통한 교육혁신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플레이 연구소(The Institute of Play)’가 개발한 게임 기반 학습(Game-Based Learning) 철학을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한 사례이다. 6~12학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기존 교과를 통합하여 6가지 통합 영역 교과목(예: The Way Things Work - 과학·수학 통합, Codeworlds - 수학·영어·언어학 통합)과 스페인어를 가르친다. 학습 과제는 온라인 게임의 퀘스트 방식으로 주어지며, 학생들은 목표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경험치(XP)를 쌓고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현진 외, 2017).



[그림 II-30] Quest to Learn 학교의 통합 교과 영역

※ 출처: 김현진 외, 2017: 107

퀘스트 투 런(Quest to Learn)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교육과정은 6가지의 독특한 통합 교과 영역으로 구성된다. ‘The Way Things Work’는 세계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수학 통합 영역이며, ‘Being, Space, and Place’는 존재, 공간, 장소에 대해 고찰하는 언어·사회 통합 영역이다. ‘Codeworlds’는 수학, 영어(국어), 언어학을 통합하고, ‘Point of View’는 읽기, 쓰기, 수학을 함께 다룬다. 이 외에 영양, 스포츠, 정신적·사회적·정서적 건강을 포함하는 ‘Wellness’ 영역과 디지털 미디어, 게임 디자인, 시스템 사고를 가르치는 ‘Sports for the Mind’ 영역이 있다.

둘째, 수업은 게임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제에 몰입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스타크래프트’의 유저맵을 이용해 세계지도를 만들거나 ‘심시티’를 통해 도시 계획을 학습한다. 또한 스페인어 학습을 위해 가상의 외계인 미션을 해결하기도 하며, 영국의 스파이가 되어 미국 혁명을 조사하거나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남북전쟁의 발발 요소를 탐구하는 등 역할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셋째,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학교는 뉴욕시에 위치한 파슨스 디자인 스쿨(Parsons School of Design)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퀘스트 투 런의 고등학생은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직접 수강할 기회를 가지며, 파슨스 디자인 스쿨은 학교의 특색 공간인 스몰랩(SAMLLab)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한다. 스몰랩은

모션 캡처 카메라와 디지털 프로젝션을 사용하여, 교사가 설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학습 시나리오를 만드는 가상-현실 혼합 환경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학교의 학생 탈락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뉴욕대학교가 8~10학년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추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성장률이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김현진 외, 2017: 117).

5) 스웨덴 비트라 학교(Vittra School)

스웨덴은 스웨덴은 만 7세부터 16세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 교육법 개정에 따라 많은 학생을 확보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회사인 ‘비트라’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스웨덴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김현진 외, 2017: 181).

비트라 학교는 관리팀(교장 등), 교원팀(유치원, 주니어, 시니어 등), 학생건강팀(상담가, 의학 전문가 등)의 세 그룹으로 조직된다.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채용 등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가지며,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통합된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과 수업은 학생의 개인 발전 계획(IU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기초로 수립된다. 이 계획에는 학생의 발전을 위한 목적과 지식, 학습 등에 관한 학교의 노력과 학생들의 실천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비트라 학교의 학습은 주로 온라인 수업 모듈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개별 학습 또는 그룹 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교사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며, 전통적 형태의 수업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진행된다(계보경, 유지현, 2016).

학습에 관한 모든 내용은 비트라 학교의 자체 플랫폼인 ‘SchoolSoft’에 문서화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평가, 학습 결과 분석, 그룹 레벨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부모는 개인 파일을 통해 자녀의 지식, 학습, 발달 영역에 대한 평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10세가 되면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이 제공되어 학교 공간 어디서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하다(계보경, 유지현, 2016).

다. 소결

앞 절에서 도출한 미래 학교의 특징 다섯 가지에 비추어 사례 학교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II-15>와 같다.

<표 II-15> 사례 학교별 특징 정리

특징		SOF	Steve Jobs School	ACOT	Quest to Learn School	Vittra School
학교급		고	초	초~고	6~12학년	1~9학년
미래 학교의 특징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	○	○	○	○
	디지털 기반 학습의 시·공간 확장(*)	○	○	○	○	○
	지역사회 연계	○		○	○	
	유연한 교사 조직(*)	○	○	○	○	○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			○

(*)모든 사례 학교에서 발견되는 특징

사례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SOF(School of One)는 환경 문제를 교실 상황과 연결하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개별 학습을 지원한다. 스티브 잡스 학교와 비트라(Vittra)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개인별 학습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천한다. ACOT(Apple Classrooms of Tomorrow)는 팀 티칭, 교과 융합 프로젝트 학습,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고, 퀘스트 투 런(Quest to Learn) 학교는 교과 영역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게임 기반 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사례 학교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한다. 시설 및 기자재 측면에서는 개인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현재의 담임 교사 체제나 교과 교사 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협력 팀으로 활동한다. 특히 비트라 학교는 관리팀, 교원팀, 학생건강팀의 세 그룹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교육과정은 교원팀이 전담한다. 미래 학교 교육

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고려할 때, 교사 조직의 유연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SOF와 ACOT는 기업체와 학교가 협력적으로 연계한 사례이며, 퀘스트 투 런 학교는 뉴욕시가 주도한 공립학교로서 뉴욕 대학교, 파슨스 디자인 스쿨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스티브 잡스 학교와 비트라 학교는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를 채택한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SOF는 학교를 친환경 자재와 자연 채광 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스티브 잡스 학교는 각종 ‘스튜디오’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며, 퀘스트 투 런 학교는 ‘스몰랩(Smallab)’에서 학생들이 가상-현실 혼합학습, 실습, 연구 등을 진행하도록 한다.

둘째, 학교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SOF, 스티브 잡스 학교, 비트라 학교는 협업을 위해 학교 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SOF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유 플랫폼을, 스티브 잡스 학교는 sCoolProjects와 sCoolSpace를, 비트라 학교는 SchoolSoft라는 자체 플랫폼을 사용한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미래 교육을 지향한다. 이들 학교는 장애, 학업 수준, 인종, 부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추구한다. 특히 SOF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장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들은 능력에 의해 차별받기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격려받는다.

혁신 학교 사례들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새로운 학교 모델에서는 교과 영역의 통합적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의 혁신이 가장 중요시된다. 프로젝트의 경우 핵심 개념 등의 학습 요소가 포함되도록 전문적이고 정교하면서도 창의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학생 개별 성장 계획을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함께 작성하고 성장을 피드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혁신과 더불어 교사 조직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담임 교사 및 교과 교사 체제에서 탈피하여 학생 학습을 위한 협력적 지원팀으로 재조직한다. 관리자 그룹(교장, 교감, 행정실 등), 교육과정 교사 그룹(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건강

관리 그룹(보건, 상담, 진로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은 교사에게 온전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나아가 2개 이상의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원 자격, 하나의 전공 교과와 다수의 부전공 교과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교사 양성 및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무학년제 등 현재보다 유연한 학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는 학년군제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6-3-3제를 개선하여 지역에 따라 5-4-3제, 3-6-3제 등 다양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미래형 학교 모델은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학습의 협업과 공유, 학생의 학습 과정 모니터링, 관리, 피드백 등이 이루어지며 학생의 학습 데이터는 누적 기록된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모드에서 학습할 데이터를 내려받아 가정으로 학습을 이어가며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일부 데이터는 학부모에게 전송 및 공유하여 학생의 학습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학교 모델은 학교의 건축, 시설, 장비,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을 최첨단으로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미래 학교는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습에 있어 공간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개별 학습 공간뿐 아니라 모둠 학습, 발표 학습 등 다양한 학습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 설립 계획 단계부터 건축가와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사 등이 협업하여 학습과 공간을 연결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교내 네트워크, 디지털 기기, 디지털 보안 등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Ⅲ.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가. 설문 조사 개요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 교육 및 교육 혁신의 중요도 및 만족도, 정주학교 운영을 위한 요구 및 고려 사항, 학교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문항 유형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참여자 정보	• 성별, 지역, 학교급, 사교육 여부, 애향심	선택형	○		
	• 성별, 지역, 자녀 수, 첫째 자녀 학교급, 애향심 등			○	
	• 성별, 근무 지역, 소속 학교급, 교직 경력 등				○
학교 교육	-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 학생용 기숙사 - 학생 통학 여건, 수단 -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 -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척도형 (5점척도)	○	○	○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 -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학생의 평가	척도형 (5점척도)	○	○	○
	-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척도형 (5점척도)	○	○	○
	-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 - 학생들의 수업 시간 참여	척도형 (5점척도)	○		

구분	내용	문항 유형	대상		
			학 생	학 부 모	교 사
	- 친구들 사이 따돌림이 없는 문화 - 음주, 흡연 같은 문제 행동				
	-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 근무 처우 개선 - 학교 문화 조성	척도형 (5점척도)			○
	- 학생 재능 지원, 진로 설정 시, 학부모 협력 -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협력 -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 시, 학부모 참여 -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 협력	척도형 (5점척도)		○	○
학교 진학 (전학)	- 현재 지역 진학 의사 여부, 이유 및 걱정사항 - 타 지역 학교로의 진학(전학) 의사 여부, 이유 및 걱정사항	선택형	○	○	
학교 혁신	혁신 방안	척도형 (5점척도)	○	○	○
	- 정주학교 역할과 운영 - 지원, 인센티브 등	척도형 (5점척도)			○
자유 의견	학교 혁신, 운영에 대한 자유 기술	서술형	○	○	○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생과 교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경상북도 전 지역 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안내를 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을 설계하였다. 설문 안내에는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 참여 대상, 연구 참여자의 역할,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은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경상북도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표집 학교를 선정하고, 표집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부모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표집 학교의 학부모에게 설문 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외 학부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설문 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 320명과 유·초·중등학교 교사 294명이 참여하였으며,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1,20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 참여자 정보(학생)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167 (52.2)
	여	153 (47.8)
지역	읍, 면	143 (44.7)
	동	177 (55.3)
학교급	초등학교	183 (57.2)
	중학교	57 (17.8)
	고등학교	80 (25.0)
사교육 여부	있다	241 (75.3)
	없다	79 (24.7)
합계		320 (100.0)

<표 Ⅲ-3> 참여자 정보(학부모)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226 (18.8)	
	여		978 (81.2)	
지역	경북	계 읍, 면 동	935 (77.7)	
			255 (27.3)	
			680 (72.7)	
	대구	계 읍, 면 동	269 (22.3)	
32 (11.9)				
237 (88.1)				
현 지역 거주기간	5년 미만		64 (5.3)	
	5년 이상~10년 미만		197 (16.4)	
	10년 이상~15년 미만		263 (21.8)	
	15년 이상~20년 미만		168 (14.0)	
	20년 이상		512 (42.5)	
연령	~30세 미만		5 (0.4)	
	30세 이상~35세 미만		98 (8.1)	
	35세 이상~40세 미만		288 (23.9)	
	40세 이상~45세 미만		436 (36.2)	
	45세 이상~50세 미만		246 (20.4)	
	50대 이상~		131 (10.9)	
학력	중졸 이하		5 (0.4)	
	고졸		268 (22.3)	
	대졸(2년제 이상)		835 (69.4)	
	대학원 이상		96 (8.0)	
자녀 수	1명		480 (39.9)	
	2명		567 (47.1)	
	3명		144 (12.0)	
	4명 이상		13 (1.1)	
첫째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571 (47.4)	
	중학교		363 (30.1)	
	고등학교		270 (22.4)	
합계			1,204 (100.0)	

<표 Ⅲ-4> 참여자 정보(교사)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133 (45.2)
	여	161 (54.8)
근무 지역	읍, 면	157 (53.4)
	동	137 (46.6)
소속 학교급	초등학교	140 (47.6)
	중학교	83 (28.2)
	고등학교	58 (19.7)
	통합 운영 학교	6 (2.0)
현재 직위	유치원, 초등학교	5 (1.7)
	중학교, 고등학교	2 (0.7)
	초, 중, 고	
현재 직위	관리자	49 (16.7)
	보직 교사	138 (46.9)
	일반 교사	107 (36.4)
학력	학사	168 (57.1)
	석사(재학, 졸업)	118 (40.1)
	박사(재학, 졸업)	8 (2.7)
교직 경력	5년 미만	35 (11.9)
	5년 이상~15년 미만	79 (26.9)
	15년 이상~25년 미만	108 (36.7)
	25년 이상~35년 미만	61 (20.7)
	35년 이상	11 (3.7)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없음	66 (22.4)
	3년 미만	42 (14.3)
	3년 이상 5년 미만	47 (16.0)
	5년 이상 10년 미만	61 (20.7)
	10년 이상	78 (26.5)
합계		294 (100.0)

나. 설문 조사 결과

1)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교육환경,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부록 표 참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 교육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에서는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4.57)’,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4.56)’,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4.55)’,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4.37)’, ‘통학 여건 및 수단 지원(4.34)’, ‘학생용 기숙사(3.68)’ 순으로 중요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 학생과 교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학부모는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4.38)’,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4.35)’,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4.24)’ 순으로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교육과정에서 학생은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4.05)’, 학부모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4.44)’,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4.44)’,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4.56)’이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학생은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3.81)’, 학부모(4.21)와 교사(4.23)는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이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4.50)’,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4.37)’,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4.35)’, ‘학생의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4.14)’ 순으로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평균이 가장 높았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인식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에서는 ‘학생용 기숙사(3.48)’, ‘통학 여건 및 수단 지원(3.72)’,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3.89)’,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3.96)’,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4.04)’,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4.08)’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생용 기숙사’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3.77)’,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3.77)’,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3.77)’,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3.78)’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학부모는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학생은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65)’, 학부모는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3.59)’, 교사는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3.69)’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3.68)’,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3.69)’,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3.75)’,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3.76)’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생의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교사는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만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교육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였다. 학교급에 대해 F 검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집단 간 중요도와 만족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도에서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 만족도에서는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도에서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이 학부모와 교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만족도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

학생과 교사의 학교 풍토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학교 풍토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4.44)’, ‘따돌림 없는 학교(4.39)’, ‘학생들의 수업 참여(4.31)’, ‘음주, 흡연 등 문제행동 없는 학교(4.31)’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학교급별 학생의 중요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따돌림 없는 학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 풍토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4.09)’, ‘따돌림 없는 학교(4.13)’, ‘음주, 흡연 등 문제행동 없는 학교(4.17)’,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4.36)’ 순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따돌림 없는 학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음주, 흡연 등 문제행동 없는 학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 풍토 만족도에 대한 초, 중, 고 학생 집단 간 차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음주, 흡연 등 문제행동 없는 학교’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교 풍토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전체 중요도는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처우 개선(4.81)’,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4.72)’,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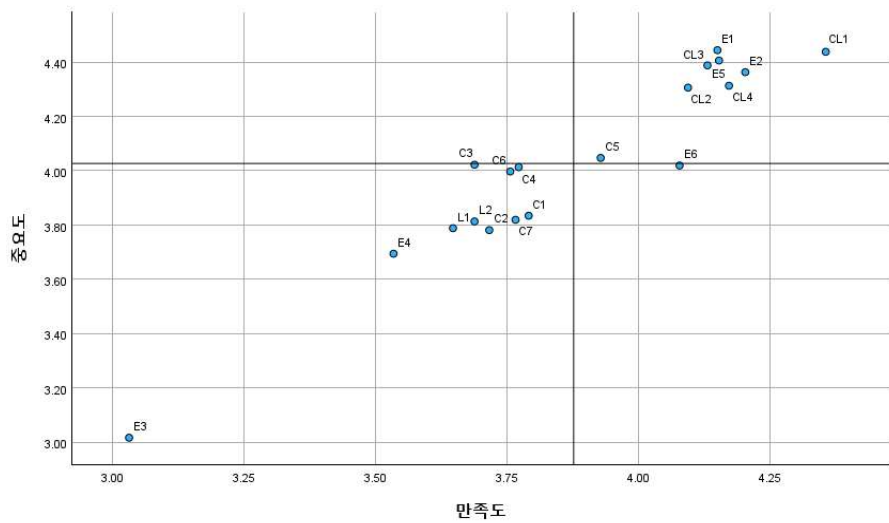
연수, 컨설팅 실시(4.36)',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4.18)',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3.88)' 순으로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학교급별 교사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중학교 교사는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학교 풍토에 대한 만족도 인식에서 전체 만족도는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3.35)',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3.36)',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3.56)',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3.92)',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3.98)' 순으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사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 교사는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 풍토에 대한 학교급별 교사 집단 간 분석한 결과,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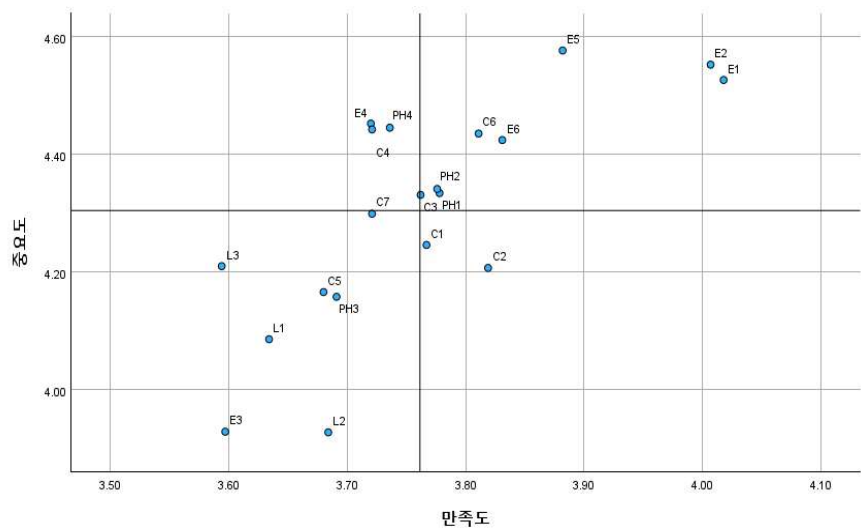
교육의 중요도 및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학교 교육에 대한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두 축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를 격자도로 나타내었다. 격자도의 X축은 만족도(1~5점), Y축은 중요도(1~5점)이며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분면을 나누었다. 1사분면은 유지 및 강화 영역, 2사분면은 집중 개선 영역, 3사분면은 저순위 영역, 4사분면은 과잉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은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를 격자도로 나타낸 것이다. 격자도의 중심은 학생이 학교 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만족도의 평균값(3.88), 중요도의 평균값(4.03)이며,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의 평균값을 격자도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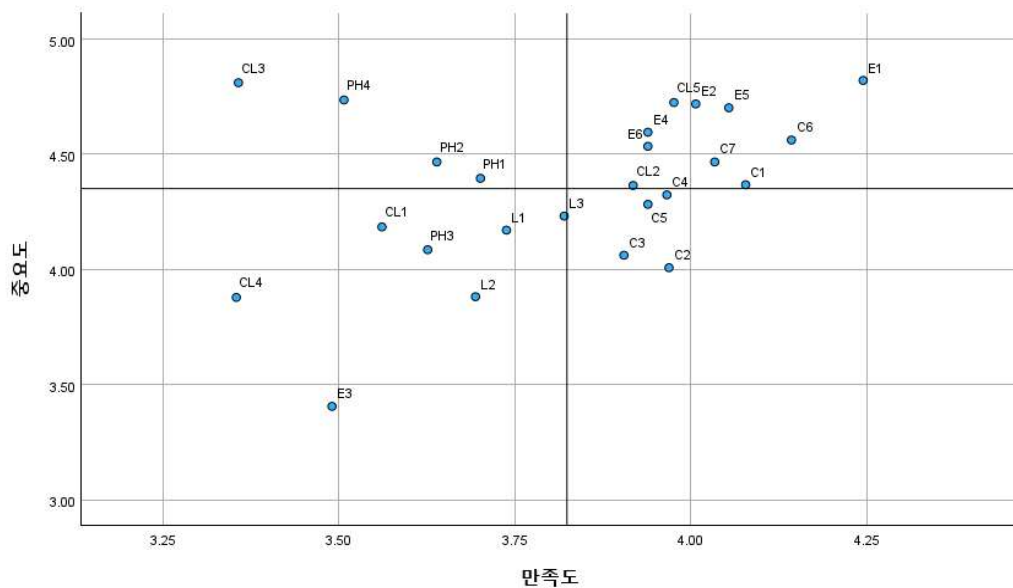
[그림 Ⅲ-1]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학생)

다음 그림은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를 격자도로 나타낸 것이다. 격자도의 중심은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만족도의 평균값(3.76), 중요도의 평균값(4.30)이며,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의 평균값을 격자도로 표시하였다.



[그림 Ⅲ-2]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학부모)

다음 그림은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를 격자도로 나타낸 것이다. 격자도의 중심은 교사가 학교 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만족도의 평균값(3.82), 중요도의 평균값(4.35)이며,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의 평균값을 격자도로 표시하였다.



[그림 Ⅲ-3]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교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 집단별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공통으로 1사분면인 유지영역에 교육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2사분면에 해당하는 집중 영역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으로, 학부모와 교사 모두 공통으로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에 대해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외 집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학부모는 ‘통학 지원’과 ‘진로 교육’,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교사는 ‘행정업무 간소화’,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을 뽑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만족도도 낮은 3사분면인 저순위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학생용 기숙사’,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세 집단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Ⅲ-5> 집단별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 영역

구분		문항 번호
유지 영역	학생	• 학교 풍토1, 학교 풍토2, 학교 풍토3, 학교 풍토4 • 교육환경1(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교육환경2(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교육환경5(생활지도와 안전)
	학부모	• 교육환경1(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교육환경2(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교육환경5(생활지도와 안전), 교육환경6(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등) • 교육과정6(교육과정과 수업 통한 학력 향상)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1(학생 재능 지원 및 진로 설정 협력),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2(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협력)
	교사	• 교육환경1(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교육환경2(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교육환경4(통학 지원), 교육환경5(생활지도와 안전), 교육환경6(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 • 교육과정6(교육과정과 수업 통한 학력 향상), 교육과정7(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교원 및 학교풍토5(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집중 영역	학부모	• 교육환경4(통학 지원) • 교육과정4(진로교육)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4(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
	교사	• 교원 및 학교풍토3(행정업무 간소화)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1(학생 재능 지원 및 진로 설정 협력),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2(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협력),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4(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
저 순위 영역	학생	• 교육환경3(기숙사), 교육환경4(통학 지원) • 교육과정1(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교육과정2(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교육과정4(진로교육), 교육과정7(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지역사회 연계1(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2(지역 축제, 행사 참여)
	학부모	• 교육환경3(기숙사) • 교육과정5(다양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 •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3(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 지역사회 연계1(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2(지역 축제, 행사 참여), 지역사회연계3(장학금 지원)
	교사	• 교육환경3(기숙사) • 교원 및 학교풍토4(수업보조교사) • 지역사회 연계2(지역 축제, 행사 참여)
	과잉 영역	• 교육환경6(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등) • 교육과정1(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교육과정2(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구분	문항 번호
교사	교육과정2(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교육과정3(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교육과정5(다양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

2) 학교 혁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주학교 운영 관련 학교 혁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공통으로 조사한 항목에서는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학습계획 수립(3.73)’,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개별학습(3.72)’, ‘1수업 다교사제(3.71)’ 순으로 전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나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운영(4.08)’,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디지털 기기 이용해 집에서 공부(4.06)’, 학부모는 ‘1수업 다교사제(3.88)’,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학습계획 수립(3.88)’,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개별학습(3.81)’, 교사는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개별학습(3.71)’, ‘1수업 다교사제(3.51)’ 순으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주학교 운영 관련 제도적 혁신 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였다(부록 표 참고). 학교 혁신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집에서 공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나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운영’, ‘학제 유연화’, ‘유아학교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통합 진급제’, ‘1수업 다교사제’,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개별 학습’,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피드백’, ‘학생의 학습 성취에 따라 속진, 유급의 활성화’, ‘연 3학기제 운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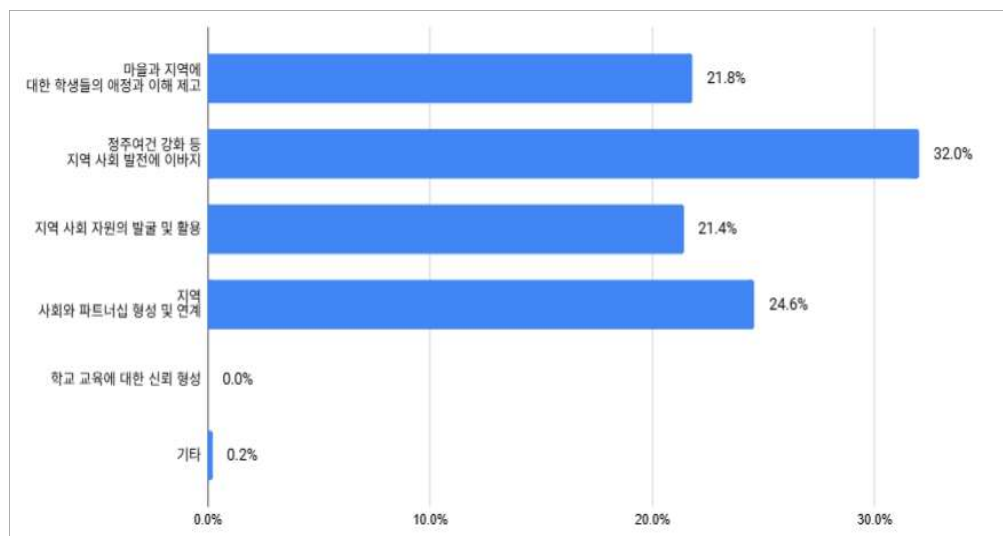
이외 교사를 대상으로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사항 추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복식학급 폐지’,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혁신’, ‘학교 본부와 여러 개의 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직, 행정직은 본부에 배치하는 운영 방식’ 순으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복식학급 폐지’, 중학교 교사는 ‘복식학급 폐지’,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혁신’, 통합운영학교 교사는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혁신’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주학교 운영 관련 제도적 혁신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였다. 학교급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식학급 폐지’, ‘교사의 복수자격제: 학교급 간 복수자격 지원’, ‘교사의 복수자격제: 전공교과 복수자격 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3) 학교의 역할과 정주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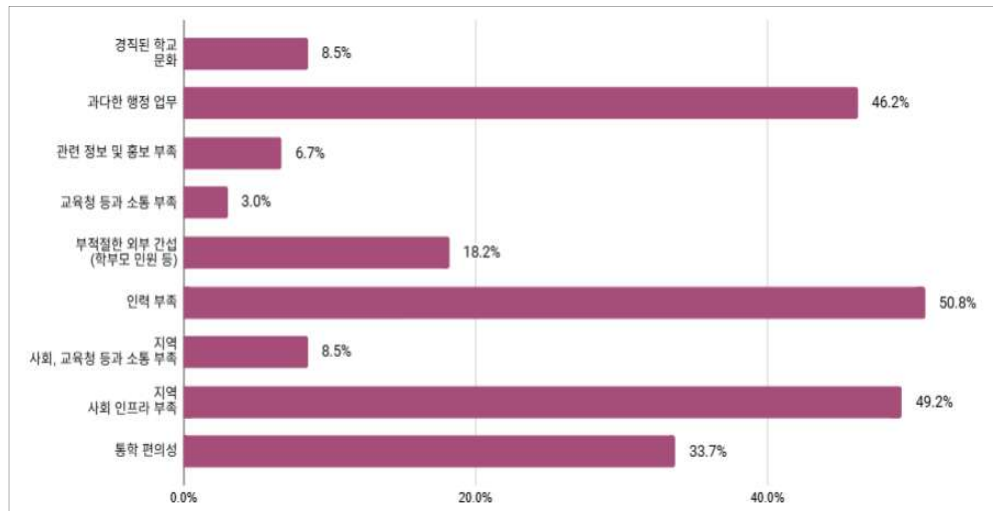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의 주요 역할과 정주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정주학교 근무 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 주요 역할에 최대 2가지를 선택하게 했기 때문에 전체 응답 수(487)는 교사 응답한 수를 모두 누적한 수치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에 응답한 비율이 32.0%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및 연계’에 응답한 비율이 24.6%로 두 번째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그림 Ⅲ-4]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의 주요한 역할(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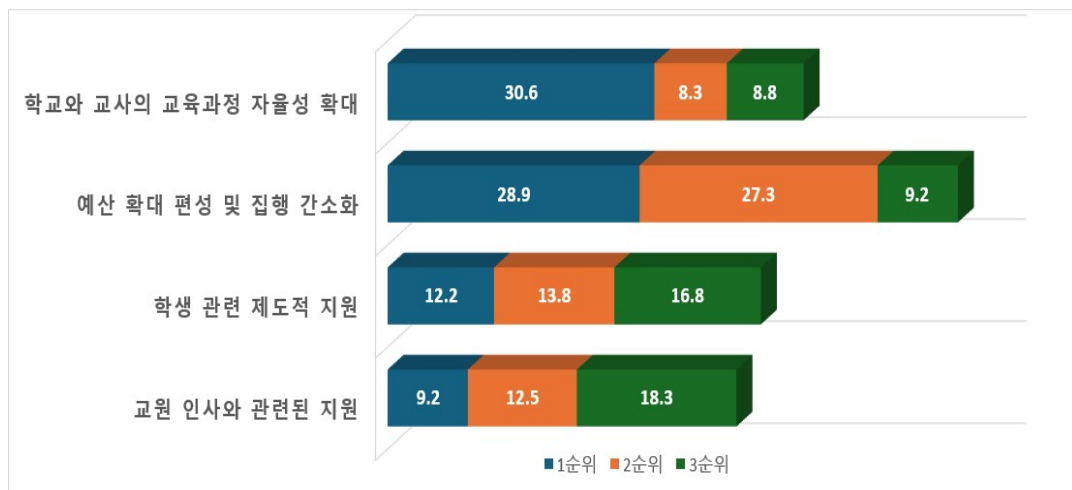
교사들에게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장 어려운 사항에 최대 3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인력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50.8%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49.2%, ‘과다한 행정 업무’에 응답한 비율이 46.2%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그림 Ⅲ-5]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중복 응답)

교사들에게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1~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1순위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30.6%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에 응답한 비율이 27.3%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교원인사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이 18.3%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사항에 대해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1순위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 2순위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3순위는 ‘학생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4순위는 ‘교원 인사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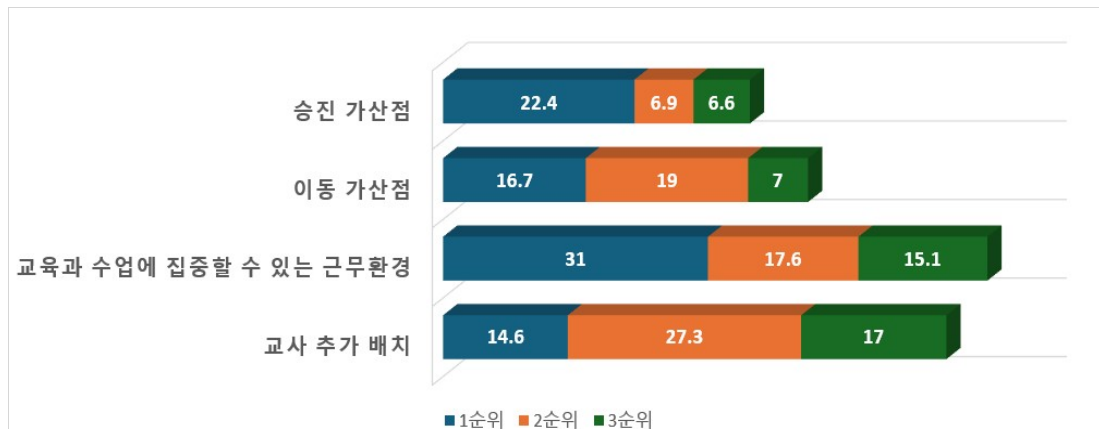
[그림 Ⅲ-6]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 사항

이외 기타 의견으로 많은 예산 지원, 작은학교, 도서산간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고려한 교육지원청의 스쿨버스 배치, 우수 교원 확보 및 이를 위한 보수와 승진제도의 인센티브 개선, 읍면당 1학교 유지의 필요성 홍보, 자유학구제 조건 완화 및 개선을 통한 학생 유입의 기회 확보, 거점학교 중심으로 통합 및 초미니학교 분교화, 대규모 택지개발, 공장 이전 등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있다.

교사들에게 정주학교 근무 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1~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1순위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31.0%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교사 추가 배치(업무 전담 교사, 수업 협력 교사 등)’에 응답한 비율이 27.3%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지역 전보 유예’에 응답한 비율이 24.7%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정주학교 근무 시, 인센티브에 대해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1순위는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차지했고 2순위는 ‘교사 추가 배치’, 3순위는 ‘이동 가산점’, 4순위는 ‘승진 가산점’이었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수당 지급, 교육과정 혁신, 전보 유예, 초빙교사제 및 교장 내부형 공모제, 학부모 협력, 학부모 민원이 적은 학교 운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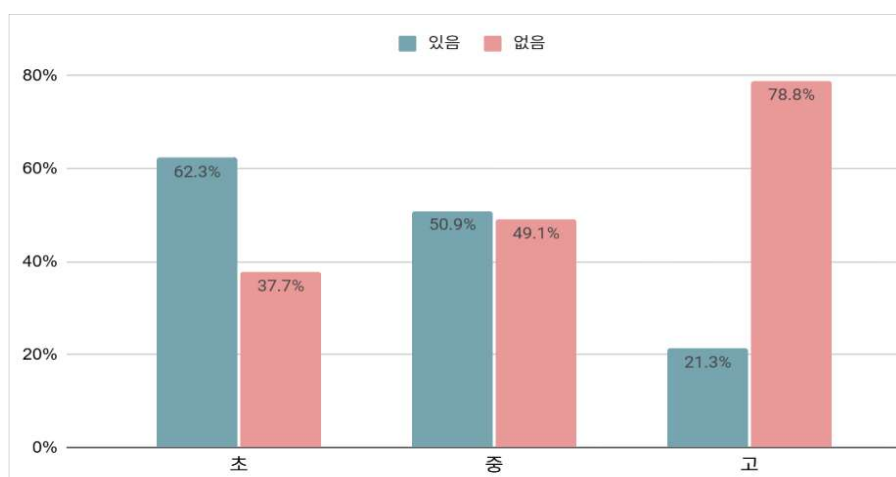


[그림 Ⅲ-7] 정주학교 근무 시 인센티브

4) 학교 진학(전학)

학생, 학부모에게 현재 지역 또는 타 지역 학교로의 진학(전학) 의사 여부와 진학(전학) 이유, 걱정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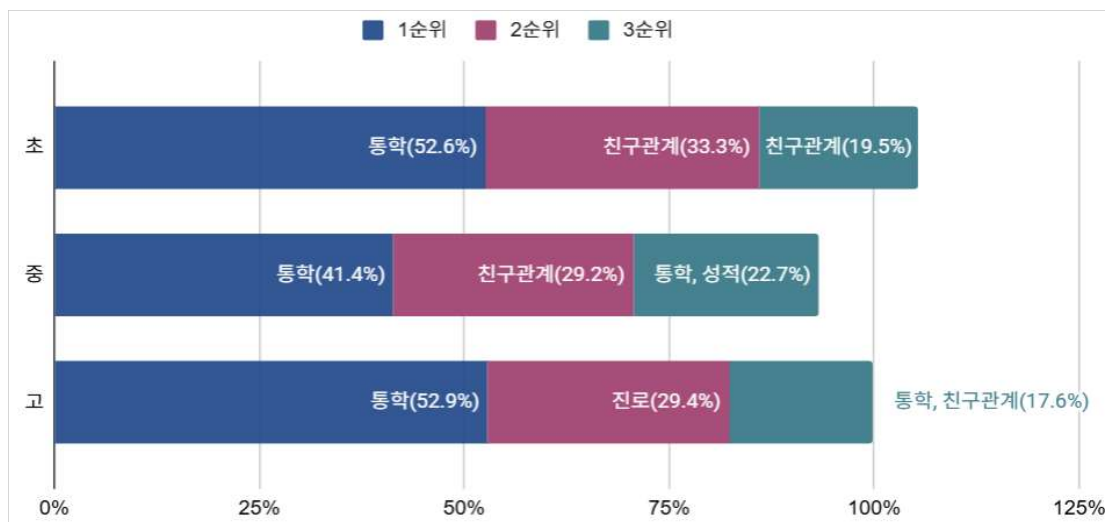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경상북도의 학교로 진학할 의사에 대해 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62.3%는 현 지역에서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37.7%는 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50.9%가 현 지역에서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1%는 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은 21.3%가 현 지역에서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8.8%는 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8]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의사 여부: 학생 응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1~3순위로 학생에게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통학’에 응답한 비율이 50.6%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30.6%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17.5%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학’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친구 관계’, 3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 4순위는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친숙함, 미래 계획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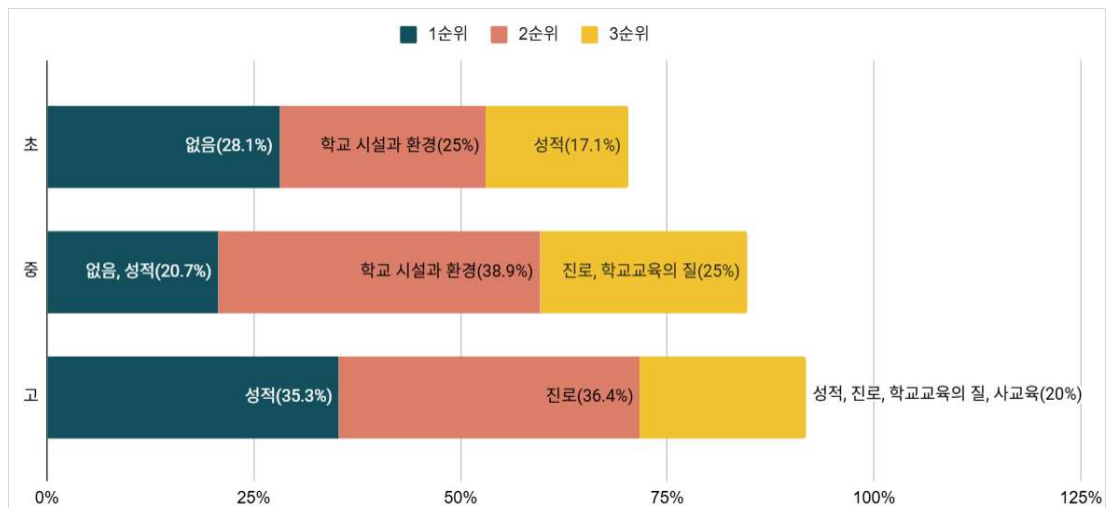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은 1순위에서는 ‘통학’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진로’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3순위에서는 초등학생은 ‘친구 관계’, 중학생은 ‘통학’, ‘성적’, 고등학생은 ‘통학’,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Ⅲ-9]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이유: 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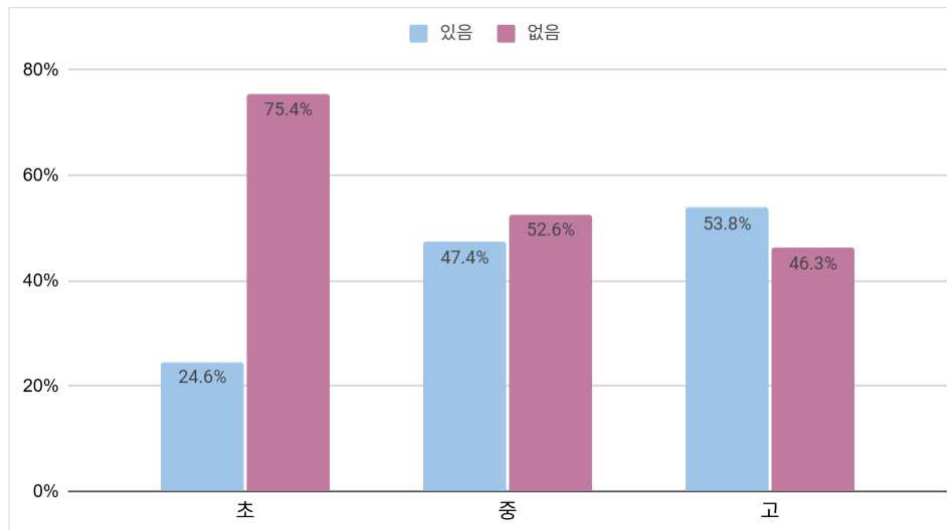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 1~3순위로 학생에게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26.9%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26.7%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성적’에 응답한 비율이 16.7%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음’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 3순위는 ‘성적’, 4순위는 ‘친구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순위에서는 ‘없음’,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 3순위에서는 ‘성적’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은 1순위에서는 ‘없음’과 ‘성적’,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 3순위에서는 ‘진로’, ‘학교 교육의 질’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생은 1순위에서는 ‘성적’, 2순위에서는 ‘진로’, 3순위에서는 ‘성적’, ‘진로’, ‘학교 교육의 질’, ‘사교육’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Ⅲ-10]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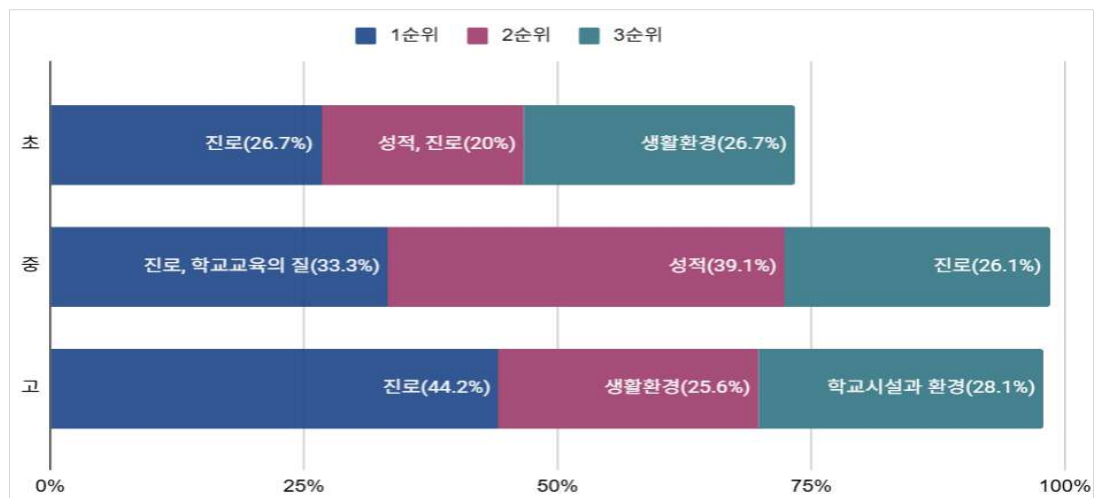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전학)할 의사에 대해 학생에게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24.6%는 타 지역으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75.4%는 진학(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은 47.4%가 타 지역에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2.6%는 진학(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은 53.8%가 타 지역에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3%는 진학(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11]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의사 여부: 학생 응답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1~3 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진로’에 응답한 비율이 34.8%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22.7%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생활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22.4%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로’가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학교 교육의 질’, 3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 4순위는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미래 계획, 부모님의 직장,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 대한 관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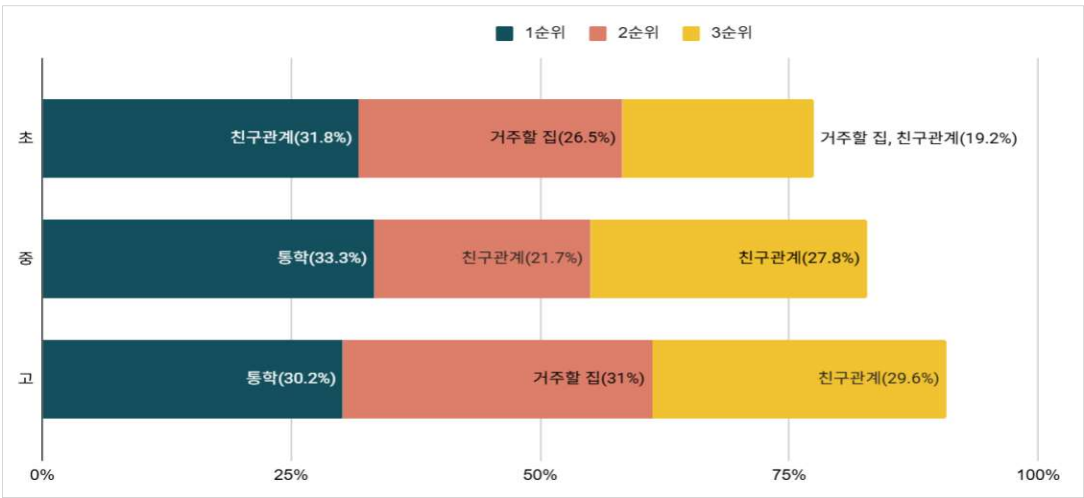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1순위에서는 ‘진로’, 중학생은 ‘진로’와 ‘학교 교육의 질’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초등학생은 ‘성적’, ‘진로’, 중학생은 ‘성적’, 고등학생은 ‘생활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3순위에서는 초등학생은 ‘생활 환경’, 중학생은 ‘진로’, 고등학생은 ‘학교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타 지역 학교로의 진학(전학) 사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는 2순위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Ⅲ-12]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이유: 학생 응답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전학)할 경우,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 1~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통학’에 응답한 비율이 26.3%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거주할 집’에 응답한 비율이 25.6%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25.4%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거주할 집’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통학’, 3순위는 ‘친구 관계’, 4순위는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순위에서는 ‘친구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통학’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순위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거주할 집’, 중학생은 ‘친구 관계’, 3순위에서는 초등학생은 ‘친구 관계’, ‘거주할 집’,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전학)할 경우, 걱정되는 사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는 1순위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Ⅲ-13]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생 응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킬 의사에 대해 학부모에게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학부모의 63.5%는 현 지역에서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36.5%는 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구 학부모는 55.4%가 현 지역에서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6%는 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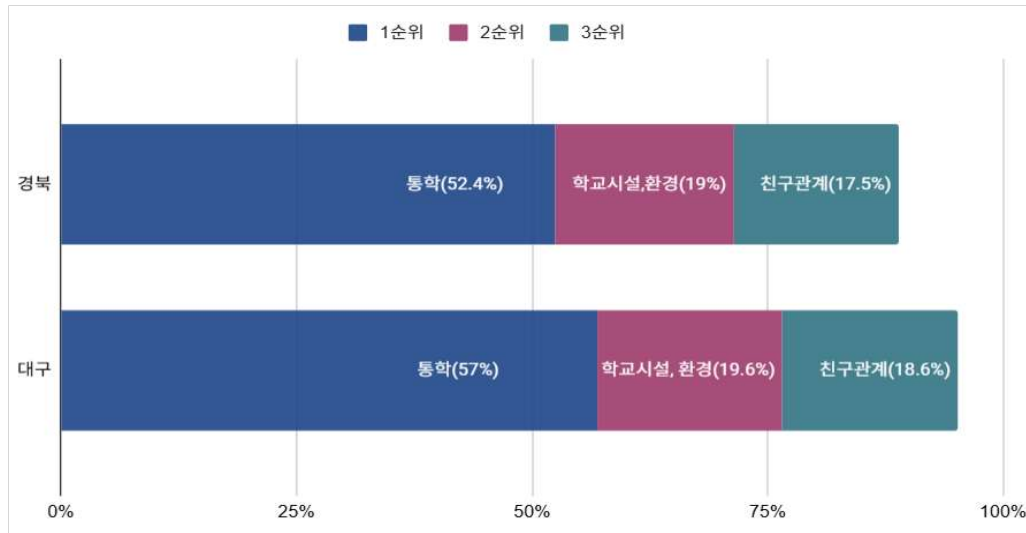


[그림 Ⅲ-14]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의사 여부: 학부모 응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킬 경우, 그 이유에 대해 1~3순위로 학부모에게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통학’에 응

답한 비율이 53.3%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19.1%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17.7%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학’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학교 교육의 질’, 3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 4순위는 ‘부모의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등 재정, 복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예체능 교육, 문화생활, 자녀의 의견 고려, 현 지역 학교 교사의 열정, 이에 대한 부모의 신뢰, 높은 만족도 등이 있다.

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 모두 1순위에서는 ‘통학’,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 3순위에서는 ‘친구 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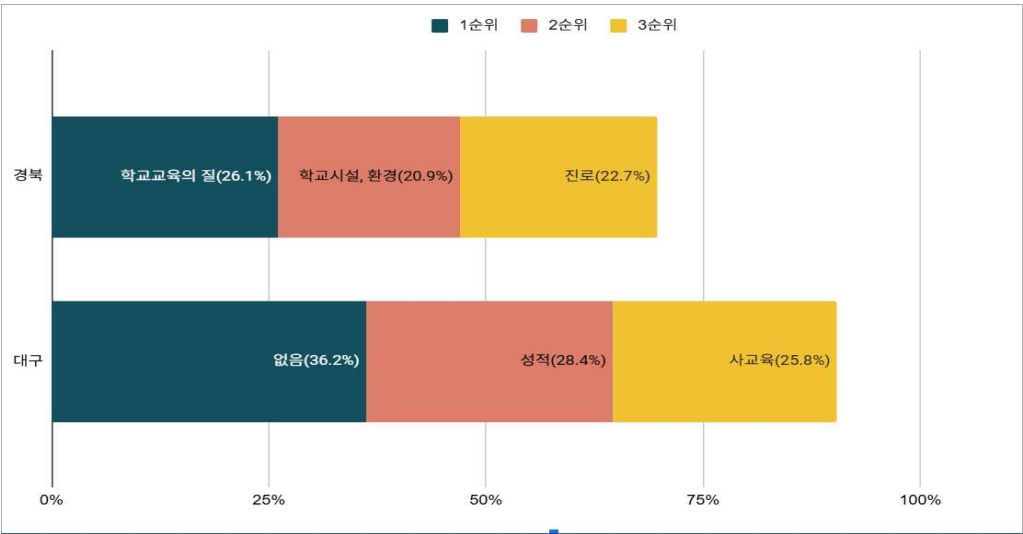


[그림 Ⅲ-15]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이유: 학부모 응답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킬 경우,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 1~3순위로 학부모에게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에 응답한 비율이 24.8%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20.6%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진로’에 응답한 비율이 21.4%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1순위는 ‘학교 교육의 질’, 2순위는 ‘진로’, 3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 부족,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 자녀의 또래 관계 형성, 사회성 발달 우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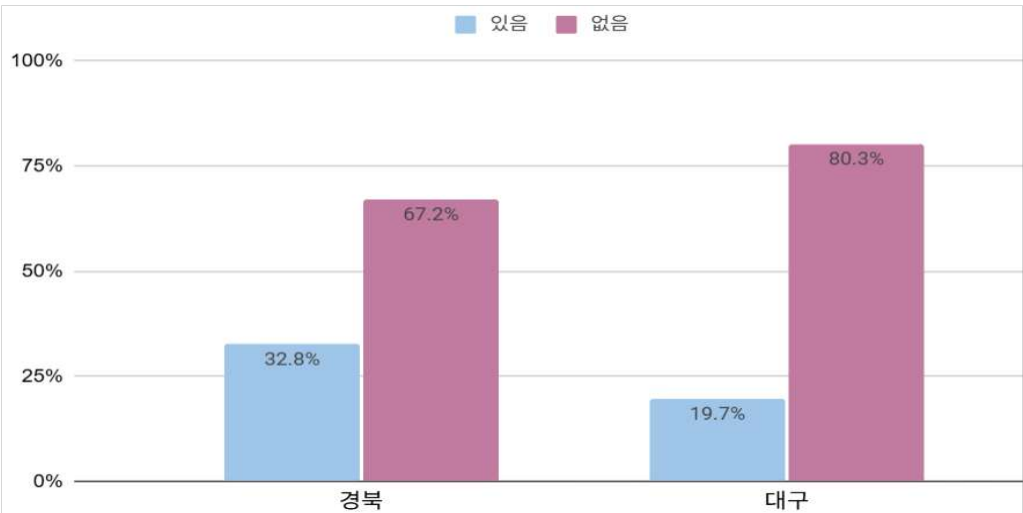
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는 경상북도는 ‘학교 교육의 질’, 대구는 ‘없음’, 2순위에서는 경상북도는 ‘학교 시설과 환경’, 대구는 ‘성적’에 응답한 비율이 높

았으며, 3순위에서는 경상북도는 ‘진로’, 대구는 ‘사교육’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Ⅲ-16] 현 지역의 학교 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부모 응답

타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전학)시킬 의사에 대해 학부모에게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학부모의 32.8%는 타 지역으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67.2%는 진학(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구 학부모는 19.7%가 타 지역으로 진학(전학)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0.3%는 진학(전학)할 의사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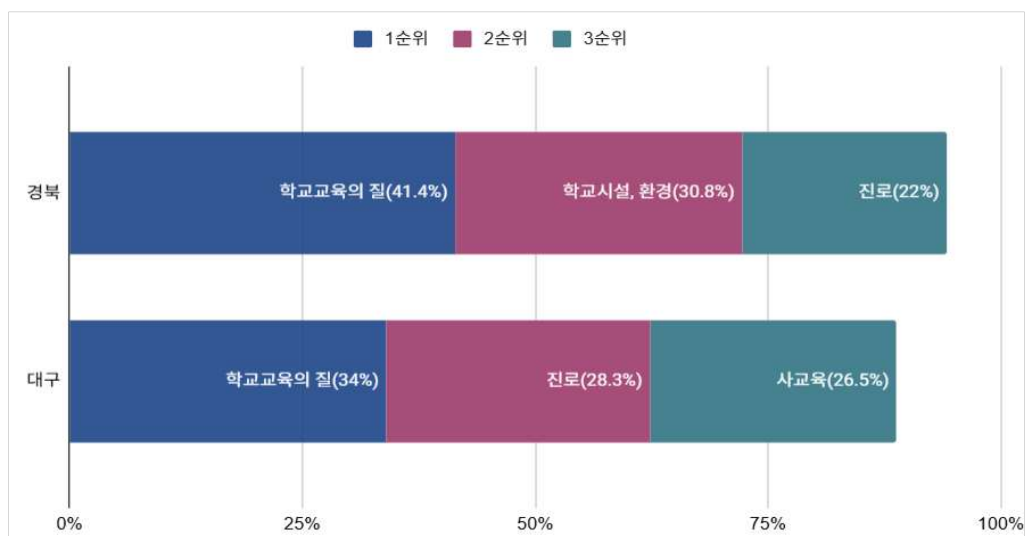


[그림 Ⅲ-17]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의사 여부: 학부모 응답

타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전학)시킬 의사가 있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1~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에 응답한 비율이 40.3%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학교 시설과 환경’에 응답한 비율이 28.8%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진로’에 응답한 비율이 21.8%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진로’, 3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 4순위는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주거지역의 동네 분위기, 복지, 부모 직장, 대안 교육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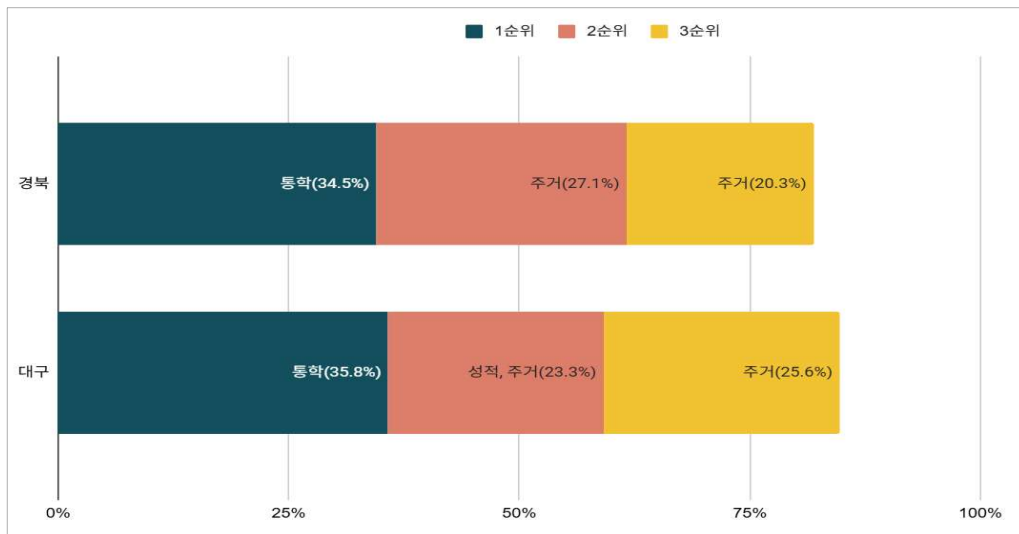
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 모두 1순위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 2순위에서 경상북도는 ‘학교 시설과 환경’, 대구는 ‘진로’, 3순위에서는 경상북도는 ‘진로’, 대구는 ‘사교육’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Ⅲ-18]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이유: 학부모 응답

타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진학(전학)시킬 의사가 있다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 1~3순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에서는 ‘통학’에 응답한 비율이 34.7%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 3순위에서는 ‘거주할 주거 공간’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5%, 21%로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통학’이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거주할 주거 공간’, 3순위는 ‘친구 관계’, 4순위는 ‘학교 시설과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 모두 1순위에서는 ‘통학’, 2순위에서 경상북도는 ‘거주할 주거 공간’, 대구는 ‘성적’, ‘거주할 주거 공간’, 3순위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 지역 모두 ‘거주할 주거 공간’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 경제적 지원이 있다.



[그림 Ⅲ-19] 타 지역의 학교 진학(전학) 시, 걱정되는 사항: 학부모 응답

5) 정주학교를 위한 요구 및 고려사항 관련 의견

가) 교사

정주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핵심적인 정책 제언은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수렴되었다.

첫째, 학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현행 자유학구제는 특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적용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스쿨버스나 통학택시 운영과 같은 통학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선결 과제로 인식되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10~15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극소규모 학급은 오히려 교육적 효과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학적 우려가 표명되었다.

둘째, 교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정주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 본연에 집중하기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과중한 행정업무가 지목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업무 전담팀이나 수업지원교사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단순한 승진 가산점을 넘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양질의 관사 제공,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는 승진 중심의 획일적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열정과 실력을 갖춘 우수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층적인 동기부여 기제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직원의 정주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학교 인프라 및 복지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의 사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단순한 통폐합 논의에 앞서, 해당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의 돌봄과 생활의 중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교육 기회의 평등성 제고를 위해 학교 통합 및 학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도하게 분산된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통합하거나 분교 형태로 개편하여 자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동시에, 특정 도심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시적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주학교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개별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타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학부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요 요구 및 우려 사항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에서부터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나타났다.

가장 다수 의견은 급격한 교육 방식의 변화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내실 있게 향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단순한 학력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공교육이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 성취도 향상과 학습 격차 해소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의 확대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가 우려를 표명했다.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학생들의 시력 저하 등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문해력 저하, 집중력 감소, 미디어 중독과 같은 부정적 학습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검증된 교육 방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성취기준에 따른 학년 진급, 무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현재 교육 당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제도들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칫 학생 간 진급 차별을 유발하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오히려 현행 학년제를 유지하며 또래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기초학력 신장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흥미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 주관의 내실 있는 체험학습, 자율 동아리 활동, 독서 토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체능 및 직업 체험 교육의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교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책임 있는 언행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교사의 장기근속을 보장하는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혼재하여 사회

적 합의가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수업 방식의 혁신을 통한 교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학교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급식의 질 개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서 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인 의미의 학교 안전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시골이나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력, 시설, 프로그램 등 교육 자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스쿨버스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특정 지역 학교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구 지역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사의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날로 복잡해지는 대학 입시 전형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전문적인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권위와 신뢰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교권의 위축과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사 권위를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요구로 귀결되었다.

다. 소결

설문조사 결과, 경상북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세 집단이 학교 교육에 대해 공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영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과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시설과 학습지원 공간의 질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과 생활지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되는 물리적 환경과 안전한 생활 여건이 여전히 주요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중요

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흥미와 수준에 맞는 수업 운영과 진로 교육, 교사들은 학력 향상과 수업 다양화, 학부모는 학력 향상과 다양한 과목 및 활동, 진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만족도는 중요도보다 낮아,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모두 장학금 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학생의 진로,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에서도 전반적으로 1수업 다교사제, 학생의 학업 수준, 속도 등에 따른 개별 학습, 개별 계획 수립 및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하면, 세 집단 모두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학습환경 구축을 공통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학습 경험의 다양성’을, 교사는 ‘교육과정의 실질적 개선’을, 학부모는 ‘학력 향상’, ‘다양한 과목 및 활동 운영’,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각각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생의 삶을 연결하는 중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연계한다’를 학교의 주요 역할로 꼽았다. 이는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핵심 기반이자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주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과다한 행정업무’가 지적되어, 지역 연계형 학교 운영을 위해 교원 지원체계 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또한 학교의 진학(전학)에 관한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62.3%, 중학생의 50.9%가 현 지역 학교로 진학할 의사를 밝혔으나, 고등학생의 78.8%는 타 지역 진학을 희망하였다. 현 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통학 편의’, ‘친구 관계’였으며, 타 지역 진학(전학)의 주된 이유는 ‘진로’, ‘학교 교육의 질’, ‘학교 시설과 환경’이었다. 이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교육의 질과 진로 기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지역 정주와 직결된 핵심 과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내 학교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델파이 조사 결과

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안하기 위하여 교수 및 교육전문직, 학교관리자 등 전문가 14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교육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14명에 해당하는 0.51을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각 문항별 응답을 바탕으로 내용 타당도 비율⁸⁾(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계산하여 CVR 값이 0.51에 도달하면 그 항목은 전문가 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 델파이 참여자 정보는 아래의 <표 Ⅲ-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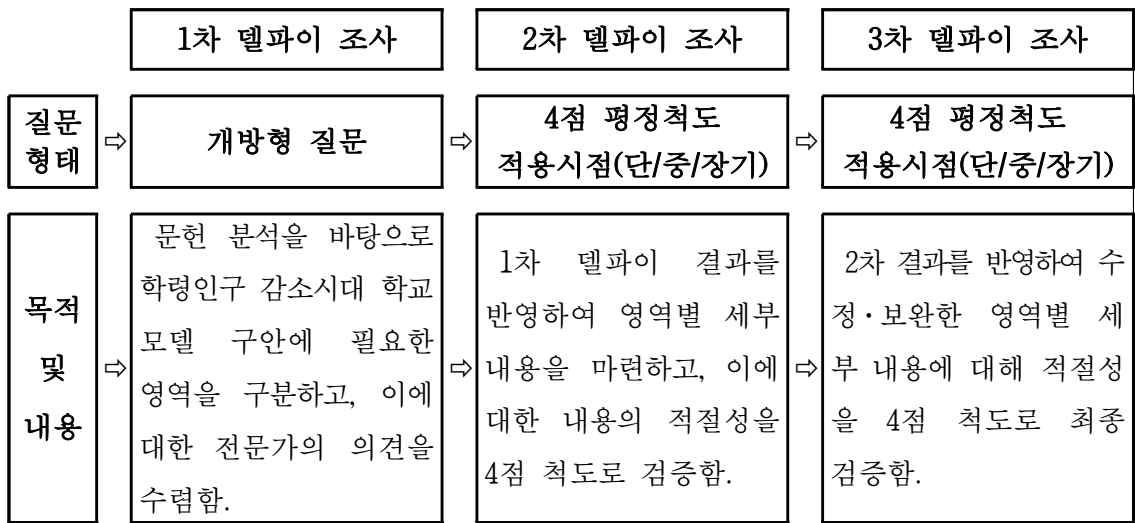
<표 Ⅲ-6> 델파이 참여자 정보

순번	연령(만)	학력	전공	직위	교육 및 연구 경력(년)
1	42	박사	교육과정	교수	15
2	44	박사	교육과정	교수	21
3	56	박사	교육과정	교수	20
4	67	박사	교육과정	교수	30
5	64	박사	교육과정	교수	30
6	54	석사	국어교육	장학관	31
7	51	박사	교육과정	장학사	25.10
8	48	박사	교육과정	장학사	23.10
9	42	석사	지리교육	장학사	19.04
10	59	석사	컴퓨터교육	교장	35.03
11	56	석사	수학교육	교장	34.03
12	52	석사	사회과교육	교장	30
13	68	박사	교육과정	교장	43
14	52	석사	물리교육	교감	29.06

$$8) CVR = \frac{n_e - (\frac{N}{2})}{\frac{N}{2}}$$

n_e: 동의를 표한 전문가 수

N: 전체 전문가 수



[그림 Ⅲ-20] 델파이 조사 단계

<표 Ⅲ-7>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영역	문항	
1차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 거버넌스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한 학교 유형 및 학제	
	■ 학교 교육 활동	
	■ 기타	
2차	학령인구 감소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의 변화 인식	■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중요한 사회변화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 혁신의 선행과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	■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개선 방향 ■ 교육방법 및 평가 개선 방향 ■ 교육 제도 개선 방향 ■ 교육 재정 및 지원 방향
	■ 학령인구 감소 시대 대응 학교 모델 개발 관련 추가 의견	
3차	■ 2차 델파이에서 CVR 기준값의 경계에 있어 합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는 문항	
	■ 학령인구 감소 시대 대응 학교 모델 개발 관련 추가 의견	

나. 1차 델파이 결과

1) 정책/거버넌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학교 모델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수준에서 요구되는 정책과 교원 정책, 제도적 기반 및 재정 지원의 범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Ⅲ-8> 정책/거버넌스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항목	전문가 응답
정부/지자체/교육청 수준의 정책	■ 교육부 수준에서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정책, 교권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법 등 재정비 ■ 지자체 수준에서 전입 가족 대상 지원 정책: 주거 제공 및 이주비용 지원 ■ 교육청 수준에서 통학수단 지원, 지역별 특징과 상황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교원 정책	■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가산점, 사택 지원 등 ■ 초빙교원 확대 ■ 담임연임제 확대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제도적 기반	■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 다양한 학교모델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을 통한 행정 지원 창구 일원화 ■ 노후화된 학교 시설(교실, 기숙사, 급식실 등) 리모델링
재정 지원 범위	■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건비, 운영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학교 모델을 위해 교육부 수준에서 지역 교육 균형 발전 정책과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이주 가정의 주거 비용, 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청 수준에서는 통학수단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미래 사업, 국가 정책, 교육감 공약 사항 등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책으로 근무연한 완화, 사택 지원,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초빙교사, 복수 교과 자격 교사 등과 같은 다양한 교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

체 지원, 학위취득 및 해외 연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학교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반 학교보다 학급당 인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프로젝트 학습, 개별화 교육 등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이주 가정의 정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재정 지원 방안 가운데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ICT 인프라, AI 등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주가정 및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체험학습, 학용품, 방과후 학교 비용 등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공하여 완전한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다. 그 외, 교육청 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투입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단발적인 사업비 수준이 아니라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화된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학교 유형 및 학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에 적절한 학교 유형과 학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Ⅲ-9> 학교 유형 및 학제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항목	전문가 응답
학교 모델	■ 인근 학교 간 통합 학교 ■ 거점형 네트워크 학교 ■ 자체, 대학, 산업체 등과 협약하여 고용을 연계하는 고등학교 ■ 복합형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학교급 구성	■ 유+초저(1-3학년) 연계와 초고(4-6학년)+중 연계형 ■ 유-초-중-고를 묶은 15년 학교 ■ 학교의 비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학제를 유연하게 운영
학제	■ 무학년제 ■ 학년군제: 인구 저밀도 지역 ■ 통합진급제

적절한 학교 모델에 대하여 여러 학교 통합 모델, 단독 학교 모델, 지역 기반 학교 모델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인근 학교 간 통합학교의 경우, 지역의 특징이나 계절 상황을 고려하여 월 단위, 계절 단위, 학기 단위의 융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기반 학교 모델은 자체, 대학, 산업체 등과 협약하여 고용을 연계하는 고등학교,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복합 시설로서의 학교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외, 봉화 베트남 마을과 같이 이주배경국가 학교, 특성화고와 연계된 특성화 중학교, 공립특수학교 등의 추가 의견이 있었으며, 학교의 유형을 지역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테면, 예술, 체육, 과학기술공학 등 시설과 장비가 많이 필요한 학교에는 해당 학교를 특화하여 시설을 집중시켜 전국 단위의 희망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학교급을 연계한 학교급의 구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교를 연계하는 방안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연계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계 고등학교와 직업 준비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이들과 초·중학교를 연계하는 형태를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학교급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외, 역 여건과 학생 수, 교원 구성/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을 유연하게 구성한다는 의견, 1명의 교장이 여러 개의 학교를 관할하거나 여러 학교를 겸임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새로운 학교 모델에 적합한 학제로 무학년제, 학년군제, 유연학기제 등의 의견이 있었다. 무학년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교과에 한해, 고등학교에 한해, 공립대안학교에 한해 무학년제를 적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년군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서 적용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구성원 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3) 학교 교육 활동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학교에서 실시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점,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혁신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 학생 성취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방안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항목	전문가 응답
교육과정 강조점	■ 특화된 교육과정(생태, 농업, 공동체 교육, 원격·AI 기반 수업 등) ■ 지역 연계 프로젝트 학습(생태 환경, 문화자원, 직업세계 등)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혁신 사항	■ 지역 맥락 반영,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확대 ■ AI·SW 기반 교육 플랫폼 도입, 디지털 기반 학습 관리 ■ 유급과 속진 활성화
평가방식 개선 방안	■ 과정 중심 평가: 서술형 피드백,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지역 자원 활용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 등 ■ 학생 성장 이력, 특성, 발전 제안 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 학생의 성취와 성장의 과정을 학생 스스로 성찰하는 평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점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특화된 교육과정’을 꼽았다.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구체적인 특화 교육과정의 모습으로 봉화 산림고의 사례를 들기도 하였는데, 종자은행과 산림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고, 초·중학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특화지역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초학력 교육과 교육과정 최소성취기준 도달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미래형 교육과정 모습으로, 표준화된 수업이 아닌 학생의 학습 계획에 따른 개별 학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농산어촌 특화 융합교과 개발, 교원의 수준 높은 역량, 유연한 진급 및 평가 제도, 사회 정서 학습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학생 성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과정 중심 평가, 다면평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유급과 속진을 판별할 수 있으며, 진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 평가에 관한 연수를 제공하고 평가 방식은 교사에게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기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 모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교사에 제공할 인센티브, 교육혁신의 장애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학교 운영 시 고려해야 할 교육환경,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학

교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혹은 의무적인 학부모 협력 방안, 성공적인 학교 모델의 핵심 요인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II-11> 기타 사항에 관한 1차 델파이 결과

항목	전문가 응답
교육혁신의 장애요인	■ 중장기 비전의 부재, 성과 위주의 급박한 정책 운영 ■ 교원의 과다한 행정업무와 역할 과중 ■ 비협조적인 학교 문화 ■ 외부압력, 지나친 간섭
교사 인센티브	■ 수당 지급(연구비 등) ■ 가산점(승진/전보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 ■ 지자체-지원청(학교)-대학-산업체 거버넌스 구축 ■ 마을교사 및 학부모 강사제 운영 ■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육 환경 구축	■ 통학수단 지원 ■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 ■ 심리 정서 지원 전문 인력 배치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안전사고 시 학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개선 ■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학부모 협력 방안	■ 학부모 교육 이수를 정례화, 의무화 ■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도, 학생의 문제 행동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협력 의무화 ■ 학부모 교육 참여 학점제
성공적인 학교 모델의 핵심 요인	■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목표 설정, 중장기 로드맵 ■ 교육의 질 확보: 차별화된 유연한 교육과정 ■ 우수한 교원 확보 및 보상체계 확립

교육혁신을 실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교원의 과다한 행정업무와 역할 과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정책이 생길 때마다 교사의 행정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교사는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혁신에 장애가 되는 학교 문화로는 상호불신과 비협조적이며 변화를 기피하는 문화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사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적절한 보상 체계를 언급하였다. 그 중 연구비 등 수당 지급, 승진 및 전보 가산점 제공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 전문가는 수당,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가 타 시·도에서도 많이 활용

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원인과 장·단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 활용, 지자체 사업과 연계, 마을 교사제 운영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자원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해 보이며, 학교의 교직원과 지역사회, 교육청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협력과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학교가 갖추어야 할 교육환경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말 프로그램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전담팀, 업무경감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안전관리 요원의 추가 배치’등 추가 인력 배치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안전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사고 시 학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운영 시스템에 관해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체험학습의 누가 기록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 협력 방안에 대해 학부모 교육의 의무화를 언급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참여 학점제’를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다.

성공적인 학교 모델의 핵심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 지역사회 인프라, 교육과정 및 수업,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의 교육철학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차별화되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 모델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근 지역인 대구광역시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는 IB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CP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북에서 IBCP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또, 졸업생 추적 관리 및 성과 분석, 지역 인재 양성-정착-활용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등 학교별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북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동해안권은 포스텍, 한동대와 연계한 해양과학 영재학교나 경주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예술학교를, 북부권은 안동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 기반 인문학중심학교를, 서부권은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와 금오공대를 연계한 반도체기술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교육자육특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교장 리더십 훈련과정, 교직원 지역 적응 프로그램, 도시학생 유치 프로그램 등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2차 델파이 결과

1) 학령인구 감소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의 변화 인식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변화될 사회의 모습과 그에 대응하는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교육 평가 방법, 학교 혁신 과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현 교육 시스템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한 지 여부와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질문하였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 올 중요한 사회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2>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중요한 사회변화(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향상 필요	7
②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세계 변화	3
③ 고령화 사회 진입과 세대 간 갈등	7
④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증가	6
⑤ 학교 모델 변화(소규모 학교 증가, 폐교 증가에 따른 학교 양극화 등)	10
⑥ 지역 간 불균형 심화	3
⑦ 외국인 노동자 증가	1
⑧ 여성 근로자 확대 및 돌봄 문제	0
⑨ 사회 통합과 연대 필요성 증가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 변화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학교 모델의 변화’였다. 학교 모델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폐교 증가, 이에 따른 학교 간 양극화 문제 등 구조적 교육 환경의 재편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관된 교육 모델의 적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향상 필요’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동일하게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단지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및 세대 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학교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됨을 보여준다.

<표 Ⅲ-13>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교육과정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응답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인원 수(명)	1	6	7	0	0

<표 Ⅲ-14>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기초 학력 보장	2
② 창의성과 혁신 능력	4
③ 협업과 소통 능력	8
④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6
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7
⑥ 디지털 리터러시	3
⑦ 인성과 시민의식	6
⑧ 생태 감수성	1
⑨ 과학적 사고	2
⑩ 예술적 감성	0
⑪ 국제 감각	0
⑫ 지역 이해	1
⑬ 다문화 교육	2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 교육과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표 Ⅲ-13), 향후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표 Ⅲ-14).

미래 사회의 특징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 변화 등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요구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며 협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 비율의 변화로 인한 개별화 학습과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길러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학교 교육에서 지역 기반 탐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온라인 학습 등이 보편화되고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이 강조된다면, 학생이 자신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그 외,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인성과 시민의식’ 등도 높은 동의를 얻었다.

<표 Ⅲ-15>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문항	인원 수(명)
① 교과 간 통합과 융합	2
② 학습자 맞춤형 구성	2
③ 학습자 주도성	8
④ 실생활 연계	0
⑤ 학생 탐구 중심	1
⑥ 학생 체험 중심	0
⑦ 미래 지향적 내용	0
⑧ 지역 사회 문제 해결 기반	0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조점과 더불어 중요한 교육과정 구성 원리로는 ‘학습자 주도성’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학습자 주도성은,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학습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OECD의 ‘교육 2030’에서 핵심 요소로 소개되었으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 변화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표 Ⅲ-16>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교수·학습 방법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응답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인원 수(명)	1	6	7	0	0

<표 Ⅲ-17>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프로젝트 기반 학습	6
② 문제 기반 학습	3
③ 탐구 학습	8
④ 토론 학습	6
⑤ 체험 학습	0
⑥ 블렌디드 러닝	4
⑦ 에듀테크 활용 학습	3
⑧ 게임 기반 학습	0
⑨ 메이커 교육	1
⑩ 강의식 교육	2
⑪ 소집단 협동 학습	4
⑫ 개별화 학습	5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표 Ⅲ-16).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학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토론 학습’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들은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을 전제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중심의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탐구학습의 경우 학생 주도의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며, 개인 탐구보다는 집단 탐구를 적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지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탐구 학습과 연결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블렌디드 러닝, 개별화 학습 역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고려된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과 대면 학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개별화 학습과 연계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교수·학습 방법은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학교가 처한 환경이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가능할 것이다.

<표 Ⅲ-18>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해 중요한 조건(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교사 역량 강화	10
② 교사당 학생수 감축	3
③ 교육시설 개선	1
④ 교육과정 개편	3
⑤ 평가 방법 변화	6
⑥ 학교 문화 개선	8
⑦ 교사 자율성 보장	4
⑧ 행정업무 감소	6
⑨ 예산 확보	1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교사 역량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교수·학습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많은 역량들을 수업으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길러 주어야 할 협업 및 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등은 교사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교사의 역량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문화 개선’과 ‘행정업무 감소’ 역시 높은 응답을 받았는데, 교사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거나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학교 문화와 수업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19> 학령인구 감소 시대 현 평가 방법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응답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인원 수(명)	2	9	3	0	0

<표 Ⅲ-20>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포트폴리오 평가	7
② 프로젝트 평가	5
③ 동료평가	2
④ 자기평가	2
⑤ 관찰평가	3
⑥ 서·논술형 평가	9
⑦ 토론평가	3
⑧ 발표평가	5
⑨ 디지털 평가(온라인 평가)	4
⑩ 구술평가	2
⑪ 지필평가	0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평가 방법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9). 다가올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학교 교육에 있어 적절한 평가 방법은 ‘서·논술형 평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Ⅲ-20). 이는 정답 중심의 단편 지식 평가보다는 학생의 사고력, 표현력, 통합적 이해를 드러낼 수 있는 서술형의 평가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평가’와 ‘프로젝트 평가’, ‘발표 평가’ 등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의 평가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 방식이 개별화, 맞춤형으로 변화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운 ‘지필평가’는 동의한 전문가가 없었으며, 이는 현재의 평가 방식이 미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1>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 혁신의 선행과제(3개 선택)

문항	인원 수(명)
① 교육과정 개편	2
② 교수·학습 방법 혁신	6
③ 평가 방법 개선	6
④ 교원 역량 강화	7
⑤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3
⑥ 학교 문화 개선	6
⑦ 교육 제도 개편	3
⑧ 사회 인식 개선	0
⑨ 학교장 리더십 변화	2
⑩ 학부모 협력	2
⑪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	2
⑫ 교육 재정의 확보	2
⑬ 기타	1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 과제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 것은 ‘교원 역량 강화’이다. 산업 사회의 산물인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제공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 설계자, 조력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설계 역량, 평가 역량, 학생 참여를 이끄는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 필요가 있고, 이는 지속적 전문성 개발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 복식학급, 통합학급, 원격 수업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질적 학습자 구성과 학습 격차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교사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개별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평가 방법의 개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탐구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과 같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배움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평가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

앞서의 학령인구 감소시대 사회 변화와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평가, 교육 제도, 교육 재정 및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동의 여부와 적용 시점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먼저,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2>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1.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								
1)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시: 각 역량별 해당되는 학습 요소 제시)	1	2	7	4	0.57*	3	8	3
2) 현재 교육과정은 1개 학기 최대 8개 과목을 학습하는 다교과 이수제이지만,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소수 교과 선택 학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1	3	3	7	0.43	3	9	2
3)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소수 교과 선택 학습은 중학교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5	4	2	-0.14	2	4	8
4) 교과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0	8	5	0.86*	6	6	2
5)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4	5	5	0.43	3	5	6
6)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점적으로 기를 필요가 있다.	0	0	3	11	1*	9	2	3
7)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0	3	5	6	0.57*	5	6	3
8) 지금보다 지역 기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4	7	3	0.43	7	4	3
9) 지금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3	6	5	0.57*	7	3	4
10) 지금보다 마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4	6	3	0.29	4	5	5
11) 이주배경 학생(외국 국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0	3	9	2	0.57*	5	4	5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인 항목은 '6)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점적으로 기를 필요가 있다.'였다. 11

명의 전문가가 ‘매우 동의’하였고, 3명의 전문가가 ‘동의’하였으며, 적용 시점 역시 9명의 전문가가 1~2년 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4) 교과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항 역시 비교적 높은 타당도와 단기나 중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3번 문항과 10번 문항은 CVR 값이 낮아 전문가의 합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문항은 학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2번 문항과 5번 문항, 8번 문항과 같이 기준값에 근접한 문항과 1번 문항과 9번 문항, 11번 문항과 같이 기준값의 경계에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차 질문지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표 Ⅲ-23> 교육방법 및 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2.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								
1)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의 갯수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0	2	5	7	0.71*	5	7	2
2)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른 재구성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0	4	4	6	0.43	4	7	3
3)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를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0	2	7	5	0.71*	5	7	2
4)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추가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0	2	9	3	0.71*	6	5	3
5) 생성형 AI 활용법 등 에듀테크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0	0	10	4	1*	1	10	3
6) 수행평가의 수와 비율을 교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0	4	5	5	0.43	6	6	2
7) 평가의 횟수 및 종류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0	3	7	4	0.57*	5	6	3
8) 초, 중, 고등학교에 주 1~3시간 정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0	1	6	7	0.86*	4	4	6
9) 학기 초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중에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0	0	4	10	1*	6	5	3
10)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공동학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0	4	4	6	0.43	4	6	4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2.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								
※ 온라인 공동학습: 학교에 등교하여 각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여러 학교의 같은 학 년으로 온라인 학급 구성)								
11) 평가의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0	0	4	10	1*	10	2	2

교육방법 및 평가의 개선 방향 가운데 ‘5) 생성형 AI 활용법 등 에듀테크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와 ‘11) 평가의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만장일치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특히 11번 문항의 경우 단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적용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5번 문항의 경우, 중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교육 현장과 교사의 준비도를 고려한 의견으로 보인다. 그 외 1번 문항과 3번 문항, 4번 문항, 8번 문항 역시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학교 모델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자 한다.

한편, 2번 문항과 6번 문항, 10번 문항 등 CVR 기준값에 근접한 문항과 7번 문항과 같이 기준값의 경계에 있는 문항들은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차 조사에 포함하였다.

<표 Ⅲ-24>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3. 교육제도 영역								
1) 학교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 한 학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0	2	7	5	0.71*	1	6	7
-유아+초저 통합 교육	0	1	9	4	0.86*	2	9	3
-초고+중학교 통합 교육	0	0	10	4	1*	1	11	2
-초등학교~중학교의 9년 연계 교육	0	1	8	5	0.86*	1	9	4
2) 거점학교의 학구 범위를 확대하여 학구 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한 학교 간 이동이 용이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0	7	7	1*	6	6	2
3) 학교 여건 및 계절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0	2	7	5	0.71*	3	8	3
예) 농·어촌학교의 경우 9시 혹은 10시 등교								
4)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	0	4	6	4	0.43	5	3	6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3. 교육제도 영역								
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학교의 계획에 의한 단체교육)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학기 중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습자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0	0	6	8	1*	7	4	3
6)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학부모 연수 이수 학점제 등).	0	2	6	6	0.71*	8	2	4
7) 문제 행동 수정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학부모 협력을 일정 부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0	0	8	6	1*	7	5	2
8)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0	0	4	10	1*	8	4	2
9)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학년군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 또한 학년군제로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1년 단위→2~3년)	0	3	7	4	0.57*	1	6	7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학교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학제를 다양화, 유연화한다는 1번 문항에 대해 비교적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으며, 예시한 학제 유형들 역시 모두 동의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를 통합하는 학제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다만, 학제의 개선은 단기보다는 중기 적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2번 문항과 5번 문항, 7번 문항, 8번 문항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고, 3번 문항과 6번 문항 역시 높은 비율의 타당도를 보였다. 그 중 5번과 6번, 7번, 8번 항목은 단기 적용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으므로, 현 교육 체제 내에서 긴급성을 띠고 볼 수 있다.

한편, CVR 기준값에 근접한 4번 문항과 기준값의 경계에 있는 9번 문항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차 조사에 포함하였다.

<표 Ⅲ-25> 교육 재정 및 지원 방향에 관한 동의 여부 및 적용 시점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4. 재정 및 지원 영역								
1)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하여 주택 혹은 통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1	8	5	0.86*	8	2	4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이동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0	0	8	6	1*	7	3	4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승진이나 급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0	1	10	3	0.86*	8	4	2
2) 유·초등에서 돌봄을 위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5	6	3	0.29	4	5	5
3) 지자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에서 학생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 가정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2	7	5	0.71*	6	4	4
4)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학습 공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 실험실, AR/VR실, 토론실, 정독실 등	0	1	6	7	0.86*	5	5	4
5) 체험학습을 위해 안전관리요원과 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0	6	8	1*	5	5	4
6)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집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0	0	7	7	1*	5	7	2
7)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1수업 다교사제(보조교사, 특수교사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0	0	8	6	1*	7	5	2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재정과 지원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1)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의 모든 하위 문항이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그 중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이동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하위 문항들의 적용 시점 역시 단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므로,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북의 경우 농·어촌 학교가 많고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으므로 교사 처우에 대한 대책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각종 인력 및 재정에 관한 5번과 6번, 7번 문항에 대하여 모

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또한, 전입 학생 가정의 정착 지원에 관한 3번 문항 및 학교 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4번 문항 역시 높은 동의율을 얻었다. 이들 의견은 학교 모델 설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반면, ‘2) 유·초등에서 돌봄을 위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항의 경우 CVR 기준값을 하회하고, 부동의 의견이 높아 학교 모델 설계 시 반영할 의견에서 제외하였다.

라. 3차 델파이 결과

3차 델파이는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CVR값이 기준값의 경계에 놓여 수용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 어려운 일부 문항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차 조사를 통해 해당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각 문항의 합의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6>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1)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시: 각 역량별 해당되는 학습 요소 제시)	0	1	6	7	0.86*	2	9	2
2) 중등 교육과정은 현재보다 1개 학기당 필수 이수 과목을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0	0	6	8	1*	3	8	2
3)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3	3	8	0.57*	4	5	3
4)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급에 적절하게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현재보다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0	0	3	11	1*	9	3	2
5) 지금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	2	7	5	0.71*	6	5	1
6)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외국 국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정주·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0	2	3	9	0.71*	4	7	3
7)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2	6	5	0.57*	3	4	4

문항	동의 여부				CVR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 년)	중기 (3~5 년)	장기 (5년 이상)
8) 평가의 횟수 및 종류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0	3	6	5	0.57*	3	6	2
9)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공동학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공동학습: 학교에 등교하여 각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여러 학교의 같은 학년으로 온라인 학급 구성)	0	1	6	7	0.86*	4	6	2
10)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	0	3	2	9	0.57*	5	4	2
11) 학교 교육과정은 1년 단위이고,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2~3년 단위로 불일치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1	3	4	6	0.43	3	6	1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미하게 전문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1번 문항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부동의를 한 전문가는 부동의 이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을 표방하고 있고, 역량과 직접 연계된 형태로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일은 학교 현장, 교사의 일’이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반으로서의 교과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과 정보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3번 문항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나, 부동의를 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부동의 이유로, ‘과학 교육 강화는 동의하지만 정보 교육 강화는 부동의’한다는 의견과 과학이나 정보보다는 기초기본소양으로서의 정서 교육, 인문 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묻는 5번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며, 한 전문가는 현재도 지역의 특성 반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 과중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6번 문항인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역시 전문가 의견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공통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창체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7번 문항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 대하여 유의미하게 전문

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일부 부동 의한 전문가들은 현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사의 역량, 평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이지, 자율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평가의 자율성에 관한 8번 문항에 대해서도 신뢰도 확보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가 있었고,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교사에게 일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 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는 10번 문항은 지역의 특성 상 제한될 수 있는 학생의 학습 경험을 다양화하고, 인근 지역 기관의 교육 기 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학기 중의 교육 활동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하기도 하였다.

11번 문항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학년군 단위이지만 학교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교육과정 단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조사 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해당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에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의 학년군 단위를 적용하여, 학년군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반대를 표한 전문가들은 학년군제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현행의 학년군이 보다 폭넓고 열린 탐구를 가능하게 함’, ‘학년군제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농어촌소규모학교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제 약하는 일이 될 것임’, ‘학년군제를 통해 학년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 화하는 것이 필요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부동 의한 전문가들은 문항의 의도와 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학년군제를 찬성하는 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소결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학령인구 감소시대 사회와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증가와 학교의 양극화 등 학교 모델이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는 협업과 소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학습이며, 이를 위해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방법으로는 서·논술형 평가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27>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 개선 방향

영역	교육 개선 방향	적용 시점
1.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	1)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시: 각 역량별 해당되는 학습 요소 제시)	중기
	2) 중등 교육과정은 현재보다 1개 학기당 필수 이수 과목을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기
	3) 교과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4)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기
	5)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점적으로 기를 필요가 있다.	단기
	6)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급에 적절하게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현재보다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
	7) 지금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
	8)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외국 국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정주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기
2.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	1)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의 갯수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중기
	2)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기, 장기
	3)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를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기
	4)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추가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
	5) 생성형 AI 활용법 등 에듀테크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기
	6) 평가의 횟수 및 종류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기
	7) 초, 중, 고등학교에 주 1~3시간 정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
	8) 학기 초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중에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기
	9)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공동학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공동학습: 학교에 등교하여 각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여러 학교의 같은 학년으로 온라인 학급 구성)	중기
	10) 평가의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
3. 교육제도 영역	1) 학교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기
	-유아+초저 통합 교육	중기

영역	교육 개선 방향	적용 시점
	-초고+중학교 통합 교육	중기
	-초등학교~중학교의 9년 연계 교육	중기
	2) 거점학교의 학구 범위를 확대하여 학구 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한 학교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3) 학교 여건 및 계절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예) 농·어촌학교의 경우 9시 혹은 10시 등교	중기
	4)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	단기
	5)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습자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기
	6)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학부모 연수 이수 학점제 등).	단기
	7) 문제 행동 수정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학부모 협력을 일정 부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
	8)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
	9) 학교 교육과정은 1년 단위이고,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2~3년 단위로 불일치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현 1년 단위→2~3년)	중기
4. 재정 및 지원 영역	1)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하여 주택 혹은 통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이동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승진이나 급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
	2) 지자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에서 학생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 가정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
	3)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학습 공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 실험실, AR/VR실, 토론실, 정독실 등	단기, 중기
	4) 체험학습을 위해 안전관리요원과 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5)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집행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중기
	6)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1수업 다교사제(보조교사, 특수교사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

핵심 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전 학교급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비교적 단기 실시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 같은 기초 학습 능력이 향후 전 학문 영역의 학습 토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체계적으로 길러져야 한다. 기초 능력 형성의 시기를 놓치면 이후 학습 격차가 누적되어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생들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 수준이 높아지며, 탐구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가능하고 고차원의 역량을 발달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 사회 문제를 반영하여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현재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교과를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보완하여 재구성하는 것과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들은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앞서의 단기적 개선 요구 사항들에 비해 학교 구성원 간 철학을 공유하고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에서는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에 대해 에듀테크 활용 추가 학습, 학기 초 학생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 및 디지털 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동의가 있거나, 학습을 의무화할 경우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학기 초 학습 계획 수립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학습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함으로써 개별화 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정 중심 평가와 연계된 실질적 학습 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은 기존 수업 운영 체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단기 도입이 요청된다.

생성형 AI 활용법을 가르치는 방안과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시간을 도입하는 방안,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온라인 공동 학습제를 도입하는 것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긴 하지만 앞서의 단기 접근 방안들에 비해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사항들이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제도 영역에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학 중의 외부 활동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보조교사제 도입,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학부모 연수 이수 학점제 도입, 문제 행동 수정 등을 위한 학부모 협력 의무화하는 방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개정 등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현재의 교육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조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교사제는 일부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방학 중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안 역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다. 학부모 연수나 협력 의무화 관련 제도는 법이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재정 및 지원 영역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체험학습을 위한 안전 요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단기 집행이 요구되는 방안들이다. 다만, 예산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은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실행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현 병렬식 교과를 지역/학교 수준에서 보완
- 초등학교 저학년 문해력과 수리력 중점 교육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 확대·강화
- 학교 프로그램에 지역의 특성 반영 확대
-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은 에듀테크 활용 추가 학습
- 매 학기 초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 계획 수립 및 점검
- 평가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방학 중 외부 기관에서 교육 활동을 이수하고 수업 시간으로 인정
-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보조하는 보조교사제 도입
- 학부모 연수 이수 학점제 등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 문제 행동 수정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학부모 협력 의무화
-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전입하는 학생의 가정에 대한 정착 지원
- 노후화된 학교 리모델링 및 학습 공간 다양화
- 체험학습을 위한 인력 지원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짧은 시일 내에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법과 제도 등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교육 체계 내에서 개선 가능한 중기 실행 방안은 다

음과 같다.

- 초등학교부터 과학, 정보 교육 강화
-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 에듀테크 활용, 학생의 학습 진단 및 학습 계획 설정
- 생성형 AI 활용법 등 수업에서 활용
- 학생 자율 학습을 위한 일정 시간 확보
-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온라인 공동 학습제 도입
- 학교의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등·하교 시간 자율 운영
- 재정 지원 확대 및 집행 간소화
-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유+초저 통합교육, 초고+중 통합교육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역량과 직접 연계되는 교과 교육과정으로 개선
- 중등 교육과정에서 1개 학기당 필수 이수 과목 축소
-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의 개수 축소
-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를 필수/선택으로 구분하고 교사의 수업·평가 자율성 확대
- 평가의 횟수와 종류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확대
-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초~중 9년 연계 교육
- 거점 학교의 학구 범위 확대
- 현 1년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추어 2~3년 단위로 변경

Ⅳ.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안)

1.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안)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안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우리가 직면한 거시적 환경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정책연구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의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학교 모델 구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교 모델(안)을 구안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중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폐합 정책,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농산어촌 유학, 적정화 규모 등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들이 속출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소’라는 지금의 현상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력과 생산성의 문제, 필요 노동력을 위한 외국인의 유입, 고령화되는 인력의 재교육 문제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와 정책들이 재정과 행정 중심의 효율화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다루었다면, 새로운 학교 모델은 교육내용, 이른바 학교의 ‘교육력’으로의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 현상을 양적 관점이 아닌 질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된다. 1km 근방에 학교 규모 60~70명의 소규모학교가 두어 개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학급당 25명을 초과하는 학생 수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혹은 학생 수는 적정 규모인 학교일지라도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심의 과밀학교였다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중·소규모로 변화하기도 하고, 농어촌의 중규모 학교였다가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면서 소규모학교로 바뀌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는 늘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건에 따라 바뀌는 특성이 있다. 즉, 학생 수와 학급 수로 표현되는 양적 개념 속에 다양한 변화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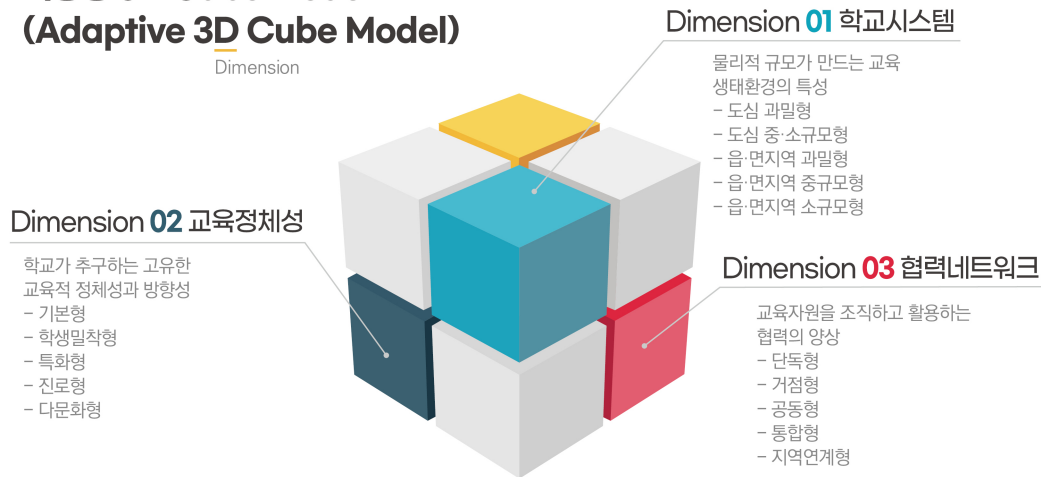
연구진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의 핵심 가치로 개별화,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용성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학교 모델은 지역을 특성을 살리되 전국적 적용이 가능하고, 급진적 변화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구하며, 학습자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다양한 학교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의 경계를 돌봄에서 평생학습으로 확대함으로써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새로운 학교 모델은 학교의 맥락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정된 모델 대신 상황에 따라 조합 가능한 설계 원칙들을 제안함으로써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은 모듈에 기반한 “적응형 3D 큐브 모델”이다. 큐브(cube)는 일차원적 분류를 넘어선 3차원적 접근을 강조한다. 각 면(3개의 축)이 만나 만드는 무수한 조합의 가능성은 학교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변수가 가능하다. 어느 한 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학교 모델 대부분이 학교의 규모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교육과정을 한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였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본 모델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목표를 설정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환을 계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는 읍·면지역 중규모형+특화형+단독형으로 안정적으로 출발했지만, 5년 이후에는 읍·면지역 소규모형+특화형+공동형으로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리적 변화 보다는 이에 따른 교육 방식의 진화에 집중하며, 변화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원 및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적응형 3D Cube Model (Adaptive 3D Cube Model)



[그림 IV-1] 학령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학교모델(안)

적응형 3D 큐브 모델은 세 가지 영역(Dimension)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은 학교 시스템으로 이는 물리적 규모가 만드는 교육생태환경의 특성을 말한다. 도심 과밀형, 도심 중·소규모형, 읍·면지역 과밀형, 읍·면지역 중규모형, 읍·면지역 소규모형으로 구분된다. 학교의 물리적 형태는 고정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도시의 과밀형 학교가 구도심의 중규모 혹은 소규모학교로 변화하기도 하고, 소규모학교만 있는 농·어촌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과밀학교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교의 물리적 규모는 학교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 정체성으로 이는 학교가 추구하는 고유한 교육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교육과정으로 운영되므로 총론의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이 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기본이 된다. 다만,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혹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학생밀착형, 특화형, 진로형, 혹은 다문화형으로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은 협력 네트워크로서 이는 교육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협력의 양상에 따른 구분이다. 단독형, 거점형, 공동형, 통합형, 그리고 지역연계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구분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제시한다.

<표 IV-1> 영역 1: 학교 시스템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도심 과밀형	도심의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초등학교는 학생수 240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학생수 300명 초과에 해당
도심 중·소규모형	도심의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초등학교는 학생수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학생수 300명 이하에 해당
읍·면지역 과밀형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생수 120명 초과, 중·고등학교는 학생수 180명 초과에 해당
읍·면지역 중규모형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생수 12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학생수 180명 이하에 해당
읍·면지역 소규모형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에 해당

※적정규모는 현행 교육부의 적정규모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함.

첫 번째 영역(Dimension)인 학교 시스템은 학교의 물리적 규모를 기반으로 크게 도심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되고, 도심은 과밀형과 중·소규모형으로, 읍·면지역은 과밀형, 중규모형, 소규모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구분은 현행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표 IV-2> 영역 2: 교육 정체성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구분	기본형	학생 밀착형	특화형	진로형	다문화형
내용	-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 학교의 표준화된 일정에 따라 기본 활동에 충실한 형태	- 소수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역 기반 프로젝트 학습 등 개별화 교육을 강화한 형태	- 교육과정 설계 시 예술, 체육, 인성, 외국어, 과학, 정보 등 지역의 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한 형태	- 교육과정 설계 시 지·산·학연계 등 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한 형태	- 교육과정 설계 시 이주배경 학생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
주안점	-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점진적 개선 - 기존 교육과정의 내실화	-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에 초점 - 학습자 맞춤형 지원 체계	-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브랜드 구축 - 특정 영역의 전문성과 우	- 실무 중심의 진로 탐색과 체험 - 지역 산업계와의 긴밀한	-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 - 상호문화 이해와 소통 역

구분	기본형	학생 밀착형	특화형	진로형	다문화형
	에 집중 - 교사·학부모 부담 최소화	구축 - 교사-학생 관 계의 질적 심 화	수성 확보 - 학생·학부모 선택권 확대	연계 - 실용적 기술 과 창업 마인 드 함양	량 강화 -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설계 유의사항	- 국가교육과정 충실 이행 (100% 준수) - 기존 우수 프 로그램 유지· 발전 - 소소한 혁신 을 통한 만족 도 제고 - 안정적 학습 환경 조성	- 학생 개별 진 단·처방 시스 템 필수 - 소그룹개별지도 시간 확보 (주 당 2시간 이상) - 다층지원시스 템 구축 (기초 -보충-심화) - 학습부진 조 기 발견·지원 체계	- 특화 영역 20% 이상 교 육과정 편성 - 전담 전문교 사 최소 2명 이상 확보 - 특화 프로그 램용 전용공 간 조성 - 지역사회 전 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진로·직업 교 육 30% 이상 편성 - 현장실습 연 간 40시간 이 상 확보 - 산업체 멘토 1인당 학생 5 명 이하 매칭 - 실습 중심 공 간 및 장비 구축	- 이주배경 학 생 비율 20% 이상 - 한국어 교육 과정 필수 - 다국어 지원 시스템 구축 - 문화적 감수 성 교육 전 교사 이수 - 이주배경 가정 네트워크 구축
구체적 실행방안	- 교과서 중심 수업의 질적 개선 → 개념기반 혹 은 주제 탐구 - 평가방법 다 양화 (과정중 심평가 등) - 생활지도 시 스템 체계화 - 학부모 소통 강화	- 개별학습계획 서(ILP) 수립· 관리 - 또래 튜터링, 멘토-멘티 프 로그램 - AI 활용 적응 형 학습 도구 도입 - 1:1 상담 시간 주간 운영 - 개별 포트폴 리오 관리 시 스템	예) 예술특화 - 예술 교과 시 간 확대 (주당 6시간 이상) - 전문 강사진 및 마스터클 래스 운영 - 예술 전용 공 간 (스튜디오, 전시장) - 지역 예술단 체·기관 연계 프로그램 - 개별 재능 발 굴·육성 시스템 - 연 2회 이상 전시·공연 기 회 제공	- 지역 기업체 현장실습 프 로그램 - 창업동아리 및 학생기업 운영 - 산업 전문가 겸임교사 위촉 - 직업체험센터 연계 운영 - 취업·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산학협력 프 젝트 수행	- 모국어 보전· 발전 프로그램 - 다문화 이해 교육 (월 4시 간) - 학부모 한국어 교실 운영 - 문화교류 축제 및 프로그램 - 다국어 학습자 료 개발·활용 - 국가별 문화 체험 공간 조 성

두 번째 영역(Dimension)인 교육 정체성은 교육적 정체성과 방향 즉, 학교의 교육력을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은 연구진이 다룰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현재 교육과정이 제안하는 범위로 제한하였다.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육적 정체성과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기본형’은 주로 대규모 학교에 적용될 것이라 예상되는 범주로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되 내실화에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학생 밀착형’의 경우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유형으로 교사와 학생 간 밀착 관계를 극대화하여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세 번째 유형인 ‘특화형’은 학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유형으로, 학교의 환경적 여건, 교사 및 재정적 지원 여부에 따라 특정 영역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유형이다. ‘진로형’은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유형으로 지·산·학 연계를 특징으로 한다. 지역 거점산업을 고려하되 선취업·후진학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교, 기업과의 연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구성원의 20% 이상인 경우 추천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 언어학습이 빠르게 병행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위한 외국어 교사나 지원인력, 혹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으로의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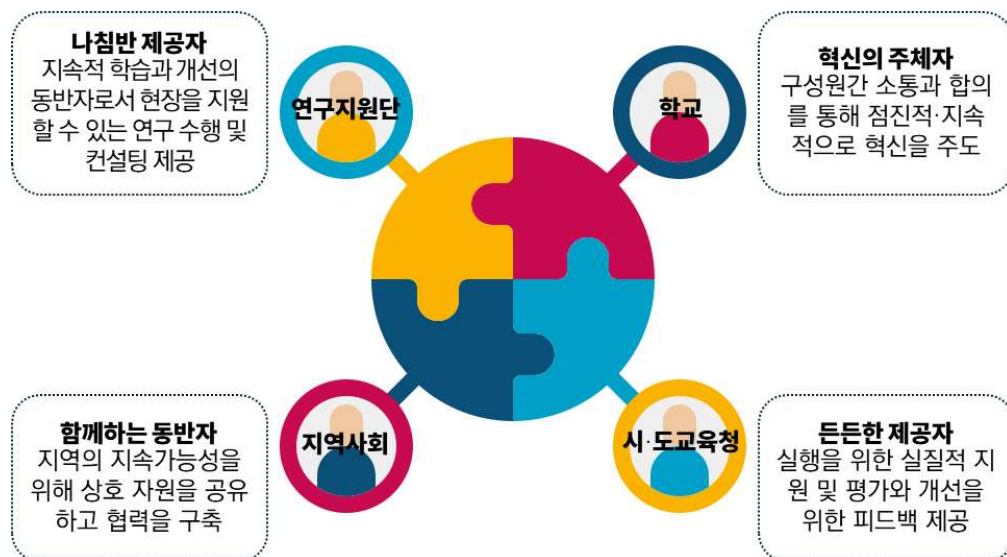
<표 IV-3> 영역 3: 협력 네트워크의 구분 및 가이드라인

구분	단독형	거점형	공동형	통합형	지역연계형
내용	주변 학교 혹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학교의 시설과 자원만으로 학교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	주변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거점(주)이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학교(부)로 구성된 형태	주변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는 형태	주변에 서로 다른 학교급이 혼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을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형태	지역사회의 기관·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
운영원칙	독립적 완결성	중심교 역할 수행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물리적, 행정적 일체화	마을교육공동 체 중심
적용조건	충분한 규모와 자원 보유교	지역 내 상대적 대규모교	유사 규모 2개 교 이상	소규모교 간 통합 필요시	지역사회 참여 의지 높은 곳
핵심전략	내부 역량 극대화, 자립적 운영	주변교 지원, 자원 공유 허브	상호 보완, 원-원 협력	규모의 경제, 효율성 추구	사회적 자본 활용, 지역과 상생

세 번째 영역(Dimension)인 협력 네트워크는 교육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는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각 형태는 학교의 물리적 규모, 교육적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협력 네트워크에 따른 구분은 단독형 → 거점형 → 공동형 → 통합형 → 지역연계형으로 점차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거점형’은 중심교 역할을 하고, 주변 학교와 자원을 공유하거나 지원하는 형태인데, 시설과 자원이 우수한 거점학교로 주변교의 학생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세부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거점형의 운영은 첫째, 규모가 작은 학교들은 밀착 지도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비교적 규모가 큰 중심교는 중학교로의 연계를 고려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재학하는 형태, 둘째, 행정 인력, 돌봄 인력 및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현장체험활동과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하기를 권한다.

제안한 ‘적응형 3D 큐브 모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는 크게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그림 참조). 표준화된 모델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학교는 주체자로서 발전 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고, 연구지원단은 연구와 컨설팅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특히 연구지원단은 학교가 수립한 발전 계획 및 로드맵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적 조언을 제공하며, 학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및 개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의 개선과 개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마련, 행정·재정 및 인력의 지원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학교의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함께 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상생’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그림 IV-2] 적응형 3D 큐브 모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2. 새로운 학교 모델의 적용 예시

가. 2-2-5 모듈



학교 시스템	도심 중·소규모형	▷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학급 수가 감소하는 학교
교육 정체성	학생 밀착형	▷ 교육비 지원 가정의 비율이 높은 학교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협력 네트워크	지역연계형	▷ 학교 인근에서 2개 이상의 지역 자원을 교육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1) 모듈의 특징

도심 중·소규모형 학교는 주로 구도심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에는 규모가 크고 학생 수도 많았으나, 인근에 새로운 주택 단지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이다. 도심 중·소규모형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빈 교실이나 시설들이 많고, 학급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당 학생 수는 일정 부분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생 밀착형 중점 교육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심 중·소규모형 학교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에 적절하다. 특히 이주배경 가정과 외국인 가정 비율이 높은 경우 기초적인 문해력과 한글 교육 등을 학생밀착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계형은 지역에 활용가능한 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경우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형태로, 도심 중·소규모형 학교가 위치한 구도심에 지역 시설

이 위치한 경우 적용가능하다. 학교 인근의 스포츠 시설이나 지역 대학, 각종 체험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다.

2) 모듈 적용 사례 (경산시)

가) 지역의 특징

2-2-5 모듈은 지역 지원이 풍부한 도심에 위치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어 중·소규모를 유지하며, 학생의 학력과 정서를 위해 밀착형 교육이 필요한 학교 모델이다. 학교의 학급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당 학생 수는 일정 부분 유지되므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3] 경산시 구도심 지도

경산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다음의 학교들의 경우 도심 중·소규모형 학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학교는 11~13학급 정도의 규모에 학급 당 학생 수는 25명~30명을 유지하고 있다. 경산의 구도심에는 시청,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와 시민 운동장 등 스포츠 센터, 지역의 대학교, 박물관과 유적 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대거 유출되고 있어 구도심의 학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림 IV-3]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산 시청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중·소규모학교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다. 서쪽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생기면서 경산시 인구가 대거 서쪽으로 이동하고, 기존의 학교들은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상권과 학원가 규모 역시 축소되고 있고, 새로운 주택 단지와 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구도심에 남아 있는 가정과 이주배경, 외국인 가정 비율이 높다. 인근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지역의 스포츠 센터 및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이다. 이들 학교 가운데 이주배경 가정과 외국인 가정 비율이 높고, 기초학력의 보완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경우, 학생밀착형-지역연계형 모듈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학생 밀착형 교육과정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경우, 학생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생 개별 진단·처방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 계획(ILP: Individual Learning Plan)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실행 중인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유사한 맥락으로, 학생의 개별 성장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서·심리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은 상담 프로그램을,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 학생들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복지와 함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다) 지역 대학 연계

경산시의 중·소규모학교들은 지역 대학과 인접해 있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설계 시, 학생 밀착형 소그룹·개별 지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과 적극적인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하다.

우선, 대학 교수진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교수진의 학문적 전문성과 교사의 현장 전문성이 결합되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수업 맥락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학문과 현장 간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고, 시간과 업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젝트를 대학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력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역 대학 진학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방학 기간 동안 시설을 개방하거나 방학 중 캠프와 같은 집중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는 방학 중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활동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얻은 바 있다. 도심의 중·소규모학교들 역시 여건과 교육 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인근 대학의 교육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하고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도심의 중·소규모학교에서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학생 밀착형 모델을 통해 1:1 멘토링이나 소규모 그룹 지도를 운영하거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지역 시설 연계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포츠 센터, 박물관, 유적지, 공원 등은 교과 교육을 확장하거나 체험 학습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센터에서는 배드민턴, 클라이밍, 수영 등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체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 강사를 활용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박물관과 유적지는 사회·역사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되며, 큐레이터와 해설사 같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기 중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험 학습은 물론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학교 인근 지역 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교육 활동을 설계·운영한다면,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도 높일 수 있다.

경산시 도심의 중·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인근의 시립 박물관과 고분군 유적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 학습을, 경산 시청과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을, 스포츠 센터와 연계하여 체육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시설과 연계하는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같이, 체험 학습 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인력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3) 필요한 지원 사항

- 대학-학교 연계 플랫폼 구축 및 MOU 실무 지원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전 교육 및 교육 봉사 시간 인정(대학)
- 공공기관 및 체험 시설과의 협약 체결 및 인증제 도입
- 체험학습 안전 인력 지원
- 기초학력 전담 보조교사 배치
-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표 IV-4> 2-2-5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지역 대학 연계	지역 시설 연계
활용 방안	- 교수진+교사 협력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 -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젝트 - 대학 방학 동안 시설 개방, 집중 캠프 운영 - 대학생 멘토링 (1:1·소그룹 지도, 정서 지원 포함)	- 교과 교육 확장: 스포츠 센터를 활용한 체육 교육, 박물관·유적지 활용한 사회·역사 교과 연계 등 - 스포츠 전문 강사 및 큐레이터·해설사 활용 - 시청·경찰서 등 공공기관 연계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 수행
기대 효과	-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전문성 결합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 지역 현안 해결 및 학생 지역 정체성 강화 - 대학 진학·진로 탐색 기회 확대	- 교과 확장 및 체험 학습 강화 - 학생의 지역 애착·정체성 강화 -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 및 정주의식 향상 -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
학생밀착형 연계 방안	-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기초학력 보완 및 정서적 멘토 지원 -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한 학생밀착형 진로·직업 지도 확대	- 공원·문화시설을 활용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체험 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 회복 및 교과 교육 보완
유의점	- 학문과 현장 간 간극을 좁히는 과정 필요 - 대학과의 협력 과정 필요 - 교사·교수진의 시간·업무 부담 가중 - 대학생 멘토링 사전 교육 필요	- 체험 학습 시 교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 - 안전 관리 인력 등의 지원 필요 - 지역 시설과의 협력 과정 필요

나. 5-5-1 모듈



학교 환경 조건	읍·면지역 소규모형	▷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 특성 조건	다문화형	▷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네트워크 조건	단독형	▷ 학교 인근에 지역 자원이나 다른 학교가 위치하지 않아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1) 모듈의 특징

읍·면 지역 소규모형 학교는 인구 수가 적은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로, 주로 초등학교가 해당한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이며, 복식 학급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문화형은 학생들 가운데 다문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로(윤현희 외, 2023), 다문화 학생들은 한글 해득과 기초 학력이 부족하고, 가정의 돌봄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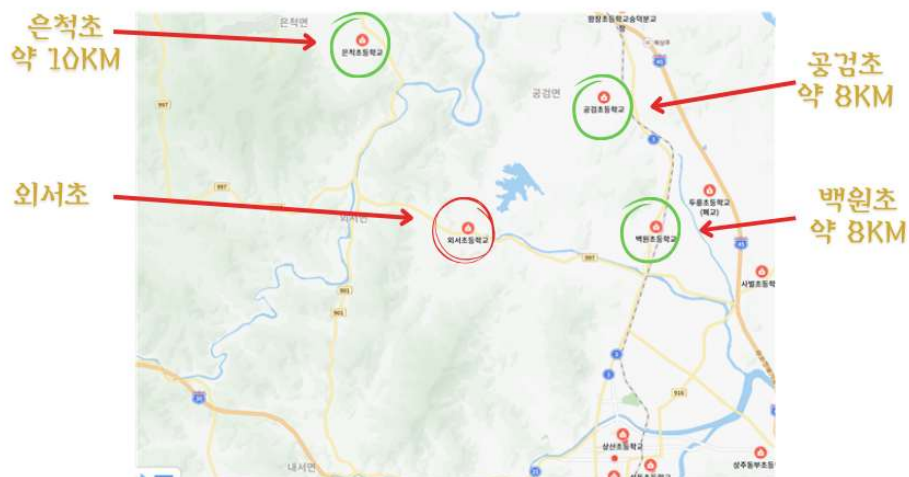
단독형은 인근에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시설이나 학교들이 미비하여 학교 자체의 교육 활동이 중점인 학교 유형을 뜻한다. 단독형 학교는 학교 자체의 시설과 자원만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모듈 적용 사례 (상주시)

가) 지역의 특징

5-5-1 모듈은 중심지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로,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이 부족하고,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이다. 다문화 학

생 비율이 높은 경우 한글 해득 문제로 인해 기초 학력 부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학력 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 수가 적어 복식 학급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학교 특성 상 교사들은 과다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기도 한다. 읍내와 다소 떨어져 있어 지역의 시설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학교 자체의 시설과 자원을 주로 활용하고 지역 자원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IV-4] 상주시 학교 위치

상주시의 외서초등학교는 외서면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학급 수 5개, 학생 수 17명이며, 가장 가까운 백원초등학교와 8km 남짓 떨어져 있다. 시가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단독형이 적절하다.

나) 다문화 학생 지원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이주배경 학생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이 타당하다는 합의가 도출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장 실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 한국어 소통이 능숙하지 않아 한글 해득이 필요한 학생
: 문자 해득 중심의 기초 한글 교육, 일상생활 언어 사용 교육, 기초 문해력 프로그램

램을 우선 제공 한다.

- ◆ 한글 읽고 쓰기는 가능하나 기초학력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주요 교과에 대한 보충 학습이 필요하며, 학습 내용을 반복하거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가 요구된다.
- ◆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 훈련, 감정 표현 및 자존감 향상 활동이 중심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 연계가 요구된다.

전문 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인 인적 자원(교원, 학부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합리적인 수당 지급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 동기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다) 포용적 문화 조성

다문화형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보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글로벌 교육도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 간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시민 교육은 다문화 감수성, 국제적 안목,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을 함께 기르는 과정이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 세계 시민 프로젝트 수업, 국제 교류 활동, 다문화 주간 프로그램, 언어 다양성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 대상 별도의 교육과정과 비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형 학교에서의 교육은 다문화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 학생에게 문화 다양성과 글로벌 의식을 기르는 포괄적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 대상 양방향 통합 지원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문화형 학교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문화 교류 축제나 수업을 통해 각국의 전통 음식, 의상, 음악, 춤, 언어 등을 경험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생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다. 이때, 이주배경 학부모를 일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배경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한 학교 생활로 이어지길 기대할 수 있다.

라) 단독형 학교 운영

외부 시설 및 자원 연계가 어려운 읍·면 지역의 학교에서는 내부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경험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화하여 가용 자원을 확보한다. 이를 테면, 학부모 강사제를 도입하여 돌봄이나 특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형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요리, 언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가진 전문성을 수업과 연계하거나 지역의 퇴직 교원, 귀촌한 전문가 등을 보조교사나 체험활동 안내자로 활용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교육 및 봉사료 지급, 봉사 시간 인증제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자원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의 단독형 학교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와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등교 후, 자신의 진도와 이해 수준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수행하며, 교사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동학습은 같은 학년이지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또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단독형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교사의 과목별 지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와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개인화된 콘텐츠, 진단형 퀴즈,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줄이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에듀테크 기반 학습 데이터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학부모와의 소통 및 학생 성장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나 해외 자매 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도농 교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방문, 공동 프로젝트 수행, 생활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읍·면 지역의 학생들은 도시 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을, 도시 학생들은 농촌의 생태·생산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해외 자매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관점과 다양한 문화 이해, 외국어 소통 능력, 글로벌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교육과정과 연계된 주제 중심 활동이나 지속적인 온라인 공동학습, 지역 기반 프로젝트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에서의 협력 체계 및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기 및 에듀테크 구독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방학 중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읍·면 지역의 단독형 학교는 교내 교육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인근 대학, 박물관, 농촌체험장 등에서 운영하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더 풍부한 학습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학교뿐 아니라 도심의 중·소규모 학교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학교별 특성과 교육 공동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업 시수 인정 기준, 활동 내용의 교육적 타당성 검토, 안전 관리 책임 범위 등의 제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이다.

3) 필요한 지원 사항

- 온라인 공동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구독 지원
- 방학 중 외부기관 교육 활동 수업 시수 인정을 위한 학교 자율권
- 외부기관 및 해외 학교와의 MOU 지원
- 학부모 강사제를 위한 봉사 시간 인정

<표 IV-5> 5-5-1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다문화 학생 지원	단독형 학교 운영
활용 방안	- 방과후 수업을 통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 - 한글 해득이 필요한 학생/기초학력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학생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비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교육 실시	-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등을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 - 디지털 도구와 에듀테크 활용한 온라인 공동 학습 - 도·농 교류 프로그램, 해외 자매 학교 교류 프로그램 유치 - 방학 중 외부기관에서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
기대 효과	-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 다문화 감수성과 국제 이해 기반의 공동체 문화 조성 - 전체 학생의 글로벌 시민 역량 향상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 - 외부 자원 부족 보완 - 디지털 역량 강화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역 정체성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유의점	- 학생 간 학습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운영 필요 - 강사 부족 시 교내 인력 활용 시도와 이에 따른 보상 체계 정비 필요 - 문화적 민감성과 언어 장벽 고려	-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접근 격차 해소 필요 - 플랫폼, 콘텐츠 운영 등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 체험 활동 시 안전관리 및 책임 범위 명확화 필요

다. 5-4-2 모듈



학교 환경 조건	읍·면지역 소규모형	▷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 특성 조건	진로형	▷ 진로 탐색과 체험을 강화한 교육과정 형태 ▷ 지역의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 조건	거점형	▷ 주변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거점(주)이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학교(부)로 구성된 형태

1) 모듈의 특징

읍·면지역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직면하며 소규모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학교 통폐합 위기로 이어진다.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소멸은 곧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읍·면지역 소규모 모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 학교급(초·중·고)을 하나의 캠퍼스나 행정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물리적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교원과 시설 등 한정된 교육 자원을 중복 투자 없이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는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진로형 중점 교육은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정적인 교과목에 더해, 지역사회가 가진 고유의 산업, 문화, 생태 자원을 교육과정의 핵심 텍스트로 삼아, 학생들에게 교실 밖의 살아있는 지식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특히 지역사회 탐색 중심 접근은 초등학교의 지역 탐방, 중학교의 현안 분석, 고등

학교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다.

하나의 학교만으로는 넓은 읍·면지역 전체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거점형’ 자원 활용 방식은 혁신 모델의 성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원과 인력이 집중된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고, 인근의 소규모 학교들을 ‘협력 학교’로 묶는다. 거점학교는 단독 개설이 어려운 심화 과목, 전문 실습실, 외부 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협력 학교 학생들은 이동 수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유받는다. 이는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동반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모듈 적용 사례 (영덕군)

가) 지역의 특징

영덕군의 인문환경은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은 남부로, 3개의 중·고등학교와 2개의 초·중학교, 2개의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북부 지역에는 영해중·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병설학교가 없고 분산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영해초·중·고에 학생 대부분이 몰려있고, 나머지 초·중학교에는 20명 이하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들 소규모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해초·중·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자원을 공유하는 모델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5] 영덕군 학교 분포

나) 거점-협력 학교 간 네트워크

영덕군 북부권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해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점과 협력 학교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거점 학교는 심화 교과, 다양한 선택과목, 전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중심 역할을 맡고, 협력 학교는 이와 연계하여 기초 교육과 소규모 체험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단일 학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분담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것이 권장된다. 거점 학교의 교사가 협력 학교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코딩, 제2외국어, 심화 과학 등 전문 수업을 제공하거나, 협력 학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점 학교를 방문해 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연계 수업을 도입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 학교 교사 역시 거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 지도에 나섬으로써 단방향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 구조를 형성한다. 나아가

거점과 협력 학교 교사들이 주제별 공동 연구회 등을 조직해 수업안과 자료를 공유한다면,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협력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기반 탐구학습을 통한 진로 탐색

진로연계학과와 학교자율시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영덕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 탐구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단계는 지역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기초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마을을 탐방하고 지역 전문가를 인터뷰하며, 국어 및 미술 교과를 통해 탐구 결과를 마을 이야기책이나 문화유산 안내 영상으로 제작한다. 이 과정에 고등학생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교급 간 자연스러운 연계를 도모한다.

중학교 단계는 지역 현안과 연계된 심화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산물 조사, 레시피 개발, 원가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학생들은 과학, 경제, 디자인 등 교과 지식을 실제 산업과 접목하며 진로와 학업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얻는다.

고등학교 단계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진로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 ‘해양환경학’, ‘문화콘텐츠 기획’, ‘로컬 비즈니스’ 등 지역 특화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단기 인턴십, 연구보고서 작성 등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며 대학 전공 선택이나 지역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한다.

<표 IV-6> 영덕군 지역기반 탐구학습 예시(영덕문화관광재단 참고)

지역사회 콘텐츠	연계 교과	학생 산출물 (예시)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 생명과학(지역 특산물), 화학(제과 원리), 경제(원가 분석, 마케팅), 미술(포장 디자인), 국어(홍보 문구)	창업 제안서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	- 지리(해안 지형), 역사(지역 설화), 생물(해양 생물), 정보(AR/VR 앱 개발), 영어(외국인용 안내문)	스마트 관광 가이드 앱
야시홀 나이트마켓 활성화	- 수학(방문객 데이터 분석), 사회(지역 상권 분석), 기술(온라인 홍보 플랫폼), 미술(부스 디자인)	야시장 활성화 컨설팅 보고서
산불 피해 마을 기록	- 사회(공동체 역사), 국어(주민 구술 채록), 미술/음악(기록 기반 창작 활동), 기술(영상 편집)	구술사 기반 다큐멘터리

3) 필요한 지원 사항

가) 행정적 지원

- 거점-협력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사의 순회 근무 및 점임에 대한 규정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학교자율시간 및 진로연계학기 활용의 자율성 확대

나) 재정적 지원

- 학생 및 교사 이동을 위한 통합 교통 시스템(셔틀버스 등) 운영 예산
- 거점 학교의 노후시설 현대화 및 전문 실습실 구축 비용
-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 전문가 초빙을 위한 사업비

다) 인적·물적 지원

- 지역사회(기관, 기업,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지원
- 온라인 공동 수업 및 콘텐츠 공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기술 지원
- 교사의 지역기반 탐구학습 설계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

<표 IV-7> 5-4-2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거점-협력 학교 간 네트워크	지역기반 탐구학습을 통한 진로 탐색
활용 방안	- 거점 학교(영해초·중·고) 중심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 - 심화 교과, 전문 실습실 공동 활용 - 교사 순회 및 온라인 연계 수업 - 교사 공동 연구회 조직 및 운영	- 진로연계학기 및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학교급별 프로젝트 운영 - (초) 마을 탐방, 전문가 인터뷰 - (중)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디저트 개발 등) - (고) 고교학점제 연계 심화 탐구 및 인턴십
기대 효과	-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한계 극복 - 지역 내 교육 자원 활용 극대화 및 교육 격차 완화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협력적 연구 문화 조성	- 실제적 과제 해결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및 설계 역량 강화 -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함심 고취
유의 점	- 학교 간 학사일정 조율 및 이동수단 확보 -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방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기기 격차 해소	- 지역사회 기관과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 - 프로젝트 학습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필요 - 과정 중심 평가 방식 도입 및 내실화 - 외부 활동 시 학생 안전 관리 철저

라. 5-3-2 모듈



학교 환경 조건	읍·면지역 소규모형	▷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 특성 조건	특화형	▷ 교육과정 설계 시 예술, 체육, 인성, 외국어, 과학, 정보 등 지역의 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한 형태
네트워크 조건	거점형	▷ 주변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거점(주)이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학교(부)로 구성된 형태

1) 모듈의 특징

읍·면지역 소규모형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농산어촌 지역에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체로 지역적 특성과 출생률 저하,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학급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주변 학교들은 본교로 통폐합되는 사례가 많다.

학급 규모 및 운영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읍·면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소규모 학급 편성이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학교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교실 내에서 동학년 간 또래집단 형성이 어렵고, 학생 간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된다. 또한 두 학년 이상을 한 학급으로 묶어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상차·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교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회교사는 특정 과목을 1주일에 한 차례 모아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화형 중점 교육은 예술, 체육, 인성, 과학, 정보 등 지역의 특색과 학생의 적성, 흥미, 소질 등을 고려하여 특화형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소질과 흥미를 바탕으로 교과 및 교과외활동, 학교자율시간 등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의 참여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거점형은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거점(주)이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 되는 학교(부)로 구성된 형태이다. 학교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물적, 인적 자원 등이 풍부한 거점(주)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다.

5-3-2모듈은 학생 수가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며, 지역 특색과 학생의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특화형 교육이 필요한 학교 모델이다. 학생 수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인근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어서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소규모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화형 중점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형 교육과정과 동일 학급 내 여러 학교를 연계한 거점형 운영 방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고, 학습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다.

2) 모듈 적용 사례 (의성군)

가) 지역의 특징

경북 의성군은 22개 시군 중 학령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전국 ‘학교 수 대비 소규모 학교 비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의성군 초등학교 중 의성초등학교와 안계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의성군에서 의성초등학교와 안계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학교이다. 학교 규모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급 수가 2개~8개로 학급당 학생 수가 1.8명~8.7명이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가 5명~20명 이내인 아주 작은 학교가 10개교, 34명~61명인 소규모 학교가 4개교 있다.

아래 그림은 경상북도 의성군의 초·중등학교 학교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다. 초등학교는 17개교이며⁹⁾,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의성군은 다양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좋아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 경제 기반을 농업 중심 지역에서 드론·안티드론,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신공항, 관광 등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폐교나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안전체험관, 생태공원, 인공지능(AI) 교육센터, 드론비행시험센터 등을 조성하여 특화형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갖고 있다.

9)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25년 9월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초등학교는 폐교될 예정임



[그림 IV-6] 의성군 학교 분포

나) 특화형 중점 교육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예술, 체육, 과학, 정보 등 체험 중심·맞춤형 교육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 방과후 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실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또한 예술, 체육, 과학기술공학 등 시설과 장비가 많이 필요한 학교에는 해당 학교를 특화하여 학생 모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의성군의 인공지능(AI) 교육센터, 드론비행시험센터를 활용하여 드론 축구, 컴퓨터(코딩), 로봇 과학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실제 생성형 AI 체험, 드론 코딩 실습,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딥페이크 윤리 탐구 등 융합형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후 지역 기반 탐구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종에 대한 이해, 코딩 등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드론 조종,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직접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 역사, 전통문화, 지역 축제

등 탐구 활동, 우리 학교·마을 상공촬영을 통한 마을지도 만들기, 지역 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디지털 역사 박람회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수업은 국어, 사회, 미술, 실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마을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애郷심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의성군의 승마 체험장을 활용하여 말과 친화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승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특히 정서 발달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외 예술교육을 통해 1인 1악기, 지역 공연 예술 활동, 학기말 축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 거점형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와 전문 강사 등 교원 확보가 어렵고,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또래와의 활동, 상호작용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변에 동일 학교급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거점형 학교에서는 주변에 동일 학교급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거점(주)이 되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학교(부)로 구성된 형태이다. 물적, 인적 자원 등이 풍부한 거점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연계(연합)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학교(부)가 서로 상호 보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년군,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년군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은 거점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은 부가 되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특화형 중점 교육을 1주일에 2~3회씩, 2시간 집중이수제를 활용하여 거점(주) 학교나 연계(부)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이때 예체능, 진로체험 수업 시, 농민, 전통 장인, 은퇴 교사, 지역 예술인 등 전문가를 일일교사, 보조교사나 안내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방학에는 교내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나 타 시도 지역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주도성, 고등 사고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징, 계절 상황을 고려하여 월 단위, 학기 단위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체육(계절스포츠), 해양 과학, 생태교육 등 주제 중심 탐

구 활동, 지역 기반 탐구학습 운영 시, 기존의 3월 학기제 운영보다 융통성 있는 월, 학기 단위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3) 필요한 지원 사항

가) 인적 지원

- 소규모 학교 교사 배치 기준 완화 및 특화형 교육 전담 교사 배치, 외부 전문가 (대학, 산업체, 예술인 등) 참여 지원
- 교원 승진 가산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수 교사 유치
- 교원 역량 강화, 교원연구회 등 지원

나) 물적 지원

- 거점학교 중심의 과학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 AI실습실, 예술·체육 시설 확충
- 에듀버스, 통학택시 등 통학 지원 체계 마련

다) 제도·재정 지원

-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보(자율학교 지정 등 법규 검토)
- 지역의 특징, 계절 상황을 고려하여 월 단위, 학기 단위의 융통적인 운영
- 특화형 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 배정 및 집행 간소화
- 지역산업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학교 조직 및 업무 통합 운영(거점(주) 학교로 교장, 행정 업무 전담 직원 배치 등)

<표 IV-8> 5-3-2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특화형 교육과정 운영	거점형 학교 운영
활용 방안	- 소규모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과학, 기술, 정보(실과), 예술 등 특화 교육 과정 개발·운영 - 지역 기반 탐구학습 운영(지역 자연 환경, 역사, 전통문화 등 탐구, 마을 지도 만들기, 지역 특산물 등 관련 프로젝트) - 지역 예술인, 농업인 등 지역 주민과 협력(마을교사, 학부모 강사제 등 마을학교 운영·활용)	- 학년군별/ 분야별(정보, 과학, 예술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 인적, 물적 자원 등 공유
기대 효과	-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성·고등사고력 함양. 사회성 발달 촉진, 지역 현안 해결 및 학생 지역 정체성 강화	- 소규모 학교의 존립 기반 강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경쟁력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교육 불평

구분	특화형 교육과정 운영	거점형 학교 운영
	- 지역자원 활용 활용과 특화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지역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	등 해소, 지역균형발전 기여
유의점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 - 교사 시간·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인센티브, 업무 경감 방안 마련 - 장기적 예산 지원 확보 및 집행 간소화	- 초기 시설·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부담 - 거점학교 행정조직의 통합 운영 시 역할과 권한 조정 문제 발생 - 거점학교 중심 운영이 과도해질 경우 주변 학교 소외 가능성 존재

마. 1-4-5 모듈



학교 환경 조건	도심과밀형	▷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 ▷ 학생 수가 초등학교 240명, 중등학교 300명 초과인 학교
교육과정 특성 조건	진로형	▷ 진로 탐색과 체험을 강화한 교육과정 형태 ▷ 지역의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 조건	지역연계형	▷ 학교 인근에서 2개 이상의 지역 자원을 교육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1) 모듈의 특징

도심 과밀형 학교는 주로 도시에 위치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 수와 학급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학교이다. 최근에는 유의미한 인구 증가를 일으키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의 설립·이전·확장,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새롭게 설립된 학교나 다른 유형에 해당하던 기존 학교가 도심 과밀형 학교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인근에 일정 수준의 상권과 학원가 규모가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 및 학급 수 감소, 교직원 수 감축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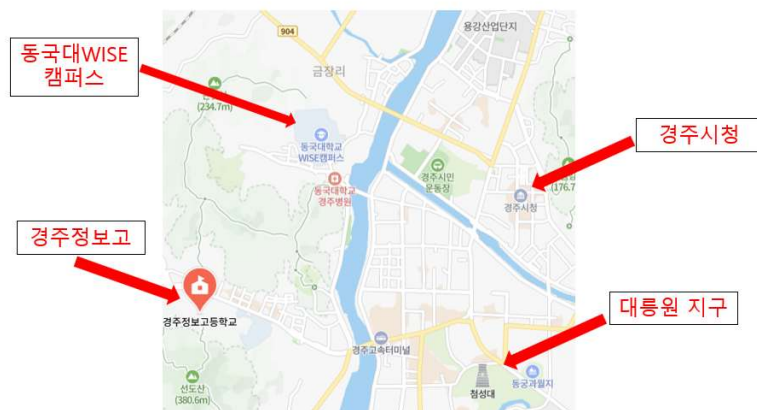
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형은 집중 모듈은 지·산·학연계 등 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강화한 방식으로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학력 인정형 대안학교, 중학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여 개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지역연계형은 지역사회의 기관·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도심 과밀형의 경우 학교 주변에 비교적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산업체나 인적자원 또한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상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학교에 비하여 ‘지역’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시·도·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모듈 적용 사례 (경주시)

가) 지역의 특징



[그림 IV-7] 경주정보고 인근 지도

위 그림은 경주정보고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외의 주요 기관을 표시한 지도이다. 3km내에는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가 있다. 반경 4~5km에는 경주시청과 관광지인 대릉원 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비교적 경주 시내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 대학 등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이다.

경주정보고는 2025년 기준 27학급 학생수 585명인 사립 남자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학과로는 관광서비스과, 글로벌경영과, 스포츠마케팅과, IT융합정보과, 유튜브창업과 등 총 5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경북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

이 학교는 진로형 교육과정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경북기능기술인재양성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기업 내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등 국내 취업은 물론 해외 취업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실적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학교이다.

나) 지역 대학 연계

경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기반 관광도시임을 고려할 때, 주변 대학과 문화재 관련 기관을 활용한 진로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관광서비스과가 있으나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면 주로 숙박업이나 요식업 관련 과목이 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성인이 되어 지역에서 일 자리를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형-지역연계형 모듈을 활용하여 관광서비스 학과에서 문화재 관광 관련 직종 과목을 개설하거나 학생들에게 대학과 연계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IV-8] 경주정보고 인근 대학의 연계가능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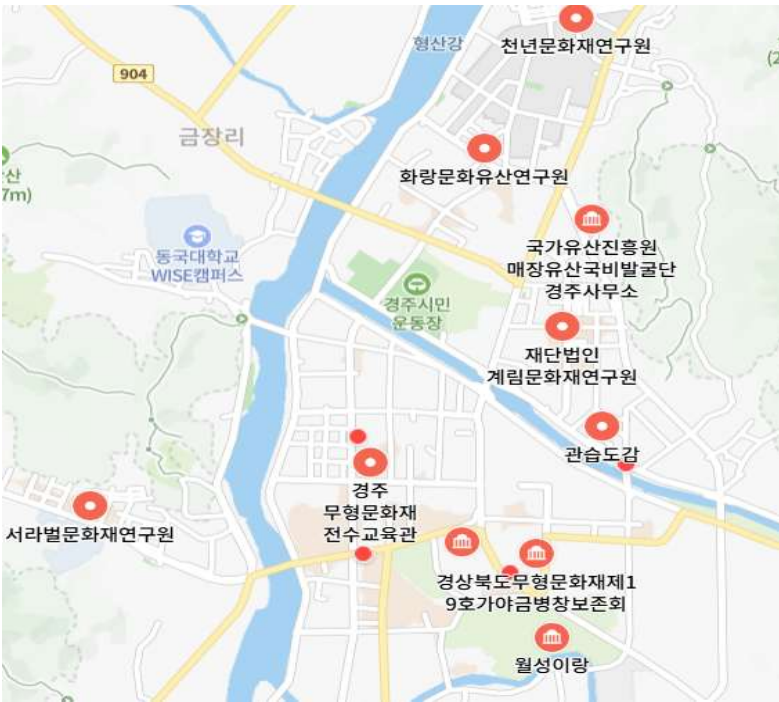
특히 경주정보고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국대 WISE 캠퍼스에는 고고미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과 현장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위 대학에서 보유한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 등의 인력과 자원을 통해 경주정보고의 관광서비스과의 문화재 관광 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국대 WISE 캠퍼스에는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학 프로그램도 진행해 볼 수 있다. 2024년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인은 총 117

만명으로 중화권이 약 41만명, 북미·유럽·호주 약 13만명, 일본 약 6만 4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방문객 수는 증가 추세이다. 경주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 실무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경주 외국인 관광 관련 분야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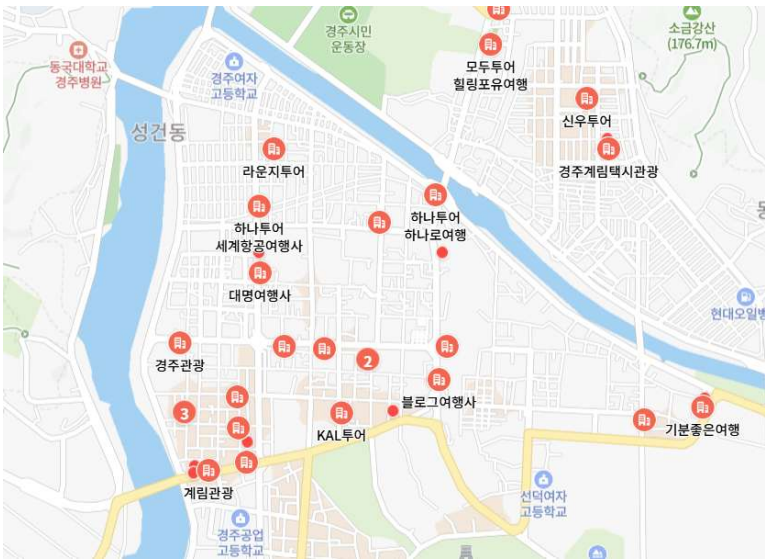
그 외에도 경주정보고의 글로벌경영과, 스포츠마케팅과, IT융합정보과 등이 동국대 WISE 캠퍼스의 융합경영학부, 스포츠건강과학부, 컴퓨터공학과 등과 연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내 대학과 함께 학기 중은 물론 방학기간 동안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대학에서 고등학교로 찾아와 캠프를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내에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역 기관 연계

경주에는 다양한 문화재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화랑문화유산연구원, 계림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경주사무소 등 다양한 공·사설 기관이 있다. 또한, 학교 근거리에는 대릉원지구와 같은 유명 문화재 단지가 소재한다. 이러한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거나 체험 학습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문화재 관련 지식을 심화하거나 문화재 발굴 작업에 참여해 볼 수 있으며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관련 역사적 내용을 학습해 볼 수 있다.



[그림 IV-9] 경주시 문화재 관련 기관



[그림 IV-10] 경주시 관광 관련 사업체

또한, 경주정보고 주변에는 경주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여행 업체들이 존재한다. 이런 업체들을 활용하여 경주 여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내·외국인 응대, 여행 마케팅 방법, 운수 분야 체험 등 문화재 관련 관광 산업 분야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내 취업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필요한 지원 사항

- 대학-학교 연계 플랫폼 구축 및 MOU 실무 지원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사전 교육 및 교육 봉사 시간 인정(대학)
- 대학-학교 연계에 따른 행정 인력 및 예산 지원
- 학교 교육이 가능한 사설 연구 기관에 대한 검증 및 인증제 실시
-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을 위한 인력 지원

<표 IV-9> 1-4-5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지역 대학 연계	지역 시설 연계
활용 방안	- 고등학교 학과와 대학 학과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연계하여 '문화재'관련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교수진+교사 협력으로 교육 과정 개발 및 수행 - 대학 방학 동안 시설 개방, 집중 캠프 운영(학교에서도 가능)	- 지역 내 취업 정보 제공 : 관련 산업체와 연계하여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취업 기회 소개
기대 효과	-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 전문성 결합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 지역 대학을 활용한 진로 경험 기회 제공 및 학생 지역 정체성 강화 - 취업 및 대학 진학·진로 탐색 기회 확대	- 산업 현장 중심의 진로 정보 제공 - 학생의 지역 애착·정체성 강화 -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 및 정주의식 향상
진로형 연계 방안	- 지역 특성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발 -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한 진로·직업 지도 강화	- 지역 산업의 업체와 기관을 활용한 진로, 직업 경험 강화
유의점	- 대학과의 협력 과정 필요 - 교사·교수진의 시간·업무 부담 가중	- 체험 학습 시 교사의 책임 범위 명확화 - 안전 관리 인력 등의 지원 필요 - 지역 시설과의 협력 과정 필요

바. 5-3-4 모듈



학교 환경 조건	읍·면지역 소규모형	▷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교육과정 특성 조건	특화형	▷ 교육과정 설계 시 예술, 체육, 인성, 외국어, 과학, 정보 등 지역의 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한 형태
네트워크 조건	통합형	▷ 주변에 다른 학교급이 있음 ▷ 프로그램, 인적 자원을 공유하여 계획, 운영하는 형태

1) 모듈의 특징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주로 읍·면에 위치하며 기업 이전, 신도시 건설 등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학생 수가 급감으로 대책이 시급한 경우가 많다. 생활 환경이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직원 수가 감소하고, 학교에는 빈 교실이 증가한다. 이러한 학교들은 상황에 따라 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분교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주변 학교와 통합되거나 폐교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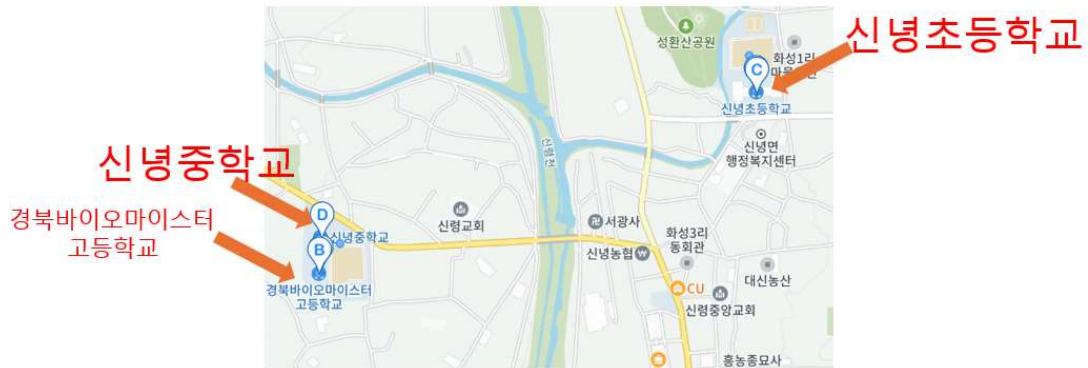
특화형은 교육과정 설계시 예술, 체육, 인성, 외국어, 과학, 정보 등 지역의 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한 형태이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학생과 학부모의 이목을 끌게 되며 이는 학교에 학생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합형은 주변에 서로 다른 학교급이 혼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적 자원을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학교급 간의 유기적인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며 학생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진급·진학이 가능하다.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에는 학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모듈 적용 사례 (영천시)

가) 지역의 특징



[그림 IV-11] 영천시 신녕면 학교

위 그림은 영천시 신녕면의 학교들을 표시한 지도이다. 신녕면에는 신녕초가 있고 직선 거리 기준 1km 미만에 신녕중학교와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가 있다. 이 지역의 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수에 큰 차이가 있다. 신녕초는 학생 수 30명, 신녕중은 22명인데 반해,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16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의약/식품 품질 관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이는 ‘마이스터고’라는 고등학교의 특성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인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학교의 취업률은 92.2%로 경북 내 특성화 고등학교 중 1위를 기록하였다.

나) 바이오 특화형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 방안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학교들을 연계하여 ‘바이오 특화형 초-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 친화적이며 농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과학, 특히 생물 과목과 연결하여 실험 또는 체험 중심의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경북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신녕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이나 전공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로 학생들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학생들이 12년 동안 신녕초-신녕중-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졸업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각 학교급마다 특색 있는 ‘바이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농축산 프로그램, 전통 음식 프로그램 등 바이오 중심의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지역 정주 여건과 인프라를 개선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 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학교에서도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은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생명 과학/제약/바이오 등 관련 특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학교 자체로도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한 지원 사항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중심 초등학교 연계 지역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제공, 통학 버스 운행 등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정주 및 통학 여건 제공
- 대도시와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인 정규 수업 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표 IV-10> 5-3-4 모듈 적용 방안 및 유의점

구분	바이오 중심 초-중-고 연계
활용 방안	-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 초/중학교 프로그램 운영 - 생명/환경 친화적 초-중-고등학교 연계 교육과정 운영 - 바이오 관련 진로 탐색 기회 확대
기대 효과	- 바이오 중심의 우수한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 학령 인구 및 가정의 지역으로의 전입과 정착에 따른 인구 증가 - 바이오 관련 취업·진학 기회 제공
특화형 연계방안	- 초등학교 : 친환경적 지역 프로젝트 - 중학교 : 바이오 관련 수업 활동 및 방과후 활동 - 고등학교 : 바이오 마이스터고 재학 및 관련 분야 진로 모색
유의점	- 통합형 학교 운영에 관한 홍보 강화 - 바이오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각 학교급별 자생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공공기관 등의 노력 필요

V. 정책 제언

1. 학교 모델 정착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가. 재정 지원 및 집행 간소화

○ 재정 지원 확대

혁신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이주연 외, 202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의 적용에는 기존 교육체제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산업사회 기반 학교 모델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고, 일괄적 자원 배분, 동일한 교육과정의 일괄 적용, 대량 생산 모델이라면, 연구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은 지역별, 학교별 맞춤 모델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학교 모델은 지역 특성 기반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학생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교사 및 안전관리요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올해에 적용한 학교 모델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후년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매년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AI 기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해 AI·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초기 비용과 시설·장비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

○ 집행 및 보고 절차 간소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예산 사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에게는 예산 집행이 수업이 아닌 ‘추가적인 행정 업무’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재정 집행 방식과 보고 체계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종 교육사업의 예산 집행과 보고 절차가 여러 단계이고, 까다로워 행정 부담이 과도하며, 이는 현장의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주연 외, 2020).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에게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

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가 2순위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의 지원 사항에 대해 순위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살펴보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가 1순위로 나타났다[그림Ⅲ-35]. 뿐만 아니라 델파이 조사에서도 해당 내용이 중기 실행 방안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집행 및 보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교사 등 인력 지원 및 교원 자격 유연화

○ 인력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역할 재정립이 핵심 요소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선택하는 모델 유형에 따라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 지도나 개별 온라인 학습을 위한 보조교사나 행정업무 전담을 위한 교사, 심리·정서 지원 교사, 체험 학습을 위한 코디네이터나 안전 요원,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상주인력 등 기존의 학교보다 다양한 종류와 인원이 요구된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장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인력 부족’에 응답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았다.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었다(교사: 4.37, 학부모: 3.89). 또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업보조교사에 대해 평균 3.88을 보였으며, 정주학교 근무 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교사 추가 배치’가 27.3%로 2순위를 나타내었다.

○ 교원 자격의 유연화

교원 자격의 유연화 역시 새로운 학교모델 개발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이광현, 2025; 이미숙 외, 2021).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에서 일괄 양성하고,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에서 일괄 양성하며, 학교급을 넘나들지 못하는 다소 경직된 자격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각 학교급에 걸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는 학교급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별 맞춤형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보다 학생의 개별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

교사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동의 정도가 다소 낮았지만,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높은 비율로 ‘학교급간 복수자격’과 ‘전공과목 복수자격’에 동의하였다.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학제 유연화와 관련하여 교원 자격도 유연화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 모델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자체 및 지역의 기관들과 MOU를 통한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색 반영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에서는 지역의 산업·문화·생태·역사 자원을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이 지역 수준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와 같은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역 특색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은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생존 전략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남호주주 라우칸 원주민 학교는 원주민 문화 교육을 강조하며, 지역 환경 단체와 협력하여 전통 식물을 재배하는 ‘부시 터커 정원(Bush Tucker Garden)’을 가꾸고 있으며,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커뮤니티 연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마을학교는 지역 공동체 전체를 학습의 장으로 확장하여 숲, 호수, 농장 등 자연환경이 교실이 되고, 장인·예술가·은퇴 주민들이 방문 교사로 참여해 전통 기술과 지역사를 가르친다.

○ 지역 기관과의 협력

지자체 및 지역 기관과의 MOU는 이러한 지역 특색 교육과정의 실질적 실행 동력이다. 지역 대학, 산업체, 문화기관, 환경기관 등과의 협력은 교육과정을 학교 내부 자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확장된 학습공간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교육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 경험은 곧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진다.

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정주 및 정착 지원 확대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정주 기반 마련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지역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착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며, 교육과 주거, 돌봄, 진로, 일자리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정주 인구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차원의 역할로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다(그림 Ⅲ-33). 또한,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진로와 성적을 그 이유로 꼽았고(그림 Ⅲ-41),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질과 학생의 진로를 그 이유로 꼽았다(그림 Ⅲ-47).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육이 지역 정주를 이끄는 결정적 요인임을 현장 차원에서 분명히 보여주며, 새로운 학교 모델이 곧 지역 인구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래형 학교 모델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판삼아 지역의 정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지만 지역의 인프라 확충, 일자리 및 거주지 등과 같은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생의 가정이 지역 내 정주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의 개별맞춤형 학습 지원

○ 해외 미래학교 모델

앞서 살펴 본 해외의 미래학교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의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었다(표Ⅱ-15). 이들 학교는 시설 및 기자재 측면에서는 개인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도구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는 아니지만 교육자료로는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 모든 학생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의 반복 학습이 필요한 학생, 심화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등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는 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 개인 학습 계획의 수립과 실천

호주의 빅토리아주 뉴린 초등학교와 남호주주 라우칸 원주민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또한 미래 학교 모델인 네덜란드 스티브 잡스 학교 역시 6주 단위의 개인 맞춤 학습 계획을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수립하고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를 학습 계획에 반영하는 것에 유의미하게 동의한 바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경북에서는 기존 구축되어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장하여 개별맞춤형 학습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콘텐츠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의 시·공간 확장은 학교 및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학습 자원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우수 교사의 수업, 맞춤형 학습콘텐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고,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업 개설의 한계를 디지털 기반 협력체제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학교 모델 실행 방안

가. 단기 실행 방안

1) 최적의 학교모델 결정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 진단도구 개발의 필요성

지금까지 제안된 학교모델의 대부분은 학교의 ‘규모’와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연구팀에서 새롭게 제안한 “적응형 3D 큐브 모델”에는 학교가 놓인 맥락이 3개의 Dimension(블록) 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블록에는 5가지 유형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모형이 학교에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학교에 대한 객관화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진단도구의 내용

학교모델 결정을 위한 자가진단도구는 학교급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고, 모델의 3개 Dimension을 다루어야 한다. 진단도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단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되어야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조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진단도구는 온라인으로 개발되어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진단 시기에 따른 결과를 누적함으로써 학교의 변화 양상을 데이터화 한다.

○ 진단도구의 활용

진단도구를 통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학교모델 선택의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중기 및 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모델에의 정착과 안정화, 교육의 효과성 등의 증거기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출발점 자료 및 종단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2) 초·중등 연계 지역탐구 교과(학교자율시간) 개발 및 운영 지원

○ 초·중등 연계 지역탐구 교과(학교자율시간) 개발의 필요성

지역에 정주한다는 것은 주체의 ‘자발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결정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학교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학부모나 학생의 가치관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이러한 자발적 선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OECD의 Agency 개념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Tohoku School Project¹⁰⁾와 고치현의 도사야마 학교¹¹⁾가 있다. 지역탐구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을 탐방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Living Lab)하고, 나아가 발전에 기여하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IB 교육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역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탐구 수업을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심화 및 확대한다면, 학교급을 넘어 자연스럽게 지역 학교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되었

10)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OECD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대학과 협력하여 ‘OECD 도후쿠 학교’를 설립하였다. 재해지역에서 온 100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이 학교는 집중 워크숍과 지역 학교에서 공부하는 2년 반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다른 국가의 이전 교육 및 복구 사례를 기반으로 핵심 커리큘럼이 설계되었고, 학생들 스스로 지역회생에 기여한 결과를 2014년 파리에서 발표함으로써 국제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

11) 2015년 기존 도사야마 초등학교에서 초·중학교의 일관학교로 전환(개교)된 학교로, 지역 사회에 공헌을 목표로 하는 도사야마학(지역 교과)과 ‘영어교육’을 중점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놓인 지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와 학교(교사),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밀착형 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탐구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초·중등 연계 지역탐구 교과와 내용

초중등 연계 지역탐구 교과는 도사야마 학교의 사례와 같이 직관적으로 ‘경북학’, ‘안동학’, ‘경주학’, ‘의성학’ 등 지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이해하는 인문학적 사유와 Living Lab과 같은 사회과학적 실천, 그리고 AI·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의 공학적 관점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현황 분석과 문제 발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에 맞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계되며,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교과 개발 및 운영 가이드를 개발한다.

3) 학교모델 정착 및 중·장기 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단 구축

○ 연구지원단의 필요성

새로운 학교모델의 개발은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모델이 정착 및 확대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개발의 주체와 정착 및 운영의 주체가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이는 연구지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연구지원단은 학교모델 개발 연구진, 경북교육청의 교육전문가,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의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연구지원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모델 진단도구의 개발,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효과 분석 등의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학교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모델 선택 및 발전 계획 수립 후 관련 내용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셋째,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수설계 시 이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구지원단은 학교모델의 초기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3-4년 동안 운영한다.

4) 온라인학교 고도화 연구

○ 온라인학교 고도화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감소시대에 소규모 학교는 필연적이다. 소규모 학교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나 재정·인력·행정의 효율성을 근거로 몇 가지 형태, 예컨대 학교급간 통합, 기숙사 학교로 전환, 온라인 교육의 확대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온라인 교육의 확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온라인학교가 설립되었고, 2025년 9월 ‘온라인학교’ 설립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현행 온라인학교는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선택 과목’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라인학교는 정규 학교일과 중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소규모 학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학교 고도화 연구의 내용

온라인학교 고도화 연구는 우선 법제화된 온라인학교 설립법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 및 배포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현재 17개 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규모학교 학생을 위한 온라인학교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양적, 질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설문조사 및 FGI).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 혹은 협의회를 통해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연구 수행 시 고려할 점은 첫째, 소규모학교 학생을 위한 온라인학교 운영 시 특히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혹은 적용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5) 각종 조례 및 규정의 정비

새로운 학교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조례 및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리스트업하고, 각각의 정책 혹은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나아가, 제정 혹은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학교모델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중기 실행 방안

1) AI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주배경 학생 교육과정 개발

○ 이주배경 학생의 지속적 증가

급속한 국제화와 이주 확대 속에서 이주배경 학생 수는 지난 2017년 109,387명에서 2024년 205,665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1.91%에서 3.6%로 증가¹²⁾하였다. 이들을 위하여 2012년 국가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KSL)이 수립되었고, 교재 개발 및 다문화 특별학급 신설·운영 및 이중언어 교육도 도입되었으며, 2023년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전국의 시·도에는 다문화 정책학교가 운영 중이며, 경북의 경우 2025년 유치원 18개원, 초·중등학교 37개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¹³⁾·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에만 다문화특별학급(한국어학급)이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어에 서툰 이들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 AI 및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개별화 교육 지원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한 통·번역이나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시·도교육청이나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AI나 에듀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초등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단계별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 및 운영함으로써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며,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

12)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e.kedi.re.kr/index>, 2025.10.14.

13)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2012년 4,288명에서 2024년 11,987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아대책이 발표한 ‘이주배경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225명 중 50% 가량이 한국 환경이 낯설고(25%),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며(24%), 사교육 기회가 부족(19%)하여 친구들만큼 공부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꿈을 찾고 노력할 기회조차 부족했다’고 밝혀 언어 장벽이 학업뿐 아니라 진로 형성에도 직접적 제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 굿뉴스, “언어장벽에 꿈 접는 중도입국 청소년…교회·지역사회, 교육 빈틈 메워야. 2025.10.20.).

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은 개별 학교 수준에서 추진할 수 없는 방안이므로 시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운영체계를 담당하고, 개별 학교는 담당교사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방학 중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활동의 인정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학교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경험의 총체를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따라서 학교 밖 경험은 ‘교육’이라기 보다 ‘체험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은 표준화된 국가의 기준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의미했으나, 점차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경험’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진정한 교육적 경험은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 밖 ‘경험’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한 축이며,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군에 따라 238시간~204시간 운영되고, 중학교는 306시간, 고등학교는 288시간 운영된다. 시수는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과정 시수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나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등¹⁴⁾이 인정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체는 ‘학교’이다. 이를 ‘학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체험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장기 실행 방안

1)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선행연구에서는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김현미 외, 2024), 특히, 미래 학교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연령에 따른 단일 학제(6-3-3)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를 택할 것으로 예측

14) 이 외에 동일 학교급의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이나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등도 인정범위에 포함된다.

하기도 하였다(김경애, 2016; 김현미 외, 2024; 김현진 외, 2017; Wyatt, 2021). 특히, 김현진 외(2017)는 학제 운영의 혁신 방안으로 무학년제와 교육내용별 학년제를 제시하고 현 교육체제 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으로 학년군 제도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스티브 잡스 스쿨을 유연한 학제 운영의 구체적 사례로 들며, 이러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혹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역량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다양한 학제 유형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6-3-3 학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 운영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 및 교육격차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는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설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학제 유연화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접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초·중 이음학교 혹은 중·고 이음학교는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묶어 기초 학습 및 돌봄 중심의 통합 교육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를 묶어 탐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델파이 결과 유의미한 동의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마을학교로 운영하고 거점학교를 4~6학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외, 무학년제 역시 전문가들의 높은 동의가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기에는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학제를 학교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형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학교모델이 획일적 구조를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교원 자격 유연화

○ 미래 사회 교원의 역할 변화

OECD의 교수 나침반 문서(OECD, 2025)에 따르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역할은 산업사회에서의 교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교사는 더 이상 일방적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역량 성장을 촉진하는 안내자(guide), 촉진자(facilitator), 학습 디자이너(designer)로 재정의되고 있다. 학생 주도형 학습, 프로젝트 기반 수업, 지역 및 온라인 학습 생태계와의 연계가 확대되는 미래의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습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탐색하고 의미를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수법의 전환을 넘어, 교원의 정체성과 전문성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따라 교원 자격 체계 역시 기존의 정태적·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형 역량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교원 자격 유연화 방안

미래형 학교모델의 구현과 다양한 학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교원 자격 체계의 유연화와 맞물려 추진된다. 기존의 교직 자격제도는 6-3-3이라는 고정된 학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초·중등 간 통합 학제, 학년군제, 또는 마을학교와 거점학교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 구조를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새로운 학교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을 기존의 학교급 또는 교과별로 경직된 체계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교원의 학교급, 교과별 복수 자격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이광현, 2025; 이미숙 외, 2021), 미래 학교에서의 교사 조직은 현재와 다른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계보경, 유지현, 2016; Wyatt, 2021). 이미숙 외(2020)의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사 자격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 겸임 규정을 들어 교육감이 지정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두 개 이상의 학교급 겸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교원 양성 제도 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기관(교대·사범대 등) 차원의 교원 자격 제도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양성 체계는 획일화된 학교급 중심의 자격 취득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학제와 학교모델이 요구하는 복합 역량형 교사를 충분히 양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 단계부터 학제 다양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복수 자격 취득 체제, 현장 기반 실습 강화, 지역 연계형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미래형 학교모델에 적합한 전문 교원을 체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학제를 뒷받침하고 미래형 학교모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 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교·사대 교원 양성 단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학생을 위한 새로운 학교모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과 업무를 담당할 교원의 자격과 역량부터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현 1년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추어 2~3년 단위로 변경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유연화

2009 개정 교육과정 당시 학년군을 도입한 것은 다교과 분산 피상 학습 현상과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진급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홍후조, 2009).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성취기준을 학년군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운영되므로 학년군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군은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김미진, 홍후조, 2023) 학년군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교사는 보다 자율적이고 맥락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1년 단위 학사구조를 성취기준에 맞추어 2~3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고려하고 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장기 개선 방안으로 설정된 바 있다.

○ 중장기 프로젝트 학습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는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학사 운영 단위를 2년 또는 3년의 주기로 확대하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속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지역 특화 교육과정 등 장기적이고 심층적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 유연한 학제와 교원 자격 체계와 연계

학교 교육과정의 단위를 학년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앞서 제안된 유연한 학제 도입 및 교원 자격 체계 유연화에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델파이 조사 결과, 미래 사회의 학제로 무학년제, 통합진급제, 학년군제와 같은 새로운 학제들이 제안되었고, 그 중 유

+초저 통합, 초고+중 통합하는 학제는 중기 실행 방안으로, 초~중학교 9년 통합 학제는 장기 실행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통합진급제는 학년군제와 연결되는데, 현재와 같이 학생의 성취와 관련 없이 1년마다 자동으로 진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은 2~3년 간 충분한 학습을 거친 후에 진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학습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학습이라 볼 수 있다.

학제를 유연화하면 교원 자격의 유연화도 함께 요구된다. 이들은 학령기 학생 수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학교가 미래지향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학제 다양화와 교사 자격 유연화를 통해 학년군 2~3년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의 개별적 성장경로에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계보경(2011). 미래를 위한 준비, 각국의 미래학교 프로젝트 추진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2025년 3월 24일 인출,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8&pageIndex=1&nTbBoardArticleSeq=240370>
- 계보경, 김현진, 서희정, 정종원, 이은환(2011).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연구보고 KR 201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계보경, 유지현(2016). 테크놀로지 시대 교육의 재설계 방향 및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모델들 (연구자료 RM 2016-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경북일보(2022.2.8.). '연간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경북 지자체 18곳 지원 확정. 2025년 6월 30일 인출, <https://www.kyongbuk.co.kr>
- 경상남도교육청(2023.1.31.). 과밀학급 해소·통학 편의 지원 확대 추진 [보도자료].
- 경상남도교육청(2023.2.17.).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를 위한 정책연구 공유회 개최 [보도자료].
- 경상남도교육청(2024.2.28.). 경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길잡이 배부 [보도자료].
- 경상남도교육청(2025). 지역소멸 위기 속 작은학교, 뭉쳐야 산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웹진, 2월(97호).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n.d.). 초등학교 취학 안내. 2025년 4월 21일 인출, <https://ghedu.gne.go.kr/ghedu/cm/cntnts/cntntsView.do?mi=13499&cntntsId=7001>
-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2025). 육지초, 육지중! 신학기부터 학생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보도자료].
- 경상북도(2025). 경상북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2022년 기준 추계 결과(2020년 기준년).
- 경상북도 공동데이터&교육통계(2025). 경북통계. 2025년 6월 30일 인출,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datastat/
- 교육부(2016).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보도자료].
- 교육부(2022).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3).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구자역, 정규열, 김복영, 이신동, 정택희(2012). 2012년 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연구사업 결과보고서(기술보고 TR 2012-98). 한국교육개발원.
- 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 권순형(2024).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규모 정책의 쟁점과 과제. 지방교육경영, 27(1), 139-165.
- 권순형, 정미경, 이강주, 허주, 민윤경, 정혜주, 박균열, 정규열, 이호준, 안병훈(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연구보고 RR 2021-01).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2016).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IP 2016-06).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애, 류방란, 김지하, 김진희, 박성호, 이명진, 김별희(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연구보고 RR 2015-04).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권(2018).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수 정책. 교육비평, 42, 58-91.

- 김미진, 홍후조(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실행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61(5), 63-94.
- 김선미(2018).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1(1), 45-65.
- 김은비, 유성창, 박기범, 백영선, 박선민, 조대연(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르는 초등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 역량개발학습연구, 14(3), 193-221.
- 김지영(2018). 일본의 초·중등교육 연계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 김지영(2024). 일본의 학교 통폐합 양상, 기준 및 폐교 이후 활용 사례.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 2024년 9월호.
- 김지윤, 김오석(2021).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 잠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1), 55-69.
- 김현미, 이수정, 최합섭, 변희현, 정은주, 주형미(2024).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탐색: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7(1), 1-28.
- 김현진, 김은영, 이은상, 계보경, 이은환, 김현영, 이가영, 이봉규(2017).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 2017-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류광모(2021).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 대응 시나리오 연구: 경영정보시스템적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2), 5-28.
- 류방란, 김경애, 이상은, 한효정, 이윤미, 이종태, 최합섭(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연구보고 RR 2018-01). 한국교육개발원.
- 문영진, 박정란, 안병훈, 주현성, 김효은, 이세영, 최혜인(2024).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안 연구- 유형별 학교 모델 제시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 매일경제신문(2015.4.8.). 핀란드의 놀라운 교육실험. (김인수 기자). 2025년 2월 18일 인출, <https://www.mk.co.kr/news/columnists/6673460>
-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7).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길을 찾다. 지식공감.
- 박대권(2018).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수 정책. 교육비평, 42, 58-91.
- 박정우, 박수정(2023). 미래학교의 지향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분석. 미래교육연구, 13(4), 27-49.
- 손상희, 황준성, 이종하, 곽태혁, 주홍석, 강문상, 이준혁, 이정원, 정홍순, 박종오(2024). 충북형 지역특화 작은학교 모델 연구. 충청북도교육정보연구원.
- 서윤환(2023).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일본 도야마현). 서울연구원. <https://www.si.re.kr>
- 영암교육지원청(2021.4.12.). 삼호서중·삼호중 간 공동학구제 운영을 위한 삼호서중학교 통학버스 지원 [보도자료].
- 유학열(2019). 일본 농촌지역 우수 정책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 윤현희, 김경애, 김나영, 이동엽, 이정우, 이희현, 이재창, 홍미영(2023).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연구보고 RR 2023-01)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현(2025). 학령인구 감소와 초중등교육의 환경 변화. 미래교육과 융합연구, 2(1), 45-66.
- 이미숙, 김진숙, 이수정, 조기희, 김미식(202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경북교육체제 구축 연구 (연

- 구보고 CRC 20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미숙, 김진숙, 이수정, 조기희, 김미식, 송창용(202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교육 개선 방향 탐색: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0(3), 49-73.
- 이보람(2024). 학령인구 감소 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22년 8월 국내 학술논문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6), 69-82.
- 이정연(2020). 일본의 지방소멸과 농촌 지역의 교육적 대응. 교육연구, 35(1), 31-59.
<https://doi.org/10.31366/jer.2020.35.1.31>
- 이주연, 임유나, 정영근, 이경언, 이민형(2020). 혁신학교 교육과정 실행 양상 분석: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3(2), 1-26.
- 전라남도교육청(2019.9.25.). 전남교육청,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관심 [보도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21.5.10.). 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성과 크다 [보도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21.5.13.).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걸어온 길, 나아가야 할 방향 - 능주중, 제한적 공동학구제 성공사례 [보도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21.5.31.).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공론화 추진 [보도자료].
- 전라남도교육청(2025.4.7.). 전남온라인학교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3). 전북 미래교육 기본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4). 적정규모학교 육성 따른 폐지학교 행정업무 지원.
- 정제영, 이청민, 김가경(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학교 운영 모델 탐색 (2019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지원연구, 이슈페이퍼 CP 2019-16). 한국교육개발원.
- 정종원, 박인우, 임병노, 고범석. (2009). 미래형 교실의 유형별 표준 모델 연구. (연구보고 RR 2009-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5). 유·초·중등 교육통계. 2025년 6월 30일 인출,
<https://kess.kedi.re.kr>
- 행정안전부(2024.2.27.).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홍후조(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학년군, 교과군 개념의 교육과정적 의의 분석. 교육과정연구, 27(4), 47-70.
- 文部科学省. (2015). 公立小学校・中学校の適正規模・適正配置等に関する手引き.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5/07/24/1354768_1.pdf
- 文部科学省. (2016). 平成28年度「少子化・人口減少社会に対応した活力ある学校教育推進事業」.
- 文部科学省. (2017). 小中高等学校の統廃合の現状と課題.
- 文部科学省. (2018). 人口減少社会におけるICTの活用による教育の質の維持向上に係る実証事業.
- 文部科学省. (2021). COREハイスクール・ネットワーク構想事業.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aikaku/mext_00025.html

- 文部科学省. (2023). 学校魅力化フォーラム 行政説明.
- 文部科学省. (2025). 「令和の日本型学校教育」を担う質の高い教師の確保のための環境整備に関する総合的な方策について（審議のまとめ概要）.
- 牧野光朗. (2017). KPI 検証チームにおける当方意見. 長野県飯田市.
- 北下雄大, & 奥井智史. (2022). 高校存続・統廃合が市町村に及ぼす影響の一考察2:市町村の人口動態からみた高校存続・魅力化のインパクト. 三菱UFJリサーチ & コンサルティング政策研究レポート.
https://www.murc.jp/report/rc/policy_research/impact_highschool_2022/
- 奥尻町. (2020). 奥尻高校の離島留学の取り組みについて【事例紹介】. 人と国土 21, 2020년 5월호, 22-24. <https://www.okushiri-town.jp/docs/2020050800011/>
- 岩手県立葛巻高等学校. (n.d.). くずまき山村留学. 2025년 3월 27일 인출, <https://www2.iwate-ed.jp/kuz-h/education/sanson.html>
- 総務省統計局. (2024). 人口推計2024年4月報.
- 総務省統計局. (2025). 人口推計: 2025年(令和7年)3月報 [Population Estimate: March Report 2025]. <https://www.stat.go.jp/data/jinsui/index.html>
- 広島県. (2022). 地域づくり事例: 「やっぱり地域で育てたい」大崎海星高校魅力化プロジェクト. 2025년 3월 27일 인출, https://team500.hiroshima.jp/article_category/detail/142
- Annapolis Valley. (2021). Senior High Mathematics Pathways.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https://curriculum.novascotia.ca/sites/default/files/documents/resource-files/Mathematics%20Pathways%20\(2021\)_ENG.pdf](https://curriculum.novascotia.ca/sites/default/files/documents/resource-files/Mathematics%20Pathways%20(2021)_ENG.pdf)
- Apple. (2008). Apple classrooms of tomorrow-today. Retrieved March 24, 2025, from <https://www.apple.com/ca/education/docs/Apple-ACOT2Whitepaper.pdf>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a). Schools. Retrieved from <https://www.abs.gov.au/statistics/people/education/schools/latest-release>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b). 2021 Census All persons QuickStats. Retrieved from <https://abs.gov.au/census/find-census-data/quickstats/2021/SAL21931>
- 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Innovative Strategies for Small Remote Schools - Report.
- Australian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Heads of Agreement (Better and Fairer Schools Agreement 2025-2034). (또는 Department of Education (Australia). (n.d.). Better and Fairer Schools Agreement 2025-2034.
<https://www.education.gov.au/recurrent-funding-schools/national-school-reform-agreement/better-and-fairer-schools-agreement-20252034>)
- BRCS. (2022).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2023-2024 Course Descriptions. Nova Scotia.

- BRCS. (2024a).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November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4b).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December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5a).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SAC Meeting Summary.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5b).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January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5c).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February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5d).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March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RCS. (2025e). Bridgetown Regional Community School: April News letter. Retrieved April 22, 2025, from www.bridgetown.ednet.ns.ca
- Burke, J., Greeno, K., & Bunin, L. (2015). Curriculum in Nova Scotia. Nova Scotia. Dartmoor Multi Academy Trust. (n.d.). Our trust schools. <https://dartmoormat.org.uk/school/our-trust-schools/>
- Devon County Council. (n.d.). Federations - Support for schools and settings. <https://www.devon.gov.uk/support-schools-settings/school-effectiveness/governance/federation-academisation-and-partnership-working/federations/>
- DfE. (2022). Running rural primary schools efficiently. Department for Education.
- Dwyer, D., Ringstaff, C., & Sandholtz, J. (1990). Apple classrooms of tomorrow. Retrieved March 24, 2025, from <https://wildej.pbworks.com/f/rpt08.pdf>
- Eacott, S. (2021). Building education systems for equity and inclusion.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Social Policy Conference.
- Eacott, S. (2022). Small schools for equity and inclusion. UNSW.
- Education NSW. (2023). Increase in class time for executive teachers. Retrieved from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increase-in-class-time-for-executive-teachers>
- Education NSW. (n.d.). Benefits and incentives. Retrieved from https://education.nsw.gov.au/teach-nsw/find-teaching-jobs/choose-rural/benefits-and-incentives#sidenavigation_auto
- Education QLD. (n.d.). Rural and Remote Education Access Program (RREAP). Retrieved from <https://education.qld.gov.au/about-us/budgets-funding-grants/grants/state-schools/targeted/rreap>
- Eurydice. (n.d.). Finland: Fundamental principles and national policies. European Education

-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ria/finland/fundamental-principles-and-national-policies>
- Finnish Education Evaluation Centre [FINEEC]. (2020). Realisation of cultural and social rights of children living in rural and archipelago areas. Helsinki: FINEEC.
<https://www.karvi.fi/en/evaluations/pre-primary-and-basic-education/thematic-and-system-evaluations/realisation-cultural-and-social-rights-children-living-rural-and-archipelago-areas-changes-made-school-network-and-impact-closures-comprehensive>
- Good Shepherd Multi Academy Trust. (n.d.). A family of unique schools with shared values - Ambleside CofE Primary School.
https://www.ambleside.cumbria.sch.uk/about-us/good-shepherd-mat/?utm_source=chatgpt.com
- Holden, R., & Zhang, J. (2018). The economic impact of improving regional, rural & remote education in Australia: Closing the human capital gap. Retrieved from https://education.arts.unsw.edu.au/media/EDUCFile/Gonski_Institute_Report__Cost_of_Education_Gap.pdf
- Japan Statistics Bureau. (n.d.). 人口問題研究資料 2020年国勢調査特集 [Population Research Topics: 2020 Census Special].
 Retrieved from <https://www.stat.go.jp/data/jinsui/topics/topi1411.html>
- Karlberg-Granlund, G. (2023). The Heart of the Small Finnish Rural School: Supporting Roots and Wings, Solidarity and Autonomy. In: Reimer, K.E., Kaukko, M., Windsor, S., Mahon, K., Kemmis, S. (eds) Living Well in a World Worth Living in for All. Springer, Singapore.
- Kaye, M. (2023, March 29). Small South Australian schools amalgamate despite community pushback. A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23-03-29/small-school-amalgamation-moorook-kingston-on-murray/102153422>
- Lee, E., & Marshall, C. (2009). REALITY CHECK: A Review of key program areas in the BLAC Report for their effectiveness in enhanc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chievement of African Nova Scotian learners. Enidlee Consultants Inc.
- Microsoft. (2008). Building the school of the future. Microsoft. Retrieved March 24, 2025, from <https://download.microsoft.com/download/3/5/6/356319AE-7827-474C-A518-0ED1187694A6/SOF%20Green-singlepages%202-26.pdf>
- Microsoft. (2013). Microsoft innovative schools; We are partners in learning. Microsoft. Retrieved March 24, 2025, from <https://download.microsoft.com/download/C/F/B/CFB807DD-D37B-4658-9A56-14D779>

- A80347/Partners%20in%20Learning%20case%20studies.pdf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KM]. (n.d.). Education system in Finland. Finnish Government. <https://okm.fi/en/education-system>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n.d.). Finnish education system. <https://okm.fi/en/education-system>
- National Governance Association. (2020). School governance 2020: Governing in a multi academy trust. NGA.
- National Governance Association. (2023). Governing a multi academy trust: A handbook for trustees. NGA.
- New South Wales Government. (1990). Education Act 1990 (No. 8). Sydney: New South Wales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legislation.nsw.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1990-008>.
-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2015). Education Act 2015. Darwin: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Retrieved from <https://legislation.nt.gov.au/Legislation/EDUCATION-ACT-2015>.
-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Amalgamation or permanent closure of a government school – guidelines.
- Nova Scotia Nouvelle-Écosse. (2024). Inclusive Education in Nova Scotia: Well-Being Supports for Students. Nova Scotia Nouvelle-Écosse.
- Nova Scotia. (2015). The 3 Rs: Renew, Refocus, Rebuild—Nova Scotia’s Action Plan for Education. Nova Scotia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Nova Scotia. (2016).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Nova Scotia.
- Nova Scotia. (2017). Nova Scotia Provincial Literacy Strategy. Nova Scotia.
- Nova Scotia. (2024a). School Advisory Council Conference. Nova Scotia.
- Nova Scotia. (2024b). School Advisory Council(SAC): Roles, Responsibilities and Membership. Nova Scotia.
- Nova Scotia. (2024c). Student Success Planning: Evidence Based Decision-Making. Nova Scotia.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2010). Rural Outcomes of Schooling Research Project Report.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Quality Time Program.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24). Final Report RR Implementation Plan 2024.
- NSW Government. (2017). School Leadership Strategy.
- NSW Government. (2020). Protocols – School closures, recess, amalgamation.
- OECD. (2020). Back to the future of education: Four OECD scenarios for schooling. OECD Publishing.

- OECD. (2020).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inland. OECD Publishing.
- OECD. (2022). Finland: The right to learn programme. OECD Publishing.
- OECD. (2025). OECD Teaching compass concept note. OECD Publishing.
- Peltonen, T. & Kilpeläinen, R. (2025). Training of village school teachers in Finland: Multi-grade teaching and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3, 102685.
- Province of Nova Scotia. (2014). Disrupting the Status Quo: Nova Scotians Demand a Better Future for Every Student. Halifax, NS: Province of Nova Scotia. Retrieved April 14, 2025, from ednet.ns.ca/educationreview
- Province of Nova Scotia. (2018). Excellence in Teaching and Learning.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Raukkan Aboriginal School. (2020). 2020 annual report to the community.
- Saskatchewan Bureau of Statistics. (2025). Saskatchewan Population Estimates Fourth Quarter 2024 (October 1 – December 31). Retrieved April 14, 2025, from www.saskatchewan.ca/stats
- The Local News. (n.d.). The little school that could. Retrieved from <https://tlnews.com.au/the-little-school-that-could>
- UNESCO. (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UNESCO.
- Valtioneuvosto. (2021). Education policy report of the Finnish government. Finnish Government.
- Wyatt, L. G., Scragg, B. S., Stein, J. Y. G., & Mishra, P. (2021). Educational change by design: Creating a school of the future. *Journal of Cases in Educational Leadership*, 24(1), 55–68.

[부록 1] 설문지

가.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정주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주학교 중심의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초·중등학교 학생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 모델 연구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경상북도 학교모델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연, 연락처: 054-770-2265)

1. 기본 정보

1. 성별: __① 남 __② 여

2. 지역: __① 읍, 면 () __② 동 ()

3. 학교급:

__① 초등학교 __② 중학교 __③ 고등학교

4. 학년

__① 1학년 __② 2학년 __③ 3학년 __④ 4학년 __⑤ 5학년 __⑥ 6학년

5. 2025년 3월 기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교육이란 학원, 공부방, 과외, 학습지,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강의 등을 말합니다(EBS, 방과 후학교,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제외).

__① 있다 __② 없다

5.1.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각 과목별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참여합니까?

구분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⑧ 7시간 이상
1)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논술, 독서 토론, 글쓰기								
3) 예체능 (음악, 미술, 운동 등)								
4) 기타								

5.2.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이 나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___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
 ___ ③ 도움이 되는 편
 ___ ④ 매우 도움이 됨

6. 애향심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한다.				
2	나는 우리 지역, 마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				
3	앞으로도 지금 사는 지역(경상북도)에서 살고 일하고 싶다.				

II. 학교 생활

□ 다음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중요도/만족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요도/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혀 불만족	중요 하지 않음/ 불만족	보통	중요/만족	매우 중요/ 매우 만족
교육환경						
1	우리 학교는 교실이나 식당 같은 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2	학습 지원 공간(예: 교과 전용 교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3	학교에 학생용 기숙사가 있다.					

구분		중요도/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혀 불만족	중요 하지 않음/ 불만족	보통	중요/만족	매우 중요/ 매우 만족
4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와준다(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5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6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심리·정서(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1	우리 학교에는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같은 특별한 주제를 가진 수업이 있다.					
2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년이 함께 하는 수업, 블록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있다.					
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이 개설되어 있다.					
4	진로 교육(진로를 찾거나 대학/취업을 준비하는 교육 등)이 있다.					
5	1인1악기, 1인1체육,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같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이 있다.					
6	각 학생의 실력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7	실험, 실습, 조사, 프로젝트, AI·디지털 기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의 기업,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업, 지역의 시설,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체험하는 수업이 있다.					
2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교풍토(학교 분위기)						
1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좋다.					
2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한다.					
3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 없다.					
4	음주, 흡연 같은 문제 행동이 없다.					

III. 학교 선택

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생각이 있습니까?

__① 있다 __② 없다

1.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__① 등·하교(교통수단, 학교까지의 거리 등)

__② 학교교육의 질

- ☐ ③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④ 성적
- ☐ ⑤ 진로(진학, 취업)
- ☐ ⑥ 친구 관계
- ☐ ⑦ 부모의 직장
- ☐ ⑧ 학원 등 사교육
- ☐ ⑨ 생활 환경(공원, 극장 등)
- ☐ ⑩ 기타 ()

1.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없음
- ☐ ② 등·하교(교통수단, 학교까지의 거리 등)
- ☐ ③ 학교교육의 질
- ☐ ④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⑤ 성적
- ☐ ⑥ 진로(진학, 취업)
- ☐ ⑦ 친구 관계
- ☐ ⑧ 학원 등 사교육
- ☐ ⑨ 생활 환경(공원, 극장 등)
- ☐ ⑩ 기타 ()

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2.1.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등·하교
- ☐ ② 학교교육의 질
- ☐ ③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④ 성적
- ☐ ⑤ 진로(진학, 취업)
- ☐ ⑥ 친구 관계
- ☐ ⑦ 학원 등 사교육
- ☐ ⑧ 생활 환경(공원, 극장 등)
- ☐ ⑨ 기타 ()

2.2. 다른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없음
- ☐ ② 등·하교
- ☐ ③ 학교교육의 질
- ☐ ④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_ ⑤ 성적
 _ ⑥ 진로(진학, 취업)
 _ ⑦ 친구 관계
 _ ⑧ 거주할 주거 공간(주택)
 _ ⑨ 학원 등 사교육
 _ ⑩ 생활 환경(공원, 극장 등)
 _ ⑪ 기타 ()

3. 다음과 같은 학교가 있다면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2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나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3 나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모둠을 나누어 함께 공부한다.					
4 초1~2 / 초3~4 / 초5~6 / 중1~3처럼 학년을 묶어서 반을 만든다.					
5 2년 또는 3년 동안 같은 담임선생님과 공부한다(담임 연임제).					
6 한 교실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함께 지도한다(교과 교사, 보조교사, 심리지원교사 등).					
7 정해진 수업 대신 나만의 학습계획에 따라 개별학습을 한다.					
8 매년 초,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나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9 매 학년 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					
10 1년을 3개 학기(1, 2, 3학기)로 운영하고 1개 학기는 외부 기관 연계한 활동을 한다.					

4.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나.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정주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주학교 중심의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 모델 연구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경상북도 학교모델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연, 연락처: 054-770-2265)

1. 기본 정보

1. 성별: ___① 남 ___② 여

2.1. 지역: ___① 경상북도 ___② 대구광역시 ___③ 그 외 지역

2.2. 지역 세부 분류: ___① 읍, 면 () ___② 동 ()

3. 현 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

___① 5년 미만

___② 5년~10년 미만

___③ 10년~15년 미만

___④ 15년~20년 미만

___⑤ 20년 이상

4. 연령대(만 나이 기준)

___① 30세 미만

___② 30~35세 미만

___③ 35~40세 미만

___④ 40~45세 미만

___⑤ 45~50세 미만

___⑥ 50대 이상

5. 학력

___① 중졸 이하

___② 고졸

___③ 대졸(2년제 이상)

___④ 대학원 이상

6. 자녀 수

___① 1명 ___② 2명 ___③ 3명 ___④ 4명 이상

7. (첫째 자녀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급

___① 초등학교 ___② 중학교 ___③ 고등학교 이상

7.1. (첫째 자녀 기준) 현재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사교육이란 학원, 공부방, 과외, 학습지, 비용을 지불한 인터넷강의 등을 말합니다(EBS, 방과 후학교,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제외).

___① 예 ___② 아니요

7.2. (첫째 자녀 기준) 자녀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총 얼마인가요?

___① 15만원 미만 ___② 15~30만원 미만 ___③ 30~50만원 미만
___④ 50~100만원 미만 ___⑤ 100만원 이상

8. 애향심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애정이 있다.				
2	나는 지역, 마을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				
3	나는 내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시·도)에서 살고 일하기를 바란다.				

II. 학교 교육

☐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현재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요도 /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혀 불만족	중요 하지 않음/ 불만족	보통	중요/ 만족	매우 중요/ 매우 만족
교육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교실, 식당 등)				
2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등)				
3	학생용 기숙사				

4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 (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5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등)					
6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등					
교육과정						
1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2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4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					
5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6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7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지역사회 연계						
1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1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2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3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4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III. 학교

1. 현 거주 지역에서 자녀를 상급학교로 진학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__① 있다 __② 없다

1.1. 현 거주 지역에서 자녀의 진학을 고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__① 통학 편의성

__② 학교교육의 질

__③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④ 성적
- ☐ ⑤ 진로(진학, 취업)
- ☐ ⑥ 친구 관계
- ☐ ⑦ 부모의 직장
- ☐ ⑧ 학원 등 사교육
- ☐ ⑨ 생활 환경(공원, 문화시설 등)
- ☐ ⑩ 기타 ()

1.2. 현 거주 지역에서 자녀가 진학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없음
- ☐ ② 통학(교통수단, 통학거리 등)
- ☐ ③ 학교교육의 질
- ☐ ④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⑤ 성적
- ☐ ⑥ 진로(진학, 취업)
- ☐ ⑦ 친구 관계
- ☐ ⑧ 학원 등 사교육
- ☐ ⑨ 생활 환경(공원, 문화시설 등)
- ☐ ⑩ 기타 ()

2.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 혹은 진학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2.1. 타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다니게 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통학
- ☐ ② 학교교육의 질
- ☐ ③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 ☐ ④ 성적
- ☐ ⑤ 진로(진학, 취업)
- ☐ ⑥ 친구 관계
- ☐ ⑦ 학원 등 사교육
- ☐ ⑧ 생활 환경(공원, 문화시설 등)
- ☐ ⑨ 기타 ()

2.2. 타 지역의 학교로 자녀를 다니게 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 ① 없음
- ☐ ② 통학(교통수단, 통학거리 등)
- ☐ ③ 학교교육의 질

- __④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분위기
 __⑤ 성적
 __⑥ 진로(진학, 취업)
 __⑦ 친구 관계
 __⑧ 거주할 주거 공간(주택)
 __⑨ 학원 등 사교육
 __⑩ 생활 환경(공원, 문화시설 등)
 __⑪ 기타 ()

3. 다음과 같은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동의정도				
	전혀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1 개인별 디지털 기기(태블릿, 노트북 등)를 배부하고 가정에서 학교 학습을 예·복습한다.					
2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한다.					
3 학제 유연화(무학년제, 유+초 1~3학년 통합, 초 4~6학년+중학교 통합 등)					
4 유아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 초등 저학년(1~3년) 통합하여 돌봄과 기초학습(한글해득 등)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5 연령에 따른 학년 구분 없이 과목별, 학생 수준별로 수업을 한다.					
6 학년군(초1,2/초3,4/초5,6/중1~3)으로 학급을 나누어 통합 진급제(현행 1년 단위 진급 → 2년 또는 3년 단위 진급)를 실시한다.					
7 2~3년 담임 연임제를 실시한다.					
8 1수업 다교사제 실시(교과 교사+보조교사+심리지원교사 등) 한다.					
9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속도, 학업수준 등)에 따라 개별 학습을 한다.					
10 매년 초에 학생, 교사, 부모님이 함께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협력한다.					
11 학년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면 다음 학년으로 빠르게 진급하고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진급하지 못한다.					
12 현행 1년 2학기제를 1년 3학기제로 운영(1개 학기는 외부기관 연계 활동 운영)한다.					

4. 학교에 대한 기대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다.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팀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정주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주학교 중심의 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 모델 연구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뿐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경상북도 학교모델 연구팀
(연구책임자: 김연, 연락처: 054-770-2265)

1. 기본 정보

1. 성별: __① 남 __② 여
2. 근무지역: __① 읍, 면 () __② 동 ()
3. 학력
__① 학사 __② 석사(재학, 졸업) __③ 박사(재학, 졸업)
4. 교직 경력
__① 5년 미만 __② 5년 이상 15년 미만 __③ 15년 이상 25년 미만
__④ 25년 이상 35년 미만 __⑤ 35년 이상
5. 농어촌 학교 근무 경험 여부: __① 있음 __② 없음
- 5.1. (농어촌 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근무 경력
__① 3년 미만 __② 3년 이상 5년 미만 __③ 5년 이상 10년 미만 __④ 10년 이상
6.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통합운영학교인 경우, 복수응답 가능)
__① 유치원 __② 초등학교 __③ 중학교 __④ 고등학교

7. 현 직위

___① 관리자 ___② 수석교사 ___③ 보직 교사 ___④ 그 외 교사

II. 학교 교육

☐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요도/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전혀 불만족	중요 하지 않음/ 불만족	보통	중요/ 만족	매우 중요/ 매우 만족
교육환경						
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교실, 식당 등)					
2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3	학생용 기숙사					
4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5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6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					
교육과정						
1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2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4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창업 준비 등)					
5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6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7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지역사회 연계						
1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교원 및 학교풍토						
1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					
2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					
3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4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					
5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1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2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3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4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III. 정주학교

☐ 정주학교 개념

- 소극적: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력을 지닌 학교
- 적극적: 교육을 필요로 경북지역을 찾아오는 교육력을 지닌 학교

1.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이내로 복수 응답 가능)

- ___ ①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연계
 ___ ② 지역 사회 자원의 발굴 및 활용
 ___ ③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___ ④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형성
 ___ ⑤ 마을과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과 이해 제고
 ___ ⑥ 기타 ()

2.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개 이내로 복수 응답 가능)

- ___ ① 인력(교사, 강사, 각종 지원 인력) 부족
 ___ ② 통학 편의성(등·하교 수단 확보의 어려움, 통학거리 등)
 ___ ③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시설, 인적·물적 자원 등)
 ___ ④ 관련 정보 및 홍보 부족

- ___⑤ 과다한 행정 업무
 ___⑥ 경직된 학교문화
 ___⑦ 지역사회, 교육청 등과 소통 부족
 ___⑧ 부적절한 외부 간섭(학부모 민원 등)
 ___⑨ 기타 ()

3.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동의정도				
	전혀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1	복식학급 폐지				
2	학제 유연화(무학년제, 유+초 1~3학년 통합, 초 4~6 학년+중학교 통합 등)				
3	유아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 초등 저학년(1~3년) 통 합하여 돌봄과 기초학습(한글해득 등) 중심의 마을학 교 운영				
4	통합 진급제(현행 1년 단위 진급 → 2년 또는 3년 단 위 진급)				
5	담임 연임제				
6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속도, 학습수준 등)에 따른 개별 학습				
7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피드백				
8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내·외부 평가				
9	학생의 학습 성취에 따라 속진, 유급의 활성화				
10	연 3학기제 운영(1개 학기는 외부기관 연계 활동 운영)				
11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 정 혁신				
12	도농 간, 해외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환 학습 제도				
13	교사의 복수자격제: 학교급 간 복수자격 허용				
14	교사의 복수자격제: 전공교과 복수자격 허용				
15	1수업 다교사제 실시(교과 교사+보조교사+심리지원교 사 등)				
16	학교 본부와 여러 개의 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직, 행정직은 본부에 배치하는 운영 방식				

4.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___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___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
 ___③ 학생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예: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 할 수 있도록 자유학구 설정 등)
 ___④ 교원인사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예: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교사 전출 유예, 업무전담교

사 지원 등)

- ___⑤ 학교 안팎 교사학습공동체 및 컨설팅 지원
- ___⑥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___⑦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___⑧ 학부모의 학교 이해도 제고
- ___⑨ 교권 보호 및 민원 전담 대응팀 운영 활성화
- ___⑩ 기타 ()

5. 정주학교 근무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1~3순위 응답)

- ___① 승진 가산점
- ___② 이동 가산점
- ___③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 ___④ 업무 전담 교사, 수업 협력 교사의 추가 배치
- ___⑤ 각종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우선 선정
- ___⑥ 각종 연수 및 컨설팅 우선 배치
- ___⑦ 지역 전보 유예
- ___⑧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예산 사용 절차 간소화
- ___⑨ 교원을 위한 관사 제공
- ___⑩ 기타 ()

6. 정주학교 운영에 도움이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도움이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시설 및 기자재	
교원 및 행정 지원 인력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지원	
제도 및 기타	

[부록 2] 델파이 조사 설문지

가.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경북형 정주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설문지
-1차 델파이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경북형 정주학교 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며, 본 조사는 정주학교에 적합한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본 정책연구는 우수한 교육과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기반의 머무르고 싶은 학교(소극적 정주), 찾아가고 싶은 학교(적극적 정주)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등교육 교수, 교육청 장학사 및 학교 관리자 등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주학교 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농어촌지역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 사항 작성 및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성함		소속	
성별	____ ① 남 ____ ② 여		

연령	만_____세
학력	_____① 학사 졸업 _____② 석사 졸업 _____③ 박사 졸업 (최종 학력의 취득 전공 : _____) (예시: 교육과정)
직업	_____① 교수(직급 : _____) _____② 장학사(직급 : _____) _____③ 학교관리자(직급 : _____)
경력	_____① 연구 및 교수 경력 ()년 ()개월 _____② 교직 포함 장학사 경력 ()년 ()개월 _____③ 교직 포함 학교관리자 경력 ()년 ()개월 (위 ‘직업’에서 선택한 문항번호와 일치하는 항목에 작성)

◆ 델파이 연구 과정

본 델파이 연구 과정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각 차수별로 질문 형태와 검증 목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델의 내용타당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3차 델파이 조사
질문 형태	⇒ 개방형 질문	⇒ 5점 평정척도	⇒ 5점 평정척도
목적 및 내용	⇒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정주학교 모델 구안에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1차 델파이 결과를 반영하여 영역별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을 5점 척도로 1차 검증함.	⇒ 2차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영역별 세부 내용에 대해 적절성을 5점 척도로 최종 검증함.

※ ‘경북형 정주학교 모델 개발’ 관련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거버넌스

1. 정부/지자체/교육청 수준에서 정주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스쿨버스 지원, 주거 공간 제공]

2. 정주학교 운영·지원에 필요한 교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초빙교사제, 교사 근무연한 해제, 1수업 다교사제 등]

3. 정주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규정, 제도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 조례 제정,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4. 정주학교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 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 교육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등]

□ 학교 유형 및 학제

1. 정주학교에 적절한 학교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라인 학교, 학교 간 통합 학교 등]

2. 이음학교*에서 학교급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음학교’란 학교급 간 이음(연계)을 강화하여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
[예: 유+초저/초고+중 등]

3. 정주학교에 적합한 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년군제, 무학년제, 통합진급제, 연3학기제 등]

☐ 학교 교육활동

1. 정주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력 향상, 교육과정 자율성,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2.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혁신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표준화된 수업이 아닌 학생의 학습 계획에 따른 개별 학습의 강화, 학생의 성취에 따른 속진/유급의 활성화 등]

3. 학생 성취의 현 평가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외부 평가 병행 등]

□ 기타

1. 교육혁신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외부압력, 지나친 간섭, 과도한 행정업무, 보신주의, 상호불신 등]

2. 정주학교 근무 교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수당, 가산점, 전보유예 등]

3. 정주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정주학교 운영 시 고려해야 할 교육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통학 수단, 학생용 기숙사, 심리·정서 지원 교사 등]

5.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안전관리 요원 추가 배치, 보조교사 지원 등]

6. 정주학교에 필요한 혹은 의무적인 학부모 협력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원 협력, 문제행동 수정 등에 관한 협력 등]

7. 성공적인 정주학교 모델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경북형 정주학교 모델 개발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견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며, 타당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적이고 상세한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구하오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특정 학교 모델(정주학교)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모델 연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의견 조사를 2차례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분들께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하며, 다시 한 번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AI의 발전에 따른 미래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의 급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 또한 사회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의 증가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위해 여성 및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입을 필요로 하며, 근로자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지역간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 다음의 문항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령인구 감소 시대 사회변화와 교육의 변화 인식

1) 학령인구 감소가 가져올 중요한 사회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향상 필요	
②	기술 발전에 따른 직업 세계 변화	
③	고령화 사회 진입과 세대 간 갈등	
④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증가	
⑤	학교 모델 변화(소규모 학교 증가, 폐교 증가에 따른 학교 양극화 등)	
⑥	지역 간 불균형 심화	
⑦	외국인 노동자 증가	
⑧	여성 근로자 확대 및 돌봄 문제	
⑨	사회 통합과 연대 필요성 증가	
⑩	기타	

2) 현재 교육과정이 학령기 인구 감소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3)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기초 학력 보장	
②	창의성과 혁신 능력	
③	협업과 소통 능력	
④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⑥	디지털 리터러시	
⑦	인성과 시민의식	
⑧	생태 감수성	
⑨	과학적 사고	
⑩	예술적 감성	
⑪	국제 감각	
⑫	지역 이해	
⑬	다문화 교육	
⑭	기타	

4)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선택
①	교과 간 통합과 융합	
②	학습자 맞춤형 구성	
③	학습자 주도성	
④	실생활 연계	
⑤	학생 탐구 중심	
⑥	학생 체험 중심	
⑦	미래 지향적 내용	
⑧	지역 사회 문제 해결 기반	
⑨	기타	

5) 현재 교육학습의 방법이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6)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프로젝트 기반 학습	
②	문제 기반 학습	
③	탐구 학습	
④	토론 학습	
⑤	체험 학습	
⑥	블렌디드 러닝	
⑦	에듀테크 활용 학습	
⑧	게임 기반 학습	
⑨	메이커 교육	
⑩	강의식 교육	
⑪	소집단 협동 학습	
⑫	개별화 학습	
⑬	기타	

7)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해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교사 역량 강화	
②	교사당 학생수 감축	
③	교육시설 개선	
④	교육과정 개편	
⑤	평가 방법 변화	
⑥	학교 문화 개선	
⑦	교사 자율성 보장	

⑧	행정업무 감소	
⑨	예산 확보	
⑩	기타	

8) 현재 평가 방법이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용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절한 편이다	매우 적절하다

9)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포트폴리오 평가	
②	프로젝트 평가	
③	동료평가	
④	자기평가	
⑤	관찰평가	
⑥	서·논술형 평가	
⑦	토론평가	
⑧	발표평가	
⑨	디지털 평가(온라인 평가?)	
⑩	구술평가	
⑪	지필평가	
⑫	기타	

11)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교육 혁신의 선행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문항	선택
①	교육과정 개편	
②	교수학습 방법 혁신	
③	평가방법 개선	
④	교원 역량 강화	
⑤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⑥	학교 문화 개선	
⑦	교육 제도 개편	
⑧	사회 인식 개선	
⑨	학교장 리더십 변화	
⑩	학부모 협력	
⑪	지자체 및 교육청의 지원	
⑫	교육 재정의 확보	
⑬	기타	

◇ 다음의 문항에 대해 동의 여부와 적용 시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이상)
1. 핵심역량 및 교육과정 영역							
1)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시: 각 역량별 해당되는 학습 요소 제시)							
2) 현재 교육과정은 1개 학기 최대 8개 과목을 학습하는 다교과 이수제이지만,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소수 교과 선택 학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소수 교과 선택 학습은 중학교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교과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방식을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초등학교 저학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중점적으로 기를 필요가 있다.							
7)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8) 지금보다 지역 기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지금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지금보다 마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1) 이주배경 학생(외국 국적)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12) 이 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이상)
2. 교육방법 및 평가 영역							
1)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의 갯수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							
2)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른 재구성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를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추가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5) 생성형 AI 활용법 등 에듀테크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수행평가의 수와 비율을 교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7) 평가의 횟수 및 종류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8) 초, 중, 고등학교에 주 1~3시간 정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 학기 초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중에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0)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공동학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공동학습: 학교에 등교하여 각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여러 학교의 같은 학년으로 온라인 학급 구성)							
11) 평가의 결과를 개별 학습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2) 이 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3. 교육제도 영역							
1) 학교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학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아+초저 통합 교육							
-초고+중학교 통합 교육							
-초등학교~중학교의 9년 연계 교육							
2) 거점학교의 학구 범위를 확대하여 학구 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한 학교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여건 및 계절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예) 농·어촌학교의 경우 9시 혹은 10시 등교							

4)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학교의 계획에 의한 단체교육)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학기 중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습자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학부모 연수 이수 학점제 등).							
7) 문제 행동 수정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학부모 협력을 일정 부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8)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9)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학년군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 또한 학년군제로 일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 1년 단위→2~3년)							
10) 이 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및 문항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매우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4. 재정 및 지원 영역							
1) 소규모 농·어촌학교 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위하여 주택 혹은 통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이동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8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승진이나 급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유·초등에서 돌봄을 위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지자체와 연계하여 타 시·도에서 학생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는 경우 가정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학습 공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 실험실, AR/VR실, 토론실, 정독실 등							
7) 체험학습을 위해 안전관리요원과 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및 집행의 간소화							
8)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1수업 다교사제(보조교사, 특수교사 등)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9) 이 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고견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며, 타당한 연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델파이 조사에서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항별 참여 전문가 14분 중 ‘동의’와 ‘매우 동의’를 표시한 전문가의 수를 제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어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교육 방향에 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해 동의 여부와 적용 시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시점은 ‘동의’ 혹은 ‘매우 동의’ 일 경우에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 하실 경우,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교과 기반 교육과정은 핵심역량과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시: 각 역량별 해당되는 학습 요소 제시)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2. 중등 교육과정은 현재보다 1개 학기당 필수 이수 과목을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0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3.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 및 AI 산업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학
및 정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0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4.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학교급에 적절하게 프로젝트 기반 탐구학습을 현재보다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5. 지금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6.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외국 국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정주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7. 현재의 교과별 성취기준과 목표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0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8. 평가의 횟수 및 종류는 학교장의 승인하에 교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9.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온라인 공동학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공동학습: 학교에 등교하여 각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여러 학교의 같은 학년으로 온라인 학습 구성)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0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10. 소규모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학 중 다양한 교육기관(박물관, 미술관, 대학교 등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활동의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한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0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11. 학교 교육과정은 1년 단위이고,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2~3년 단위로 불일치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동의', '매우 동의'한 패널의 수 (총 패널 수: 14명)	동의 여부				적용 시점 (동의, 매우 동의인 경우에만 표시)		
	전혀 부동의	부동의	동의	매우 동의	단기 (1~2년)	중기 (3~5년)	장기 (5년 이상)
11명							
'전혀 부동의' 혹은 '부동의'인 경우, 그 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고견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설문조사 결과

가. 학생

○ 기본정보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167 (52.2)
	여	153 (47.8)
지역	읍 면	143 (44.7)
	동	177 (55.3)
학교급	초등학교	183 (57.2)
	중학교	57 (17.8)
	고등학교	80 (25.0)
사교육 여부	있다	241 (75.3)
	없다	79 (24.7)

○ 학교급 사교육 여부

구분		사교육 받음	사교육 받지 않음	합계
학교급	초	141 (58.5)	42 (53.2)	183 (57.2)
	중	41 (17.0)	16 (20.3)	57 (17.8)
	고	59 (24.5)	21 (26.6)	80 (25.0)
합계		241 (100.0)	79 (100.0)	320 (100.0)

○ 사교육이 성적 향상 도움 여부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합계
학교급	초	1 (100.0)	5 (71.4)	84 (54.9)	51 (63.7)	141 (58.5)
	중	-	-	26 (17.0)	15 (18.8)	41 (17.0)
	고	-	2 (28.6)	43 (28.1)	14 (17.5)	59 (24.5)
합계		1 (0.3)	7 (2.2)	153 (47.8)	80 (25.0)	241 (75.3)

○ 사교육 시간

구분		사교육 받지 않음	사교육 받음							합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1) 교과	초	42 (23.0)	32 (17.5)	45 (24.6)	26 (14.2)	8 (4.4)	8 (4.4)	11 (6.0)	11 (6.0)	183 (100.0)
	중	16 (28.1)	2 (3.5)	8 (14.0)	4 (7.0)	9 (15.8)	6 (10.5)	3 (5.3)	9 (15.8)	57 (100.0)
	고	21 (26.3)	6 (7.5)	9 (11.3)	10 (12.5)	9 (11.3)	4 (5.0)	8 (10.0)	13 (16.3)	80 (100.0)
	합계	79 (24.7)	210 (65.6)	17 (5.3)	5 (1.6)	4 (1.3)	1 (0.3)	2 (0.6)	2 (0.6)	320 (100.0)
2) 논술토론서 토론 등	초	42 (23.0)	108 (59.0)	23 (12.6)	7 (3.8)	1 (0.5)	1 (0.5)	1 (0.5)	-	183 (100.0)
	중	16 (28.1)	33 (57.9)	4 (7.0)	3 (5.3)	-	-	1 (1.8)	-	57 (100.0)
	고	21 (26.3)	50 (62.5)	6 (7.5)	1 (1.3)	-	-	1 (1.3)	1 (1.3)	80 (100.0)
	합계	79 (24.7)	191 (59.1)	33 (10.1)	11 (3.4)	1 (0.3)	1 (0.3)	2 (0.6)	1 (0.3)	183 (100.0)
3) 예체능	초	42 (23.0)	63 (34.4)	41 (22.4)	11 (6.0)	10 (5.5)	5 (2.7)	8 (4.4)	3 (1.6)	183 (100.0)
	중	16 (28.1)	28 (49.1)	4 (7.0)	2 (3.5)	3 (5.3)	1 (1.8)	1 (1.8)	2 (3.5)	57 (100.0)
	고	21 (26.3)	44 (55.0)	7 (8.8)	3 (3.8)	-	-	2 (2.5)	3 (3.8)	80 (100.0)
	합계	79 (24.7)	135 (41.5)	52 (16.2)	16 (5.0)	13 (4.0)	6 (1.8)	11 (3.4)	8 (2.5)	183 (100.0)
4) 기타	초	42 (23.0)	119 (65.0)	15 (8.2)	3 (1.6)	3 (1.6)	-	1 (0.5)	-	183 (100.0)
	중	16 (28.1)	37 (64.9)	1 (1.8)	1 (1.8)	-	1 (1.8)	1 (1.8)	-	57 (100.0)
	고	21 (26.3)	54 (67.5)	1 (1.3)	1 (1.3)	1 (1.3)	-	-	2 (2.5)	80 (100.0)
	합계	79 (24.7)	210 (65.6)	17 (5.3)	5 (1.6)	4 (1.3)	1 (0.3)	2 (0.6)	2 (0.6)	320 (100.0)

○ 애향심

구분		전혀 아님	아님	그려함	매우 그려함	합계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한다.	초	1 (0.5)	12 (6.6)	83 (45.4)	87 (47.5)	183 (100.0)
	중	-	10 (17.5)	31 (54.4)	16 (28.1)	57 (100.0)
	고	3 (3.8)	13 (16.3)	41 (51.3)	23 (28.8)	80 (100.0)
	합계	4 (1.3)	35 (10.9)	155 (48.4)	126 (39.4)	320 (100.0)

구분		전혀 아님	아님	그라함	매우 그라함	합계
나는 우리 지역 마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	초	5 (2.7)	67 (36.6)	89 (48.6)	22 (12.0)	183 (100.0)
	중	3 (5.3)	15 (26.3)	24 (42.1)	15 (26.3)	57 (100.0)
	고	2 (2.5)	22 (27.5)	39 (48.8)	17 (21.3)	80 (100.0)
	합계	10 (25.0)	104 (25.0)	152 (25.0)	54 (25.0)	320 (25.0)
앞으로도 지금 사는 지역(경상북도)에서 살고 싶다.	초	3 (1.6)	54 (29.5)	85 (46.4)	41 (22.4)	183 (100.0)
	중	7 (12.3)	20 (35.1)	19 (33.3)	11 (19.3)	57 (100.0)
	고	11 (13.8)	27 (33.8)	31 (38.8)	11 (13.8)	80 (100.0)
	합계	21 (6.6)	101 (31.6)	135 (42.2)	63 (19.7)	320 (100.0)

○ 학교 교육 -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우리 학교는 교실이나 식당 같은 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2 (0.6)	1 (0.3)	31 (9.7)	105 (32.8)	181 (56.6)	320 (100.0)	4.444 (0.732)
	학습 지원 공간(교과 전용 교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2 (0.6)	-	30 (9.4)	136 (42.5)	152 (47.5)	320 (100.0)	4.363 (0.704)
	학교에 학생용 기숙사가 있다.	72 (22.5)	47 (14.7)	74 (23.1)	58 (18.1)	69 (21.6)	320 (100.0)	3.016 (1.448)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운다(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21 (6.6)	32 (10.0)	74 (23.1)	90 (28.1)	103 (32.2)	320 (100.0)	3.694 (1.206)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0.3)	2 (0.6)	33 (10.3)	114 (35.6)	170 (53.1)	320 (100.0)	4.406 (0.724)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심리정서(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2.8)	9 (2.8)	70 (21.9)	111 (34.7)	121 (37.8)	320 (100.0)	4.019 (0.982)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과정	우리 학교에는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같은 특별한 주제를 가진 수업이 있다.	7 (2.2)	15 (4.7)	89 (27.8)	122 (38.1)	87 (27.2)	320 (100.0)	3.834 (0.954)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년이 함께 하는 수업, 블록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있다.	7 (2.2)	20 (6.3)	92 (28.8)	118 (36.9)	83 (25.9)	320 (100.0)	3.781 (0.974)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이 개설되어 있다.	8 (2.5)	9 (2.8)	70 (21.9)	114 (35.6)	119 (37.2)	320 (100.0)	4.022 (0.965)
	진로 교육(진로를 찾거나 대학/취업을 준비하는 교육 등)이 있다.	7 (2.2)	13 (4.1)	71 (22.2)	107 (33.4)	122 (38.1)	320 (100.0)	4.013 (0.983)
	1인1악기, 1인1체육,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같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이 있다.	5 (1.6)	16 (5.0)	54 (16.9)	129 (40.3)	116 (36.3)	320 (100.0)	4.047 (0.934)
	각 학생의 실력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5 (1.6)	14 (4.4)	68 (21.3)	123 (38.4)	110 (34.4)	320 (100.0)	3.997 (0.935)
	실험, 실습, 조사, 프로젝트, AI·디지털 기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4 (1.3)	21 (6.6)	85 (26.6)	129 (40.3)	81 (25.3)	320 (100.0)	3.819 (0.929)
지역 사회 연계	지역의 기업,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업, 지역의 시설,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체험하는 수업이 있다.	4 (1.3)	23 (7.2)	93 (29.1)	117 (36.6)	83 (25.9)	320 (100.0)	3.788 (0.953)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1.6)	22 (6.9)	87 (27.2)	120 (37.5)	86 (26.9)	320 (100.0)	3.813 (0.961)
학교 풍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좋다.	-	3 (0.9)	28 (8.8)	115 (35.9)	174 (54.4)	320 (100.0)	4.438 (0.692)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한다.	4 (1.3)	3 (0.9)	43 (13.4)	111 (34.7)	159 (49.7)	320 (100.0)	4.306 (0.830)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 없다.	5 (1.6)	6 (1.9)	52 (16.3)	54 (16.9)	203 (63.4)	320 (100.0)	4.388 (0.930)
	음주, 흡연 같은 문제 행동이 없다.	17 (5.3)	7 (2.2)	36 (11.3)	59 (18.4)	201 (62.8)	320 (100.0)	4.313 (1.101)

○ 학교 교육 - 만족도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우리 학교는 교실이나 식당 같은 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2 (0.6)	8 (2.5)	62 (19.4)	116 (36.3)	132 (41.3)	320 (100.0)	4.150 (0.862)
	학습 지원 공간(교과 전용 교실, 실험실,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4 (1.3)	7 (2.2)	49 (15.3)	120 (37.5)	140 (43.8)	320 (100.0)	4.203 (0.867)
	학교에 학생용 기숙사가 있다.	67 (20.9)	27 (8.4)	114 (35.6)	53 (16.6)	59 (18.4)	320 (100.0)	3.031 (1.353)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와준다(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31 (9.7)	25 (7.8)	98 (30.6)	74 (23.1)	92 (28.8)	320 (100.0)	3.534 (1.251)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1 (0.3)	9 (2.8)	63 (19.7)	114 (35.6)	133 (41.6)	320 (100.0)	4.153 (0.856)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심리정서(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0.6)	9 (2.8)	83 (25.9)	94 (29.4)	132 (41.3)	320 (100.0)	4.078 (0.915)
교육 과정	우리 학교에는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같은 특별한 주제를 가진 수업이 있다.	5 (1.6)	16 (5.0)	108 (33.8)	103 (32.2)	88 (27.5)	320 (100.0)	3.791 (0.955)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여러 학년이 함께 하는 수업, 블록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있다.	8 (2.5)	21 (6.6)	108 (33.8)	100 (31.3)	83 (25.9)	320 (100.0)	3.716 (1.00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이 개설되어 있다.	12 (3.8)	29 (9.1)	94 (29.4)	97 (30.3)	88 (27.5)	320 (100.0)	3.688 (1.084)
	진로 교육(진로를 찾거나 대학/취업을 준비하는 교육 등)이 있다.	7 (2.2)	22 (6.9)	96 (30.0)	107 (33.4)	88 (27.5)	320 (100.0)	3.772 (0.999)
	1인1악기, 1인1체육,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같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이 있다.	9 (2.8)	20 (6.3)	78 (24.4)	91 (28.4)	122 (38.1)	320 (100.0)	3.928 (1.061)
	각 학생의 실력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5 (1.6)	25 (7.8)	104 (32.5)	95 (29.7)	91 (28.4)	320 (100.0)	3.756 (1.003)
	실험, 실습, 조사	8	19	107	92	94	320	3.766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프로젝트, AI·디지털 기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2.5)	(5.9)	(33.4)	(28.8)	(29.4)	(100.0)	(1.019)
지역 사회 연계	지역의 기업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수업 지역의 시설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체험하는 수업이 있다.	8 (2.5)	28 (8.8)	111 (34.7)	95 (29.7)	78 (24.4)	320 (100.0)	3.647 (1.022)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 (4.1)	19 (5.9)	105 (32.8)	101 (31.6)	82 (25.6)	320 (100.0)	3.688 (1.046)
학교 풍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좋다.	1 (0.3)	5 (1.6)	41 (12.8)	105 (32.8)	168 (52.5)	320 (100.0)	4.356 (0.787)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한다.	5 (1.6)	11 (3.4)	66 (20.6)	105 (32.8)	133 (41.6)	320 (100.0)	4.094 (0.946)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 없다.	4 (1.3)	15 (4.7)	68 (21.3)	81 (25.3)	152 (47.5)	320 (100.0)	4.131 (0.987)
	음주, 흡연 같은 문제 행동이 없다.	12 (3.8)	13 (4.1)	59 (18.4)	60 (18.8)	176 (55.0)	320 (100.0)	4.172 (1.099)

○ 학교 풍토에 대한 학교급별 학생 집단간 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학교 풍토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좋다.	초(a)	4.42	0.743	1.177	-	4.42	0.758	1.207	-
		중(b)	4.56	0.567			4.28	0.901		
		고(c)	4.39	0.646			4.28	0.763		
		전체	4.44	0.692			4.36	0.787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한다.	초(a)	4.34	0.809	1.738	-	4.23	0.859	4.573*	-
		중(b)	4.40	0.821			3.95	1.109		
		고(c)	4.16	0.878			3.89	0.968		
		전체	4.31	0.830			4.09	0.946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 없다.	초(a)	4.42	0.962	1.613	-	4.20	1.040	0.976	-
		중(b)	4.51	0.848			4.02	0.991		
		고(c)	4.24	0.903			4.06	0.847		
		전체	4.39	0.930			4.13	0.987		
	음주, 흡연 같은 문제 행동이 없다.	초(a)	4.36	1.196	0.833	-	4.46	0.936	16.194 ***	-
		중(b)	4.35	0.935			3.86	1.172		
		고(c)	4.18	0.978			3.74	1.199		
		전체	4.31	1.101			4.17	1.099		

*p< 0.05, **p< 0.01, ***p< 0.001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의사 여부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초	114 (62.3)	69 (37.7)	183 (100.0)
중	29 (50.9)	28 (49.1)	57 (100.0)
고	17 (21.3)	63 (78.8)	80 (100.0)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 이유

구분	통학	부모 직장	생활 환경	성적	진로	친구 관계	학교 시설과 환경	학교 교육의 질	학원 등 사교육	기타	합계	χ ²
1 순위	초	60 (52.6)	10 (8.8)	1 (0.9)	8 (7.0)	1 (0.9)	23 (20.2)	7 (6.1)	2 (1.8)	1 (0.9)	1 (0.9)	114 (100.0)
	중	12 (41.4)	1 (3.4)	-	5 (17.2)	3 (10.3)	4 (13.8)	1 (3.4)	3 (10.3)	-	-	29 (100.0)
	고	9 (52.9)	-	1 (5.9)	3 (17.6)	-	1 (5.9)	1 (5.9)	2 (11.8)	-	-	17 (100.0)
	전 체	81 (50.6)	11 (6.9)	2 (1.3)	16 (10.0)	4 (2.5)	28 (17.5)	9 (5.6)	7 (4.4)	1 (0.6)	1 (0.6)	160 (100.0)
2 순위	초	11 (11.8)	7 (7.5)	4 (4.3)	4 (4.3)	9 (9.7)	31 (33.3)	18 (19.4)	3 (3.2)	6 (6.5)	-	93 (100.0)
	중	4 (16.7)	-	1 (4.2)	-	5 (20.8)	7 (29.2)	3 (12.5)	2 (8.3)	2 (8.3)	-	24 (100.0)
	고	1 (5.9)	1 (5.9)	2 (11.8)	2 (11.8)	5 (29.4)	3 (17.6)	2 (11.8)	1 (5.9)	-	-	17 (100.0)
	전 체	16 (11.9)	8 (6.0)	7 (5.2)	6 (4.5)	19 (14.2)	41 (30.6)	23 (17.2)	6 (4.5)	8 (6.0)	-	134 (100.0)
3 순위	초	11 (12.6)	8 (9.2)	6 (6.9)	6 (6.9)	2 (2.3)	17 (19.5)	14 (16.1)	10 (11.5)	11 (12.6)	2 (2.3)	87 (100.0)
	중	5 (22.7)	4 (18.2)	1 (4.5)	5 (22.7)	-	2 (9.1)	4 (18.2)	-	1 (4.5)	-	22 (100.0)
	고	3 (17.6)	2 (11.8)	1 (5.9)	2 (11.8)	1 (5.9)	3 (17.6)	1 (5.9)	2 (11.8)	2 (11.8)	-	17 (100.0)
	전 체	19 (15.1)	14 (11.1)	8 (6.3)	13 (10.3)	3 (2.4)	22 (17.5)	19 (15.1)	12 (9.5)	14 (11.1)	2 (1.6)	126 (100.0)
순위		1	5	9	4	6	2	3	7	8	10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걱정되는 사항

구분		없음	통학	생활 환경	성적	진로	친구 관계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의 질	학원 등 사교육	기타	합계	χ^2
1 순 위	초	32 (28.1)	19 (16.7)	2 (1.8)	13 (11.4)	8 (7.0)	13 (11.4)	13 (11.4)	11 (9.6)	3 (2.6)	-	114 (100.0)	13.503
	중	6 (20.7)	3 (10.3)	-	6 (20.7)	2 (6.9)	2 (6.9)	5 (17.2)	5 (17.2)	-	-	29 (100.0)	
	고	5 (29.4)	1 (5.9)	-	6 (35.3)	1 (5.9)	2 (11.8)	1 (5.9)	1 (5.9)	-	-	17 (100.0)	
	전 체	43 (26.9)	23 (14.4)	2 (1.3)	25 (15.6)	11 (6.9)	17 (10.6)	19 (11.9)	17 (10.6)	3 (1.9)	-	160 (100.0)	
2 순 위	초	-	3 (3.9)	2 (2.6)	8 (10.5)	11 (14.5)	18 (23.7)	19 (25.0)	8 (10.5)	6 (7.9)	-	75 (100.0)	12.300
	중	-	2 (11.1)	-	1 (5.6)	3 (16.7)	2 (11.1)	7 (38.9)	3 (16.7)	-	-	18 (100.0)	
	고	-	-	-	2 (18.2)	4 (36.4)	1 (9.1)	2 (18.2)	1 (9.1)	1 (9.1)	-	11 (100.0)	
	전 체	-	5 (4.8)	2 (1.9)	11 (10.5)	18 (17.1)	21 (20.0)	28 (26.7)	12 (11.4)	7 (6.7)	1 (1.0)	105 (100.0)	
3 순 위	초	3 (4.3)	2 (2.9)	6 (8.6)	12 (17.1)	9 (12.9)	10 (14.3)	11 (15.7)	7 (10.0)	9 (12.9)	1 (1.4)	70 (100.0)	14.914
	중	-	1 (6.3)	3 (18.8)	2 (12.5)	4 (25.0)	-	1 (6.3)	4 (25.0)	1 (6.3)	-	16 (100.0)	
	고	1 (10.0)	-	-	2 (20.0)	2 (20.0)	1 (10.0)	-	2 (20.0)	2 (20.0)	-	10 (100.0)	
	전 체	4 (4.2)	3 (3.1)	9 (9.4)	16 (16.7)	15 (15.6)	11 (11.5)	12 (12.5)	13 (13.5)	12 (12.5)	1 (1.0)	96 (100.0)	
순위		1	6	9	3	7	4	2	5	8	10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타 지역 진학(전학) 의사 여부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초	45 (24.6)	138 (75.4)	183 (100.0)
중	27 (47.4)	30 (52.6)	57 (100.0)
고	43 (53.8)	37 (46.3)	80 (100.0)

○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그 이유

구분		통학	생활 환경	성적	진로	친구 관계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의 질	학원 등 사교육	기타	합계	χ ²
1 순 위	초	7 (15.6)	1 (2.2)	5 (11.1)	12 (26.7)	1 (2.2)	4 (8.9)	11 (24.4)	3 (6.7)	1 (2.2)	45 (100.0)	18.074
	중	2 (7.4)	1 (3.7)	2 (7.4)	9 (33.3)	1 (3.7)	3 (11.1)	9 (33.3)	-	-	27 (100.0)	
	고	1 (2.3)	4 (9.3)	3 (7.0)	19 (44.2)	-	6 (14.0)	10 (23.3)	-	-	43 (100.0)	
	전 체	10 (8.7)	6 (5.2)	10 (8.7)	40 (34.8)	2 (1.7)	13 (11.3)	30 (26.1)	3 (2.6)	1 (0.9)	115 (100)	
2 순 위	초	-	2 (5.7)	7 (20.0)	7 (20.0)	4 (11.4)	5 (14.3)	2 (5.7)	6 (17.1)	2 (5.7)	35 (100.0)	35.414 **
	중	-	-	9 (39.1)	1 (4.3)	3 (13.0)	8 (34.8)	1 (4.3)	1 (4.3)	(0.0)	23 (100.0)	
	고	-	10 (25.6)	3 (7.7)	8 (20.5)	4 (10.3)	9 (23.1)	5 (12.8)	-	-	39 (0.0)	
	전 체	-	12 (12.4)	19 (19.6)	16 (16.5)	11 (11.3)	22 (22.7)	8 (8.2)	7 (7.2)	2 (2.1)	97 (100)	
3 순 위	초	-	8 (26.7)	4 (13.3)	4 (13.3)	2 (6.7)	3 (10.0)	4 (13.3)	4 (13.3)	1 (3.3)	30 (100.0)	12.397
	중	-	3 (13.0)	3 (13.0)	6 (26.1)	1 (4.3)	3 (13.0)	3 (13.0)	2 (8.7)	2 (8.7)	23 (100.0)	
	고	-	8 (25.0)	2 (6.3)	5 (15.6)	1 (3.1)	9 (28.1)	6 (18.8)	1 (3.1)	-	32 (100.0)	
	전 체	-	19 (22.4)	9 (10.6)	15 (17.6)	4 (4.7)	15 (17.6)	13 (15.3)	7 (8.2)	3 (3.5)	85 (100.0)	
순위		6	5	4	1	7	3	2	8	9	9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경우, 걱정되는 사항

구분		없음	거주 할 집	통학	생활 환경	성적	진로	친구 관계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의 질	학원 등 사교육	합계	χ ²
1 순 위	초	5 (11.4)	7 (15.9)	8 (18.2)	-	1 (2.3)	-	14 (31.8)	5 (11.4)	1 (2.3)	3 (6.8)	44 (100.0)	41.449 ***
	중	5 (18.5)	3 (11.1)	9 (33.3)	-	7 (25.9)	-	3 (11.1)	-	-	-	27 (100.0)	
	고	9 (20.9)	12 (27.9)	13 (30.2)	-	5 (11.6)	2 (4.7)	1 (2.3)	1 (2.3)	-	-	43 (100.0)	
	전 체	19 (16.7)	22 (19.3)	30 (26.3)	-	13 (11.4)	2 (1.8)	18 (15.8)	6 (5.3)	1 (0.9)	3 (2.6)	114 (100.0)	

구분		없음	거주 할 집	통학	생활 환경	성적	진로	친구 관계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의 질	학원 등 사교육	합계	χ^2
2 순 위	초	1 (2.9)	9 (26.5)	2 (5.9)	1 (2.9)	2 (5.9)	(0.0)	8 (23.5)	5 (14.7)	2 (5.9)	4 (11.8)	34 (100.0)	16.844
	중	-	4 (17.4)	2 (8.7)	2 (8.7)	4 (17.4)	2 (8.7)	5 (21.7)	3 (13.0)	1 (4.3)	-	23 (100.0)	
	고	-	9 (31.0)	3 (10.3)	-	3 (10.3)	5 (17.2)	3 (10.3)	4 (13.8)	1 (3.4)	1 (3.4)	29 (100.0)	
	전 체	1 (1.2)	22 (25.6)	7 (8.1)	3 (3.5)	9 (10.5)	7 (8.1)	16 (18.6)	12 (14.0)	4 (4.7)	5 (5.8)	86 (100.0)	
3 순 위	초	1 (3.8)	5 (19.2)	3 (11.5)	1 (3.8)	4 (15.4)	1 (3.8)	5 (19.2)	2 (7.7)	2 (7.7)	2 (7.7)	26 (100.0)	11.368
	중	-	1 (5.6)	3 (16.7)	-	3 (16.7)	1 (5.6)	5 (27.8)	4 (22.2)	1 (5.6)	-	18 (100.0)	
	고	2 (7.4)	3 (11.1)	2 (7.4)	3 (11.1)	3 (11.1)	2 (7.4)	8 (29.6)	2 (7.4)	-	2 (7.4)	27 (100.0)	
	전 체	3 (4.2)	9 (12.7)	8 (11.3)	4 (5.6)	10 (14.1)	4 (5.6)	18 (25.4)	8 (11.3)	3 (4.2)	4 (5.6)	71 (100.0)	
순위		5	1	2	10	4	7	3	6	8	9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학교 혁신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집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다.	7 (2.2)	14 (4.4)	64 (20.0)	102 (31.9)	133 (41.6)	320 (100.0)	4.063 (0.993)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나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다.	6 (1.9)	10 (3.1)	65 (20.3)	110 (34.4)	129 (40.3)	320 (100.0)	4.081 (0.947)
나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모둠을 나누어 함께 공부한다.	26 (8.1)	37 (11.6)	84 (26.3)	94 (29.4)	79 (24.7)	320 (100.0)	3.509 (1.211)
초1~2 / 초3~4 / 초5~6 / 중1~3처럼 학년을 묶어서 반을 만든다.	65 (20.3)	60 (18.8)	93 (29.1)	51 (15.9)	51 (15.9)	320 (100.0)	2.884 (1.338)
2년 또는 3년 동안 같은 담임선생님과 공부한다(담임 연임제).	47 (14.7)	50 (15.6)	92 (28.8)	65 (20.3)	66 (20.6)	320 (100.0)	3.166 (1.323)
한 교실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함께 지도한다(교과 교사,	32 (10.0)	43 (13.4)	114 (35.6)	69 (21.6)	62 (19.4)	320 (100.0)	3.269 (1.207)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보조교사, 심리지원교사 등). 정해진 수업 대신 나만의 학습계획에 따라 개별학습을 한다.	26 (8.1)	43 (13.4)	106 (33.1)	82 (25.6)	63 (19.7)	320 (100.0)	3.353 (1.176)
매년 초,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나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18 (5.6)	38 (11.9)	111 (34.7)	94 (29.4)	59 (18.4)	320 (100.0)	3.431 (1.092)
매 학년 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	62 (19.4)	48 (15.0)	87 (27.2)	69 (21.6)	54 (16.9)	320 (100.0)	3.016 (1.349)
1년을 3개 학기(1, 2, 3학기)로 운영하고 1개 학기는 외부 기관 연계한 활동을 한다.	39 (12.2)	41 (12.8)	100 (31.3)	82 (25.6)	58 (18.1)	320 (100.0)	3.247 (1.241)

나. 학부모

○ 기본정보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226	(18.8)
	여		978	(81.2)
지역	경북	계 읍 면 동	935	(77.7)
			255	(27.3)
			680	(72.7)
	대구	계 읍 면 동	269	(22.3)
			32	(11.9)
			237	(88.1)
현 지역 거주기간	5년 미만		64	(5.3)
	5년 이상~10년 미만		197	(16.4)
	10년 이상~15년 미만		263	(21.8)
	15년 이상~20년 미만		168	(14.0)
	20년 이상		512	(42.5)
연령	~30세 미만		5	(0.4)
	30세 이상~35세 미만		98	(8.1)
	35세 이상~40세 미만		288	(23.9)
	40세 이상~45세 미만		436	(36.2)
	45세 이상~50세 미만		246	(20.4)
	50대 이상~		131	(10.9)

구분		빈도(비율)
학력	중졸 이하	5 (0.4)
	고졸	268 (22.3)
	대졸(2년제 이상)	835 (69.4)
	대학원 이상	96 (8.0)
자녀 수	1명	480 (39.9)
	2명	567 (47.1)
	3명	144 (12.0)
	4명 이상	13 (1.1)
첫째 자녀 학교급	초	571 (47.4)
	중	363 (30.1)
	고	270 (22.4)
합계		1,204 (100.0)

○ 사교육 여부

구분	사교육 받음	사교육 받지 않음	합계
초	455 (79.7)	116 (20.3)	571 (100.0)
중	289 (79.6)	74 (20.4)	363 (100.0)
고	210 (77.8)	60 (22.2)	270 (100.0)
합계	954 (79.2)	250 (20.8)	1,204 (100.0)

○ 사교육 비용

구분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합계
초	24 (5.3)	160 (35.2)	182 (40.0)	83 (18.2)	6 (1.3)	455 (100.0)
중	6 (2.1)	39 (13.5)	111 (38.4)	110 (38.1)	23 (8.0)	289 (100.0)
고	4 (1.9)	20 (9.5)	49 (23.3)	99 (47.1)	38 (18.1)	210 (100.0)
합계	34 (3.6)	219 (23.0)	342 (35.8)	292 (30.6)	67 (7.0)	954 (100.0)

○ 애향심

구분		전혀 아님	아님	그리함	매우 그리함	합계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을 좋아한다.	5년 미만	3 (4.7)	11 (17.2)	34 (53.1)	16 (25.0)	64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6 (3.0)	18 (9.1)	138 (70.1)	35 (17.8)	197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 (1.5)	26 (9.9)	164 (62.4)	69 (26.2)	263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4 (2.4)	17 (10.1)	95 (56.5)	52 (31.0)	168 (100.0)
	20년 이상	8 (1.6)	28 (5.5)	300 (58.6)	176 (34.4)	512 (100.0)
나는 우리 지역 마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알고 있다.	5년 미만	2 (3.1)	21 (32.8)	31 (48.4)	10 (15.6)	64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6 (3.0)	40 (20.3)	114 (57.9)	37 (18.8)	197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 (2.3)	51 (19.4)	152 (57.8)	54 (20.5)	263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 (4.8)	34 (20.2)	90 (53.6)	36 (21.4)	168 (100.0)
	20년 이상	9 (1.8)	59 (11.5)	280 (54.7)	164 (32.0)	512 (100.0)
앞으로도 지금 사는 지역(시·도)에 서 살고 알고 싶다.	5년 미만	8 (12.5)	29 (45.3)	20 (31.3)	7 (10.9)	64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0 (15.2)	77 (39.1)	64 (32.5)	26 (13.2)	197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9 (14.8)	124 (47.1)	61 (23.2)	39 (14.8)	263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9 (17.3)	55 (32.7)	54 (32.1)	30 (17.9)	168 (100.0)
	20년 이상	49 (9.6)	161 (31.4)	172 (33.6)	130 (25.4)	512 (100.0)
합계		25 (2.1)	100 (8.3)	731 (60.7)	348 (28.9)	1,204 (100.0)

○ 학교 교육 -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교실 식당 등)	-	-	87 (7.2)	397 (33.0)	720 (59.8)	1,204 (100.0)	4.526 (0.628)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	4 (0.3)	88 (7.3)	351 (29.2)	761 (63.2)	1,204 (100.0)	4.552 (0.643)
	학생용 기숙사	32 (2.7)	68 (5.6)	260 (21.6)	437 (36.3)	407 (33.8)	1,204 (100.0)	3.929 (1.007)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2 (0.2)	20 (1.7)	98 (8.1)	396 (32.9)	688 (57.1)	1,204 (100.0)	4.452 (0.728)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등)	-	1 (0.1)	89 (7.4)	329 (27.3)	785 (65.2)	1,204 (100.0)	4.576 (0.630)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등	1 (0.1)	2 (0.2)	119 (9.9)	446 (37.0)	636 (52.8)	1,204 (100.0)	4.424 (0.680)
교육 과정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3 (0.2)	9 (0.7)	169 (14.0)	531 (44.1)	492 (40.9)	1,204 (100.0)	4.246 (0.736)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3 (0.2)	18 (1.5)	217 (18.0)	455 (37.8)	511 (42.4)	1,204 (100.0)	4.207 (0.803)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이 개설	2 (0.2)	21 (1.7)	114 (9.5)	507 (42.1)	560 (46.5)	1,204 (100.0)	4.331 (0.732)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	-	4 (0.3)	111 (9.2)	438 (36.4)	651 (54.1)	1,204 (100.0)	4.442 (0.672)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1 (0.1)	25 (2.1)	210 (17.4)	505 (41.9)	463 (38.5)	1,204 (100.0)	4.166 (0.789)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	21 (1.7)	69 (5.7)	479 (39.8)	635 (52.7)	1,204 (100.0)	4.435 (0.682)
	실험, 실습, 조사, 발표, 사·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3 (0.2)	10 (0.8)	137 (11.4)	528 (43.9)	526 (43.7)	1,204 (100.0)	4.299 (0.719)
지역 사회 연계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0.3)	19 (1.6)	216 (17.9)	596 (49.5)	369 (30.6)	1,204 (100.0)	4.086 (0.756)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7 (0.6)	45 (3.7)	329 (27.3)	470 (39.0)	353 (29.3)	1,204 (100.0)	3.928 (0.874)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6 (0.5)	33 (2.7)	141 (11.7)	546 (45.3)	478 (39.7)	1,204 (100.0)	4.210 (0.791)
학 부 모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2 (0.2)	2 (0.2)	136 (11.3)	516 (42.9)	548 (45.5)	1,204 (100.0)	4.334 (0.692)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의 참 여 와 협 력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	4 (0.3)	142 (11.8)	497 (41.3)	561 (46.6)	1,204 (100.0)	4.341 (0.694)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5 (0.4)	40 (3.3)	154 (12.8)	566 (47.0)	439 (36.5)	1,204 (100.0)	4.158 (0.799)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2 (0.2)	4 (0.3)	98 (8.1)	452 (37.5)	648 (53.8)	1,204 (100.0)	4.445 (0.671)

○ 학교 교육 - 만족도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교실, 식당 등)	-	30 (2.5)	238 (19.8)	616 (51.2)	320 (26.6)	1,204 (100.0)	4.018 (0.751)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	40 (3.3)	272 (22.6)	531 (44.1)	361 (30.0)	1,204 (100.0)	4.007 (0.812)
	학생용 기숙사	-	67 (5.6)	532 (44.2)	424 (35.2)	181 (15.0)	1,204 (100.0)	3.597 (0.808)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 (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	120 (10.0)	351 (29.2)	479 (39.8)	254 (21.1)	1,204 (100.0)	3.720 (0.907)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등)	-	51 (4.2)	328 (27.2)	537 (44.6)	288 (23.9)	1,204 (100.0)	3.882 (0.817)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등	-	53 (4.4)	365 (30.3)	518 (43.0)	268 (22.3)	1,204 (100.0)	3.831 (0.821)
교육 과정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	48 (4.0)	398 (33.1)	544 (45.2)	214 (17.8)	1,204 (100.0)	3.767 (0.784)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	52 (4.3)	394 (32.7)	478 (39.7)	280 (23.3)	1,204 (100.0)	3.819 (0.837)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이 개설	-	84 (7.0)	347 (28.8)	544 (45.2)	229 (19.0)	1,204 (100.0)	3.762 (0.838)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	-	79 (6.6)	404 (33.6)	495 (41.1)	226 (18.8)	1,204 (100.0)	3.721 (0.842)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	102 (8.5)	426 (35.4)	431 (35.8)	245 (20.3)	1,204 (100.0)	3.680 (0.891)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	55 (4.6)	351 (29.2)	565 (46.9)	233 (19.4)	1,204 (100.0)	3.811 (0.795)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67 (5.6)	410 (34.1)	519 (43.1)	208 (17.3)	1,204 (100.0)	3.721 (0.812)
지역 사회 연계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 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70 (5.8)	473 (39.3)	489 (40.6)	172 (14.3)	1,204 (100.0)	3.634 (0.797)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77 (6.4)	469 (39.0)	416 (34.6)	242 (20.1)	1,204 (100.0)	3.684 (0.864)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	94 (7.8)	495 (41.1)	421 (35.0)	194 (16.1)	1,204 (100.0)	3.594 (0.849)
학부 모의 참여 와 협력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	41 (3.4)	413 (34.3)	522 (43.4)	228 (18.9)	1,204 (100.0)	3.778 (0.787)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	43 (3.6)	444 (36.9)	457 (38.0)	260 (21.6)	1,204 (100.0)	3.776 (0.823)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	56 (4.7)	452 (37.5)	504 (41.9)	192 (15.9)	1,204 (100.0)	3.691 (0.791)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	77 (6.4)	387 (32.1)	517 (42.9)	223 (18.5)	1,204 (100.0)	3.736 (0.833)

○ 현재 지역 진학 의사 여부

구분	있음	없음	합계
경북	594 (63.5)	341 (36.5)	935 (100.0)
대구	149 (55.4)	120 (44.6)	269 (100.0)
합계	743 (61.7)	461 (38.3)	1,204 (100.0)

○ 현재 지역 학교로 진학 시, 이유

구분		통학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 질	성적	진로	친구 관계	부모 직장	사 교 육	생활 환경	기타	합계	χ2
1 순 위	경북	311 (52.4)	48 (8.1)	76 (12.8)	20 (3.4)	46 (7.7)	25 (4.2)	55 (9.3)	1 (0.2)	8 (1.3)	4 (0.7)	594 (100.0)	11.473
	대구	85 (57.0)	12 (8.1)	28 (18.8)	4 (2.7)	6 (4.0)	6 (4.0)	8 (5.4)	-	-	-	149 (100.0)	
	전체	396 (53.3)	60 (8.1)	104 (14.0)	24 (3.2)	52 (7.0)	31 (4.2)	63 (8.5)	1 (0.1)	8 (1.1)	4 (0.5)	743 (100.0)	
2 순 위	경북	51 (9.5)	102 (19.0)	79 (14.7)	39 (7.2)	57 (10.6)	90 (16.7)	89 (16.5)	17 (3.2)	14 (2.6)	-	538 (100.0)	16.788*
	대구	11	29	19	24	16	23	19	7	-	-	148	

구분		통학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 질	성적	진로	친구 관계	부모 직장	사교 육	생활 환경	기타	합계	χ2
	구	(7.4)	(19.6)	(12.8)	(16.2)	(10.8)	(15.5)	(12.8)	(4.7)			(100.0)	
	전 체	62	131	98	63	73	113	108	24	14	-	686	
		(9.0)	(19.1)	(14.3)	(9.2)	(10.6)	(16.5)	(15.7)	(3.5)	(2.0)		(100.0)	
3 순 위	경 북	45	66	38	49	65	88	81	24	41	7	504	16.994*
	대 구	(8.9)	(13.1)	(7.5)	(9.7)	(12.9)	(17.5)	(16.1)	(4.8)	(8.1)	(1.4)	(100.0)	
		11	10	8	18	22	27	26	16	7	-	145	
	전 체	(7.6)	(6.9)	(5.5)	(12.4)	(15.2)	(18.6)	(17.9)	(11.0)	(4.8)		(100.0)	
		56	76	46	67	87	115	107	40	48	7	649	
			(8.6)	(11.7)	(7.1)	(10.3)	(13.4)	(17.7)	(16.5)	(6.2)	(7.4)	(1.1)	(100.0)
1			3	2	7	6	5	4	9	8	10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현 지역 학교로 진학 시, 걱정되는 사항

구분		없음	통학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 질	성적	진로	친구 관계	사교 육	생활 환경	기타	합계	χ2
1 순 위	경 북	69 (11.6)	120 (20.2)	73 (12.3)	155 (26.1)	25 (4.2)	87 (14.6)	23 (3.9)	26 (4.4)	15 (2.5)	1 (0.2)	594 (100.0)	58.020 ***
	대 구	54 (36.2)	25 (16.8)	14 (9.4)	29 (19.5)	9 (6.0)	9 (6.0)	3 (2.0)	4 (2.7)	2 (1.3)	-	149 (100.0)	
	전 체	123 (16.6)	145 (19.5)	87 (11.7)	184 (24.8)	34 (4.6)	96 (12.9)	26 (3.5)	30 (4.0)	17 (2.3)	1 (0.1)	743 (100.0)	
2 순 위	경 북	1 (0.2)	22 (4.5)	102 (20.9)	79 (16.2)	58 (11.9)	94 (19.3)	41 (8.4)	60 (12.3)	29 (6.0)	1 (0.2)	487 (100.0)	30.640 ***
	대 구	-	8 (8.4)	18 (18.9)	5 (5.3)	27 (28.4)	18 (18.9)	11 (11.6)	7 (7.4)	1 (1.1)	-	95 (100.0)	
	전 체	1 (0.2)	30 (5.2)	120 (20.6)	84 (14.4)	85 (14.6)	112 (19.2)	52 (8.9)	67 (11.5)	30 (5.2)	1 (0.2)	582 (100.0)	
3 순 위	경 북	8 (1.8)	19 (4.3)	67 (15.2)	38 (8.6)	52 (11.8)	100 (22.7)	43 (9.8)	51 (11.6)	61 (13.9)	1 (0.2)	440 (100.0)	29.478 **
	대 구	-	5 (5.4)	6 (6.5)	11 (11.8)	7 (7.5)	14 (15.1)	18 (19.4)	24 (25.8)	8 (8.6)	-	93 (100.0)	
	전 체	8 (1.5)	24 (4.5)	73 (13.7)	49 (9.2)	59 (11.1)	114 (21.4)	61 (11.4)	75 (14.1)	69 (12.9)	1 (0.2)	533 (100.0)	
순위		5	4	3	1	6	2	8	7	9	10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타 지역 진학(전학) 의사 여부

구분	있음	없음	합계
경북	307 (32.8)	628 (67.2)	935 (100.0)
대구	53 (19.7)	216 (80.3)	269 (100.0)
합계	360 (29.9)	844 (70.1)	1,204 (100.0)

○ 타 지역 진학(전학) 시, 이유

구분		통학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 질	성적	진로	친구 관계	사교 육	생활 환경	기타	합계	χ^2
1 순위	경 북	3 (1.0)	47 (15.3)	127 (41.4)	16 (5.2)	87 (28.3)	3 (1.0)	9 (2.9)	10 (3.3)	5 (1.6)	307 (100.0)	46.441***
	대 구	3 (5.7)	14 (26.4)	18 (34.0)	4 (7.5)	3 (5.7)	6 (11.3)	5 (9.4)	-	-	53 (100.0)	
	전 체	6 (1.7)	61 (16.9)	145 (40.3)	20 (5.6)	90 (25.0)	9 (2.5)	14 (3.9)	10 (2.8)	5 (1.4)	360 (100.0)	
2 순위	경 북	4 (1.5)	84 (30.8)	52 (19.0)	27 (9.9)	60 (22.0)	9 (3.3)	12 (4.4)	24 (8.8)	1 (0.4)	273 (100.0)	12.737
	대 구	-	10 (18.9)	8 (15.1)	10 (18.9)	15 (28.3)	2 (3.8)	6 (11.3)	2 (3.8)	-	53 (100.0)	
	전 체	4 (1.2)	94 (28.8)	60 (18.4)	37 (11.3)	75 (23.0)	11 (3.4)	18 (5.5)	26 (8.0)	1 (0.3)	326 (100.0)	
3 순위	경 북	10 (3.9)	46 (18.1)	24 (9.4)	28 (11.0)	56 (22.0)	12 (4.7)	36 (14.2)	41 (16.1)	1 (0.4)	254 (100.0)	13.557
	대 구	-	3 (6.1)	6 (12.2)	7 (14.3)	10 (20.4)	5 (10.2)	13 (26.5)	5 (10.2)	-	49 (100.0)	
	전 체	10 (3.3)	49 (16.2)	30 (9.9)	35 (11.6)	66 (21.8)	17 (5.6)	49 (16.2)	46 (15.2)	1 (0.3)	303 (100.0)	
순위		8	3	1	4	2	7	6	5	9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타 지역 진학(전학) 시, 걱정되는 사항

구분		없음	통학	학교 시설 환경	학교 교육 질	성적	진로	친구 관계	사교 육	거주 주거 공간	생활 환경	기타	합계	χ^2
1 순위	경 북	11 (3.6)	106 (34.5)	20 (6.5)	17 (5.5)	12 (3.9)	7 (2.3)	49 (16.0)	7 (2.3)	74 (24.1)	4 (1.3)	-	307 (1000)	35.713 ***
	대 구	10 (18.9)	19 (35.8)	5 (9.4)	3 (5.7)	6 (11.3)	-	2 (3.8)	1 (1.9)	5 (9.4)	2 (3.8)	-	53 (1000)	
	전 체	21 (5.8)	125 (34.7)	25 (6.9)	20 (5.6)	18 (5.0)	7 (1.9)	51 (14.2)	8 (2.2)	79 (21.9)	6 (1.7)	-	360 (1000)	
2 순위	경 북	-	26 (9.8)	29 (10.9)	18 (6.8)	28 (10.5)	23 (8.6)	53 (19.9)	16 (6.0)	72 (27.1)	1 (0.4)	-	266 (1000)	15.580*
	대 구	-	2 (4.7)	-	2 (4.7)	10 (23.3)	7 (16.3)	8 (18.6)	3 (7.0)	10 (23.3)	1 (2.3)	-	43 (1000)	
	전 체	-	28 (9.1)	29 (9.4)	20 (6.5)	38 (12.3)	30 (9.7)	61 (19.7)	19 (6.1)	82 (26.5)	2 (0.6)	-	309 (1000)	
3 순위	경 북	2 (0.8)	18 (7.6)	41 (17.3)	14 (5.9)	19 (8.0)	26 (11.0)	41 (17.3)	19 (8.0)	48 (20.3)	8 (3.4)	1 (0.4)	237 (1000)	36.768 ***
	대 구	-	3 (7.7)	1 (2.6)	5 (12.8)	-	-	8 (20.5)	3 (7.7)	10 (25.6)	9 (23.1)	-	39 (1000)	
	전 체	2 (0.7)	21 (7.6)	42 (15.2)	19 (6.9)	19 (6.9)	26 (9.4)	49 (17.8)	22 (8.0)	58 (21.0)	17 (6.2)	1 (0.4)	276 (1000)	
순위		9	1	4	6	5	7	3	8	2	10	11		

*p< 0.05, **p< 0.01, ***p< 0.001

순위별 점수: 1순위 5점, 2순위 3점, 3순위 1점 부여

○ 학교 혁신

구분	전혀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개인별 디지털 기기(태블릿, 노트북 등)를 배부하고 가정에서 학교 학습을 예측습한다.	65 (5.4)	104 (8.6)	277 (23.0)	466 (38.7)	292 (24.3)	1,204 (100.0)	3.678 (1.096)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개별 맞춤형 수업을 한다.	58 (4.8)	111 (9.2)	271 (22.5)	430 (35.7)	334 (27.7)	1,204 (100.0)	3.723 (1.109)
연령에 따른 학년 구분 없이 과목별 학생 수준별로 수업을 한다.	83 (6.9)	197 (16.4)	268 (22.3)	424 (35.2)	232 (19.3)	1,204 (100.0)	3.436 (1.2)
학제 유연화(무학년제, 유+초1~3학년 통합, 초4~6학년+중학교 통합 등) 한다.	126 (10.5)	284 (23.6)	293 (24.3)	320 (26.6)	181 (15.0)	1,204 (100.0)	3.121 (1.228)

구분	전혀 부동의	부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유아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 초등 저학년(1~3년) 통합하여 돌봄과 기초학습(한글해득 등)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한다.	91 (7.6)	151 (12.5)	318 (26.4)	422 (35.0)	222 (18.4)	1,204 (100.0)	3.443 (1.149)
학년군(초1,2/초3,4/초5,6/중1~3)으로 학급을 나누어 통합 진급제(현행 1년 단위 진급 → 2년 또는 3년 단위 진급)를 실시한다.	104 (8.6)	234 (19.4)	343 (28.5)	357 (29.7)	166 (13.8)	1,204 (100.0)	3.205 (1.161)
2~3년 담임 연임제를 실시한다.	95 (7.9)	221 (18.4)	343 (28.5)	379 (31.5)	166 (13.8)	1,204 (100.0)	3.249 (1.142)
1수업 다교사제 실시(교과 교사+보조교사+심리지원교사 등) 한다.	21 (1.7)	75 (6.2)	252 (20.9)	537 (44.6)	319 (26.5)	1,204 (100.0)	3.879 (0.931)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속도, 학업수준 등)에 따라 개별 학습을 한다.	31 (2.6)	77 (6.4)	269 (22.3)	538 (44.7)	289 (24.0)	1,204 (100.0)	3.811 (0.957)
매년 초에 학생 교사 부모님이 함께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협력한다.	17 (1.4)	60 (5.0)	277 (23.0)	552 (45.8)	298 (24.8)	1,204 (100.0)	3.875 (0.888)
학년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면 다음 학년으로 빠르게 진급하고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진급하지 못한다.	74 (6.1)	236 (19.6)	320 (26.6)	387 (32.1)	187 (15.5)	1,204 (100.0)	3.313 (1.135)
현행 1년 2학기제를 1년 3학기제로 운영(1개 학기는 외부기관 연계 활동 운영)한다.	74 (6.1)	179 (14.9)	344 (28.6)	447 (37.1)	160 (13.3)	1,204 (100.0)	3.365 (1.079)

다. 교사

○ 기본정보

구분		빈도(비율)
성별	남	133 (45.2)
	여	161 (54.8)
근무 지역	읍 면	157 (53.4)
	동	137 (46.6)
소속 학교급	초등학교	140 (47.6)
	중학교	83 (28.2)
	고등학교	58 (19.7)
	유치원 초등학교	6 (2.0)
	중학교 고등학교	5 (1.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0.7)
현재 직위	관리자	49 (16.7)
	보직 교사	138 (46.9)
	일반 교사	107 (36.4)
학력	학사	168 (57.1)
	석사(재학 졸업)	118 (40.1)
	박사(재학 졸업)	8 (2.7)
교직 경력	5년 미만	35 (11.9)
	5년 이상~15년 미만	79 (26.9)
	15년 이상~25년 미만	108 (36.7)
	25년 이상~35년 미만	61 (20.7)
	35년 이상	11 (3.7)
농어촌 학교 근무 경력	없음	66 (22.4)
	3년 미만	42 (14.3)
	3년 이상 5년 미만	47 (16.0)
	5년 이상 10년 미만	61 (20.7)
	10년 이상	78 (26.5)
	합계	294 (100.0)

○ 학교 교육-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교실 식당 등)	-	-	4 (1.4)	45 (15.3)	245 (83.3)	294 (100.0)	4.820 (0.419)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	1 (0.3)	7 (2.4)	66 (22.4)	220 (74.8)	294 (100.0)	4.718 (0.521)
	학생용 기숙사	41 (13.9)	40 (13.6)	61 (20.7)	63 (21.4)	89 (30.3)	294 (100.0)	3.405 (1.401)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수단(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2 (0.7)	1 (0.3)	21 (7.1)	66 (22.4)	204 (69.4)	294 (100.0)	4.595 (0.698)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	-	9 (3.1)	70 (23.8)	215 (73.1)	294 (100.0)	4.701 (0.521)
	학교의 심라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	4 (1.4)	1 (0.3)	24 (8.2)	70 (23.8)	195 (66.3)	294 (100.0)	4.534 (0.773)
교육 과정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1 (0.3)	3 (1.0)	44 (15.0)	85 (28.9)	161 (54.8)	294 (100.0)	4.367 (0.797)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4 (1.4)	16 (5.4)	61 (20.7)	106 (36.1)	107 (36.4)	294 (100.0)	4.007 (0.956)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1 (0.3)	14 (4.8)	71 (24.1)	88 (29.9)	120 (40.8)	294 (100.0)	4.061 (0.933)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창업 준비 등)	-	10 (3.4)	33 (11.2)	103 (35.0)	148 (50.3)	294 (100.0)	4.323 (0.806)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1 (0.3)	2 (0.7)	46 (15.6)	109 (37.1)	136 (46.3)	294 (100.0)	4.282 (0.774)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	2 (0.7)	19 (6.5)	85 (28.9)	188 (63.9)	294 (100.0)	4.561 (0.646)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	1 (0.3)	28 (9.5)	98 (33.3)	167 (56.8)	294 (100.0)	4.466 (0.679)
지역 사회 연계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0.3)	7 (2.4)	49 (16.7)	121 (41.2)	116 (39.5)	294 (100.0)	4.170 (0.813)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4 (1.4)	10 (3.4)	90 (30.6)	103 (35.0)	87 (29.6)	294 (100.0)	3.881 (0.922)

구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4 (1.4)	5 (1.7)	49 (16.7)	97 (33.0)	139 (47.3)	294 (100.0)	4.231 (0.883)
교원 및 학교 풍토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	9 (3.1)	14 (4.8)	36 (12.2)	90 (30.6)	145 (49.3)	294 (100.0)	4.184 (1.025)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	1 (0.3)	5 (1.7)	33 (11.2)	102 (34.7)	153 (52.0)	294 (100.0)	4.364 (0.775)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	1 (0.3)	5 (1.7)	43 (14.6)	245 (83.3)	294 (100.0)	4.810 (0.458)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	6 (2.0)	19 (6.5)	73 (24.8)	103 (35.0)	93 (31.6)	294 (100.0)	3.878 (0.998)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1 (0.3)	-	11 (3.7)	55 (18.7)	227 (77.2)	294 (100.0)	4.724 (0.562)
학부 모의 참여 와 협력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1 (0.3)	2 (0.7)	29 (9.9)	110 (37.4)	152 (51.7)	294 (100.0)	4.395 (0.721)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1 (0.3)	3 (1.0)	25 (8.5)	94 (32.0)	171 (58.2)	294 (100.0)	4.466 (0.723)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5 (1.7)	9 (3.1)	64 (21.8)	94 (32.0)	122 (41.5)	294 (100.0)	4.085 (0.951)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	-	16 (5.4)	46 (15.6)	232 (78.9)	294 (100.0)	4.735 (0.552)

○ 학교 교육-만족도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교실 식당 등)	1 (0.3)	10 (3.4)	43 (14.6)	102 (34.7)	138 (46.9)	294 (100.0)	4.245 (0.851)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1 (0.3)	23 (7.8)	61 (20.7)	97 (33.0)	112 (38.1)	294 (100.0)	4.007 (0.967)
	학생용 기숙사	15 (5.1)	9 (3.1)	148 (50.3)	61 (20.7)	61 (20.7)	294 (100.0)	3.490 (1.018)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과	10 (3.4)	13 (4.4)	65 (22.1)	103 (35.0)	103 (35.0)	294 (100.0)	3.939 (1.027)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수단(스쿨버스, 교통지원 등)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2 (0.7)	21 (7.1)	50 (17.0)	107 (36.4)	114 (38.8)	294 (100.0)	4.054 (0.951)
	학교의 심라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	11 (3.7)	22 (7.5)	54 (18.4)	94 (32.0)	113 (38.4)	294 (100.0)	3.939 (1.097)
교육 과정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	8 (2.7)	67 (22.8)	113 (38.4)	106 (36.1)	294 (100.0)	4.078 (0.833)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1 (0.3)	16 (5.4)	69 (23.5)	113 (38.4)	95 (32.3)	294 (100.0)	3.969 (0.899)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1 (0.3)	22 (7.5)	71 (24.1)	110 (37.4)	90 (30.6)	294 (100.0)	3.905 (0.934)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진로 탐색, 대학 진학 취창업 준비 등)	2 (0.7)	17 (5.8)	69 (23.5)	107 (36.4)	99 (33.7)	294 (100.0)	3.966 (0.930)
	1인1예 1인1체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6 (2.0)	15 (5.1)	72 (24.5)	99 (33.7)	102 (34.7)	294 (100.0)	3.939 (0.990)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한 학력 향상	3 (1.0)	5 (1.7)	59 (20.1)	107 (36.4)	120 (40.8)	294 (100.0)	4.143 (0.867)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4 (1.4)	12 (4.1)	59 (20.1)	114 (38.8)	105 (35.7)	294 (100.0)	4.034 (0.919)
지역 사회 연계	지역 기업 기관 지역사회전문가(농업 예술 등)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3.1)	12 (4.1)	103 (35.0)	93 (31.6)	77 (26.2)	294 (100.0)	3.738 (0.993)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8 (2.7)	16 (5.4)	107 (36.4)	90 (30.6)	73 (24.8)	294 (100.0)	3.694 (0.992)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8 (2.7)	14 (4.8)	88 (29.9)	97 (33.0)	87 (29.6)	294 (100.0)	3.820 (1.001)
교원 및 학교 풍토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산점 등) 확대	17 (5.8)	23 (7.8)	97 (33.0)	92 (31.3)	65 (22.1)	294 (100.0)	3.561 (1.094)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	5 (1.7)	16 (5.4)	70 (23.8)	110 (37.4)	93 (31.6)	294 (100.0)	3.918 (0.960)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31 (10.5)	51 (17.3)	67 (22.8)	72 (24.5)	73 (24.8)	294 (100.0)	3.357 (1.308)

구분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학부 모의 참여 와 협력	수업보조교사(1교실 2교사 등) 배치	18 (6.1)	36 (12.2)	112 (38.1)	80 (27.2)	48 (16.3)	294 (100.0)	3.354 (1.082)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11 (3.7)	12 (4.1)	53 (18.0)	115 (39.1)	103 (35.0)	294 (100.0)	3.976 (1.017)
	학생의 재능을 지원하고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7 (2.4)	18 (6.1)	97 (33.0)	106 (36.1)	66 (22.4)	294 (100.0)	3.701 (0.963)
	학습지원대상 학생(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11 (3.7)	28 (9.5)	90 (30.6)	92 (31.3)	73 (24.8)	294 (100.0)	3.639 (1.071)
학부 모의 참여 와 협력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8 (2.7)	16 (5.4)	111 (37.8)	102 (34.7)	57 (19.4)	294 (100.0)	3.626 (0.947)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14 (4.8)	42 (14.3)	85 (28.9)	87 (29.6)	66 (22.4)	294 (100.0)	3.507 (1.129)

○ 학교 풍토에 대한 학교급별 교사 집단간 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교원 및 학교 풍토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초	4.04	1.150	3.491*	-	3.44	1.107	2.920*	-
		중	4.48	0.786			3.84	1.006		
		고	4.09	0.960			3.53	1.143		
		통합운영 전체	4.23	0.927			3.23	1.013		
		전체	4.18	1.025			3.56	1.094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컨설팅 실시	초	4.16	0.870	6.594***	-	3.89	0.930	3.385*	-
		중	4.60	0.562			4.17	0.935		
		고	4.48	0.731			3.71	0.991		
		통합운영 전체	4.46	0.519			3.62	1.044		
		전체	4.36	0.775			3.92	0.960		
	행정업무 간소화 등 근무 처우 개선	초	4.86	0.383	1.945	-	3.21	1.351	1.786	-
		중	4.81	0.454			3.63	1.227		
		고	4.71	0.593			3.34	1.305		
		통합운영 전체	4.69	0.480			3.23	1.235		
		전체	4.81	0.458			3.36	1.308		
	수업 보조교사 (1교실 2교사 등) 배치	초	3.79	1.089	1.675	-	3.41	1.059	1.564	-
		중	4.08	0.844			3.40	1.136		
		고	3.81	0.926			3.28	1.056		
		통합운영 전체	3.77	1.092			2.77	1.013		
		전체	3.88	0.998			3.35	1.082		
	민주적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초	4.71	0.627	1.087	-	3.98	1.014	1.432	-
		중	4.81	0.426			4.12	0.916		
		고	4.64	0.583			3.84	1.089		
		통합운영 전체	4.69	0.480			3.62	1.261		
		전체	4.72	0.562			3.98	1.017		

*p< 0.05, **p< 0.01, ***p< 0.001

*일부 항목은 집단 간 유의차가 확인되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의 주요한 역할(중복 응답)

구분	마을과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과 이해 제고	정주여건 강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지역 사회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연계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형성	기타	합계
학교의 주요한 역할	106 (21.8)	156 (32.0)	104 (21.4)	120 (24.6)	0 (0.0)	1 (0.2)	487 (100.0)

○ 정주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중복 응답)

구분	경직된 학교 문화	과다한 행정 업무	관련 정보 및 홍보 부족	교육청 등과 소통 부족	부적절한 외부 간섭 (학부모 민원 등)	인력 부족	지역 사회, 교육청 등과 소통 부족	지역 사회 인프라 부족	통학 편의성	합계
정주학교 운영 시 어려운 점	28 (8.5)	152 (46.2)	22 (6.7)	10 (3.0)	60 (18.2)	167 (50.8)	28 (8.5)	162 (49.2)	111 (33.7)	740 (100.0)

○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사항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복식학급 폐지	9 (3.1)	20 (6.8)	69 (23.5)	75 (25.5)	121 (41.2)	294 (100.0)	3.949 (1.093)
학제 유연화(무학년제, 유·초1~3학년 통합, 초4~6학년+중학교 통합 등)	42 (14.3)	77 (26.2)	79 (26.9)	48 (16.3)	48 (16.3)	294 (100.0)	2.942 (1.285)
유아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 초등 저학년(1~3년) 통합하여 돌봄과 기초학습(한글해득 등)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38 (12.9)	50 (17.0)	78 (26.5)	79 (26.9)	49 (16.7)	294 (100.0)	3.173 (1.264)
통합 진급제(현행 1년 단위 진급 → 2년 또는 3년 단위 진급)	44 (15.0)	87 (29.6)	84 (28.6)	42 (14.3)	37 (12.6)	294 (100.0)	2.799 (1.227)
담임 연임제	34 (11.6)	51 (17.3)	102 (34.7)	68 (23.1)	39 (13.3)	294 (100.0)	3.092 (1.181)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속도, 학업수준 등에 따른 개별 학습)	11 (3.7)	24 (8.2)	76 (25.9)	110 (37.4)	73 (24.8)	294 (100.0)	3.714 (1.045)

구분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피드백	20 (6.8)	37 (12.6)	82 (27.9)	96 (32.7)	59 (20.1)	294 (100.0)	3.466 (1.147)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내외부 평가	20 (6.8)	25 (8.5)	98 (33.3)	93 (31.6)	58 (19.7)	294 (100.0)	3.490 (1.108)
학생의 학습 성취에 따라 속진 유급의 활성화	27 (9.2)	41 (13.9)	89 (30.3)	79 (26.9)	58 (19.7)	294 (100.0)	3.340 (1.206)
연 3학기제 운영(1개 학기는 외부기관 연계 활동 운영)	32 (10.9)	65 (22.1)	96 (32.7)	69 (23.5)	32 (10.9)	294 (100.0)	3.014 (1.154)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혁신	13 (4.4)	24 (8.2)	79 (26.9)	111 (37.8)	67 (22.8)	294 (100.0)	3.663 (1.054)
도농 간 해외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환 학습 제도	16 (5.4)	36 (12.2)	93 (31.6)	92 (31.3)	57 (19.4)	294 (100.0)	3.469 (1.101)
교사의 복수자격제 학교급 간 복수자격 지원	31 (10.5)	43 (14.6)	94 (32.0)	79 (26.9)	47 (16.0)	294 (100.0)	3.231 (1.195)
교사의 복수자격제 전공교과 복수자격 지원	23 (7.8)	47 (16.0)	93 (31.6)	78 (26.5)	53 (18.0)	294 (100.0)	3.310 (1.170)
1수업 다교사제 실시(교과 교사+보조교사+심리지원교사 등)	22 (7.5)	28 (9.5)	89 (30.3)	89 (30.3)	66 (22.4)	294 (100.0)	3.507 (1.159)
학교 본부와 여러 개의 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직 행정직은 본부에 배치하는 운영 방식	16 (5.4)	29 (9.9)	88 (29.9)	92 (31.3)	69 (23.5)	294 (100.0)	3.575 (1.114)

○ 학교 혁신에 대한 학교급별 교사 집단간 분석

구분		M	SD	F	Scheffe
복식학급 폐지	초	4.15	1.072	3.570**	-
	중	3.86	1.072		
	고	3.69	1.030		
	통합운영	3.54	1.391		
	전체	3.95	1.093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내외부 평가	초	3.44	1.20	0.514	-
	중	3.60	1.07		
	고	3.41	0.97		
	통합운영	3.62	0.96		
	전체	3.49	1.11		
교과 영역의 재구조화 장기 핵심 프로젝트 등 교육과정 혁신	초	3.59	1.125	2.441	-
	중	3.86	0.926		

구분		M	SD	F	Scheffe
도농 간 해외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환 학습 제도	고	3.48	1.030	2.205	-
	통합운영	4.08	0.954		
	전체	3.66	1.054		
	초	3.36	1.151		
교사의 복수자격제 : 학교급 간 복수자격 지원	중	3.72	1.016	5.891***	-
	고	3.43	1.061		
	통합운영	3.23	1.092		
	전체	3.47	1.101		
교사의 복수자격제 : 전공교과 복수자격 지원	초	2.96	1.263	7.580***	-
	중	3.63	1.044		
	고	3.33	1.082		
	통합운영	3.23	1.166		
학교 본부와 여러 개의 분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직 행정직은 본부에 배치하는 운영 방식	전체	3.23	1.195	1.523	-
	초	3.02	1.196		
	중	3.76	1.054		
	고	3.40	1.042		
	통합운영	3.15	1.281		
	전체	3.31	1.170		
	초	3.54	1.214		
	중	3.77	1.063		
	고	3.47	0.903		
	통합운영	3.23	1.092		
	전체	3.57	1.114		

*p< 0.05, **p< 0.01, ***p< 0.001

*일부 항목은 집단 간 유의차가 확인되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정주학교 운영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90 (30.6)	24 (8.3)	24 (8.8)	138 (16.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및 집행절차 간소화	85 (28.9)	79 (27.3)	25 (9.2)	189 (22.1)
학생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36 (12.2)	40 (13.8)	46 (16.8)	122 (14.3)
교원인사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 (예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교사 전출 유예 업무전담교사 지원 등)	27 (9.2)	36 (12.5)	50 (18.3)	113 (13.2)
학교 안팎 교사학습공동체 및 컨설팅 지원	6 (2.0)	17 (5.9)	18 (6.6)	41 (4.8)
학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8 (2.7)	18 (6.2)	17 (6.2)	43 (5.0)
지역사회와의 연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1 (3.7)	26 (9.0)	30 (11.0)	67 (7.8)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학부모의 학교 이해도 제고	5 (1.7)	19 (6.6)	22 (8.1)	46 (5.4)
교권 보호 및 민원 전담 대응팀 운영 활성화	24 (8.2)	29 (10.0)	37 (13.6)	90 (10.5)
기타	2 (0.7)	1 (0.3)	4 (1.5)	7 (0.8)
합계	294 (100.0)	289 (100.0)	273 (100.0)	856 (100.0)

○ 정주학교 근무 시, 인센티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승진 가산점	66 (22.4)	20 (6.9)	18 (6.6)	104 (12.2)
이동 가산점	49 (16.7)	55 (19.0)	19 (7.0)	123 (14.4)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91 (31.0)	51 (17.6)	41 (15.1)	183 (21.4)
교사 추가 배치 (업무 전담 교사, 수업 협력 교사 등)	43 (14.6)	79 (27.3)	46 (17.0)	168 (19.7)
수업 협력 교사의 추가 배치	4 (1.4)	10 (3.5)	9 (3.3)	23 (2.7)
각종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우선 선정	1 (0.3)	7 (2.4)	6 (2.2)	14 (1.6)
각종 연수 및 컨설팅 우선 배치	10 (3.4)	24 (8.3)	29 (10.7)	63 (7.4)
지역 전보 유예	10 (3.4)	34 (11.8)	67 (24.7)	111 (13.0)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예산 사용 절차 간소화	18 (6.1)	8 (2.8)	34 (12.5)	60 (7.0)
교원을 위한 관사 제공	2 (0.7)	1 (0.3)	2 (0.7)	5 (0.6)
기타	2 (0.7)	1 (0.3)	2 (0.7)	5 (0.6)
합계	294 (100.0)	289 (100.0)	271 (100.0)	864 (100.0)

라. 집단간 분석

○ 학교 교육에 대한 집단간 분석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교육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	학생(a)	4.44	0.732	33.307***	-	4.15	0.862	11.391***	-
		학부모(b)	4.53	0.628			4.02	0.751		
		교사(c)	4.82	0.419			4.24	0.851		
		전체	4.56	0.630			4.08	0.792		
	학생들의 학습 지원 공간 (교과교실제, 실험실, 도서관, 정독실 등)	학생(a)	4.36	0.704	24.056***	-	4.20	0.867	7.019***	-
		학부모(b)	4.55	0.643			4.01	0.812		
		교사(c)	4.72	0.521			4.01	0.967		
		전체	4.55	0.644			4.04	0.851		
	학생용 기숙사	학생(a)	3.02	1.448	87.771***	-	3.03	1.353	43.943***	-
		학부모(b)	3.93	1.007			3.60	0.808		
		교사(c)	3.40	1.401			3.49	1.018		
		전체	3.68	1.220			3.48	0.982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수단	학생(a)	3.69	1.206	122.345***	-	3.53	1.251	12.652***	-
		학부모(b)	4.45	0.728			3.72	0.907		
		교사(c)	4.60	0.698			3.94	1.027		
		전체	4.34	0.882			3.72	1.002		
	학교 내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체계(담당 인력 확보)	학생(a)	4.41	0.724	17.064***	-	4.15	0.856	15.238***	-
		학부모(b)	4.58	0.630			3.88	0.817		
		교사(c)	4.70	0.521			4.05	0.951		
		전체	4.57	0.638			3.96	0.854		
	학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교사 배치	학생(a)	4.02	0.982	44.411***	-	4.08	0.915	10.245***	-
		학부모(b)	4.42	0.680			3.83	0.821		
		교사(c)	4.53	0.773			3.94	1.097		
		전체	4.37	0.774			3.89	0.892		
교육 과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 (다양성·다문화, 생태환경교육 등)	학생(a)	3.83	0.954	43.014***	-	3.79	0.955	17.075***	-
		학부모(b)	4.25	0.736			3.77	0.784		
		교사(c)	4.37	0.797			4.08	0.833		
		전체	4.19	0.806			3.82	0.831		
	원격 수업 공동 교육과정, 학년 통합 수업, 블록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운영 방식	학생(a)	3.78	0.974	32.899***	-	3.72	1.003	6.481**	-
		학부모(b)	4.21	0.803			3.82	0.837		
		교사(c)	4.01	0.956			3.97	0.899		
		전체	4.10	0.876			3.83	0.881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 개설	학생(a)	4.02	0.965	26.097***	-	3.69	1.084	4.664**	-
		학부모(b)	4.33	0.732			3.76	0.838		
		교사(c)	4.06	0.933			3.90	0.934		
		전체	4.23	0.823			3.77	0.903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	학생(a)	4.01	0.983	40.797***	-	3.77	0.999	9.043***	-
		학부모(b)	4.44	0.672			3.72	0.842		
		교사(c)	4.32	0.806			3.97	0.930		
		전체	4.35	0.774			3.77	0.890		
	다양한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1인1예, 1인1체)	학생(a)	4.05	0.934	6.422**	c>b>a	3.93	1.061	14.752***	c>a>b
		학부모(b)	4.17	0.789			3.68	0.891		
		교사(c)	4.28	0.774			3.94	0.990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오케스트라, 밴드부, 스포츠팀 등	전체	4.16	0.816			3.77	0.947		
		학생(a)	4.00	0.935	56.916***	-	3.76	1.003	20.810***	-
		학부모(b)	4.44	0.682			3.81	0.795		
		교사(c)	4.56	0.646			4.14	0.867		
		전체	4.38	0.750			3.85	0.856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실험 실습 조사 발표, AI·디지털 활용, 프로젝트 등)	학생(a)	3.82	0.929	66.755***	-	3.77	1.019	15.377***	-
		학부모(b)	4.30	0.719			3.72	0.812		
		교사(c)	4.47	0.679			4.03	0.919		
		전체	4.24	0.781			3.78	0.876		
	지역 기업 기관 지역 사회 전문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a)	3.79	0.953	21.533***	-	3.65	1.022	1.696	-
		학부모(b)	4.09	0.756			3.63	0.797		
		교사(c)	4.17	0.813			3.74	0.993		
		전체	4.05	0.812			3.65	0.874		
지역 사회 연계	지역 축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학생(a)	3.81	0.961	2.162	-	3.69	1.046	0.015	-
		학부모(b)	3.93	0.874			3.68	0.864		
		교사(c)	3.88	0.922			3.69	0.992		
		전체	3.90	0.898			3.69	0.919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t	Scheffe	M	SD	t	Scheffe
지역 사회 연계	지역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학부모	4.21	0.791			3.59	0.849		
		교사	4.23	0.883	0.161	-	3.82	1.001	15.550***	-
		전체	4.21	0.809			3.64	0.885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학생의 재능 지원 진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	학부모	4.33	0.692	1.787	-	3.78	0.787	2.090	-
		교사	4.39	0.721			3.70	0.963		
		전체	4.35	0.698			3.76	0.825		
	학습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등) 지원 협력	학부모	4.34	0.694	7.502*	-	3.78	0.823	5.704	-
		교사	4.47	0.723			3.64	1.071		
		전체	4.37	0.701			3.75	0.879		
	학생 "개별화 학습 계획" 수립에 관한 학부모의 참여	학부모	4.16	0.799	1.813	-	3.69	0.791	1.478	-
		교사	4.09	0.951			3.63	0.947		
		전체	4.14	0.831			3.68	0.824		
	학생의 문제 행동 수정 등에 관한 학부모의 협력	학부모	4.45	0.671	46.98***	-	3.74	0.833	15.363***	-
		교사	4.73	0.552			3.51	1.129		
		전체	4.50	0.659			3.69	0.903		

*p< 0.05, **p< 0.01, ***p< 0.001

*일부 항목은 집단 간 유의차가 확인되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제도적 학교 혁신에 대한 집단간 분석

구분		M	SD	t	Games-Howell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집에서 공부	학생	4.06	0.993	5.689***	-
	학부모	3.68	1.096		
	전체	3.76	1.086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나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운영	학생	4.08	0.947	5.284***	-
	학부모	3.72	1.109		
	전체	3.80	1.086		
나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모둠을 나누어 함께 공부	학생	3.51	1.211	0.988	-
	학부모	3.44	1.172		
	전체	3.45	1.180		
학제 유연화(무학년제, 유+초1~3학년 통합, 초4~6학년+중학교 통합 등)	학부모	3.12	1.228	2.221*	-
	교사	2.94	1.285		
	전체	3.09	1.241		
유아학교(유치원 어린이집)와 초등 저학년(1~3년) 통합하여 돌봄과 기초학습(한글해득 등)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학부모	3.44	1.149	3.529***	-
	교사	3.17	1.264		
	전체	3.39	1.177		
구분		M	SD	F	Games-Howell
통합 진급제 (현행 1년 단위 진급 → 2년 또는 3년 단위 진급)	학생(a)	2.88	1.338	18.703***	b>a, c
	학부모(b)	3.21	1.161		
	교사(c)	2.80	1.227		
	전체	3.08	1.216		
담임 연임제	학생(a)	3.17	1.323	2.355	-
	학부모(b)	3.25	1.142		
	교사(c)	3.09	1.181		
	전체	3.21	1.183		
1수업 다교사제 (교과 교사+보조교사+심리지원교사 등)	학생(a)	3.27	1.207	51.911***	b, c>a
	학부모(b)	3.88	0.931		
	교사(c)	3.51	1.159		
	전체	3.71	1.052		
표준화된 수업 대신 학생의 학습계획(속도, 학업수준 등)에 따른 개별 학습	학생(a)	3.35	1.176	25.866***	b, c>a
	학부모(b)	3.81	0.957		
	교사(c)	3.71	1.045		
	전체	3.72	1.027		
매년 초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 피드백	학생(a)	3.43	1.092	39.429***	b>a, c
	학부모(b)	3.88	0.888		
	교사(c)	3.47	1.147		
	전체	3.73	0.992		
학생의 학습 성취에 따라 속진, 유급의 활성화	학생(a)	3.02	1.349	8.645***	b, c>a
	학부모(b)	3.31	1.135		
	교사(c)	3.34	1.206		
	전체	3.27	1.192		
연 3학기제 운영 (1개 학기는 외부기관 연계 활동 운영)	학생(a)	3.25	1.241	11.887***	a, b>c
	학부모(b)	3.37	1.079		
	교사(c)	3.01	1.154		
	전체	3.29	1.128		

*p< 0.05, **p< 0.01, ***p< 0.001

*일부 항목은 집단 간 유의차가 확인되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025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발행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상진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탑재: <http://s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